

한국 해상세력 형성과 변천

해양사의 관점에서 본 우리 역사

강봉룡(목포대학교 교수) 지음



재단법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한국 해상세력 형성과 변천

발행처 · 재단법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발행인 · 김재철

지은이 · 강봉룡

발행일 · 2004년 12월 31일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1 한국무역센터 1803호

공급처 · 청년정신

비매품

한국 해상세력 형성과 변천

울산 반구대 암각화나 조개무지 유적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민족은 일찍이 바다와 강을 삶의 터전으로 하여 한반도에 정착하였으며, 중국 일본 등 이웃 국가와도 바다를 통하여 교류하며 발전해 왔다.

장보고 대사를 정점으로 한 신라상인들은 발전된 조선술과 항해술을 이용하여 동아시아의 해상권과 교역을 주도하였다. 마치 밀라노 베네치아 등 이태리 반도의 도시국가와 이슬람 상인들이 지중해와 중동 서남아시아에서 행한 교역활동을 동아시아에서 우리가 수행한 것이다.

우리 역사상 이때처럼 활발한 해상진출과 교역활동이 있었던 시기는 달리 찾아 볼 수가 없다.

장보고 대사가 비명에 가면서 그가 열어 놓았던 바닷길이 오랫동안 굳게 닫히고 바다로 나가려던 우리민족의 기상도 막혔다. 이후 우리 민족은 바다를 멀리하고 내륙에 움츠리고 살아온 결과 세계사의 흐름에 뒤쳐져 근세 100년 수난의 시대를 겪어야만 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물리친 거북선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신라 때부터 뛰어난 조선술이 남해안 주민들에 의해 전해져 내려온 결과이다.

또한 오늘날 우리가 해양대국, 무역대국으로서 세계로 뻗어 나가는 것도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장보고 대사의 정기가 우리의 맥박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21세기는 정보화 세계화로 대표되고 또한 해양의 시대라고 한다.

해양화란 좁은 땅에 웅크리지 않고 바다를 국토로 삼아 세계로 미래로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해양화란 바로 세계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동북아 중심에 놓여 있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의 해양여건 또한 천연항구로서 조건뿐만 아니라 풍부한 수산자원과 아름다운 다도해 풍광은 해양부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환경을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활용하여 동북아의 물류 중심지로, 또한 발전된 IT기술을 통해 세계 비즈니스 중심지로 부상하는 것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또한 세계화에 부응하는 전략 모색과 아울러 대외개방, 포용, 창의력으로 대표되는 해양문화와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이다.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에서는 장보고 대사의 진취적이고 대외지향적인 사고와 해상경영 업적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고 우리 민족의 해상활동에 관한 사료 등을 발굴, 정리하여 연구보고서나 사료집으로 발간함으

로써, 해양학술활동이 활성화되고 진취적이고 대외지향적인 해양문화가 온 국민에게 널리 확산되고 심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평소 해양사 연구, 특히 서남해지역의 해상활동에 관하여 많은 조사와 연구를 해온 업적을 바탕으로 이토록 훌륭한 연구서가 발행되도록 애쓰신 강봉룡 박사와 관계인사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05. 12

재단법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재철

한국의 해양세력, 그 발자취를 따라가며

바다를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가 있다. 열린 공간으로 보는 관점과 장애물로 보는 관점이다. 바다를 열린 공간으로 볼 때, 바다 공간은 우리에게 미지의 세계에 대한 한없는 상상력과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 모험심과 진취성을 불러일으키며,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이해하게 하고, 우리 문화만이 최고라는 문화 자폐주의(自閉主義)에 빠져들지 않게 한다. 우리가 가지는 문화의 폭과 역량은 자연스럽게 확대된다.

반면 바다를 장애물로 여기게 되면, 바다 공간은 우리를 다른 세계와 단절시킨다. 그래서 자기가 최고라는 ‘우물 안 개구리’ 식의 자존주의(自尊主義)에 쉽게 빠져들고, 모험심과 진취성이 소진된다. 문화 획일주의가 판치고, 사회는 경직성을 띠기 마련이다.

현재 우리는 바다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한 마디로 바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부정적이다. 이런 인식은 대중가요 노랫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저 바다가 없었다면...”이나 “바다가 육지라면...”과 같은 노랫말에는 바다 때문에 사랑하는 연인을 만날 수 없고 바다 때문에 쓰러린 이별의 슬픔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부정적 인식이 담겨 있다. 바다는 곧 장애물이라는 인식이다.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의 노랫말에는 아예 바다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바람처럼 왔다가 야속하게 떠나가는 배를 남성에 비유하고, 그런 배가

드나드는 항구를 여성에 비유하여, 남녀의 애달픈 이별을 노래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서 바다는 남녀를 갈라놓는 무심하고 원망스럽기까지 한 공간, 알 수 없는 먼 피안의 세계쯤으로 치부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바다에 대해 언급조차 하고 싶겠는가?

한갓 가요 노랫말을 가지고서 지나치게 논리를 비약시킨다고 할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이왕 말을 꺼냈으니 여기서 바다에 대한 서양인의 생각까지 비교해 보자.

서양인들은 배를 남성이 아닌 여성에 비유한다. 대신 남성은 바다에 비유한다. 자연스레 바다와 배의 만남은 남성과 여성의 대등한 만남으로 간주된다. 그들은 바다를 배들이 노니는 친숙한 낭만의 공간으로 여긴다. 돛에 가득 바람을 머금고 풍만한 곡선의 자태를 드러내며 바다의 너른 가슴위를 질주하는 범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열광한다. 그들의 인식 속에 바다는 배가 떠나는 허망한 공간이 아니라, 언제까지나 배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에게서는 바다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부지불식간에 바다를 장애물로, 낯설고 험상궂은 공간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왜 생겨난 것일까? 동양인과 서양인의 기질과 성향이 다른 탓일까? 그렇다면 동양인에게는 바다를 장애물로 보게 하는 유전인자라도 있다는 말인가? 같은 동양인 중에서 일본인은 어떤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그러나 단언컨대 바다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기질과 성향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단지 각기 다른 사회의 차별적인 역사 전개 과정에서 파생된 문화 현상의 차이일 따름이다. 따라서 이런 인식의 차이가 생기게 된 연원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이에 대한 역사적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해양사의 굴절과 의의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도 바다를 장애물이 아닌 열린 공간으로 받아들였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다. 예를 들어 삼국시대에 바다 주도권을 둘러싸고 생사를 건 쟁투를 벌였던 것이라든지, 통일신라 후기에 장보고가 동아시아 해상무역을 주도하였던 것 등이 그 예이다. 해양 패권을 장악한 왕건이 후삼국 쟁패에서 최후 승리자가 되었으며, 왕건이 건국한 고려가 해양강국의 면모를 보였던 것 역시 마찬가지다. 당시 바다는 개방된 공간이었으며, 진취적 도전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바다를 장애물로 간주하고 사람들의 접근을 금지해 버렸다. 발단은 고려 말 삼별초 세력의 몰락에서 시작되었으며, 조선시대에 들어와 더욱 심화되었다. 이는 강력한 국가정책으로까지 자리 잡았다. 섬에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한 ‘공도정책(空島政策)’과 해양활동을 전면적

으로 금지시킨 '해금정책(海禁政策)' 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바다를 멀리 하고 천시하는 풍조에 곧 익숙해져 버렸다. 우리의 사회 구조와 심성 구조는 철저하게 '개방의 코드' 에서 '폐쇄의 코드' 로 바뀌어 갔다. 14세기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서양의 역사는 이와 정반대였다. 15세기 이후에 서양인들은 '대항해의 시대' 를 힘차게 열어 나갔다. 해양을 향한 진취적 도전이 이어졌고, '지리상의 발견', 더 나아가 산업혁명이라는 쾌거를 이루어 냈다. '대서양의 시대' 를 불러왔다. 결국 근대화를 선도한 서양인의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심성은 바다에 대한 도전정신에서 말미암은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공도정책과 해금정책을 전격적으로 채택한 조선의 사정은 어떠했는가? 국가의 문호인 해양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쇄국(鎖國)의 길을 재촉하였다. 그리하여 육로를 통한 중국문화 일변도의 편향적 문화 수용에 안주하여, 문화의 다양성보다는 획일성을, 개방성보다는 폐쇄성을, 진취성보다는 자존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기울어갔다. 이는 문화의 일관성과 자기 완결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바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소중화' 라는 배타적 자존의식을 배양하고 쇄국정책이라는 극단적 폐쇄주의를 낳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조선시대 이래 해양을 장애물로 생각하고 육지를 위주로 생각해온 폐쇄적 역사의식은 오늘날에도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의식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는 그간 우리의 역사학계가 해양사에 대한 관심을 거의 가지지 못

했던 배경이기도 하다.

이제 열린 마음으로 우리의 해양사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고려 이전에 해양의 문이 항상 열려 있었고, 그 해양의 문을 통해서 해외를 향한 도전적인 진출과 다양한 문물의 수용이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재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들어와 해양의 문을 폐쇄하고 스스로 고립되는 정책을 쓰게 된 이유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연속선상에서 세계화·개방화의 화두가 특히 강조되는 21세기의 이 시대를 맞아 공격적이고 과감한 해양 개방정책을 추진해갈 역동적인 역사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에너지는 오늘날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인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를 구현할 힘찬 동력이 될 것이다.

이 책의 의의와 한계

최근 들어 역사학계 일각에서 해양사에 대한 관심이 미미하게나마 일어나고 있는 것은 펍 다행스런 일이다. 이제 이런 소중한 관심의 싹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지에 대해 실천적 ‘공론’을 모아야 할 때이다. 이 책은 그러한 ‘공론’을 위한 조그만 디딤돌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심정에서 쓴 것이다.

필자는 2002년 초두에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

회) 측으로부터 <한국 해상세력 형성과 변천>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써 달라는 제안을 받고서, 하나의 논문으로 작성하기에는 주제가 너무 크다고 판단하여 난색을 표명하였다. 그러자 기념사업회 측은 곧 저서의 형태로 집필해 줄 수는 없겠는가 하는 수정 제안을 해왔고, 고심 끝에 2년의 기간을 주면 한번 시도해 보겠노라고 응낙을 하고 말았다. 평소에 해양사에 관심은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 방면의 초보 연구자에 불과했던 필자로서는 큰일을 저지른 셈이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일을 저질러야만 비로소 실행에 옮길 줄 아는 필자의 나태한 성품에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다.

마침 필자는 이미 2000년 5월부터 기념사업회에서 매월 간행하는 <해상왕장보고 N·E·W>에 '한국해양사의 흐름'이라는 주제로 글을 연재해오고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연재를 마무리지면서 책으로 묶어보겠다는 '야심'을 품고 있었으므로, 기념사업회 측의 제안에 응한 이후엔 연재 글의 내용을 그 주제에 맞추어 구성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 해양사에 관한 논문을 10여 편이나 발표하는 망외(望外)의 성과도 거두었다. 지금 와서 살펴보면 하나같이 부족하다 못해 무모한 글들이지만, 미개척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무언가 작업을 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무척 행복했었다고 회상된다. 모두 기념사업회 측의 덕택이라 여기며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다.

이 책은 3년 동안 <해상왕장보고 N·E·W>에 연재한 글들을 중심으

로, 체재(體裁)를 새로 잡고 내용을 가다듬은 것이다. 따라서 전문서적이
라기보다는 대중적 성격이 강하다. 또한 이번 과제로 주어진 주제의 핵심
은 ‘해상세력’ 이지만, 이 책에서는 ‘해상세력’의 문제만을 전문(專論)하
지 못하고 ‘해상세력’의 문제를 포함한 한국해양사의 큰 흐름을 파악하
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혹여 제기될지도 모를 주제의식이 빛나갔다는 비
판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하고자 한다. 또한 핵심 주제가 ‘해상세력’인
만큼 해양활동을 전면 금지시키기 이전의 고려시대까지를 이 책 서술의
근간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음도 아울러 밝혀 둔다. 다만 총론에서 한국해
양사를 시대구분하고 큰 흐름을 개설하여 보완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자 한다. 총론에서는 한국해양사의 흐름에 관한 개설과 필자의 기본 관점
이 제시될 것이다.

이 책은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다. 다만 건너야 할 미개척 분야
에 거칠게 던져놓은 아주 조그만 하나의 징검다리 정도로 여겨주었으면
한다. 조만간 지금까지 발표한 한국해양사 관련 논문들을 정리하여, 무모
함을 무릅쓰고 조그만 전문서적 출판에도 감히 도전해 보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것으로써, 이 책에 포함되어 있을 부족함에 대한 변명 아닌 변명으
로 삼고자 한다.

발간사 ... 4

책 머리에 ... 7

제1장 총론 해양사의 관점에서 본 우리 역사

1. 태동기연안항로의 시대: 고조선~삼국시대 ... 22
2. 융성기황해 횡단항로의 시대: 통일신라~고려 ... 25
3. 침체기공도(空島)·해금(海禁)의 시대: 조선시대 ... 29
4. 부흥기태평양의 시대: 해방 이후~현재 진행 ... 32

제2장 동북아시아 연안항로의 개통과 해양문화

1. 동북아시아 국제 연안항로의 개통과 고조선 ... 36
2. 한반도 서남해지역의 고대 해양문화와 해상세력 ... 40
3. 연안항로를 통한 문화교류의 상징 인물, 왕인 ... 44
4. 건국신화에 나타난 해양국가, 가야 ... 49
5. 신라를 변화시킨 가야 해양문화의 힘 ... 53

제3장 연안항로의 경색과 황해 횡단항로의 개척

1. 새로운 해양강국으로 떠오른 백제 ... 58
2. 고구려의 대반격과 백제의 좌절 ... 62
3. 백제의 '반고구려 국제연대' 구축 노력과 시련 ... 67

4. 백제의 해양강국 재건과 또 한 번의 좌절 ... 72
5. 한강 하류 점령 후에 신라가 겪은 시련 ... 76
6. 황해 횡단항로의 개척과 기벌포 해전 ... 80
7. 신라 문무왕 · 신문왕의 대일본 해양 방어 의식 ... 83

제4장 장보고 선단의 대두와 동아시아 해상무역

1. 장보고 선단의 대두 배경 ... 88
2. 재당 신라인 장보고의 입신 ... 94
3. 장보고의 귀국과 청해진 건설 ... 101
4. 청해진대사 장보고의 대당 · 대일 무역 ... 106
5. 장보고와 동아시아의 지성들 ... 110
6. 장보고는 반역자인가 ... 113
7. 장보고 사후의 청해진과 청해진 사람들 ... 120
8. 장보고가 남긴 해양사적 유산: 청자와 국제항로 ... 124

제5장 능창 · 견훤 · 왕건의 해양 쟁패와 해상세력

1. '포스트 장보고' 를 꿈꾼 풍운아 능창 ... 130
2. 견훤과 순천의 해상세력 박영규 · 김충의 만남 ... 134
3. 견훤의 서남해지역 해상세력 장악 시도와 실패 ... 138
4. 서남해지역에서 벌인 왕건과 견훤의 해양 쟁패 ... 142

5. 왕건의 승리 배경(1): 왕건의 뿌리는 해상세력 ... 147
6. 왕건의 승리 배경(2): 결혼을 통한 서남해 접근 ... 151
7. 왕건의 승리 배경(3): 고승의 포섭을 통한 서남해 접근 ... 156

제6장 해양강국 고려의 해상무역과 해양력

1. ‘해양강국’ 고려의 연원을 찾아서 ... 162
2. 10세기 전반 동아시아의 해양활동 ... 166
3. 해상무역의 중심축으로 떠오른 고려 ... 172
4. 성황을 이룬 고려와 송 사이의 민간 교역활동 ... 177
5. 고려와 송의 항구와 바닷길 ... 182
6. 고려 말 최씨무인정권의 대몽항쟁과 바닷길 ... 187
7. 삼별초가 진도에 건설한 해양왕국 ... 192

제7장 해상세력의 퇴락과 왜구의 침탈

1. 삼별초 세력의 진도·제주도 해상항전과 몰락 ... 200
2. 고려 말의 공도 조치와 해상세력의 몰락 ... 205
3. 조선의 공도 및 해금정책 ... 210
4. 조선의 대일 교역통제와 크고 작은 왜변들 ... 215

제8장 임진왜란과 전후 사정

1. 임진왜란 전야와 이순신 ... 222
2. 해전에서 이순신이 거둔 빛나는 승리, 승리! ... 227
3. 이순신의 옥사와 칠천량 해전의 참패 ... 233
4. 절망에서 이끌어낸 두 해전의 승리: 명량해전과 노량해전 ... 238
5. 해양방어에 무심한 국왕, 버림받은 해양영웅 ... 243
6. 일본과의 국교 재개와 조선통신사 ... 249

책을 마무리하며 ... 254

제1장 총론
해양사의 관점에서 본 우리 역사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면, 서북 방면은 육지로서 중국 대륙과 연결되어 있고 남동 방면은 바다로서 일본 열도와 통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위치 때문에 적어도 전근대기의 한반도에는 해양문화와 대륙문화가 착종(錯綜)하는 양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중국 대륙과 일본 열도 사이에 문화 교류를 매개해 주는 문화 메신저(Messenger)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그런데 해양과 대륙의 두 문화가 착종하는 양상과 문화 메신저로서의 역할은 시대에 따라 달랐다. 해양이 중시되는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해양을 금지하고 육지만을 중시하는 시대도 있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육지 중심적인 경향이 강하고, 해양은 역사 인식의 대상에서 배제해온 감이 있다. 이제 이러한 역사 인식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여기에서는 주로 해양사의 관점에서 우리 역사의 큰 흐름을 개설해 보기로 한다.

역사의 흐름을 실감나게 파악하기 위해서 흔히 몇 차례의 큰 변화가 일어난 시점을 중시하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시대를 구분해보곤 한다. 해양사의 관점에서 우리 역사를 시대 구분한다면 어떻게 될까? 필자는 크게 네 개의 시대, 즉 ① 태동기 ② 융성기 ③ 침체기 ④ 부흥기로 구분하여 한국해양사의 주요 마디들로 삼기로 한다.

먼저 ‘태동기’는 동아시아 연안항로가 개척되고 연안항로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삼국시대 이전을 말한다. ‘융성기’는 이제까지

는 간헐적으로만 활용되던 황해 횡단항로가 상시적인 항로로 본격 활용되면서 동아시아 해양활동에 일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통일신라·고려 시대를 일컫는다. 그리고 ‘침체기’는 공도정책(空島政策)과 해금정책(海禁政策)을 강하게 밀어붙여 해양활동을 크게 위축시킨 조선시대를 지칭하고, ‘부흥기’란 해방과 함께 해양의 문호가 다시 열린 이후 ‘대개방의 시대’로 가고 있는 오늘의 21세기 이 시점까지를 일컫는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해양사는 국가의 정책과 성향에 따라서 부침(浮沈)을 거듭해왔다고 할 수 있다. 국가가 개방정책을 취하고 개방적인 성향을 나타낸 시대엔 해양활동이 활성화되었으며, 폐쇄적인 정책과 성향을 취한 시대엔 해양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던 것이다. 이제 위에서 제시한 시대구분을 통해서 한국해양사의 큰 흐름을 따라가 보기로 하자.

1. 태동기[연안항로의 시대: 고조선~삼국시대]

1) 동아시아 연안항로

삼국시대까지 동아시아 문물교류는 주로 연안항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동아시아 연안항로란 중국 동해안 변을 따라 북상(北上)하여 발해만을 거쳐서 압록강 입구에 이르고, 여기에서 한반도의 서해안을 따라 남행(南行)하여 서남해지역에 이르며, 여기에서 다시 방향을 바꾸어 남해안을 따라 동행(東行)하다가 현해탄을 건너 일본 열도에 이르는 항로를 말한다. 이 항로가 언제부터 동아시아 문물교류의 주요 통로로 이용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고인돌이 중국의 절강성 해안지역과 요동반도 일대, 그리고 한반도의 대동강 유역과 서남해지역, 더 나아가 규슈 등지에 분포하는 것으로 볼 때, 멀리 청동기시대 이전부터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 항로는 기원전 3세기 경에 진시황의 명을 받아 불로초를 구하러 떠난 서복(徐福) 일행이 택한 항로였고, 고조선의 준왕(準王)이 위만(衛滿)에게 쫓겨 망명처를 구해 남으로 내려갈 때 택한 항로이기도 했다. 고조선 멸망 후에는 낙랑·대방군이 중국 대륙과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의 물류(物流)를 주도할 때 이 항로를 활용하였고, 낙랑·대방군이 축출된 4세기 이후에는 백제가 이 항로를 통해서 동아시아 물류를 주도하였다. 왕인이 일본에 건너가 선진 문화를 전파할 때도 이 항로를 통하였다.

2) 연안항로의 경색과 시련

이 시기에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은 연안항로를 통해서 문물을 교류함으로써 경제적 번영을 실현하였다. 그런데 이 항로를 차단하여 이익을 독점하려는 세력이 대두하면서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지정학적인 조건 때문에, 갈등 상황은 주로 한반도에서 나타났다.

먼저 대동강 하류의 평양 일대에서 일어난 고조선은, 연안항로를 통해 동아시아의 문화중개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성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고조선은 점점 중국의 위세에 영합하지 않고 대륙으로의 진출을 시도하였고, 연안항로를 차단하여 중국과 남쪽의 한(韓)·왜(倭) 사이의 문물교류를 독점적으로 중개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그 결과 고조선은 불만을 품은 한(漢)의 침략을 받아 '위만조선' 단계에 멸망 당하고 말았다. 이후 중국의 한(漢)·위(魏)·진(晉) 왕조들은 고조선의 중심에 설치한 낙랑군·대방군과 같은 군을 통하여 연안항로를 장악하고 동아시아 문물교류를 주도하였다.

4세기 전반에 이르러 낙랑군·대방군이 축출되면서 연안항로의 주도권은 한강 하류지역에서 일어난 백제에게 넘어갔다. 백제는 특히 4세기 후반경의 근초고왕 대에 중국 대륙과 한반도, 그리고 일본 열도의 요소요소에 해양기지를 건설하여, 이를 연결하는 해양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동아시아 문물교류를 주도함으로써 일대 해양강국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백제의 성장은, 압록강 중류의 집안(集安)에서 일어난 고구려가 대륙 세력과 힘겨운 대결을 벌이느라 해양에 대한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는 사이에 성취한 것이었다.

그러나 4세기 말에 이르러 고구려에 광개토왕이라는 걸출한 왕이 등장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광개토왕은 대륙 진출을 대대적으로 성취해감

과 동시에 백제에 대한 공략에도 나섰다. 그리하여 백제가 일방적으로 주도해오던 동아시아 문물교류에 일대 타격을 가했다. 그러자 이제까지 백제의 해양 주도권에 대해 위기감을 느껴오던 신라가 고구려의 백제 공략에 동조하게 되면서 한반도의 정황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어갔다.

광개토왕의 뒤를 이은 장수왕은 한술 더 떴다. 427년에 수도를 대동강 하류의 평양으로 옮겨서, 남하정책을 내외에 표방하고 백제의 해양 주도권을 침탈하는 일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로써 동아시아 연안항로는 당분간 경색(梗塞) 국면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백제는 물론 중국 남북조와 가야 및 왜 등이 받아야 했던 경제적 타격은 심대하였다. 사정이 이에 이르자 고구려에 동조하던 신라까지도 고구려의 과격한 처사에 반발하기에 이르렀다.

동아시아 국제사회는 고구려를 회유 혹은 압박함으로써, 연안항로를 다시 개통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다각도로 벌여나갔다. 그러나 끝내 고구려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 오히려 고구려는 475년에 한강 하류에 위치한 백제 수도 한성을 점령함으로써, 연안항로의 경색을 더욱 조장하였다. 도읍지를 금강 유역의 공주로 옮긴 백제는 반고구려 국제여론을 환기시키면서 재기를 노렸으나 여의치 못했다.

연안항로 재개통의 돌파구는 6세기 중반에 이르러 백제가 신라와 군사 동맹을 맺고 고구려로부터 한성을 되찾으면서 비로소 마련되는 듯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신라가 백제를 공격하여 한성을 강점함으로써, 연안항로 재개통의 희망은 다시금 좌절되었다. 백제는 적대국이던 고구려와 제휴하여 신라를 공격하였고, 왜는 백제와 맹방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신라를 적대하였다. 이로써 한성을 강점한 신라는 연안항로의 주도권을 행사하기는커녕,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처지에 빠지고 말았다. 연안항로 재개통의 희망은 다시 멀어져갔다.

2. 융성기[황해 횡단항로의 시대: 통일신라~고려]

1) '황해 횡단항로'의 개통

동아시아의 나라들은 대부분 국제 문물교류의 핵심 통로인 연안항로의 재개통을 갈구하였지만, 연안항로의 중심에 위치한 한반도에서 전개된 정치·군사적 대립구도는 이를 점점 불가능하게 하였다. 한반도 내의 정치·군사적 대립구도는 평화적으로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오직 전쟁만이 최후의 해결책이라는 험악한 분위기가 팽배해져 갔다. 그러던 차에 신라가 당(唐)에 접근하여 648년에 나·당 군사동맹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는 '신라-당'의 국가군(國家群)과 '고구려-백제-왜'의 국가군 사이에 '동아시아 대전(大戰)'으로 폭발하게 한 기폭제가 되었다.

'동아시아 대전'의 과정에서 당의 수군은 상상을 초월하는 황해 횡단 작전을 감행하였다. 660년 당의 소정방(蘇定方) 장군은 대규모 수군 선단을 이끌고 산동반도를 떠나 황해를 횡단하여 덕적도를 거쳐 금강 하구의 미자진(오늘의 군산)에 상륙하였던 것이다. 황해 횡단작전의 위력은 대단했다. 결국 나·당 연합군은 백제와 고구려를 멸하였고, 백제를 돕기 위해 참전한 왜군도 백촌강(오늘의 동진강) 앞 바다의 해전에서 격퇴시켰다. 당은 내친 김에 신라까지도 정복하려 하였지만, 백제와 고구려 유민을 포섭하여 결사적으로 항전한 신라의 기세에 눌러 물러났다. 그 원인을 좀더 엄밀히 분석하면, 황해를 횡단하여 기벌포(오늘의 장항)에 상륙하려던 당의 원군을 신라가 성공적으로 저지했던 것이 당의 신라 정복 포기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당군의 미자진 상륙을 저지하지 못한 것이 백제 멸망의 직접적 원인이

었고, 반대로 당의 기벌포 상륙을 저지했던 것이 신라 승리의 원인이었다고 한다면, 해양방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소정방의 황해 횡단작전 감행은 황해 횡단항로가 연안항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전쟁의 승패를 떠나 동아시아 해양사의 일대 사건으로 기록해도 좋을 것이다. 통일기에 황해 횡단항로는 일상화되었고 다양한 코스도 개발되었다. 남양만에서 산동반도에 이르는 코스, 웅진반도에서 산동반도에 이르는 코스, 서남해지역에서 흑산도를 거쳐 절강 지역이나 산동반도에 이르는 코스 등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절강 지역에서 일본 오도 열도를 거쳐 일본 규슈에 이르는 코스도 개척되어 활성화되었다.

2) 통일신라시대 황해 횡단항로의 위력과 장보고

‘동아시아 대전’을 통해 한반도에는 신라만이 남게 되었다. 676년의 일이다. 그간 삼국 사이의 상쟁(相爭)이 동아시아 연안항로 경색의 원인이었는데, 신라의 삼국통일로 항로 경색의 원인은 사라진 셈이었다. 여기에 다 전쟁의 와중에서 ‘황해 횡단항로’의 상시적 활용 가능성까지 타진되었으니, 이제 동아시아는 해양을 통한 문물교류의 전성기를 맞이하기만 하면 되는 듯했다.

그러나 동아시아는 당분간 전쟁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다. 신라는 통일은 달성했지만, 그 전쟁의 과정에서 일본 및 당과도 일전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이들을 적으로 돌리고 다시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전쟁은 끝났지만 동아시아의 냉전 기류는 당분간 지속되었고, 항로는 개점 휴업상태에 들어갔다.

8세기에 접어들어 동아시아에 해빙무드가 조성되기 시작하면서, 당·신라·일본 사이에 공무역(公貿易)이 활짝 꽃피었다. 기존의 연안항로는 물론 황해 횡단항로도 크게 활성화되었다. 8세기에 동아시아 삼국은 공히 문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는 황해 횡단항로의 활성화와 문물교류의 급진적 성과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8세기 후반에 이르러 사정은 다시 악화되었다. 신라·당·일본의 삼국에 공통적으로 정국의 불안정과 함께 지방세력의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가 주도하던 공무역이 쇠퇴하고 불법적인 사무역(私貿易)이 기세를 떨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해양질서가 무너지고 해적이 난무하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사무역마저도 위축되었다. 바로 이 즈음에 동아시아의 해양질서를 회복하고 문물교역의 활성화에 앞장선 이가 바로 장보고였다.

8세기 말에 당에 건너가 재당(在唐) 신라인을 결집하여 동아시아 최고 무역인으로 성장한 장보고는, 828년에 귀국하여 그의 고향인 완도에 청해진(淸海鎮)을 설치하였다. 청해진 설치의 신라 조정이 서남해지역에 대한 군사·행정권을 장보고에게 공인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장보고는 청해진을 중심으로 서남해지역의 해상세력을 결집하여 해적을 소탕하면서 동아시아 국제무역을 주도해갔다. 중국 동해안변의 신라인사회를 결집하고 일본 규슈 지역에 친분세력을 확보하여, 연안항로와 횡단항로를 통한 동아시아 해양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해상 무역활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해 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장보고의 해상 무역활동은 당시 아라비아·인도·동남아를 거쳐 중국의 광주(廣州) 및 양주(揚州) 일대까지 이어지던 국제 해상무역로(남해로(南海路))를 한반도와 일본 열도에까지 연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3) 해양강국 고려의 해상활동

841년에 장보고가 암살 당하는 충격적 사건이 일어나면서, 동아시아 해상무역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장보고의 직접적 영향하에 있던 서남해지역의 해상세력은 구심점을 상실한 채, 각자 개별적으로 소규모 해양활동을 전개할 뿐이었다.

그러다 장보고가 죽은 지 반세기만인 9세기 말경에 서남해지역의 해상세력은 압해도의 능창(能昌)을 중심으로 다시 집결되기 시작했다. 신라 조정은 이들이 독립세력화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서남해방수군'을 결성하여 견훤(甄萱)을 비장(裨將)으로 삼아 파견하였다. 10세기 초에는 왕건(王建)이 태봉국왕 궁예(弓裔)의 명을 받아 수군장군(水軍將軍)의 직함을 띠고 서남해지역 공략에 나섰다. 당대의 최고 영웅들이 서남해지역의 해양 패권을 둘러싸고 일대 결전을 벌이게 되었던 것이다.

먼저 견훤과 서남해지역 해상세력 사이에 격돌이 벌어졌다. 견훤의 공략은 매우 위압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지역 해상세력은 사력을 다해 이에 저항하였다. 왕건은 그 틈새를 노렸다. 그는 유력 호족의 딸과 결혼하거나 고승을 설득함으로써 서남해지역 해상세력을 평화적으로 포섭하는 전략을 폈다. 이런 전략은 주효해서 왕건은 결국 견훤과 능창과의 경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서남해지역을 자신의 지지기반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본래 예성강·임진강 유역 해상세력에서 입신한 왕건이 서남해지역의 해상세력마저 자신의 지지기반으로 확보하게 되었으니, 그가 건국한 고려 왕조가 해양국가를 표방하고 개방적인 해양정책을 추진한 것은 아주 자연스런 일이었다. 고려와 송 사이에 황해 횡단항로를 통한 공무역과 사무역이 모두 크게 활성화되었고, 예성강 하구에 위치한 벽란도는 국제 무역항구로서 번영을 누렸다. 오늘날 우리 국호가 'Korea'라 불리게 된 연

원을 따져보면, 이렇듯 고려가 왕성한 해양활동으로 세계에 명성을 떨쳤던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의 막강한 해양력은 몽고의 침략에 저항했던 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유라시아 대륙을 석권하여 전무후무한 대제국을 건설한 몽고 제국의 집요한 침략을 받아, 약소국 고려가 무려 40여 년간이나 버텼다는 것은, 그 자체로 놀라운 저력을 발휘한 셈이다. 그것도 강화도로 천도하고 진도와 제주도로 옮기면서 몽고에 저항했다는 사실은 고려의 저력이 다름 아닌 해양력에서 나온 것임을 보여준다.

1256년에 몽고 주력부대가 바닷길의 요충지에 위치한 압해도를 공격하다가 패퇴 당했던 것, 1270년에 고려 국왕이 몽고에 항복하여 개경으로 환도해 버리자 삼별초(三別抄)세력이 1,000여 척의 배를 거느리고 진도 용장산성으로 옮겨가 또 하나의 고려 왕조를 건설하여 처절한 저항을 전개했던 것, 그리고 제주도로 옮겨가 최후의 항전을 펼쳤던 것 등은 막강한 고려 해양력의 불꽃이 마지막으로 타오른 것이었다.

3. 침체기[공도(空島) · 해금(海禁)의 시대: 조선시대]

1) 공도(空島) 조치와 해상세력의 몰락

마지막까지 몽고와의 항쟁을 주도해오던 삼별초세력이 몰락하면서, 몽고와 고려정부는 삼별초세력에 동조했던 서남해지역 해상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 돌입하였다. 그들이 채택한 가장 극단적인 탄압책은 다름

아닌 공도(空島)의 조치였다. 이는 해상세력의 근거지인 섬에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함으로써 해상세력을 발본색원하려는 조치였다.

그간 우리는 고려 말의 공도 조치에 대해, 왜구의 침탈로부터 섬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해 왔다. 그러나 공도 조치의 실제적 발단은 몽고에 저항한 해상세력을 탄압하려는 의도에서 비롯하였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왜구가 본격적으로 들끓게 된 것은, 공도 조치 이후에 텅 비어버린 섬을 징검다리 삼아 침탈을 감행하면서부터라는 사실을 살필 필요가 있다.

공도 조치의 위력은 대단하였다. 막강했던 해상세력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고 퇴락하였고, 바다는 힘의 공백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로써 고려 국가를 떠받쳐오던 해상세력은 무력화되어 갔고, 해양활동을 통해 발전해온 해양국가 고려는 무기력하게 국가 멸망의 그 날을 기다리는 초라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2) 조선의 해금정책(海禁政策)과 그 결과

조선왕조는 고려 말에 단행한 단순한 공도(空島)의 ‘조치’를 국가의 정책, 즉 공도정책(空島政策)으로 ‘승격’시켰다. 일시적인 조치를 넘어서 섬에서 살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관(官)의 허가 없이 섬에 들어가 살게 되면 법에 의거해 처벌하는 정책의 차원으로 강도를 높였던 것이다.

여기에 조선왕조는 해양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명(明)의 해금정책(海禁政策)까지 추수(追隨)하여 해상세력은 더 이상 설자리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왜구의 창궐은 더욱 심해졌고, 그 피해는 섬과 연안 지역뿐 아니라 내륙 깊숙이까지 미쳤다. 이에 태종과 세종 연간에는 왜구가 내륙지

역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신해방체제(新海防體制)’가 구축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연안의 요충지에 수군진(水軍鎭)을 설치하고 봉수제(烽燧制)를 정비하여 육지만을 사수하고자 했던 방어체제였다. 곧 바다와 섬을 포기한다고 공식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었다.

이후 조선왕조는 해양활동을 금지하는 대신 육로의 개척에 힘을 쏟았다. 자연스럽게 조선시대의 국제 교류는 육로를 통하여 명과 관계하는 것에 한정되었고, 전대(前代)에 지나가던 국제 항로와 항구는 퇴락할 수밖에 없었다. 고려시대까지는 사신과 상인들이 대부분 해로를 통하여 중국에 왕래하였으나, 조선시대에는 육로를 통해서 왕래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조선시대에 해양을 경시하고 천시하는 풍조는 이런 과정에서 조장되었다. 섬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으로 인식되었고, 전기에는 심지어 중죄인을 유배 보내는 대상지에서조차 제외될 정도였다. 후기에는 사람이 섬에 들어가 살기도 하였지만, 섬에 사는 사람들과 배를 타는 사람들을 비하(卑下)하여 ‘섬놈’ 이니 ‘뱃놈’ 이니 일컫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그만큼 조선사회는 육지 중심의 문화에 젖어 폐쇄적이고 획일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경직된 문화가 조장되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의 쇄국정책은 해양 포기정책의 산물이었다. 국초부터 국가의 문호를 닫아버리는 쇄국정책을 강력 시행하면서, 조선은 혹독한 역사의 시련을 겪어야 했다. 왜구의 침탈과 16세기 후반의 임진왜란 발발이 시련의 전초전이라 한다면, 19세기 후반부터 밀어닥친 제국주의 세력의 침탈과 국권 상실은 시련의 완결관이라 할 것이다. 병인양요(丙寅洋擾)와 신미양요(辛未洋擾)를 거쳐 운양호사건이 터진 것을 계기로 최초의 근대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조약을 강제로 체결해야 했고, 이어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한반도에 불러들이더니, 20세기 초에 들어서 마침내 국권을 상실하는 최악의 상황에까지 이르고 말았던 것이다.

4. 부흥기[태평양의 시대: 해방 이후~천재 진행]

1) 해양 문호의 개방과 문제점

1945년에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 남은 개방국가로 나아갔고 북은 더욱 완고한 폐쇄국가의 체제를 고집하였다. 1948년에 대한민국이 수립되었으나, 1년 만에 중국이 공산화되어 중국과의 국교가 단절되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옛 '융성기'에 꽃피웠던 동아시아 해상 교역의 화려한 전통을 재현할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말았다.

박정희 집권기에 이르러 긴 침체의 늪을 지나 비로소 주체적인 해양 개방정책이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 '조국 근대화'나 '수출 입국'이니 하는 구호를 내세워 공업화와 수출에 매진하였던 것이 그것이다. 중국이 막혀버린 상황에서 주요 교역 상대국을 일본과 미국으로 설정하여, 대규모 공업단지와 대형 항만시설을 주로 동남해안지역에 건설하였다. 이를 통해 '태평양 시대'의 국제사회에 능동적으로 동참할 길을 마련해 갈 수 있었다.

이러한 해양 개방정책은 우리에게 희망과 혼란이라는 양면성을 가져왔다. 먼저 공업화와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통해서 경제의 양적 팽창을 성취하여, 이후 사회의 질적 전환을 실현해갈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것은 희망의 측면이다. 이는 비교하건대 주체적 폐쇄정책을 고집해온 북한이 성취하지 못한 부분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수많은 외래 문물과 낯선 사상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생소한 이품들을 맞보아야 했다. 유교적 덕목과 서구적 가치의 충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갈등,

개발을 둘러싼 지역 간 감정 대립, 외국 거대 자본에 다시 종속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 그리고 이를 총망라한 정치적 모순 상황 등이 그것이다.

그렇다고 개방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런 아픈 경험들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가두어 놓은 우물을 박차고 나오기 위한 몸부림이고, 보다 성숙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진통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개방을 거부한 시대와 사회는 결국 퇴락을 면치 못했고, 개방을 추구한 시대와 사회는 번영을 누렸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 21세기는 신해양의 시대

흔히 21세기를 개방의 시대, 신해양의 시대라 일컫는다. 해양은 개방의 상징이다. 세계는 점차 해양을 제2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으며, 해양을 둘러싼 인접 국가 간의 해양영토 분쟁이 격화되어갈 전망이다. 따라서 해양을 중심으로 인접 국가들 사이에 협력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긴요한 시기이며, 또한 반대로 해양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시기이기도 하다. 최근 UN 해양협약이 발효된 것은 해양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협조체제가 긴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이제 세계는 급속한 개방화의 시대에 직면해 있다. 우리도 이에 발맞추어 개방의 속도를 높여가고 있다. 1992년에 중국과 국교가 재개된 이후에 양국 간에 무역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동북아 3국의 해양교류가 또 한번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럽과 남미, 더 나아가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지구촌의 모든 국가들이 우리의 교역상대로 급부상하고 있다. 단순한 상품의 교역뿐 아니라 무형의 문화를 교류하는 차원으로까지 진행되고 있다. 예컨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한

류(韓流) 열풍은 문화 교류의 대표 산물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개방의 상징인 해양에 대한 관심을 다시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이면에 해양 천시의 풍조가 여전히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마음의 문은 여전히 닫혀 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어울려 살아가기 힘든 폐쇄적인 나라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심심찮게 듣는다. 아직도 우리 마음이 닫혀 있다는 방증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해양사의 관점에서 우리 역사를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우리 역사에 해양 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구한 ‘융성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새삼 재인식할 것이고, 해양활동을 금지시킨 ‘침체기’의 과오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의 해양사를 주도면밀하게 연구하는 한편 해양문화의 흔적들을 발굴·보존·복원하여 생생한 해양사 교육의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국민적 차원에서 해양사상을 고취시켜 갈 것이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동북아 물류중심국가’의 꿈을 실현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제2장

동북아시아 연안항로의 개통과 해양문화

1. 동북아시아 국제 연안항로의 개통과 고조선

1) 서복(徐福) 이야기

역사상 처음 천하 통일의 대업을 이룩한 진시황.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듯싶은 그에게도 한 가지 충족되지 못한 욕구가 남아 있었으니, 불로장생(不老長生)에 대한 욕구가 그것이다. 당시에 동방의 바다 가운데에 늙지 않고 영원히 사는 신선이 머무르는 세 개의 신산(神山), 봉래(蓬萊)·방장(方丈)·영주(瀛洲)가 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는데, 진시황은 이 전설에 귀가 솔깃했다. 그는 서복이라는 사람을 불러 3신산에 사는 신선을 찾아 영원히 늙지 않는 불로초를 구해오도록 하교하였다. 서복은 진시황의 성대한 배웅을 받으며 동남녀(童男女) 2천여 명을 거느리고 동쪽 바다를 향해 항해를 떠났다.

《사기(史記)》 진시왕본기에 전하는 기사를 토대로 서복 이야기를 재구성하면 위와 같다. 서복은 《사기》에는 서불(徐市)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데, 설화 상에서는 서복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그의 고향은 제(齊) 땅으로, 오늘날의 산둥반도에 해당한다. 산둥반도는 일찍이 동이족사회의 중심 무대로서, 바다를 통해서 중국 동북지방 및 한반도 연안지방과 문화적으로 서로 통하는 지점에 위치한다. 그래서 이곳 출신의 서복은 아마도 동방에 대한 식견과 바다 항해의 경험이 풍부했을 것이고, 이 점에서 동방 바다 가운데의 3신산을 찾아내는데 가장 적격의 인물로 선정되었을 성 싶다.

서복과 관련된 설화는 그가 떠났다는 산둥반도는 물론이고 한반도의 바닷길, 그리고 일본의 규슈 일대에 이르기까지 도처에 남아 전해지고 있

다. 오늘날 산둥성 영성시 바닷가에 서북 일행이 떠났다는 천진두(天盡頭)가 있는데, 이곳은 조그만 곳(串)의 지형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 남해군의 금산에는 ‘서불이 일어나 일출에 예를 올렸다’는 의미의 ‘서불기에 일출(徐市起禮日出)’이라 새겨진 마애석각이 있고, 제주도 정방폭포 암벽에도 ‘서북이 이곳을 지나가다’는 의미의 ‘서불과차(徐市過此)’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한다. 뿐만 아니라 일본 화가산현(和歌山縣) 신관시(新官市) 상야(上野) 등지에도 서북이 다녀갔다는 전승이 전해지고 있다.

2) 고조선의 연안항로 길목 장악

서북 설화가 동북아시아 도서연안지역에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기원전 3세기경부터 동북아 연안항로를 통한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후에 이 연안항로는 동북아 해상 문물 교류의 핵심 통로로서 자리 잡아 갔으며, 이를 장악하는 세력은 번영을 누렸다.

먼저 이 연안항로의 길목을 장악한 세력은 대동강하류를 중심으로 일어난 고조선이었다. 고조선은 중국 한(漢) 왕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남쪽의 한(韓)과 왜(倭)가 한(漢) 왕조와 직접 교류하는 것을 방해했으며, 연안항로의 길목을 차단하여 이들 사이의 문물교류를 매개하여 이득을 챙기면서 성장하였다. 이것이 점점 주위 국가들의 불만을 사게 되었다.

특히 위만조선 단계에 이르러 문물교류 증개의 독점 현상이 정도를 넘어서자, 이에 불만을 품은 남쪽의 한(韓)과 왜(倭) 세력이 한(漢) 왕조에 호소연하였다. 한(漢) 왕조 역시 위만조선의 강성에 불안을 느껴오던 터였으므로, 기원전 109년에 섭하(涉何)를 사신으로 파견하여 이의 시정(是正)

을 강권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위만의 손자 우거왕은 이를 목살해 버렸고, 외교적 성과를 성취하지 못한 섭하는 본국에서 문책 당할 것을 염려하여 자신을 호송하던 고조선 측의 비왕(裨王) 장(長)을 국경 지역에서 살해하고 달아나 버렸다. 우거왕은 즉각 자객을 밀파하여 섭하를 살해하는 것으로 보복하였다.

이제 고조선과 한의 관계는 더 이상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한(漢) 왕조는 결국 고조선을 정벌하기 위해 대규모의 수군과 육군을 일으켰으며, 수륙양면으로 고조선을 공격해 왔다. 고조선은 1년간 버티었으나, 결국 내분까지 겹치는 바람에 결국 기원전 108년에 멸망당하고 말았다. 한 왕조의 고조선 정복은 연안항로의 장애물을 제거한다는 의미가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고조선이 한나라 대군을 맞아 1년간이나 버텼다는 것은 중개무역의 독점으로 막강한 국력을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3세기 동북아 연안항로의 활성화

고조선이 망한 뒤에 한 왕조는 그 옛 땅에 4개의 군을 설치하면서 연안항로를 통한 동북아시아 해상교역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최후까지 남은 낙랑군(樂浪郡)과 추가로 설치된 대방군(帶方郡)은 이러한 국제 교류의 매개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삼국지(三國志)》 위서 동이전 왜인전을 보면 3세기 이전 연안항로의 코스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낙랑·대방군에서 해안을 따라 남으로 가다보면 한국(韓國)에 이르게 되고, 여기에서 다시 남으로 가다가 동쪽으로 꺾여 항해해 가다보면 구야한

국(狗邪韓國)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에서 바다를 건너면 대마도(對馬島)에 이른다.”

이 기사에 의하면 3세기까지 ‘낙랑·대방군→서해안[남행(南行)]→한국(韓國)→서해안[남행(南行)]→남해안[동행(東行)]→구야한국(狗邪韓國)→남해바다[남행(南行)]→대마도→왜’로 연결되는 연안항로를 통해서 낙랑·대방군의 주도 하에 동북아 교역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이 잘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한국이란 목지국(目支國)을 중심으로 충청 지역에서 결성된 마한연맹체(馬韓聯盟體)를 지칭하는 것으로, 항로의 구체적인 지점은 마한의 외항(外港)에 해당하는 아산만 일대로 추정된다. 그리고 구야한국은 금관가야의 중심지였던 오늘날 낙동강 하구의 김해 지역을 지칭한다. 이들 지역에는 당연히 연안항로 상의 요항(要港)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다. 또한 위의 기사에는 지목되어 있지 않지만, 서해와 남해가 만나는 서남해지역에도 버금가는 요항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으로 미루어 주기로 하자.

이렇듯 3세기에는 연안항로가 활성화되면서 동북아시아 여러 나라들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서 조직적인 교역 관계로 발전하였다. 당시 국제 무역의 결제 수단은 중국의 화폐가 사용되었다. 황해도의 황주·은률, 전남의 무안·해남, 경남의 의창·창원·김해, 제주도 등지의 도서연안지역에서 당시의 중국 화폐인 오수전·화천 등이 다수 수습된 바 있다. 그리고 당시의 주요 교역품으로는 중국제 유리 및 수정 장신구류를 위시로 하여 토기류, 철제류 등이 있으며, 변한의 철 소재는 가장 각광받던 교역품으로 알려져 있다.

4) 서남해지역에 조성된 요항(要港)

한반도 서남단의 영산강 유역은 서해에서 남해로 꺾여지는 연안항로의 요지에 해당한다. 이에 국제 교역의 중간 기착지로서 성황을 누릴 수 있었다. 영산강 유역과 서해 및 남해의 연안지역 일대에는 웅관고분이라는 독특한 대형 고분들이 분포해 있는데, 이는 영산강 유역에서 독자적인 고대 사회가 형성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물증이다.

현산면과 송지면에 걸쳐있는 해남반도의 백포만은 영산강 유역 고대사회의 외항으로서 각광받고 있었다. 백포만 연변에는 군곡리패총, 두모패총 등 대규모의 패총유적들이 분포해 있는데, 이곳에서 중국 화폐인 화천이외에도 철제품·토기·복골 등의 유물들이 다량 출토된 바 있고, 또한 일명 죽금성이라 불리는 고대 성곽시설도 있어서, 3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이곳이 고대 항구로서 번영을 누렸음을 엿볼 수 있다. 이후 서남해지역은 동북아 연안항로가 더욱 활성화되어 감에 따라 해상세력의 주요 활동무대로 역사의 전면에 부상되어 갔다.

2. 한반도 서남해지역의 고대 해양문화와 해상세력

1) 해양문화의 세 요소: 바다와 강과 섬

한반도 서남해지역의 바다는 점점이 흩어진 수많은 섬들로 에워싸여 있어 바다라기보다는 호수에 가깝다. 그래서 이곳 주민들에게 바다는 살

별한 투쟁의 현장이 아니라 정다운 삶의 현장이었다. 뗏목을 타고 가다보면 어느덧 섬에 이르고, 여기에서 한숨쉬었다 다시 가다보면 어느덧 섬에 닿곤 하였다. 이들에게 섬은 바다를 이어주는 징검다리였던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일찍이 바다를 통해서 점점 멀리 나아갔다. 북으로, 그리고 동으로 연안 바다를 따라 많은 지역 사람들과 만났다. 그리고 중국 대륙과 일본 열도에까지 이르러 새로운 문화와 접하였다. 그리고 바다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방인들을 기꺼이 맞이했다. 자연스럽게 이곳 서남해지역에는 일찍부터 개방적인 해양문화가 싹텄다. 그리고 이 해양문화는 다시 서남해지역을 관통해 흐르는 영산강을 통해서 내륙 깊숙이 퍼져갔다. 바다와 강과 섬은 이 지역 해양문화를 하나로 엮어주는 일종의 네트워크였던 것이다.

그래서 서남해지역에는 일찍이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려는 바다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해양문화와 해양세력의 흔적들이 오늘날까지 뚜렷이 남아 있다.

2) 지식묘: 해양문화의 싹

지식묘는 주로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대륙의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해양민족이 남긴 문화유산이라 할 만하다. 아시아의 경우 인도 남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의 요동반도와 절강 지역, 일본의 규슈 지역, 그리고 우리나라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식묘의 분포를 보면 주로 바닷가와 대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 등의 강변을 따라 분포하고 있는데, 그 숫자에서 가히 세계 최고의 밀집지역이라 할 만하다. 그중 특히 고창 이남의 전남 지

역에는 무려 20,000여 기에 달하는 지석묘가 조사된 바 있어, 그 밀집도는 우리나라에서도 단연 독보적이다. 최근에 강화도와 고창, 그리고 회순의 지석묘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됨으로써, 앞으로 지석묘의 해양문화적 성격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동북아시아만을 한정시켜 볼 때, 지석묘의 분포권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의 요동반도와 절강 지역, 그리고 일본의 규슈 지역에 걸쳐 있어, 서남해의 바다를 연결 고리로 하는 하나의 선사 해양문화권을 설정해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동북아 연안항로의 중핵에 해당하는 한반도에, 그 중에서도 특히 서해와 남해가 만나는 서남해지역(전남지역)에 지석묘가 집중 분포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셈이다.

이처럼 서남해지역에 지석묘가 집중 분포한 현상은, 지석묘사회단계 [청동기시대]부터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통해 모여들어 인구 밀집지역을 이루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겠다. 그렇다면 이 지역은 그만큼 많은 인구를 감당할 수 있을 풍요로움이 보장되던 땅이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우리는 지석묘의 분포를 통해서 선사시대 서남해지역의 해양문화와 해양세력의 싹을 찾아볼 수 있다.

3) 옹관고분: 해양세력의 흔적

3세기에 이르면 서남해의 바닷가와 영산강변을 따라서 옹관고분이라는 독특한 대형고분이 새로이 대두하여 6세기 전반까지 존속해 간다.

옹관고분이란 소형의 일상용 항아리를 쓰는 옹관묘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오직 관으로 쓰기 위해서 2~3미터에 달하는 2개의 대형 옹관을 짝으로 제작하여, 여기에 시신을 안치하고 두 옹관의 아가리를 합구하여 이미 만

들어 놓은 대규모의 봉분에 매장하는 묘제를 지칭한다. 이러한 옹관고분은 오직 한반도 서남해지역인 영산강 유역에만 집중 분포한다.

먼저 영산강의 큰 지류인 삼포강 연변을 따라 연결해 있는 영암 시종면과 나주 반남면 일대에 초대형의 옹관고분이 최고의 밀집대형을 이루며 분포하고 있어, 옹관고분 분포의 중심지를 이루고 있다. 그밖에 영산강변의 무안, 함평, 영암, 나주, 광주, 담양, 화순 일대는 물론 서남해의 바닷가인 해남, 강진, 영광, 고창 등지까지 옹관고분이 분포해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서해안을 따라 올라가 익산과 군산 등지에서도 옹관고분의 흔적이 발견된 바도 있다. 따라서 옹관고분은 서남해의 해양세력이 남긴 흔적으로 간주해도 좋을 듯하다.

중심 분포지역인 영암 시종면과 나주 반남면의 옹관고분은 그 규모가 왕릉급에 상당할 뿐만 아니라 금동관, 금동신발, 봉황문의 환두대도 등을 포함한 다양하고 화려한 위신재(威信財)까지 부장한 것도 있어, 옹관고분을 만든 집단이 상당한 세력집단을 이루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은 서남해 바다와 영산강을 통로로 하여 문화적 정치적 연대를 강화해 갔던 한편으로, 역시 바다를 통해서 한반도 내의 타 세력집단과는 물론, 더 나아가 중국 대륙 및 일본 열도의 세력집단들과도 문화교류를 활발히 진행되어 갔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면에서, 해남 백포만에 조성된 것으로 앞에서 소개한 바 있는 고대 항구와 일본에 《논어》와 《천자문》을 전했다는 왕인은, 옹관고분이 존속하던 시대에 서남부지방의 해양문화를 뒷받침하는 물적·인적 상징이 될 만하다.

3. 연안항로를 통한 문화 교류의 상징 인물, 왕인

1) 왕인은 어떤 사람인가?

왕인(王仁)은 고대 일본(왜)에 천자문과 논어를 전해준 백제의 학자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그는 중국의 문자와 학문을 수용하여 이를 왜에 전파한 문화 선각자이자 문화 전파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인물로 평가받을 만하다.

《일본서기》나 《고사기》와 같은 일본 고대 사서에서는 왕인의 문화 전파자로서의 공적을 비교적 소상히 소개하면서 그를 일본 학문의 시조서수(書首)로서 대서특필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사서에서는 왕인에 대한 기록이 전혀 보이지 않아 대조를 이룬다. 그래서 우리는 왕인에 관한 한, 전적으로 일본 사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정작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왕인에 대한 정보, 예컨대 왕인의 출생지, 성장과 학문 연마의 과정, 그리고 도일(渡日)의 루트 등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아예 알 길이 없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이랄까. 언제부터인가 영암 군서면의 구림마을에 왕인의 탄생과 도일에 이르는 자세한 설화가 전해오고 있어서, 그의 행적을 추적할 일말의 실마리만이라도 이 설화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2) 구림마을에 전하는 왕인 설화

구림마을은 영암 월출산 서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다. 마을 앞에는 영산 강 하구로 곧바로 흘러들어가는 마지막 지류인 영암천이 흐르고 있어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형세를 이루고 있다.

바로 이곳에 왕인과 관련된 설화가 전한다. 그런데 이 설화는 왕인의 탄생, 성장과 학문의 과정, 그리고 도일에 이르는 총체적 이야기가 구체적인 지명이나 사물 등에 결부되어 전하고 있어, 근거 없는 예사 설화와는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구림마을의 별칭인 성기동(聖起洞)은 그의 성스런 탄생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책굴(冊窟)이라 불리는 자연 석굴은 그가 자라면서 학문에 정진한 곳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책굴 바로 앞에 있는 석상은 왕인 석상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그 바로 아래에 자리 잡은 양사재(養士齋)는 왕인이 제자를 가르치던 곳으로 전한다. 뿐만 아니다. 상대포(上大浦)라는 포구는 후에 왕인이 일본으로 떠났다는 곳이고, 상대포에 이르는 길목에 있는 돌정고개는 왕인이 일본으로 떠나면서 마을 사람들을 돌아보며 이별의 아쉬움을 표한 곳으로 전한다.

우리의 문헌 자료에 전무한 왕인에 대한 설화가 이처럼 구체성을 띠면서 구림마을에 전한다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왕인에 대한 어떠한 설화도 구림마을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전혀 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렇지만 이를 그대로 사실로 믿기에는 주저되는 바도 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설화에 불과하다는 점, 더욱이 그 설화가 조선시대까지 어떠한 사서나 지리서에서도 채록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 설화가 처음 입록된 것은 일제시기인 1920년대에 편찬된 《조선환여승람(朝鮮寰輿

勝覽》의 성기동조에서 “백제 고이왕대에 왕인이 여기에서 탄생하였다”고 기록된 것에서 비롯한다. 그래서 혹자는 구림마을의 왕인 설화는 옛부터 전해져 온 것이 아니라 1920년대에 《조선환여승람》의 편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보려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설화를 조작한 동기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성기동과 책굴과 양사재와 상대포와 돌정고개 등과 결부된 왕인 설화가 구체성과 총체성을 띠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이를 단순 조작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도 아쉬움을 남긴다. 그래서 이 설화가 의미하는 바를 서남해지역의 해양사적 위치와 관련지어 추론해 보는 것은 왕인의 새로운 이해에 전혀 무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라 본다.

3) 왕인의 도일(渡日) 시기

왕인이 영암 구림마을에서 태어나 중국의 문자와 학문을 받아들이고 이를 일본에 전파했다고 한다면, 이는 서남해지역이 차지하는 해양교류사적 역량이 상당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왕인의 도일 시기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고대사서 《고사기》에 의하면 백제의 조고왕(照古王)이 현인(賢人)을 보내달라는 일왕의 요청을 받아들여 와니(和邇)란 인물을 보내어 《논어》 10권과 《천자문》 1권을 전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가 왕인이다. 또한 《일본서기》에 의하면 응신천황(應神天皇) 16년 6월에 일왕의 요청으로 백제의 왕인이 도착하여 태재(菟道稚郎子)의 스승이 되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일본서기》의 기년에 따르면 응신천황 16년은 서기 285년(백제 고이왕 52년)에 해당되고, 《고사기》에 나오는 조고왕은 흔히 백제 근초고

왕(재위기간 346~374년)으로 비정되는 인물이므로, 양 사서에서 표명한 왕인의 도일 시기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널리 알려져 있듯이 일본 고대사서의 기년(紀年)이 그만큼 부정확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사례이다. 일반적으로 《일본서기》 응신기(應神紀)의 기년은 2주갑(周甲, 120년) 내려서 재조정해야만 실연대에 부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견해에 따른다면 왕인이 도일한 연대는 405년(285+120)으로 재조정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왕인의 도일 시기는 3세기 말, 4세기 중·후반, 혹은 5세기 초반의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필자는 이 중 5세기 초반설에 비중을 두고 있다.

4) 3~5세기 영산강유역의 해양사적 위치와 왕인

왕인의 도일 시기는 논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겠는데, 이를 모두 포괄해도 3~5세기로 압축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서남해지역의 해양사적 위치를 살펴보는 것은 왕인 설화의 사실성을 뒷받침해 주는 하나의 실마리를 모색하는 길이 될 것이다.

먼저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의하면 서해와 남해를 연결하는 위치에 있는 서남해지역은 3세기 단계에 한·중·일을 연결하는 동북아 연안항로의 주요 요지였음이 시사되어 있다. 그리고 해남 백포만 연변(沿邊)의 군곡리패총과 두모패총 등은 그 중요한 물증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진서(晉書)》의 장화열전(張華列傳)에 의하면 282년에 20여 국에 달하는 신미제국(新彌諸國)이 집단적으로 진(晉) 왕조에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쳤다는 기록을 전하고 있는데, 신미제국이란 서남해지역에 산재해 있던

세력집단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면 적어도 3세기부터는 서남해지역에 중국 대륙 및 일본 열도와 교류하던 유력한 해양세력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 이 지역에 산재해 있는 ‘옹관고분’이 확인되면서, 이를 서남해지역 해상세력 존재의 고고학적 물증으로 주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옹관고분은 영산강 유역과 서남해 바다를 따라서 분포하고 있는 이 지역 특유의 고분으로서, 이 지역에 강과 바다를 통로로 하여 정치적 연대망을 형성했던 독자적 해양세력의 존재를 강하게 시사해주고 있다. 더욱이 옹관고분의 존속 기간이 3세기~6세기 전반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왕인의 도일 시기와 정확히 맞물려 있다.

이 점을 주목한다면 왕인은 옹관고분을 축조한 서남해지역의 해양세력과 관련된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설화 상에 왕인의 고향으로 전하는 영암 구림마을은 옹관고분의 핵심 분포지인 영암 시종면과 지근(至近)한 거리에 있어, 왕인이 구림마을에 실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만은 없다고 여겨진다. 또한 설혹 설화 상의 왕인을 구림마을의 역사적 실존인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연안항로를 통해 중국 선진문화를 수용하고 이를 일본에 전파해준 일반적인 고대 해양세력이 서남해지역에 존재했을 가능성만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왕인을 특정 고유인으로서가 아니라 연안항로를 통해 동북아 문화교류를 매개해준 상징적인 인물로서 간주하면 어떨까 한다.

4. 건국신화에 나타난 해양국가, 가야

1) 고대국가의 성격을 표상하는 지모신(地母神)

신화는 신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건국신화는 건국의 주인공을 신격화 시켜서 그의 신성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고대 신정정치의 이데올로기이다.

우리나라 건국신화의 유형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천신(天神)과 지모신(地母神)이 결합하여 탄생한 남자 영웅이 나라를 세운다는 유형이고, 하나는 천신과 지모신으로 표상되는 두 남녀 성인(聖人)이 직접 나라를 세운다는 유형이다. 대개 전자는 북방계 국가들(고조선·부여·고구려·백제 등)에 나타나는 유형이고, 후자는 남방 토착계 국가들(신라·가야 등)에 흔히 나타나는 유형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유형의 건국신화는 건국 시조의 신성한 권위를 뒷받침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로의 성격을 가진다.

그런데 건국신화에서 천신은 흔히 태양으로 상징되며, 이는 모든 국가에 공통적이고 고정적으로 나타난다. 아마도 하늘과 태양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 신앙의 대상으로 추앙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예컨대 고조선의 환인, 환웅과 부여 및 고구려의 해모수, 신라의 박혁거세, 그리고 가야의 수로왕은 모두 하늘에서 내려온 천신(태양신)으로 상징된다.

문제는 건국신화에 나타난 지모신의 성격이 각기 다르다는 점이다. 고조선의 경우 수렵시대의 산물인 곰과 호랑이 토tem이 지모신으로 나오고 있는 반면, 고구려의 경우에는 농경시대의 농사를 관장하는 하천신 하백(河伯)의 장녀 유화가 곡령(穀靈)의 지모신으로 나온다. 또한 신라의 건국

신화에 나오는 우물의 신 알영 역시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농경을 관장하는 곡령의 지모신이라 할 것이다.

이들 각기 다른 지모신은 그 사회의 성격을 반영한다. 고조선의 지모신은 수렵경제단계의 존재를 반영하고 있으며, 고구려와 신라의 지모신은 이미 농경사회에 진입한 단계임을 반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야 건국신화에 나오는 지모신 허황옥(許黃玉)은 어떤가? 그녀는 먼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야국에 이르렀던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는 곧 가야의 해양국가적 성격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2) 지모신 허황옥의 출현

가야 건국신화에서 수로왕은 하늘로부터 붉은 알의 형태로 탄강하여 가야의 왕이 된 것으로 나온다. 이는 곧 다른 건국신화와 마찬가지로 천신(태양신)의 탄강을 의미한다.

수로왕은 자신의 배우자가 곧 출현할 것임을 예언한다. 그러던 어느 날 수로왕은 유천간을 불러 망산도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바다에서 붉은 돛과 붉은 기(旗)를 단 배가 나타나면 햇불을 올리도록 지시하고, 신귀간을 불러 가야의 항구인 승점에 나가 있다가 망산도에서 햇불이 올라오면 달려와 알리도록 했다. 과연 수로왕이 예견했던 배가 멀리서 나타났고 유천간은 지체 없이 햇불을 올렸다. 그리고 이를 발견한 신귀간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달려와 수로왕에게 알렸다. 보고를 받은 수로왕은 곧바로 행차하여 승점 근처에 행궁을 차렸다.

이윽고 배가 승점에 상륙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내린 허황옥은 근처에서 가장 높은 언덕에 올라 바지를 벗어 나무에 걸어놓고 천신에 제를 올리

고서, 행궁에 들어 수로왕과 이틀 밤 하루 낮을 지낸 다음 궁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두 성인(聖人)은 가야를 건국했다.

가야 건국신화에 그려진 허황옥의 출현은 곧 천신 수로왕과 대응하는 지모신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녀가 높은 언덕에 올라 올린 천신에 대한 제는 곧 천지 합일의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건국신화에서 지모신의 성격이 곧 해당 국가의 성격을 반영하는 면이 있다고 한다면, 가야는 기본적으로 해양지향적 국가임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살피건대 가야의 모태가 되었던 변한의 철은 이미 삼국은 물론이고 중국과 왜에 가장 중요한 교역품 중의 하나로 각광받고 있었다고 전한다. 이는 변한의 철이 동북아 연안항로를 따라 중국 대륙과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에 활발히 교역되고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변한의 이러한 전통을 토대로 하여 일어난 가야가 건국신화에서 지모신을 통해 해양국가적 지향점을 표방했던 것은 극히 자연스런 일이라 할 것이다.

3) 가야 해양문화의 전통

가야의 건국신화에 의하면 허황옥은 멀리 아유타국에서 왔다고 한다. 근래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아유타국이란 인도 갠지스 강변의 아요디아라는 해양도시를 지칭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 그 주요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수로왕릉 사당의 출입문 상단에 두 마리의 물고기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있는 이른바 쌍어문(雙魚紋)의 문양이 아요디아의 주요 건물들의 출입구 상단에도 그려져 있다는 점이다.

쌍어문 그림은 해양국가를 상징하는 문양임이 분명하며, 두 도시에 이러한 공통적 문양이 그려져 있다는 것은 단순히 우연의 일은 아닐 듯하다.

따라서 건국신화에 나오는 아유타국이 단순한 신화 속의 상상적 존재가 아니라 오늘날 아요디아라는 도시를 지칭하는 역사적 국가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가야의 건국신화는 고려대에 쓰여진 (가락국기)라는 글로써 전해지는 것이므로 그간에 윤색이 덧붙여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건국신화에서 허황옥이 왔다는 아유타국 관련 부분은 고려시대를 전후한 시기에 김해 지역의 해양세력이 바다를 통해 교류하던 아요디아라는 도시를 모델로 하여 건국신화에 덧붙여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야겠다. 즉 김해와 아요디아의 쌍어문 공유 현상은 가야시대의 일이라기보다는 후대에 이루어진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곧 가야시대 이래의 해양지향적 전통이 고려시대까지 김해 지역에 유지·발전되어 왔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가야 건국신화에서 허황옥의 출현 과정은 매우 극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허황옥의 출현 과정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축제 행사가 김해에서 고려시대까지 연행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아마도 그 축제의 프로그램에는 ‘유천간이 망산도에서 햇불 올리기’, ‘승점에서 신귀간이 달려와 수로왕에게 알리기’, ‘수로왕이 행차하기’, ‘허황옥이 언덕에 올라 바지를 벗어 천신에 제를 올리기’, ‘행궁에서 수로왕과 허황옥이 합궁하기’ 등의 이야기 소재가 포함되었을 것이다. 이 역시 고려시대에까지 가야시대 해양문화의 전통이 김해 지역에 이어지고 있었음을 반영하고 있다.

5. 신라를 변화시킨 가야 해양문화의 힘

1) 개방사회 가야와 폐쇄사회 신라

연안항로를 통해 동북아시아 여러 나라들 사이에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던 그 시대에, 가야사회는 항상 중요한 위치를 점하였다. 당시 해양을 통한 문물교류는 대개 백제가 주도하였고, 영산강 유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낙동강 유역의 가야 사람들은 항상 백제의 충실한 동업자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었다.

남해안 일대에 들어서 있던 가야의 많은 도시국가들은, 마치 그리스의 폴리스를 연상시키듯 서로 선의의 경쟁을 벌이며 다양하고 생기발랄한 선진 문화를 수용하였고, 왜국(倭國)으로 통하는 관문에 위치하고 있어 그와 연결해주는 문화적 가교 역할까지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활발한 문화교류의 현장에 살고 있던 가야인들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선진 문물과 새로운 보편 이념이 널리 퍼져갔을 것이다.

반면 한반도 동남쪽 모퉁이에 위치한 신라는 동북아 연안항로에서 벗어나 있어 국제 해상교역망에서 소외된 채로, ‘골품제’로 상징되는 폐쇄적인 사회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신라의 주된 관심사는 주로 정치적인 결집력을 키워서 주변의 세력집단을 군사적으로 복속시키는데 집중되고 있었다.

그런데 역사의 결과는 정치적 결집력을 추구한 신라가 문화의 개방성과 다양성, 그리고 보편성을 추구한 가야를 압도하여 통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결집된 정치·군사적 힘의 논리가 문화의 다양성을 압도한 셈이었다. 그러나 문화의 힘은 다음 단계에 조용히, 그렇지만 끈질기게 발휘되

곤 한다. 가야의 문화 역시 신라사회를 조용히 변화시켜 신라의 지배 문화로 자리 잡아 갔다.

2) 신라를 개방사회로 이끈 가야 통합

6세기에 접어들면서 신라는 대팽창의 시대를 맞는다. 특히 법흥·진흥 왕대의 영토확장 정책은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동해안을 따라 원산만 지역까지 진출하고, 가야의 여러 나라를 완전 복속시켰으며, 한강 하류까지 진출하는 쾌거를 일구어냈다. 흔히 신라가 통일의 위업을 달성하게 된 원동력을 한강 하류의 확보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가야 제국의 통합 역시 그에 못지않은, 아니 오히려 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법흥왕 19년(532)에 김해의 금관가야를 통합한 사건이야말로 신라에게 동북아의 해양 문화교류의 네트워크에 본격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김해 지역은 중국과 한반도, 그리고 일본 열도의 다양한 문물이 집산하는 해양교류의 중요 거점에 해당되는 곳이므로, 일찍이 주변 국가들은 이 지역의 장악을 호시탐탐 노려오던 터였다. 그런데 이런 김해의 금관가야를 신라가 점령했던 것이고, 더 나아가 금관가야의 왕실 구성원들(김유신 가문까지 완전 흡수하였던 것이다. 이는 이후에 해양 주도권의 방향을 한꺼번에 신라에게 유리한 쪽으로 전환시키는 일대 분수령이 되었다. 즉 신라는 이를 계기로 진흥왕 대에 여타의 가야 제국에 대한 통합을 마무리 짓고, 한강 하류지역에까지 진출하여 중국과 직접 통하는 또 하나의 해양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 말하자면 신라의 가야통합은 신라를 개방사회로 이끌어낸 기폭제가 되었던 것이다.

3) 신라를 변화시킨 가야의 ‘젊은 피’

개방적이고 다양한 문화에 익숙해져 있던 가야사회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많은 지성들을 배출하였다. 신라에 통합된 후에, 이들은 신라에 수혈되어 신라사회의 체질을 근저에서부터 변화시켰다. 이른바 ‘젊은 피’ 였다. 김유신과 강수, 그리고 우륵 등이 그들이었다.

금관가야 왕실의 후에 김유신 가문은 신라사회에 편입된 후에 주로 대외 정복활동에 참여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우면서 신라 신귀족의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신라의 보수 귀족들의 견제 역시 만만치 않았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김유신가의 노력은 눈물겨웠다. 예를 들어 김유신의 부친인 서현이 상대 가문의 결사적인 반대를 무릅쓰고 신라 왕족 숙흘 공의 딸 만명과의 결합을 결행했던 것이라든가, 유신이 자신의 누이동생 문희를 역시 신라 왕족의 일원인 김춘추와 맺어주기 위해 시도한 노력의 자취들이 이를 반영한다.

김유신 가문과 김춘추 가문의 결합은 가야의 ‘젊은 피’ 를 신라사회의 깊은 곳에 침투시켜 신라사회를 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개방적이고 다양한 문화를 추구하고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로 변화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김유신 가문의 개방적 성향을 지지했던 김춘추는 그 스스로가 고구려와 왜와 당 등에 외유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개방 개혁의 마인드를 더욱 견고히 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유신과 김춘추의 환상적인 역할 분담은 보수적인 구귀족을 퇴출시키고 신라사회의 체질을 성공적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들은 동북아시아가 하나의 문화권으로 묶여가던 격동의 그 시대에 새로운 보편적 정치이념으로 떠오른 위민(爲民)의 이념을 제시하고 실천함으로써, 신라를 결국 통일의 길로 이끌었던 것이다.

강수는 학술 분야에서 신라를 변화시킨 ‘젊은 피’였다. 강수는 어렸을 적 그의 부친으로부터 하고 싶은 학문 분야에 대한 질의를 받고서, 세상 밖의 가르침을 전하는 불도(佛道)보다는 세상 안의 이치를 가르치는 유도(儒道)를 배우고 싶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는 당시의 가야인들이 어려서부터 원하는 바에 따라 불교나 유교의 가르침을 가학(家學)으로서 익혔던 것이 일반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강수가 통일전쟁의 과정에서 구구절절 상대방의 의표를 찌르는 문체로 외교문서를 작성하여 삼국 통일의 윤희유가 되었던 것은 다양성과 보편성을 추구한 가야문화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우륵은 예술문화의 분야에서 신라를 변화시킨 ‘젊은 피’였다. 그는 편벽된 신라의 예술문화를 보다 보편적인 방향으로 승화시킨 선진 문화의 전도사였다. 진흥왕이 가야 통합을 완료한 후에 가야의 악사(樂師) 우륵을 충주의 국원경(國原京)에 안주하게 하고, 신라인 세 사람을 보내 그의 음악을 전수 받도록 한 것은 이러한 우륵의 보편적 예술 세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륵의 음악은 신라 문화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신라의 대악(大樂)으로 자리잡았다.

김유신과 강수와 우륵은 수많은 가야계 지성들 중에서 사서에 특필된 몇 안 되는 저명한 사례에 불과하다. 따라서 ‘신라는 무력으로 가야를 통합했지만, 가야는 그 문화로서 신라를 변화시키고 지배했다’는 주장이 결코 허설(虛說)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개방적이고도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던 지성들이 가야사회에 충만해 있었던 배경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가야의 해양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해양문화란 개방성과 다양성과 보편성을 그 특성으로 하기 때문이다.

제3장

연안항로의 경색과 황해 횡단항로의 개척

1. 새로운 해양강국으로 떠오른 백제

1) 고조선과 낙랑·대방군의 뒤를 이어서

고대 동아시아 연안항로는 중국 대륙과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연결해 주던 고속도로였다. 이를 통해 당시의 문화와 물자가 활발히 유통되었다. 따라서 이 항로를 장악하는 국가나 세력은 크게 융성하기 마련이었다.

그 첫 주인공은 대동강 유역에서 일어난 고조선이었다. 특히 위만조선은 동북아 연안항로의 길목인 대동강 유역의 앞 바다를 통제하여 국제 물류 교역을 증대함으로써 일대 강국으로 떠오를 수 있었다. 그렇지만 곧이어 연안항로의 경색을 우려하고 위만조선의 강성을 위협하던 한나라의 공격을 받아 멸망당하고 말았다(기원전 108년). 위만조선의 지나친 항로 통제와 독점이 결국 화를 자초했던 셈이다.

위만조선의 멸망 후에 연안항로를 통한 동아시아 문물교류의 주도권은 중국인의 손에 넘어갔다. 위만조선 멸망 직후에 한(漢)이 대동강 유역에 설치한 낙랑군(樂浪郡)과 그 뒤 3세기 초에 공손강이 황해도 일대에 설치한 대방군(帶方郡)은 이후 한(漢)·위(魏)·진(晉) 등 중국 왕조들의 조종을 받으며 문물교류의 업무를 주도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은 그 후 313년·314년에 두 군이 고구려와 백제의 협공에 의해 축출될 때까지 4세기에 걸쳐 계속되었다.

낙랑·대방군이 축출되자 고구려와 백제는 서로 간에 탐색전을 벌여갔으며, 4세기 중반을 넘어서면서는 연안항로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군사적 경쟁과 대결을 벌여나갔다. 연안항로의 주도권을 선점하는 일이야말로 국가의 위상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사안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

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두 나라의 군사적 대결은 연안항로의 요충지에 해당하는 대동강·재령강·예성강 유역의 평안·황해도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점차 승부는 백제 쪽으로 기울어져 갔다. 양국의 군사 대결에서 백제가 결정적 승기를 잡게된 것은, 백제의 근초고왕(近肖古王)과 태자 근구수(近仇首)가 3만의 정병을 이끌고 평양성으로 진군하여 대적하는 고구려의 고국원왕(故國原王)을 전사시킨 371년 평양성 전투부터였다. 백제의 평양성 전투 승리는 고구려가 대륙세력과 힘겨운 대결을 벌이는 사이를 틈타 거둔 것이었다. 고구려가 왕을 잃은 충격을 수습하는데 여념이 없는 사이에 연안항로의 주도권은 위만조선과 낙랑·대방군의 뒤를 이어 백제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2) 국내외에 해양 거점을 확보하다

최대의 라이벌이던 고구려의 기세를 꺾은 여세를 몰아, 백제는 국내외에 국제 교역을 주도하기 위한 해양 거점을 확보해 갔다. 먼저 《일본서기》에 의하면 백제는 369년에 비자발 등 가야 7국을 평정하고, 서쪽으로 진군을 계속하여 고해진(古奚津)오늘의 강진을 거쳐 침미다례(枕彌多禮)오늘의 해남를 점거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백제의 근초고왕이 연안항로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경남 해안지방가야와 서남해지역강진·해남 일대에 주요 해양 거점을 확보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어 백제는 중국 대륙에도 국제 교역을 위한 해양 거점을 확보하여 갔다. 《송서》와 《양서》에서 백제가 요서군(遼西郡)과 진평군(晋平郡)의 2군

을 점거하고 여기에 백제군(百濟郡)을 설치했다고 한 기록이, 백제가 당시 중국 대륙에 해양 거점을 두었던 사실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요서군은 요하 서안(西岸)을 지칭하는 것인데, 백제가 여기에 해양 거점을 둘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북중국이 5호 16국으로 난립하여 힘의 공백 상태에 빠져있던 것에 편승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진평군은 오늘날 북경성 북주시로 비정되기도 하는데, 여기에 해양 거점을 둘 수 있었던 것은 남조 동진(東晉)의 양해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백제와 동진과의 관계는 특히 각별하였다. 근초고왕은 372년에 처음 동진에 사신을 파견하여 외교관계를 개설하였고, 동진으로부터 ‘진동장군 영낙랑태수(鎭東將軍 領樂浪太守)’를 제수받기도 하는 등, 양국 간의 교류는 매우 활발하였다. 당시 백제의 수도였던 한성의 풍납토성에서 동진 계통의 초두(鏹斗)가, 그리고 석촌동 고분에서 동진의 청자와 배 짓는 노가 출토된 것이야말로, 백제와 동진 사이의 활발한 문물 교류의 실상을 잘 반영해 준다. 또한 몽촌토성에서는 서진(西晉)의 전문자기편(錢文瓷器片)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백제와 진(晉) 왕조 사이의 문물 교류는 이미 서진 단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추세로 미루어 볼 때, 당시에 진평군이 백제와 동진 사이에 문물 교류를 매개하는 해양 거점이 되었을 것임은 물론이다.

뿐만 아니라 백제는 일본 열도에도 해양 거점을 개설하고 왜왕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369년에 백제의 근초고왕이 왜왕에게 하사했다는 칠지도(七支刀)가 그 대표적인 물증이 되겠다. 뿐만 아니라 백제는 왜에 장군과 학자들을 빈번히 파견하여 지도적 위치에서 우호관계를 강화해 갔다.

3) 근초고왕은 제1대 해상왕

위만조선은 동북아 연안항로의 길목을 장악하여 중개무역을 통하여 국가의 부강을 성취하였고, 낙랑군과 대방군은 중국 왕조를 대리하여 연안항로의 원활한 물류 기지로서의 역할을 다 하였다. 이를 이어 백제의 근초고왕은 중국 대륙과 한반도, 그리고 일본 열도의 요소요소에 해양 거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동북아 해상 교역을 주도해 갔던 것이니, 그 규모와 체계성, 그리고 적극성의 측면에서 위만조선과 낙랑·대방군의 그것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런 면에서 근초고왕은 9세기 전반기의 동북아 해양을 호령하던 해상왕 장보고에 앞선 '제1대 해상왕'이라 칭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근초고왕의 위업은 그의 자왕(子王)인 근구수왕 대까지 지속되었지만, 390년대에 접어들면서 광개토왕·장수왕으로 이어지는 고구려의 강력한 반격에 직면하여, 쇠퇴의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렇지만 근초고·근구수왕 대에 백제가 성공적으로 해양을 주도한 경험은 뒤를 이은 왕들에게 회복해야 할 역사적 귀감이 되었으며, 급기야 6세기의 무령왕 대에 이르러 중국 남조 및 왜와의 주도적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잠시나마 해양강국의 면모를 다시 찾을 수 있게 되었다.

2. 고구려의 대반격과 백제의 좌절

1) 백제의 왜(倭)에 대한 접근과 신라의 견제

4세기 후반에 해양강국으로 부상한 백제는 이를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왔다. 이를 위해서 백제는 왜를 자신이 주도하는 동북아 해양 교역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로 생각했던 듯하다. 그리하여 근초고왕 21년에 왜와 거래를 해오던 가야의 탁순쿠(오늘의 창원)에게 왜와의 연결을 부탁하기도 하고, 중국과의 해양교역을 통해서 축적한 진귀한 물품들을 왜에 제공할 것을 제의하기도 하면서 점차 왜의 마음을 사로잡아 갔다.

이에 다급해진 것은 신라였다. 백제와 왜가 접근하면 신라는 고립의 처지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백제처럼 왜에게 제공할 진귀한 물품을 확보하지 못한 신라로서는 속수무책일 뿐이었다. 그리하여 신라는 367년에 백제의 사신이 왜에 제공하려는 물건들을 중간에 약취하여 자신의 물건인 양 왜에 제공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는 백제와 왜의 관계 진전을 저지하고 대신 신라와 왜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국제 관례상 있을 수 없는 무리수를 둔 것이었다.

이 사건은 당연히 진상이 드러났고, 백제의 왜에 대한 대규모 물량공세는 계속되었다. 왜왕은 백제가 바치는 완호물과 진기한 물건들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이라 하여 더할 나위 없는 만족을 표하였다. 백제가 칠지도를 왜왕에 보낸 것도 이때였다. 이때부터 백제는 자신이 주도하는 동북아 교역체계 안에 왜를 편입하여 경제적 공생의 관계로 발전시켜 갔고, 이

를 견제하려는 신라를 왜와 함께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신라는 고구려에 접근하여 활로를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392년에 신라 내물왕이 진골 귀족의 자제인 실성(實聖)을 고구려에 인질로 파견했던 것은 고구려에 접근하려는 방책의 일환이었다.

2) 고구려의 대반격과 백제 · 왜의 동맹

371년 평양성 전투에서 백제에게 불의의 일격을 당해 국왕(고국원왕)을 잃은 고구려는 한때 기세가 꺾이는 듯 했다. 그러나 소수림왕과 고국양왕이 곧바로 일대 국가 진흥책을 펼침에 따라 다시 강국의 면모를 회복하고, 백제에 대한 반격의 준비를 갖추어 갔다.

고구려의 대규모 백제 공격은 광개토왕이 즉위하는 391년부터 본격 개시되었다. 이때부터 광개토왕 6년(396)까지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하여 탈취한 땅이 58성 700여 촌에 달했으니, 고구려의 공세가 얼마나 대대적으로 감행되었는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광개토왕이 동원한 군대 중에는 기병이나 보병 이외에 수군을 동원한 흔적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그간 백제가 주도해 오던 동북아 해상교역체계를 근저에서부터 뒤흔드는 것이었다.

이에 백제의 아신왕(阿莘王)은 계속되는 고구려의 파상적 공격을 둔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일단 고구려에 항복하고 영원히 고구려의 노객(奴客)이 될 것임을 맹세하는 수모를 무릅쓰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시간을 벌기 위한 방편에 불과했고, 백제는 곧바로 왜와의 정치 · 군사적 연대를 강화하여 고구려의 침략에 대비하였다. 397년에 백제의 아신왕이 태자 전지를 왜에 인질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고구려를 의식하여 왜와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백제 주도의 교역체계를 통해서 많은 경제적 이득을 취해오던 왜 역시 기왕의 해양 질서가 붕괴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백제의 정치·군사적 연대 제의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이를 계기로 백제와 왜는 하나의 군사적 동맹 관계로까지 발전하였다. 두 나라는 고구려에 짝하여 공격해 오던 신라를 대대적으로 공격하는 한편, 고구려에 대해서도 바닷길을 통해 공격을 감행하였다. 광개토왕비에 의하면 백제와 왜는 399년에 신라를 침략하고, 404년에는 바다를 건너 고구려의 지배 하에 있던 대방지역(오늘날의 황해도)까지 침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백제가 중심이 되어 운영해 오던 동아시아 해양 교역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3) '왜 5왕'의 '홀로서기' 외교

399년에 백제와 왜의 침략을 받은 신라는 더 이상 자력으로 생존할 힘이 없음을 절감하고서 고구려에 구원을 요청했다. 이듬해에 고구려의 광개토왕은 5만의 대군을 신라에 보내어 백제와 왜의 침략세력을 퇴치하고, 내친 김에 백제와 교역관계를 맺어오던 가야까지 점령하였다. 그리고 신라와 가야 지역에 군대를 주둔시켰다. 이어 고구려는 404년에 대방 지역에까지 침략해온 백제와 왜를 격퇴하고, 407년에는 백제를 대대적으로 타격하였다.

이처럼 5세기에 접어들면서 고구려의 공세가 더욱 강력해졌고, 백제의 추락이 기정사실로 굳어짐에 따라, 왜는 점차 백제의 능력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백제가 주도하던 교역체계로부터 떨어져 나와

중국 남조와의 직접 교역을 시도했다. ‘홀로서기’ 를 시도한 것이다.

왜의 ‘홀로서기’ 시도는 왜왕이 중국 남조의 왕조들에게 사신을 파견하여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 줄 것을 집요하게 요청하는 외교 공세의 형태로 표출되었다. 그 과정을 잠시 약술해 보기로 하자.

중국 사서에서 왜왕에 대한 기록을 보면, 《삼국지》에서 3세기의 전설적 여주(女主) 히미포(卑彌呼)의 이름이 명기된 이후에 침묵을 지켜오다가, 5세기에 찬(讚)·진(珍)·제(濟)·흥(興)·무(武)로 이어지는 다섯 명의 왜왕 이름이 《송서》·《남제서》·《양서》 등에 잇따라 등장한다. 그러다가 6세기에 접어들면서 왜왕의 이름은 다시 중국 사서에서 사라져 버린다. 중국 사서에 5명의 왜왕이 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확실히 특이한 현상이어서, 일본고대사학계에서는 이를 중시하여 5세기를 ‘5왕의 시대’ 라 일컫는다.

중국 사서에서 왜왕의 이름을 명기하지 않은 것은 중국 왕조가 왜를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5세기에 ‘왜 5왕’ 의 이름을 집중적으로 명기한 것은 그 시기에 중국 왕조가 왜를 중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란 바로 왜의 집요한 대중국 ‘홀로서기’ 외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국 사서에서 ‘왜 5왕’ 의 행적은 사신을 파견하여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려 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 첫 시도는 438년에 왜왕 찬이 남조의 송 왕조에 대해서 왜(倭)·백제(百濟)·신라(新羅)·임나(任那)·진한(秦韓)·모한(慕韓)의 6국에 대한 군사적 통솔권을 자임하는 ‘사지절도독왜백제신라임나진한모한육국제군사(使持節都督倭百濟新羅任那秦韓慕韓六國諸軍事)’ 라는 작호와 ‘安東大長軍倭國王’ 이라는 장군호를 스스로 칭하면서, 이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작호에는 진한(秦韓)이나 모한(慕韓)과 같이 다른 사서에서

는 용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가공의 국명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백제나 신라나 임나처럼 결코 왜의 군사적 통솔을 받는 위치에 있지 않았을 국명 까지도 열거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작호는 왜가 이들 6국을 실제로 통솔한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아마도 왜가 송(宋) 왕조에 대해 자기 존재를 과시하려는 과장된 몸짓 정도로 이해하면 족할 것이다. 이에 대해 송은 작호를 인정해 주지 않았고, 장군호도 격을 낮추어 ‘안동대장군’이 아닌 ‘안동장군’으로 하향 조정하여 인정해 주는 것에 그쳤다. 이는 송 왕조가 이미 ‘진동대장군(鎭東大將軍)’의 장군호를 공인해준 백제보다 왜를 하위의 나라로 간주하고 있음을 공표한 것이었다.

찬의 뒤를 이은 네 명의 왜왕들도 중국 남조의 왕조들에게 사신을 보내 작호의 공인을 집요하게 요청하였다. 그 집요함에 감동했던지 송 왕조는 한때 백제를 제외하고 대신 가라(加羅)를 첨가한 ‘육국제군사(六國諸軍事)’의 작호와 격상된 ‘안동대장군’의 장군호를 형식적으로나마 인정해 주기도 하였다. 이는 백제가 고구려의 대공세에 밀려 기진맥진해 있던 사이에, 중국에 대한 왜의 직접 외교가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였고, 6세기에 접어들어 중국 남조의 새로운 왕조로 대두한 양(梁)은 왜에게 인정해준 가공의 작호를 거두어들이고 장군호도 ‘정동장군(征東將軍)’으로 다시 격하시킴으로써 원점으로 되돌렸다. 이후로 왜왕의 이름은 다시금 중국 사서에서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반면 양(梁)은 백제에 대해서 ‘정동대장군’의 장군호를 그대로 유지해 주는 한편으로 ‘백제가 다시 강국이 되었다’고 선언함으로써 백제의 영도적 지위를 다시 공인해 주었다. 이 때부터 백제는 해양강국으로서의 면모를 다시금 회복하게 되었던 것이니, 때는 무령왕(武寧王) 치세였다.

이제 백제가 온갖 시련을 극복하며 해양강국을 재건한 과정을 보자.

3. 백제의 '반고구려 국제연대' 구축 노력과 시련

1) 5세기 전반기의 상황

5세기에 접어들어 백제는 고구려의 공격에 일방적으로 밀렸고, '홀로 서기'를 시도하는 왜의 미묘한 움직임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왜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견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꺼안아야 했으며, 고구려에 대해서는 주변국의 힘을 결집하여 남진(南進)을 저지해야 하는 힘겨운 일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백제는 우선 403년~405년에 왜왕에게 백제공녀(百濟工女)를 보내고 왕족 궁월군(弓月君)과 아직기, 왕인 등의 학자들을 파견하였으며, 409년에도 사신을 파견하여 왜와의 맹방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이 즈음에 신라는 고구려의 남진 추세에 점차 위협을 느끼게 되면서, 일방적으로 고구려에 예속되어 오던 지위에서 벗어나려 했다. 그 일환으로 당시 신라의 실성왕(實聖王)은 402년에 내물왕의 왕자인 미사흔(美斯欣)을 적성국이었던 왜에 인질로 보내었다. 이는 왜와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여 고구려 일변도의 외교관계에 변화를 꾀함과 동시에 백제·왜 사이의 틈새를 파고들려는 다용도의 외교적 포석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신라의 이러한 의도는 제대로 관철되지 못했다. 백제에 대해 여전히 확고한 지지를 보내고 있던 왜는 신라와의 관계 개선에 기꺼이 나서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미사흔을 억류할 뿐이었다. 고구려는 고구려대로 신라에 대해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이에 실성왕은 412년에 내물왕의 왕자 복호(卜好)를 다시 고구려에 인질로 보냄으로써 여전히 그의 보호국임을 표명하는 수밖에 없었다. 결국 신라가 왜에 미사흔을 파견한 것은 여

러 가지 부작용만을 남기고 말았지만, 추후에 백제가 중국의 여러 나라와 신라·가야·왜를 망라하는 ‘반고구려 국제연대’를 구축하는 첫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던 차에 고구려는 417년에 왜에 협박성 교서(敎書)를 보냈다. 아마도 백제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고구려의 휘하에 들어올 것을 요구한 내용이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왜왕은 대노하면서 일축해 버리고 말았지만, 이때문에 고구려의 침략에 대한 왜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백제는 418년에 왜에 사신을 파견하여 백금(白錦) 10필을 보내어 맹방의 관계임을 재확인하고, 고구려에 대한 공동 대응을 다짐하였다. 같은 해에 신라의 눌지왕은 박제상을 시켜 왜와 고구려에 인질로 보냈던 자신의 아우들, 즉 미사흔과 복호를 탈출시켜 돌아오게 함으로써, 실성왕이 남긴 외교적 부담을 청산하고 고구려의 예측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외교노선을 펼칠 수 있는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다.

2) 고구려의 평양천도와 백제의 ‘반고구려 국제연대’ 구축 노력

바로 그 즈음 427년에 고구려가 평양천도를 단행하였으니, 이는 남진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가야와 왜뿐만 아니라 신라까지도 고구려의 남진정책에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백제는 이를 계기로 자연스럽게 주변국과 ‘반고구려 국제연대’를 구축해 갔다.

먼저 428년에 백제의 비유왕은 누이 신제도원(新齊都媛) 등을 왜에 파견하여 왜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429년·430년·440년에는 송에 사신을 파견하여 연대를 모색하였다. 더 나아가 적성국이던 신라에게

까지 433·434년에 잇따라 사신을 파견하였고 신라의 눌지왕이 이에 화답하여 사신을 보내오니, 자연스럽게 나·제 동맹이 체결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에 편승하여 신라는 450년에 ‘우발적 사고’를 가장하여 고구려의 변장(邊將)을 실직(悉直)(오늘의 삼척)에서 살해하는 사건을 일으킴으로써, 고구려와의 결별을 결행했다. 백제의 의도대로 ‘반고구려 국제연대’의 실현이 무르익어 갔던 것이다.

비유왕의 뒤를 이은 개로왕(蓋鹵王)은 이를 더욱 강화해 갔다. 우선 461년에 자신의 동생 곤지(昆支)를 왜에 파견하였는데, 이는 아마도 ‘홀로서기’에 몰두해 있던 왜를 설득하여 ‘반고구려 국제연대’에 동참할 것을 권고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동북아 해상교역이 경색됨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던 여러 국가들에게 해상교역의 경색 책임이 전적으로 고구려의 침략행위에 있다는 것을 호소함으로써, 중국 남북조를 포함한 동북아 국제사회에 반고구려 여론을 조성하는데 박차를 가했다.

472년에 백제는 북조의 북위(北魏) 왕조에 국서를 보내어 고구려를 신랄하게 비난하였다. 즉 고구려가 ‘황제의 통로’인 바닷길을 차단하여 조공 사절을 보내지 못하게 되었음을 상기시키고, 북위가 백제에 보낸 사신선을 고구려가 공격하여 깨뜨리고 사신들을 해상에서 살해한 사실을 고발하면서, 고구려를 공격해 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북위의 조치는 매우 미온적이었다. 북위는 고구려에 조서를 보내 사절단이 백제에 갈 수 있도록 연안항로를 터줄 것을 요청하는 것에 그칠 뿐이었다. 그리고 고구려가 이를 묵살하자, 북위는 할 수 없다는 듯이 산동반도의 봉래(蓬萊)에서 횡단항로를 통해 백제에 사절단을 파견하려 하였으나, 이마저도 바람에 막혀서 되돌아 올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동북아의 여러 나라를 연결해주던 연안항로는 고구려의 강력한 저

지로 경색되기에 이르렀고, 황해 횡단항로는 아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 당분간 계속되었다.

3) 백제의 한성 함락과 시련의 계속

개로왕 대에 백제의 ‘반고구려 국제연대’의 구축 시도가 가시화하자, 고구려는 백제의 수도이자 연안항로의 최고 요충지로 각광받아오던 한강 하류의 한성을 공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고구려의 장수왕은 도림(道琳)이라는 승려를 백제에 간첩으로 파견하여 주도면밀한 사전 공작을 꾸몄으며, 한강의 북안(北岸)에 한성 공격을 위한 요새지를 구축하였다. 최근 고구려 요새지의 흔적들이 구의동의 구릉 정상에서, 그리고 용마산과 아차산의 곳곳에서 속속 발굴되고 있어,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다. 이처럼 준비가 무르익자 장수왕은 마침내 백제를 총공격하여 개로왕을 죽이고 한성을 점령하였다. 475년의 일이었다.

고구려의 한성 점령은 연안항로의 경색을 더욱 부채질했고, 당연히 동북아 해상교역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여러 국가들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자연히 반고구려의 여론은 국제사회에 더욱 확산되어 갔다.

그러나 한성을 빼앗기고 쫓기듯이 웅진오늘의 공주이로 천도한 백제는 당분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고구려 국제연대’의 구축이라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개로왕의 아우로서 웅진에서 왕위에 오른 문주왕(文周王)은 476년에 송에 사신을 보내 난국을 수습하려 하였으나, 고구려 수군에 저지당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급기야 문주왕은 내분이 일어나 해구(解仇)에게 피살당하고 말았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문주왕의 어린 아들이 왕위에 올랐으나(三斤王), 그 역시도 난국을 감당하지 못하고 불과 3년 만에 죽고 말았다.

대내적으로 난국을 수습하고 대외적으로 '반고구려 국제연대' 을 구축하는 일은 문주왕의 동생 곤지(昆支)의 아들 말다(末多)(혹은 牟大라고도 함)에게 돌아갔다. 왜(倭)의 하내국(河內國)에 16년 장기 체류하던 부친 곤지를 따라 왜국에 머물러 있던 말다는 조카 삼근왕이 죽자 왜(倭) 축자국(筑紫國)북규슈의 군사 500명의 호위를 받으며 귀국하여 왕위에 올랐다(東城王). 왜국에서 그에게 호위병을 붙여준 것은, 백제 정정(政情)의 불안으로 '반고구려 국제연대' 의 시도가 무위로 돌아가고 있던 당시의 상황을 염려하여 동성왕을 응원해주기 위함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동성왕은 주변국의 이런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 우선 중국 왕조와의 관계를 능동적으로 개선하지 못하였다. 즉위 6년(484)에 이르러 중국 남조의 신흥 왕조 남제(南齊)가 북조의 북위를 견제하기 위해 고구려 장수왕을 표기대장군(驃騎大將軍)으로 책봉해 주는 일이 일어나고서야, 동성왕은 뒤늦게 남제에 사신을 보내 관계 개선을 모색할 뿐이었다. 그렇지만 이마저의 관계도 고구려의 방해로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리고 북위로부터는 오히려 침략을 받는 처지가 되기까지 했다.

반면에 신라에 대해서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관계를 복원해 갔다. 동성왕 7년(485)에 신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관계 개선을 모색하였고, 15년(493)에는 신라에 청혼하여 이찬(伊漣) 비지(比知)의 딸과 결혼하여 이전의 동맹관계를 회복하였다. 그리하여 두 나라는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서로 원병을 파견할 정도로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성왕은 말년에 호화로운 임류각(臨流閣)이라는 정자를 지어 환락의 생활에 탐닉하였고, 때마침 자연재해까지 겹쳐, 정국은 다시금 혼란에 빠져들었다. 결국 그 와중에서 동성왕은 백가(苜加)에게 피살당하고

말았다. 이렇듯 백제의 시련은 계속되었고, 연안항로의 경색 국면은 그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었다.

4. 백제의 해양강국 재건과 또 한 번의 좌절

1)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무령왕(武寧王)

동성왕의 뒤를 이은 이는 무령왕이었다. 그에게는 거둬지는 시련을 종식시키고 그동안 백제가 꿈꿔오던 근초고왕 시대의 해양강국을 재건해야 한다는 과제가 주어졌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는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해양강국 재건의 기틀을 마련했다.

무령왕은 문헌에 따라 그의 출자(出自)에 대한 설이 다양하게 전해온다. ① 동성왕의 아들이라는 설, ② 개로왕의 아들(곤지의 의붓자식)이라는 설, ③ 곤지의 아들(동성왕의 이모형(異母兄))이라는 설 등이 그것이다. 이 중 ①은 무령왕이 동성왕의 뒤를 이었으므로 동성왕의 아들일 것이라고 본 것인데, 무령왕이 동성왕보다 나이가 많으므로 이는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진실은 ②와 ③ 중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먼저 《일본서기》에 ②의 설과 관련된 설화가 전한다. 개로왕이 아우 곤지를 왜국으로 파견할 때, 곤지가 만삭인 개로왕의 부인(즉 자신의 형수와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개로왕이 이를 허락하였다 한다. 다만 도중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배에 태워 귀국시켜 줄 것을 조건으로 달았는데, 과연 도중에 축자(筑紫) 각라도(各羅島)라는 섬에서 출산하였고, 섬에서 태어났

다 하여 이름을 도군(島君)이라 칭했다 하니, 이가 무령왕이라는 것이다.

이는 내용 자체가 너무 허무맹랑하다. 그래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③에 따라 무령왕을 곤지의 아들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필자 역시 곤지의 아들이라는 설을 따르고 있지만, ②의 설화가 만들어진 데에는 무언가 사연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것은 아마도 무령왕이 한성시대 마지막 왕인 개로왕과의 계승성을 표방하기 위해 이와 같은 설화를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한다.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개로왕은 신라·가야·왜, 그리고 중국 남북조를 망라하여 '반고구려 국제연대'를 구축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가다가, 결국 고구려 장수왕의 주도면밀한 전략에 말려들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원통하게 전사당하고 말았던 인물이다. 따라서 무령왕에게 개로왕은 '반고구려 국제연대'의 구축을 실현해 가는데 상징적인 방향타와도 같은 인물로 여겨졌음직하다. 바로 그러한 개로왕의 상징성을 계승하기 위해서 무령왕은 설화로나마 개로왕이 자신의 아버지임을 유포시켰을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다.

결국 무령왕은 국내에서는 개로왕의 계승자임을 표방하여 강력한 반고구려 정책을 계승하려 했고, 왜의 하내국(河內國) 지역에 장기 체류하며 유력한 씨족으로 성장한 곤지(昆支)의 아들로서 왜와의 인연도 강조하고 싶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이 ②에 전하는 바와 같은 기묘한 설화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2) 해양강국을 재건한 무령왕

무령왕은 501년에 즉위하자 먼저 동성왕을 죽인 백가(昔加)의 세력을

타도하고, 투항한 백가를 백강에 던져버렸다. 왕권에 도전하는 자에 대한 냉엄한 본보기를 보여준 것이리라. 그리고 무령왕 4년에 마나군(麻那君)을, 그 이듬해엔 아들 사아군(斯我君)을 왜에 파견하여 왜와의 관계 복원에도 적극성을 보였다. 509년에는 왜가 사신을 보내왔으며, 이후에 양국간의 사신·학자·장군의 왕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508년에는 탐라[제주도]와도 처음으로 통교 관계를 맺었다. 이로써 무령왕은 우선 남방의 연안항로만은 완전 정상화시킬 수 있었다.

문제는 고구려에 의해 차단된 북방의 연안항로였다. 여세를 몰아 무령왕은 고구려와의 전투에서 우위를 점함으로써, 북방의 연안항로도 개통하였다. 그리고 중국 남조의 양(梁) 왕조와 자신감 넘치는 교역을 전개해 갔다. 무령왕 21년(521)에 무령왕은 양 왕조에 표문(表文)을 올려 고구려를 여러 차례 무찔렀음을 과시하였고, 이에 대한 양 왕조의 반응은 ‘백제가 다시 강국이 되었다’고 기록한 《양서(梁書)》의 기사(記事)로 전해온다. ‘다시 강국이 되었다’ 함은 근초고왕 시대의 해양강국을 ‘다시’ 재건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다.

바로 이때에 즈음하여 왜의 ‘홀로서기’ 시도는 중지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 왕조는 송 왕조가 왜에게 추인해준, ‘사지절·육국제군사(使持節·六國諸軍事)’ 운운하는 가공의 작호를 거두어들이고 장군호도 ‘진동대장군’에서 ‘정동장군’으로 격하시켜 버렸다. 그나마도 502년을 끝으로 왜왕의 이름은 다시금 중국 사서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반면 백제에 대해서는 ‘정동대장군’의 장군호를 그대로 유지시켜 줌으로써 백제의 지도적 지위를 공인해 주었다. 곧 양 왕조는 백제를 유일한 교역 파트너로 인정해 주었던 것이고, 백제의 동북아 해상 교역의 중개역은 다시 한번 빛을 보게 되었다.

무령왕은 백제의 왕이었고 일본 축자(筑紫) 각라도(各羅島)에서 출생했

다는 설화의 주인공이며, 죽은 후에는 중국 남조양식으로 만들어진 전축 분(博築墳)공주 무령왕릉에 묻힌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고대 한·중·일의 문화를 한 몸에 포괄한 문화 개방의 상징적 인물이었다. 그가 근 1세기 동안이나 지루하게 끌어온 동북아 연안항로의 경색 국면을 타개하고 해상교역을 주도할 수 있게 된 데에는 이러한 그의 개방적 마인드가 작용했다는 것을 주목할 일이다.

3) 신라의 한강 하류 탈취, 그리고 또 한 차례 백제의 긴 좌절

이처럼 백제의 해양강국 재건의 꿈은 무령왕 대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성왕 대에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그렇지만 이것은 오래가지 못했다. 곧바로 신라의 도전에 직면했던 것이다.

6세기에 접어들면서 신라 역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였다. 특히 신라의 진흥왕(眞興王)은 532년에 금관가야를 복속시켜 연안항로의 요충지인 낙동강 하구의 김해 일대를 중심으로 해양문화와 해양진출의 맛을 실감하고 있었다. 백제와 신라는 연안항로 경색 국면의 타개라는 공동의 관심사를 실현하기 위해 의기투합하여 방해꾼 고구려의 공격에 힘을 합쳤으나, 이는 동상이몽(同床異夢)이었다.

마침내 551년에 백제와 신라의 군대는 동시에 고구려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백제군은 한강 하류로 곧바로 진격하여 자신의 옛 수도인 한성(漢城)을 탈환하였고, 신라군은 북으로 죽령을 넘어 철령에 이르는 10군을 차지하였다. 마침 내전에 휩싸여 국력이 크게 쇠잔해 있던 고구려는 백제와 신라의 협공에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것으로 상황이 완료된 것은 아니었다. 아니 이제부터는 백제

와 신라 사이에 새로운 갈등의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다. 신라의 진흥왕은 연안항로의 최고 요충지인 한강 하류지역을 라이벌국인 백제에게 그대로 양보하려 하지 않았으며, 이를 탈취하기 위한 일련의 공작을 은밀히 진행시켜가고 있었던 것이다. 즉 553년에 오늘날 이천 지역에 남천주(南川州)를 설치하여 한강 하류로 진군해갈 군대를 주둔시켰고, 이를 교두보로 삼아 그 이듬해에 한강 하류에 대한 공격을 전격 감행하였다. 허를 찔린 백제는 성왕(聖王)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나와 신라군을 맞아 싸웠으나 역부족이었다. 결국 성왕은 554년에 관산성(현 충청도 옥천) 전투에서 전사했으며, 한강 하류의 한성은 신라 차지가 되었다.

진흥왕은 557년에 북한산주(北漢山州)를 설치하여 한강 하류를 지키는 군단을 주둔시켰으며, 북한산에 순수비를 세워 한강 하류 탈취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였다. 이는 결국 신라가 중국과 연결할 수 있는 해양 통로를 확보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삼국 통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셈이었다. 백제는 다시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백제의 운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해양강국의 짧은 재건, 긴 좌절’이라 할까?

5. 한강 하류 점령 후에 신라가 겪은 시련

1) 신라의 한강 하류 점령과 독주

진흥왕 15년(554년)에 신라가 한강 하류를 점령한 사건은 일대 충격이

었다. 한마디로 그간에 백제와 고구려가 번갈아 가면서 장악해오던 동북
 아 연안항로의 주도권이 신라의 수중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신라의 한강 하류 점령은, 고구려의 내분을 틈타 기도되었고, 백제와의 대
 결에서 증홍의 기수인 백제 성왕을 전사시키면서 당당히 실력으로 쟁취
 했다는 점에서, 삼국의 세력 관계에서 엄청난 변화의 파장을 몰고 올 것이
 예상되는 바였다.

고구려의 내분은 계속되었고, 백제의 국왕 전사의 충격은 쉽게 수습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진흥왕이 이끄는 신라의 독주는 당분간 계속되었
 다. 즉 진흥왕은 바닷길을 통해 북조의 북제(北齊)와 남조의 진(陳) 왕조
 에 사신을 파견하여 중국 남북조와의 정치·경제적 교류를 확대해 가는
 한편, 사방으로 군사적 대팽창을 실현해 갔다. 먼저 동해안 방면으로 팽창
 을 거듭하여 556년에 원산만 지역까지 진출하였고, 561년에는 사방에 파
 견한 군사령관들을 가야 창녕 지방으로 모아 전의를 재확인하는 집회를
 가졌으며, 565년에는 가야를 완전 병탄하였다. 그리하여 진흥왕은 568년
 에 동북 및 서북방의 세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순수비를 세움으로써, 그간
 새로 평정한 지역이 명실상부한 신라의 영토임을 내외에 천명하였다. 북
 한산비, 마운령비, 황초령비가 이때 세워진 순수비이다.

2) 고구려·백제의 반격과 신라의 시련

대팽창을 주도한 신라의 영명한 군주 진흥왕이 죽고, 고구려와 백제의
 내정이 수습 국면에 접어들면서, 고구려·백제의 신라에 대한 대반격은
 서서히 시작되었다. 먼저 고구려는 604년에 한강 하류지역을 공격하는 것
 으로 신라에 대한 첫 반격을 개시했다. 그렇지만 아직 신라의 기세가 누그

러지지 않았고 고구려의 국세가 정상 상태로 회복된 단계가 아니어서, 신라에게 타격을 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렇지만 이는 차후 본격적 반격을 위한 신호탄이었던 셈이다.

신라에 선덕여왕이 즉위하면서 국내의 사정은 크게 달라졌다. 상대등을 위시로 한 신라의 최고 귀족들 중에는 여왕의 즉위에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는 자들이 많았고, 신라 국내의 정치세력들은 반여왕파와 친여왕파로 나뉘어 갈등과 대립을 거듭하였다. 중국의 당 왕조도 여왕의 즉위에 대해서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분위기였다. 신라는 점차 내외외환에 빠져들어 갔고, 고구려와 백제는 이런 신라를 그냥 놔두지 않았다.

신라에 대한 그들의 대반격은 선덕여왕 11년(642)에 집중되었다. 먼저 반격의 포문을 연 것은 백제였다. 이 해에 백제는 신라 서쪽 경계의 40여성을 함락시켰고, 난공불락의 요새지로 자처하던 대야성마저도 쓰러뜨렸으며, 이어서 고구려와 연대하여 당으로 통하는 신라의 주요 항구인 남양만의 당항성까지도 넘보려 하였다. 만약 당항성이 무너진다면 신라로서는 대당 출구마저 봉쇄당하는 꼴이 되어, 고립무원의 막다른 길목에 봉착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었다. 다행이랄까, 백제와 고구려의 군사적 연대에 차질이 빚어졌고, 당도 간접적으로 이에 개입하여, 당항성 함락이라는 최악의 국면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3) 막혀버린 신라의 바닷길

고구려와 백제는 바닷길을 차단하여 신라가 당 왕조와 통하는 것을 방해하는 고립화작전을 계속 구사하였다. 이제 신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바닷길을 돌파하여 외부세력과 정치·군사적인 연대를 모색하는 길 외에

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 그 일을 전담한 이가 바로 김춘추였다.

642년에 김춘추가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은 고구려였다. 그는 연개소문과 만나 군사 원조를 위한 담판을 시도하였지만, 연개소문은 오히려 김춘추를 인질로 잡아 신라가 점령한 영토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고구려에서 간신히 탈출한 김춘추는 647년에 왜에 건너가 원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왜 역시 백제와 군사동맹관계에 있었던지라 신라를 도와줄 리가 없었다.

이제 신라가 마지막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당 왕조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김춘추는 고구려와 백제의 감시망을 뚫고 당에 건너가는 위험한 여행길에 오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마침내 그는 648년에 바닷길을 통해서 당에 건너가 당 태종으로부터 군사 원조의 약속을 받아내는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 그렇지만 그는 돌아오는 길에 국경의 해상(海上)에서 고구려의 순라병에 발각되는 위험천만한 위기의 상황을 맞게 되는데, 결국 부하인 온군해(溫君解)에게 자신의 옷을 입혀 순라병을 유인하게 하고서, 자신은 탈출하여 조그만 배에 몸을 싣고 가까스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고구려와 백제의 해상 감시망은 신라를 더욱 옥죄어 오고 있었던 것이다. 다른 예이지만 신라의 승려 의상과 원효가 구법(求法)을 위해 650년에 당에 건너가려다가 중도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도, 알고 보면 고구려와 백제의 삼엄한 해상 감시망에 막혔기 때문이었다. 신라가 이미 한강 하류지역을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닷길은 완전 차단되어 점차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다. 삼국의 대결구도가 격화되어 가면 갈수록 동북아 연안항로는 더욱 돌이킬 수 없는 막혀버린 길이 되어 버렸던 것이다. 이제 흥망의 갈림길에 선 신라의 차후 운명은 바닷길을 복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터였다. 결국 당과 신라는 그 돌과구를 황해 횡단항로의 개척에서 찾아 나섰다.

6. 황해 횡단항로의 개척과 기벌포 해전

1) 황해 횡단항로 개척의 계기, 나·당 군사동맹

6세기에 신라는 해양 진출의 요충지에 해당하는 가야 지역을 완전 병탄하고 고구려와 백제의 대립 관계를 교묘히 이용하여 한강 하류지역에 진출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이어서 중국 남조 및 북조에 대해 해양을 통한 외교를 적극 추진해 갔다. 그러나 이러한 신라의 해양진출은 7세기에 들어 곧 고구려와 백제의 견제를 받아 연안항로가 차단당함에 따라 무력화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신라는 연안항로를 포기하고 당과의 연결을 통해서 외교적 고립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결국 그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황해 횡단항로의 개척이었다.

황해 횡단항로는 고구려와 백제의 위협을 피해 당과 연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거리도 연안항로에 비해 크게 단축할 수 있었으므로 신라에게는 여러모로 절실히 필요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횡단항로는 아직은 바로 활성화되기 어려운 점도 있었다. 먼저 연안항로에 비해 항해 과정에서 위험도가 훨씬 높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고구려와 백제의 견제 역시 오히려 더욱 집요해져 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642년에 고구려와 백제가 황해 횡단항로의 요충항이라 할 당항성[오늘의 남양민을 탈취하려 했던 사건]이야말로 신라가 황해 횡단항로를 통해 당에 접근하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던 중 황해 횡단항로가 본격 개척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은 648년에 당 태종과 신라의 김춘추 사이에 나당군사동맹이 체결됨으로써였

다. 군사동맹 이후 나당 간의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고구려와 백제의 통제 하에 있는 연안항로를 대신할 새로운 항로의 개척이 절실히 요청되었던 것이다. 황해 횡단항로가 그 돌파구였다.

2) 소정방의 황해 횡단과 미자진 상륙작전

황해 횡단항로의 본격적인 개척은 당군이 신라군과 연합하여 백제를 공격하기 위해 660년에 황해를 횡단하는 대규모 군사 이동 작전을 감행하면서 비롯하였다. 즉 소정방이 이끈 당군은 산둥반도의 성산(城山)를 출발하여 황해를 횡단, 덕물도오늘의 경기도 덕적도에 잠시 진주하였다가, 이를 발판으로 상륙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백제 조정 군신들의 의견은 분분하였다. 상륙을 허용하여 피로한 당군이 전열을 가다듬기 전에 이를 급습하자는 의견, 상륙을 저지하여 그 예봉을 무디게 한 후에 공습하자는 의견 등으로 분산되어 좁혀잡기 어려운 의견으로 모아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의자왕에게 고언을 하다가 옥에 갇힌 신세가 된 백제의 충신 흥수(興首)는 당군의 상륙을 단호히 저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에 대해 군신들의 대세는 죄인의 의견을 따를 수 없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말았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충신의 마지막 충언이 그 의도와는 반대로 오히려 백제를 망국의 길목으로 몰아갔던 셈이었다. 결국 소정방의 군대는 백제군의 저항을 받지 않고 미자진(금강 하구 남안의 군산 부근)에 무혈 상륙하였으니, 이는 결국 백제 멸망의 단초가 된 일대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었다.

3) 새만금 앞바다, 국제 해전의 최고 요충지로 떠오르다

소정방의 미자진 상륙작전 이후에 금강과 만경강과 동진강이 합류하는 새만금 앞바다는 국제적 주목의 대상으로 떠올랐으며, 그 전략적 중요성은 삼국 통일전쟁의 과정에서 잇따라 입증되었다.

먼저 사비성 함락 이후에 백제부흥세력은 그와 동맹관계에 있던 왜(倭)의 지원군과 함께 백제·왜 연합군을 이루어 661년부터 3년에 걸쳐 나·당연합군과 일대 격전을 치르게 된다. 그런데 663년에 나·당 연합군이 백제·왜 연합군에 최후의 일격을 가해서 그들을 재기불능의 상태로 빠뜨린 해전이 동진강 하구인 백강구(白江口)에서 발발했다는 점은 새만금 앞바다가 얼마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던가를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준 바였다.

이처럼 660년 대규모 당군의 황해 횡단 성공은 이제까지 예외적이고 간헐적인 통로로서 이용되어 오던 황해 횡단항로의 상시적으로 활용 가능성을 높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횡단항로는 당분간 상시항로로서 정상 가동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나·당 연합군이 668년에 고구려까지 멸망시킨 후에, 당은 백제와 고구려의 옛 땅은 물론이고 신라의 땅마저도 지배하려는 야욕을 드러내면서 나·당 사이의 공조체제가 무너지고 결국 이후 8년여에 걸친 나·당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었다.

나·당 전쟁에서 신라는 고구려 및 백제의 부흥군을 지원하면서 육전에서 크고 작은 승전들을 거두어 점차 당의 기세를 꺾어 갔으며, 676년에는 황해를 횡단하여 기벌포(금강 하구 북안의 장항 부근)에 상륙하려는 설인귀의 당 원군을 격파함으로써 결정적 승기를 잡게 되었다. 기벌포 해전의 승리는 신라에게는 제해권의 장악을 가능하게 하였고, 당에게는 침략 의욕을 버리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7. 신라 문무왕 · 신문왕의 대일본 해양 방어 의식

1) 나는 죽어 나라를 지키는 동해의 호국룡이 되겠다

삼국 통일을 완성한 문무왕. 그는 평소에 지의법사(智義法師)에게 죽어서 나라를 지키는 동해 바다의 용이 되겠다는 생각을 말했고, 그것이 유언이 되어 결국 동해의 큰 바위에 장사 지내졌다고 전한다. 감포 앞 바다에 떠있는 유명한 대왕암이 그의 능으로 알려져 있다. 삼국 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그가 왜 지의법사의 만류를 무릅쓰고 짐승의 응보를 감수하면서까지 동해의 용이 되겠다고 나서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7세기 당시의 동북아 국제관계를 살펴보면, 그의 심정은 어느 정도 이해되는 바가 있다.

7세기에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 사이에서 벌어진 삼국 통일전쟁은, 당과 왜까지 참전함으로써 이른바 동북아 대전의 양상으로 전개되어 갔다. 신라는 백제를 지원한 왜를 격파하고(663년 백강구 전투의 승리) 당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676년 기벌포 해전의 승리)을 바탕으로 하여 통일을 달성하게 되지만, 그 때문에 통일 후에 신라 · 당 · 일본의 삼국 관계로 압축된 동북아 국제관계에서 외로운 신세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은 자신을 무력으로 축출한 신라와의 관계를 외면해 버렸고, 일본은 국호를 왜에서 일본으로 바꾸고서 신라에 대한 적대 의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이를 의식하여 문무왕은 당과의 전쟁을 치루면서도 사죄 사절단을 내치레나 당에 파견하여 당과의 관계를 유지하려 애썼다. 그러나 675년부터 나 · 당 사이의 외교관계는 완전 단절되었으며, 남으로 왜의 해상 침입이 우려되는 고립 상황은 계속되었다.

우선 시급한 것은 일본의 침입 가능성에 대한 대비였다. 이에 문무왕은

동남방의 해양 방어에 총력을 기울였다. 먼저 불력(佛力)으로 일본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서 감포 동해가에 진국사(鎭國寺)라는 호국사찰의 건설에 착수하였고, 681년에 임종을 맞이하는 스스로 동해의 호국룡이 될 것임을 밝히면서 자신을 화장하여 동해에 장사하도록 유언하는 극약 처방을 내리기도 했던 것이다. 이는 다음의 신문왕에게 대일본 해양방어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경고하기 위함이었다.

2) 신문왕의 해양 방어이념의 산물: 대왕암과 감은사와 이현대

신문왕은 문무왕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라, 해양방어를 위한 전국민적 역량 모으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의 이러한 노력의 흔적들은 감포 연안에 모여 있는 대왕암과 감은사와 이현대 등의 유적지에 얽혀 전한다.

먼저 신문왕은 즉위하자마자 문무왕의 유언에 따라 그를 화장하여 동해 대왕암에 장사지내고, 그 이듬 해인 682년에는 공사 중이던 진국사의 건설 공사를 마무리 짓고 부왕의 은혜를 기리기 위해 감은사(感恩寺)라 개칭하였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감은사 금당의 계단 아래의 동쪽에 구멍 하나를 뚫어 두는 특별한 장치를 만들어, 동해의 용이 된 부왕이 절에 들어와서 돌아다닐 수 있게 배려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대왕암과 감은사를 하나로 연결하여 용신신앙과 호국불교신앙을 결합하고, 이를 통해서 해양방어 및 호국의 이념을 극대화시키고자 했던 의도를 엿보게 한다.

감은사를 창건한 직후인 683년에는 동해의 용이 된 문무왕과 천신이 된 김유신이 만파식적(萬波息笛)이라는 보물을 신문왕에게 내렸다는 설화를 꾸며서 유포함으로써, 국왕의 정통성을 널리 선양함과 동시에 해양방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했다. 《삼국유사》에 전하는 그 이야

기의 대략은 이러하다.

“어느 날 바다를 지키는 해관(海官)으로부터 동해의 작은 산이 감은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는다. 일관이 점을 쳐서 문무왕과 김유신이 덕을 합하여 대왕에게 큰 보물을 내릴 조짐이라 풀이한다. 왕이 동해의 이현대(利見臺)에 행차를 하여 동해에 떠있는 산을 바라보고 사자를 보내어 살피게 한다. 사자는 산 위에 한 줄기의 대나무가 있는데 낮에는 돌이 되고 밤에는 합하여 하나가 되는 신비한 현상이 일어남을 보고한다. 이튿날 대나무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천지가 진동하고 비바람이 일어 어두컴컴해지더니 7일간이나 계속된다. 바람이 자고 물결이 평온해 지기를 기다려 왕이 그 산에 들어가니 문무왕과 김유신이 시켜서 왔다는 용이 검은 옥대(玉帶)를 바치면서, 대나무를 베어서 피리를 만들면 소리로써 천하를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고 일러준다. 그리하여 그것으로 피리를 만들어 만파식적(萬波息笛)이라 명명한다.”

만파식적이란 ‘험난한 파도를 다스릴 수 있는 피리’란 뜻으로서, 포괄적으로는 신라의 모든 난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피리로 이해할 수도 있겠고, 좀 한정하면 해양의 근심거리를 퇴치할 수 있는 피리로 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위의 만파식적 설화로써 판단컨대 후자의 의미로 봄이 타당할 듯하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만파식적이란 신문왕이 신라인의 해양 방어 의식을 결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각시킨 신물신앙(神物信仰)의 산물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신문왕은 신라인의 대일본 해양 방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대왕암의 용신신앙과 이현대 만파식적의 신물신앙을 강조하고 이를 감은사의 호국불교신앙으로 결집시켜서 적극 실천해 갔다고 할 것이다.

3) 대일본 해양 방어체제의 강화

이후 신라는 해양 방어체제를 더욱 강화해 갔다. 이 점에서 감은사와 석굴암과 골굴암의 관계가 시사하는 바가 주목을 끈다. 감은사의 앞을 지나 동해의 대왕암으로 흘러가는 대종천이 있는데, 이 대종천이 발원하는 토함산과 함월산에 각각 석굴암과 골굴암이라는 석굴사원이 축조되었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석굴암과 골굴암을 감은사와 연결시킴으로써, 불력(佛力)을 통해 해양방어의 이념을 극대화시키려는 주도면밀한 구상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방어의 주요 대상은 역시 일본이었다.

성덕왕 21년(722)에 왕경의 남부에 관문성을 축조함으로써 대일본 해방체제(海防體制)를 더욱 강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신라에 대한 침략을 그치지 않았으니, 성덕왕 30년의 침략 사실이 이를 대표한다. 그런데 일본의 신라 침략은 점차 정치·군사적 이유에서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물류의 단절로 인해 추락한 경제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이유에서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 따라서 해양을 사이에 두고 조성되어온 양국 간의 군사적 긴장관계는 동북아에 정치·경제적 교류관계가 다시 활발해지는 8세기 이후에 가서 비로소 서서히 해소되기 시작했다.

제4장

장보고 선단의 대두와 동아시아 해상무역

1. 장보고 선단의 대두 배경

1) 바닷길의 확대

8세기 말~9세기 초는 장보고라는 한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私設) 선단(船團)이 동북아의 무역활동을 장악·주도하는 극히 특이한 현상이 일어난 시기였다. 이러한 역사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우선 ‘남해로’를 중심으로 바닷길이 크게 확대되어 갔던 사실을 장보고 선단 대두의 한 배경으로 주목해 보기로 하자.

‘남해로’란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지중해에서 홍해, 아라비아해를 지나 인도양과 서태평양에 이르는 광활한 해상에서 동서문화교류와 교역이 진행된 바닷길을 말한다. 이 남해로는, ‘시리아-페르시아-중앙아시아-신강성(新疆省)-돈황-장안-낙양-개봉-대운하-[양주(揚州)-동지나해-천주(泉州)-광둥(廣東)]-점성(占星, 참파)-말레이-스리랑카-아라비아 해-홍해-시리아’로 이어지는 세계적인 육해(陸海)순환교통로(광의의 실크로드)의 한 구성부분으로서, 중국 동남해안에 위치한 ‘양주-동지나해-천주-광둥’을 연결고리로 하여 전반부의 ‘육상 실크로드’와 연결되는 후반부의 ‘해상 실크로드’를 지칭한다.

그런데 실크는 주로 ‘육상 실크로드’를 통해서 유통되었고, ‘해상 실크로드’는 실상 실크의 이동로라기보다는 주로 도자기와 향료의 이동로로 이용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남해로를 ‘도자로’ 혹은 ‘향료로’라 칭하는 견해도 있고, 다시 ‘도자로’는 세라믹로드(Ceramic Road) 혹은 차이나로드(China Road)라 불려지기도 한다.

이러한 남해로의 범위는 시기에 따라 한결같지는 않았지만, 로마를 서쪽 끝(西端)으로 하고 중국의 동남해안 일원을 동쪽 끝(東端)으로 하는 바닷길로 파악하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당시 남해로의 동단이 한반도와 일본 열도에까지 미친 것으로 보려는 견해가 제기되었는데, 이 견해는 매우 주목할 만한 몇 가지의 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인도나 동남아시아에 기원을 두고 있는 금박구슬이나 유리구슬이 2세기 이후의 한반도 남부의 여러 유구에서 출토되고 있다는 점, ② 흥덕왕 9년(834)에 내려진 사용 금령 대상 품목 중에 동남아산 진품이 여러 점 포함되어 있다는 점, ③ 가야 등의 불교가 바다를 통해서 남쪽에서 전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④ 9세기 이후의 중세 아랍 문헌에 신라와 아랍 제국 간의 내왕과 교류상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무하마드 간수, 《신라·서역 교류사》, 단국대학교 출판부, 1992).

그렇다면 특히 8세기에 접어들면서 황해 횡단항로와 동지나해 사단항로, 그리고 연안항로가 크게 활성화되어가고 있던 동북아의 바닷길은 남해로와 연결되어 당시의 전세계와 통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거기다가 8세기 중반에 안사의 난이 일어나면서 육상 실크로드의 관문이라 할 안서도호부 등이 대혼란에 빠져 육로가 끊기게 되면서, 남해로가 동서문화 교류의 통로로 더욱 각광받게 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바로 이 시기에 중국의 동남해안인 양주와 광주 등지에는 페르시아인 [波斯人]과 아라비아인[大食人], 그리고 인도인과 동남아인 등이 남해로를 통해 내왕하면서 동서 문물교류를 주도하고 있었다. 그들은 국가별로 '번방(蕃坊)'이라 칭하는 특수거류지를 형성하여 집단적으로 거주하였으며, 그들 중에서 '도번장(都蕃長)'을 뽑아 자치하기도 하였다. 이에 중국 왕조는 현종 개원 2년(714)에 광주에 시박사(市舶司)를 설치하여 증대되어

가는 대외무역 업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이들의 활동 공간은, 일부가 동북아의 연근해·횡단·사단항로 등을 통해서 중국 동해안변이나 신라, 일본 등지에까지 미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중세 아랍 문헌에서 신라에 대해 소개한 부분이 있고, 처용설화나 경주 패룡의 서역인 석상 등의 존재를 통해서 신라에 아라비아인들의 발길이 닿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서기》에서 제명천황(齊明天皇) 5년 4월에 토화라국(吐火羅國, 이란 동북부와 아프가니스탄 중류지방의 남너 2명씩과 사위(舍衛, 인도 갠지스 강 중류지방의 여자 1명이 탄 배가 표류하여 일향(日向) 지방에 표착했다는 가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페르시아, 인도인 등이 간헐적으로 일본에까지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것이었고, 대개 이들이 중국의 양주(揚州)를 한계로 하여 그 이상 북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당시 재당 신라인(在唐新羅人)들은 페르시아인이나 아라비아인들이 내왕하며 집단 거류지를 형성하고 있던 광주·천주·양주 등지에 출입하면서 그들과의 국제교역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었다. 그러는 한편으로 그들은 페르시아인이나 아라비아인들의 발길이 미치지 않는 양주 이북의 대운하변, 회하변, 산동반도 일대에 널리 그들만의 자치구인 신라방(新羅坊) 혹은 신라촌(新羅村)을 형성하여 안착하면서, 동북아의 여러 항로를 통해서 중국 동해안변과 신라 및 일본 등지에까지 동서 문물교역을 증대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는 곧 재당 신라인들이 동북아의 여러 항로, 즉 연안·황해 횡단·동지나 해 사단항로 등을 동서문화교류의 거대한 통로인 남해로에 연결시킴으로써, 남해로의 동쪽 끝을 신라와 일본에까지 확장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재당 신라인들의 중심에 장보고가 있었던 것이다.

2) 동아시아 무역체제의 변동: 공무역에서 사무역으로

8~9세기에 일어난 무역체제의 변동은 장보고 선단이 대두할 수 있게 한 또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 무역체제의 변동이란 공무역(公貿易)이 후퇴하고 사무역(私貿易)이 크게 활성화되었던 흐름을 말한다. 이러한 흐름이 없었다고 한다면 장보고 선단의 부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부연 설명해 보기로 하자.

삼국 통일전쟁의 과정에서 황해 횡단 및 동지나 해 사단항로가 개척되어 기왕의 연안항로와 더불어 동북아 바닷길은 크게 확대되었으나, 통일 직후인 7세기 후반에는 전쟁의 후유증으로 당·신라·일본 사이에 정치·군사적 긴장관계가 조성되어 평화로운 무역활동이 한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8세기에 접어들어 발해가 건국되는 등의 변수가 작용하여 동북아사회에 해빙무드가 조성되면서 동북아 해상무역활동은 새로운 전성기에 접어들었다. 이미 통일전쟁의 과정에서 황해 횡단항로가 본격 개통된 상황이었으므로, 8세기에 재개된 동북아 해상교역은 그 질과 양에서 연안항로 시대의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었다.

당시 당·신라·일본 3국은 공통적으로 황제 혹은 국왕을 중심으로 강한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구축하고 있었으므로, 3국 간의 무역은 국가의 강력한 관리와 통제를 받는 공무역이 중심을 이루었다. 그 공무역을 매개하고 활성화시킨 것은 신라의 견당사(遣唐使), 견일본사(遣日本使)들이었다. 신라의 견당사는 당에 머물면서 외교 활동을 펼치면서 당의 허용 하에 진귀한 당물(唐物)들을 수매하여 신라에 돌아왔다. 이 당물들의 일부는 신라에서 소비되기도 했고, 그 일부는 신라물(新羅物)과 함께 견일본사를 통해서 일본에 수출되기도 했다. 공무역의 성행으로 가장 이득을 보았던 것은 신라였으니, 이 시기에 신라가 정치·문화적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엄청난 공무역의 이득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일본에서는 신라인이 가져간 당물과 신라물을 통칭하여 신라물로 불렀다. 또 ‘염물(念物)’이라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일본인들에게 대단히 인기가 높아서 ‘얻고 싶은 물건’이란 의미였다. 일본인들은 신라물에 대한 과도한 구매 경쟁을 벌였고, 일본 조정은 이를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에 대한 통제를 맡은 것은 대장성(大藏省) 관리였다.

대장성 관리들은 신라물 구매를 원하는 자들에게 ‘매신라물해(買新羅物解)’라는 일종의 구매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여기에 구매하고자 하는 신라물의 품명과, 그 물품의 값에 응해서 지불할 비단제품의 종류와 분량, 기재연월일, 그리고 구매 희망자의 이름 등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는 일본의 국제무역에 대한 통제가 얼마나 철저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국제무역을 철저히 통제했던 것은 일본만이 아니었다. 당과 신라도 마찬가지였다. 예를 들어 당 전기에 편찬된 《당률소의(唐律疏議)》에 의하면, 변경 지역에서 외국인과 사사로이 교역하는 것을 금하고, 외국인이 국경을 넘어와 교역하면 내국인이 국경을 넘어 교역한 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국가가 통제하는 공무역을 굳이 유지하고자 했던 것은, 무역에 대한 통제권이 무너질 경우 사무역을 통해 불순 세력이 대두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작용하였다.

공무역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들의 사사로운 구매 욕구를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황제권(왕권)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8세기 후반부터 동아시아 3국에서 똑같이 왕권이 와해되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공무역만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된다.

당의 경우 755년에 일어난 절도사 안녹산의 난을 기점으로 황제권에도

전하는 절도사들의 발호가 전국에서 줄을 이었고, 농업생산력의 발달에 따라 균전제가 붕괴하고 상업 유통경제가 발달하는 경제적 변화가 겹쳐 일어나면서, 지방에 대한 당 왕조의 통제력은 급속히 약화되어 갔다.

신라의 경우 8세기 후반부터 귀족들의 반란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 하더니 집요한 왕위쟁탈전과 지방세력의 탈왕권화의 경향이 가속화되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역시 8세기 후반부터 황실의 외척세력이 득세하는 것을 시발점으로 하여 지방에서 장원(莊園)이 출현하고 이에 기반하여 독자세력을 이룬 호족들이 대두하였다.

공권력이 약화되면서 사무역을 통제할 수 없게 되고, 공무역은 쇠퇴하였다. 더 나아가 해양질서마저 무너지고 해적집단이 횡행하면서 공무역 이든 사무역이든 해양을 통한 무역 자체가 어렵게 되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동북아 해상무역에 다시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당은 공무역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되자 유력한 지방 번수(藩帥)에게 무역을 위임하는 편법을 쓰기도 했다. 산둥반도를 중심으로 일어난 평노치청(平盧淄靑)의 번수 이정기(李正己) 세력에게 발해와 신라에 대한 무역을 위임한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세력기반을 더욱 키워주어 당 왕조를 위협하게 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당 왕조는 위협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토벌작전에 나서야 했고, 이를 위해 대규모 모군(募軍)을 실시하였다.

장보고(張保臯)와 정년(鄭年)도 당에 건너가 군대 모집에 응모하였다. 장보고는 반란세력에 대한 진압작전에 참여하면서 세계의 큰 변화와 흐름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의 눈에는 확대된 바닷길과 사무역의 가능성이 보였을 것이다. 해적이 문제였다. 그의 의중엔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을까? ‘해적을 통제할 수만 있다면...’ 결국 그는 그 길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2. 재당 신라인 장보고의 입신

1) 장보고, 당에 건너가다

장보고의 유년시절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다. 다만 장보고가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점, 장보고의 고향 후배인 정년(鄭年)이 바닷물 속 잠수에 매우 능숙했다는 이야기, 중국에서 기아에 허덕이던 정년이 “고향에서 죽는 게 낫다”고 하면서 청해진의 장보고를 찾았던 사연, 그리고 후에 문성왕이 장보고의 딸을 차비(次妃)로 맞이들이려 할 때 조신(朝臣)들이 장보고가 해도인(海島人)임을 지적하면서 반대했던 일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그의 출신지는 완도로 보아 틀림없을 것이다.

장보고의 원래 이름은 궁복(弓福) 혹은 궁파(弓巴)로 알려져 있다. 혹은 궁복이란 이름을 ‘궁보’로 간주하여 ‘활쏘기를 좋아한 자’ 혹은 ‘활을 잘 쏜 자’란 의미로 풀기도 한다. 이는 ‘먹보’, ‘심술보’ 등류의 ‘-보’자 접미사의 용법으로 푼 것으로 매우 흥미롭다. 그가 당에 건너가 서주(徐州) 무령군(武寧軍) 군중소장(軍中小將)의 군직(軍職)에 올랐던 것이나 무예의 달인으로 알려져 있었던 것 등은 이러한 그의 이름 풀이를 그럴 듯하게 보이게 하는 면이다.

어느덧 청년으로 성장한 장보고는 10세 가량 어린 동향(同鄉)의 후배 정년(鄭年)과 함께 풍운의 꿈을 안고서 당으로 건너가서 30세 가량에 서주 무령군의 군중소장이라는 군직에 올랐다. 그런데 당에서 무령군이라는 군단명이 805년에 처음 칭해졌다고 하니, 805년의 해는 재당 시절 장보고의 행적을 추적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즉 장보고가 무령군의 소장직에 오른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805년 이전으로 올라갈 수는 없겠

고, 그가 당에 건너간 시기는 일단 805년 전후였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신라에 귀국한 시점이 828년이므로, 그가 당에 머문 기간은 9세기 초의 20~30년간으로 압축될 수 있을 것이다.

2) 무령군(武寧軍) 소장(小將)에 오른 장보고

그렇다면 당에 머무는 동안 장보고는 무엇을 했을까? 이 기간은 그의 인생을 결정지은 가장 중요한 시기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애석하게도 이 기간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따라서 일단 그가 무령군 소장직에 있었다는 사실을 재당 시절 그의 행적을 추적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로 삼을 수밖에 없다.

당시 무령군의 주요 임무는 당 조정에 반기를 든 평로치청(平盧淄靑)의 번수(藩帥) 이사도(李師道)가 이끄는 평로군을 토벌하는데 선봉에 서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사도의 평로군은 결국 819년에 완전 토벌되고 말았다. 장보고는 무령군의 일원으로 평로군 진압전에 참전하여 그 전공을 인정받아 소장직에까지 승진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참전의 경험이 야말로 장보고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의 구상을 하게 하는 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한다. 이런 관점에서 진압의 대상이었던 이사도 세력의 성격에 대해 간략히 스케치해 둘 필요가 있겠다.

평로치청의 번진세력이 반당의 기치를 내걸고 대두하게 된 것은 765년에 고구려유민 출신인 이정기(李正己)가 당 조정으로부터 임명받은 평로치청절도사 후희일(侯希逸)을 무력으로 몰아내고 스스로 번수가 되면서부터였다. 이후 819년 완전 진압될 때까지 이정기(李正己, 765~781)－이납(李納, ~792)－이사고(李師古, ~806)－이사도(李師道, ~819)로 이어지는

55년 동안 산동반도를 중심으로 군림하면서 하나의 ‘소왕국’을 이루었다. 한때 이정기 일가의 번진세력은 산동반도 일원의 15개 주를 영유하고 10만의 대군을 거느리는 최대의 번진으로 성장하여 당 왕조의 지배와 간섭을 배제하였다.

이처럼 짧은 기간 동안에 당 왕조를 위협하는 막강한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당 왕조로부터 발해와 신라와의 해상교역(海運)을 관장하는 ‘해운압신라발해양변사(海運押新羅渤海兩邊使)’의 업무를 위임받아 막대한 재부를 축적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산동반도를 중심으로 널리 해운의 요충지에 집단 거주하면서 막강한 경제력을 발휘하고 있던 재당 신라인들의 적극적인 후원도 이정기 일가의 급부상을 도왔을 것이다.

저명한 일본의 당 유학승인 엔닌(圓仁)이 쓴 일기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에 의하면 중국 동해안 변에 재당 신라인들의 집단 거주지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선박제조 및 수리업, 해운업, 목탄제조 및 유통업, 칼 제조업, 소금생산업 등 다양한 생업에 종사하면서 막강한 경제력과 조직망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소개되어 있다. 아마도 그들은 이국땅에서 일군 그들의 땀의 결실들을 정치적으로 보호받고자 하여 고구려 유민인 이정기 일가의 권력기반과 유착관계를 맺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이사도의 평로군도 대당 제국의 대대적인 공세 앞에서 결국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무령군 소장으로 이사도 세력의 진압전에 참전했던 장보고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동족이 이룬 정권을 무너뜨린다는 자책이 앞섰을까? 아니면 이정기 일가의 반당행위로 인해 재당 신라인사회가 통째로 당 조정의 위협세력으로 낙인찍혀 버릴 수도 있겠다는 우려를 했을까? 그의 심사는 매우 복

잡다단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점차 재당 신라인의 저력을 발견하고 이를 확신하게 되면서, 이정기 일가가 그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갖게 되었을 것이고, 그 대안으로 그들의 경제적 권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을 것이다. 그리하여 장보고는 819년에 이사도 세력이 완전 진압되자, 미련 없이 무령군 소장직에서 물러나 828년 귀국할 때까지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모종의 ‘새로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갔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다

‘새로운 사업’이란 무엇이었을까? 그 단서를 당대(唐代)의 저명한 시인인 두목(杜牧)이 《번천문집(樊川文集)》의 〈장보고·정년전(張保臯鄭年傳)〉에서 밝힌 장보고와 정년의 어긋난 인생행로에서 찾아보기로 하자.

장보고와 정년은 동향의 선후배로서 그가 처음 고향 땅을 떠나 이역만리 당나라에 건너온 데에는 그들만의 의기투합된 공통의 꿈이 있었을 터였다. 마침 당시 당나라에서는 절도사세력을 토벌하기 위해 모군(募軍)의 열풍이 일고 있었으니, 그들은 이에 응하여 군인으로 성공해 보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실제 두목은 두 사람에게 대해서 “모두 전투를 잘하여 그 본국에서나 서주(徐州)에서 능히 적대할 자가 없었다”고 적고 있다. 과연 그들은 같이 서주 무령군에 입대하여 나란히 군중소장의 지위에까지 올랐다.

그런데 이사도 세력을 진압해 가는 과정에서 장보고와 정년의 인생행로는 서서히 엇갈리게 되었다. 장보고는 이사도 세력이 진압된 뒤에 스스로 군직에서 물러나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었던 반면에 정년은 계속해서

군인의 길을 고집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엇갈림으로 인해 그들의 우정은 금이 가고 서로 질시하는 관계로 변질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장보고는 보기 좋게 성공을 거두고 828년에 금의환향하여 동북아 바다를 호령하는 ‘해상왕’으로 등극했는데 반해, 정년은 당 조정의 감군(減軍) 조치로 실직당하여 끼니조차 잇기 어려운 비참한 처지로 전락했다. 이러한 두 사람의 상반된 처지에 대해, 두목(杜牧)은 “장보고는 그 나라에서 이미 귀하게 되었는데, 정년은 어긋나고 초라하게 직을 떠난 신세가 되었다”고 적고 있다.

극한적인 기한(飢寒)에 시달리며 실의에 빠져 있던 정년은 그의 절친한 군대 동료였던 연수향(漣水鄉)의 술장(戍將) 풍원규(馮元規)를 찾아가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장보고에게 의탁하겠다는 의향을 타진하였다. 이에 대해 풍원규는 장(張)과 정(鄭) 두 사람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인지, 먼저 정년의 자존심을 걱정해 주었다. 그러나 정년은 굶어 죽느니 자존심을 굽히고 장보고를 찾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결심하고 이를 결행했다.

이처럼 두 사람의 우정이 벌어지게 된 계기를 장보고가 원래의 뜻을 버리고 ‘다른 길’을 택했던 것에서 찾게 된다면, 그 시점은 역시 이사도 세력의 진압 직후였을 것이다. 그리고 장보고의 ‘다른 길’, ‘새로운 사업’이란 재당 신라인들을 조직해서 국제 해상무역에 투신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4) 당대 최고 국제 해상무역가로 성공하다

장보고가 이처럼 재당 신라인을 이끄는 지도자로 급부상하게 된 배경

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먼저 9세기 초반에 광범위한 번진세력의 발호로 당의 지방 통제력이 급격히 약화되어간 추세에 편승하여 기승을 부리던 해적의 무리에 대해서 장보고가 단호한 대처를 해낼 수 있는 인물로 부각되기 시작했으리라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실제 당시 해적이라 불리는 불법적인 해양세력의 약탈 행위는 국제적인 외교 문제로 비화될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신라가 숙위왕자(宿衛王子) 김장림(金長廉)을 통해서 해적들의 신라인 약매(掠賣) 행위를 단속해 줄 것을 당 왕조에 정식 요청했고, 이에 대해 당은 816년에 신라인을 노비로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금령(禁令)을 내린 바 있을 정도였다.

당시 다양한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재당 신라인들 역시 이러한 해적의 피해에서 예외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그간 자신들을 지켜주던 이정기 일가의 동족정권마저 무너지면서, 재당 신라인들은 해적들의 약탈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생업에 심대한 위협을 느끼게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적들에 대한 퇴치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던 인물이 바로 장보고였던 것이다.

후에 장보고가 828년에 귀국하여 신라 흥덕왕에게 청해진 설치를 건의하면서 해적들의 신라인 약탈행위를 막겠다는 것을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웠던 것은 재당 시절부터 해적 퇴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그렇지 않아도 동족 출신인 이정기 일가의 정권이 붕괴되면서 구심력을 상실하여 심리적 허탈감에 빠졌을 재당 신라인들에게 장보고는 급속하게 그들의 새로운 지도자로 떠올랐던 것이다.

장보고는 군중소장의 경험에서 나온 군사전략가적 소양을 바탕으로 해적 퇴치에 뛰어난 수완을 발휘하였고, 여기에 두목이 추켜세웠듯이 인의 지심(仁義之心)과 명견(明見)의 통찰력을 겸비한 빼어난 자질은 재당 신

라인사회에서 대중적 인기와 신임을 한몸에 받게 했다. 이를 통해서 그는 재당 신라인사회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갔던 것이고, 이것이 장보고가 당대 최고의 국제 해상무역가로 입신하게 되는 기반이 되었을 것임은 물론이다.

그런데 당에 머무는 동안 장보고의 구체적인 행적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적다. 다만 일본의 승려로서 장보고의 도움을 받아 9년 반 동안 중국 대륙을 돌아다니며 구법활동을 수행한 엔닌이 그의 경험담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입당구법순례행기》를 통해서 그의 행적을 역추적해 볼 수 있을 따름이다.

이에 의하면 장보고는 산둥반도 등주(登州)의 적산포(赤山浦)를 중심 기지로 삼고, 회하(淮河)와 대운하가 만나는 수운의 요충지인 초주(楚州)를 또 하나의 거점으로 삼아서 중국 동해안의 해양 운송시스템을 구축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향인 신라 서남해지역의 해양세력을 결집하고, 일본 규슈 일대에 그의 친분세력을 만들고 이들을 연결하는 국제 해양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동북아 해상무역을 주도하고 장악해 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견지에서 장보고가 재당 시절에 세웠다는 적산 법화원(赤山法華院)이라는 대규모 사찰이야말로 당시 그가 주도한 국제 해양네트워크의 상징적 구심체가 되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3. 장보고의 귀국과 청해진 건설

1) 귀국과 청해진 건설

당에서 크게 성공을 거둔 장보고는 828년에 급거 신라에 귀국하였다. 그리고 흥덕왕에게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할 것을 건의한다. 당에서 동북아 최고의 국제 해상무역가로 성장하여 그 명성을 떨치던 장보고가 왜 갑자기 귀국을 결행하게 되었을까?

알고 보면 그의 귀국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었다. 일찍부터 그는 신라 서남해지역에 위치한 완도를 국제 해상무역의 새로운 중심 기지 건설 후보지로 낙점하고, 이의 건설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던 듯하다. 지도를 펴보면 확연히 드러나듯이 한반도 서남해지역은 동북아 삼국을 연결하는 바다의 중심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지정학적인 위치와 함께 이곳이 마침 그의 고향이라는 점도 크게 작용했으리라.

그렇지만 서남해지역 역시 신라의 통치 영역 내에 있었으므로, 상당한 자치권을 전제로 하는 국제 해양무역기지의 건설 시도는 자칫 신라의 통치력과 충돌할 소지도 있었다. 그런데 이 문제도 당시 신라의 내부 사정과 맞아 떨어져서 무난히 해결되었다.

장보고가 귀국하기 불과 6년 전인 822년에 신라에서는 김헌창(金憲昌)이 반란을 일으켜 일대 혼란에 빠지는 큰 사건이 일어났다. 이는 하대의 시작 단계에 왕위쟁탈전에서 밀려나 ‘명주군왕(溟州郡王)’을 칭하며 강릉지방에 퇴거하여 군림하고 있던 김주원(金周元)의 아들 김헌창이 신라의 왕위를 쟁취하기 위해 일으킨 반란 사건이었다. 한때 김헌창은 신라 영토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그 위세를 크게 떨쳤으며, 그 여파가 전

국에 미쳤다. 김헌창의 난은 겨우 진압이 되었지만, 이를 계기로 국왕의 권위는 근저에서부터 흔들리게 되었고, 지방 세력의 동향 역시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었다. 자연히 신라국가의 지방 통제력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국가 재정도 큰 어려움에 봉착했을 것임에 틀림없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828년 장보고가 귀국했던 것이니, 이는 신라의 어려운 내부 사정에 편승했을 가능성이 크다. 국제적 거부로 입신한 재당 신라 무역상인 장보고의 귀국은 재정난에 허덕이던 신라 조정에게는 경제적 후원자로 비춰졌을 것이며, 따라서 신라 조정과 장보고 사이에는 상당한 교감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당시 신라 조정에서는 궁핍한 국가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장보고의 재력이 필요했고, 장보고에게는 완도와 그 주위의 서남해지역에 대한 관할권이 필요했다. 따라서 신라의 흥덕왕과 장보고 사이에 무언가 타협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내용의 핵심은 장보고가 신라 조정의 재정난을 타개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대신 신라는 완도에 군사·무역기지의 건설을 승인해 주는 것에 있을 것이다.

장보고는 신라로 돌아오자마자 당시 신라왕인 흥덕왕을 만나서 해적 소탕을 명분으로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할 것을 건의하였고, 왕은 즉석에서 이를 허락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왕은 그에게 1만여 명의 군대를 주고, 대사(大使)라는 비상(非常)한 직함을 내려주기까지 했다. 신라왕이 출신 성분조차 알 수 없는 미천한 장보고에게 내린 이 일련의 선물들은 너무나 파격적인 것들이어서 골품제라는 엄격한 신분제사회를 유지하고 있던 당시의 신라사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겨지지 않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해적 퇴치는 청해진 설치의 표면적인 명분에 불과한 것이었고, 실질적으로는 위에서 제시했듯이 양자 사이의 주고받는 타협 위에서 청해진 설치안이 타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국왕이 주었다는 1만 명 군사력의 성격도 문제가 되겠다. 당시 신라 조정의 사정상 1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즉시 마련해준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더욱이 섬 출신의 이방인에게 국가의 군대를 선택 내준다는 것은 더욱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이는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듯이 서남해지역의 변민(邊民) 1만 명을 규합할 수 있는 양해를 받아 장보고가 직접 징발·조직한 민군(民軍), 혹은 장보고가 동원할 수 있는 군정(軍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장보고가 이미 그 이전부터 서남해지역의 해양세력을 미리 규합하여 구축해 놓은 군사적 기반을 국왕으로부터 추인 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청해진의 관할범위

청해진 터는 완도 장좌리의 장도와 그 주변의 장좌리·죽청리·대야리 일대로 비정되고 있다. 장도에서는 최근까지의 발굴조사에서 토석 혼축의 성지와 우물 등의 유구가 확인되었고, 장도 주위의 바닷가에서는 직경 30센티미터 안팎의 참나무와 소나무 기둥들을 약 10센티미터 간격으로 박아 세운 목책(木柵)의 흔적이 확인되어 이종의 방어망이 구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보아 장도는 장보고를 위시로 청해진의 핵심 멤버들이 주차(駐紮)한 본영(本營)의 자리였을 가능성이 유력시되긴 하지만, 아직 속단하기는 어렵다. 현재로서는 장도뿐만 아니라 장도 밖의 장좌리, 그리고 그에 인접한 죽청리·대야리 일대에 청해진의 본영과 병사들이 머문 군영이 산재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장도는 물론 이 일대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요망된다.

청해진이 관할했던 범위는 단순히 완도에만 한정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 주위 서남해지역의 도서연안지역을 포괄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후에 장보고가 암살당한 후에 일본에 귀화한 어려계(於呂系) 등이 '장보고가 다스리던 섬의 백성'이라 했던 것은 서남해지역의 몇 섬들이 청해진의 관할 범위에 있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강진군 대구면과 해남군 화원면 일대에 9세기 대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해무리굽 청자 등을 굽던 요지들이 집단군을 이루며 발견되고 있는데, 이는 장보고에 의해 조성된 대규모 도자기 생산단지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최근에 장흥 천관산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한 호족세력이 장보고의 지배 하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지적한 연구도 있어 주목해볼 만하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볼 때, 당시 청해진의 관할 범위는 적어도 강진군과 해남군, 그리고 장흥군의 연안지역을 포함하는 서남해지역 일대에 미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청해진의 특징

청해진의 설치는 서남해지역 일대에 대한 장보고의 관할권을 신라 조정으로부터 승인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설치된 다른 군진(軍鎭)들, 즉 패강진(溟江鎭) 782년에 설치, 당성진(唐城鎭) 829년에 설치, 혈구진(穴口鎭) 844년에 설치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그 명칭에서 타 군진들은 지명을 관칭(冠稱)했던 데 반해, 청해진은 '바다를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의 추상명사를 앞세운 특이한 명명법(命名法)을 쓰고 있다. 이런 점에서 완도의 원래 이름은 청해가 아니라 조음도(助音島)였으며, 청해란 이름은 장보고가 완도에 진(鎭)을 설치하면서 해양에 대한 그의 포부를 밝히면서 명명한 것으로 보는 것

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청해진의 관할 범위는 서남해의 바다와 도서·연안지역을 포괄하였을 것으로 보아 무방할 것이다.

다음에 장관의 명칭에서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패강진의 경우 처음엔 두상대감(頭上大監)이라 칭하다가 신라 말기에 도호(都護)라 개칭하였고, 혈구진의 경우는 진두(鎭頭)라 칭했던 데 반해, 청해진의 경우는 전무후무한 대사(大使)란 직명을 쓰고 있다. 이는 아마도 당에서 번진(藩鎭)의 절도사(節度使)에 대한 별칭으로 쓰이는 대사(大使)를 염두에 둔 명칭이라 생각되며, 이 점에서 청해진이란 당의 번진과 같이 독자적 세력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장보고의 청해진 설치에 그가 재당 시절에 성취한 동북아 국제 해상무역 사업을 한단계 도약시키려는 야심찬 기획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먼저 그는 청해진과 그 관할 지역의 해양세력을 결집하여 1만여 명에 이르는 군사력을 확보하고, 이로써 해적들의 준동을 잠재우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잠시 경색되었던 동북아의 해양 물류체계를 재가동시키고, 이미 무력화된 8세기의 공무역체제를 대신하여 새로운 사무역체제를 건설하여 이를 주도적으로 운영해 갔다. 이러한 의미에서 장보고의 활동상을 ‘군산(軍産) 복합체제의 종합상사’로 규정한 견해는 경청할 만한 부분이 있다. 이처럼 장보고가 청해진을 중심 기지로 삼아 주도해 갔던 동북아 국제 해양무역체제를 ‘청해진체제’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4. 청해진대사 장보고의 대당·대일 무역

1) 대당무역(對唐貿易)과 매물사(賣物使)

‘청해진체제’의 순항 비결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이는 다음의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됨으로써 가능했다고 본다. 첫째, 더욱 강고한 재당 신라인사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원격 조종·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작동하는 일, 둘째, 일본 규슈지방에 우호세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확대시키는 일, 그리고 셋째, 이를 바탕으로 신라·당·일본을 잇는 하나의 해양 물류시스템을 정비하는 일 등이 그것이다.

먼저 장보고가 재당 신라인사회를 장악하고 이를 원격 조종하고 있었음은 엔닌(圓仁)의 일기 《입당구법순례행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장보고는 그의 대리인격인 등주(登州)의 장영(張詠)과 초주(楚州)의 유신언(劉愼言) 등을 통해서 재당 신라인사회를 원격 조종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가 세운 적산 법화원은 신라인사회를 결집하는 상징적 구심체가 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청해진의 장보고는 매물사(賣物使)가 이끄는 교관선(交關船)을 당에 수시로 파견하여 재당 신라인사회의 조직망을 점검하고 이를 활용하면서 무역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엔닌의 일기에 의하면 839년 6월 27일에 장보고가 보낸 두 척의 교관선이 적산포(赤山浦)에 도착했는데, 청해진병마사(淸海鎭兵馬使)란 직함을 가진 최훈(崔暲)이란 인물이 교관선을 대표하는 매물사의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청해진에 병마사라는 독자적인 관직체계가 있었다는 것이 우선 관심을 끄는데, 그것이 군사적인 냄새를 물씬 풍기는 관직이라는 점에서 더욱 흥미롭다. 이는 곧

청해진이 반독립적 군정체제(軍政體制)를 갖추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병마사의 직을 가진 이를 구매사절단적인 매물사로 파견했다는 점에서, 청해진의 조직이 ‘군산(軍産) 복합체제의 종합상사’ 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매물사 최훈은 적산 법화원에 들러 장보고를 대리해서 이를 관리하고 있던 장영 등을 위로하고, 7개월 보름 동안 중국 동해안 변의 주요 항구에 들러서 무역 활동을 전개하고 다시 적산포로 돌아오는 대장정의 무역활동을 전개했다. 그가 들른 주요 항구를 보면 유산포(乳山浦)·해주(海州)·초주(楚州)·양주(揚州) 등 산둥반도에서 강남지방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 걸치고 있었다. 이들 항구는 물자의 집산이 이루어지는 대항구였고, 이런 대항구에는 예외 없이 신라촌이 조성되어 있었다. 최훈이 무역 활동을 전개하는데 신라촌에 사는 재당 신라인들의 존재는 중요한 인적 자원이 되었다. 따라서 무역활동 이외에 이들을 관리하는 일도 그의 주요 임무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매물사 최훈은 산둥반도 적산포에서 양주에 이르는 주요 항구들을 왕래하면서 신라인사회의 네트워크를 직접 점검하면서 지나간 국제 무역활동을 전개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의 발착(發着)이 항상 산둥반도의 적산포에서 시작하여 적산포에서 끝났던 것으로 보아, 적산포는 장보고가 재당 신라인사회를 원격 조종하는 중심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청해진대사 장보고는 적산포를 통해 매물사를 당에 파견하여 재당 신라인사회의 해양네트워크를 관리하면서 당과의 반공식화(半公式化)된 무역활동을 전개했던 것이다.

2) 대일(對日) 무역과 회역사(廻易使)

장보고는 당에 매물사를 파견하여 무역활동을 전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에는 회역사(廻易使)를 파견하여 일본에서의 무역활동을 전개하였다. 회역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의 하나는 일본 측 사서인 《속일본후기(續日本後紀)》에 전해진다. 그 내용은 대체로 이러하다.

장보고는 암살당하기 직전 이충과 양원을 회역사로 삼아 많은 진귀한 물건들을 실은 교관선(交關船)을 일본 규슈의 축전대진(筑前大津)(지금의 박다항(博多港))으로 보냈다. 그런데 841년에 장보고가 암살당하여 죽게 되자 그 물건들을 둘러싸고 문제가 발생하였다. 장보고를 암살하고 임시 청해진을 관장하고 있던 염장(閔長)은 이소정(李少貞)을 일본에 보내어 장보고의 물건들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일본의 공경들은 장보고가 암살당했다는 것을 이유로 반환해주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전축전국수(前筑前國守) 궁전마려(宮田麻呂)가 당나라 물건을 사기 위해 장보고에게 미리 값을 지불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물건들을 모두 빼앗아간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당국은 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일부를 돌려주도록 조치하였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장보고의 회역사는 주로 축전대진(筑前大津)을 통로로 하여 일본에 출입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장보고는 당에 머물고 있던 때인 824년경에 축전국(筑前國)에 방문하여 당시 국수(國守)였던 수정궁(須井宮) 등을 만나 무역에 관한 업무를 협의한 적도 있었다. 이는 궁전마려(宮田麻呂)의 예와 더불어, 장보고의 대일본 무역이 축전국수(筑前國守)와 직접 담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장보고의 회역사가 가져간 진귀한 물건들에 대한 일본인들의 구매 욕구는 매우 강렬하여, 으레 가격 폭등과 품귀 현상을 초래하곤 하였다. 이

런 맥락에서 볼 때, 궁전마려가 물건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장보고에게 가격을 선납(先納)했다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일본 조정은 장보고의 무역활동에 대해서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곤 했다. 축전국 소재의 대외업무 전담기관인 대재부(大宰府)의 모관리는 장보고가 개인 자격으로 일본에 파견한 회역사가 국가의 공식 사절단의 성격을 농후하게 띤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쫓아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본 당국은 다만 백성들이 구매 경쟁으로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할 가능성만을 경계할 뿐 교역 자체는 막지 못했다. 이는 아마도 일본인들의 강렬한 구매 욕구를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일 것이었다. 곧 장보고 선단이 가져온 진귀한 외래품이 가격 경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대단한 인기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장보고의 대일 무역이 과열되다 보니 예기치 않은 사회 문제가 야기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쏟아져 들어온 외래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가산을 탕진하는 사례가 비밀비재했고, 사치 풍조와 외래품 선호의 풍조가 만연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이제까지 신분에 따른 생활 용품의 차별적 사용을 법제화했던 신분제의 엄격한 적용을 와해시키는 조짐마저 초래하기도 했다. 이러한 조짐은 같은 시기에 신라에서도 이미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 조야에서 진귀한 물품을 공급해 주고 있던 장보고의 인기는 꺾일 줄 몰랐다. 일본 사서에서 장보고의 한자식 표기를 '張寶高'라 쓴 것도 알고 보면 그의 높은 인기를 반영하는 좋은 예가 된다. 이는 '보배롭고 높은 존재'라는 의미로서,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는 중국 사서에서 '張保臯'라 표기한 것과 확실히 대조를 이루는 표현이다. 여기에는 장보고에 대한 일본인들의 특별한 경외의 정서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5. 장보고와 동아시아의 지성들

1) 일본 승려 엔닌과 장보고

장보고는 승려나 문인과 같은 당대 동아시아 최고의 지성들과 폭넓게 교류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아시아 여론 주도층인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무역활동에 대한 국제 여론의 우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일본의 도당(渡唐) 유학승 엔닌(圓仁)과의 관계를 보자. 장보고가 엔닌의 입당구법 활동을 배후에서 적극 지원해 주었던 것은 가장 저명한 사례이다. 《입당구법순례행기》를 보면, 엔닌은 장보고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번도 친견하지 못한 장보고가 자신의 구법 활동을 배후에서 도와준 사실에 크게 감사하면서 한번이라도 그를 친견했으면 하는 소망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장보고가 매물사로 파견한 청해진 병마사 최후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도움에 대해 감사하고 청해진을 방문하여 장보고 대사를 직접 만나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다는 심정을 밝히기도 하였다.

장보고와 그 추종자들에게 호의와 환대를 받은 엔닌은 일본에 돌아가 적산선원(赤山禪院)을 세우고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겨 재신(財神)인 적산명신(赤山明神)을 봉제(奉祭)하게 했다. 이는 장보고가 세운 적산 법화원에 오랫동안 머물고 도움을 받으면서 구법순례를 성공리에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보고를 재신의 화신으로 간주해 이를 적산명신으로 삼아 봉제하게 했던 것은 장보고에 대한 감사와 우호의 심정이 신격화의 단계로까지 승화한 예가 되겠다. 그리하여 당시 일본사회에는 장보고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던

것이니, 일본 사서에서 그를 특별한 의미를 내포하는 ‘張寶高’라 표기하고 있는 것에도 잘 나타나 있다.

2) 신라 선승들과 장보고

또한 장보고는 당시 크게 유행하고 있던 신라 선승(禪僧)들의 도당유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역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을 것으로 보인다. 장보고와 그들과의 구체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그들이 대부분 장보고의 대활약 시기에 서남해지역을 통해 당에 건너가거나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은 장보고의 후원 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먼저 보조체징(普照體澄)은 837년 당에서 돌아와 장흥 보림사에서 가지산문(迦智山門)을 일으켰으며, 혜철(慧哲)은 814년에 당에 건너갔다가 839년 2월에 돌아와 곡성의 태안사에서 동리산문(桐裏山門)을 열었다. 그리고 홍척(洪陟)은 당에 건너갔다가 826년에 임피를 통해 귀국해 남원의 실상사에서 실상산문을 열었으며, 현욱(玄昱)은 824년에 당에 건너갔다가 837년 9월에 나주 회진포를 통해 돌아와 창원 봉림사에서 봉림산문(鳳林山門)을 열었다.

또한 도운은 825년에 당에 건너갔다가 847년에 귀국하여 한때는 화순 쌍봉사에 자리를 잡았다가 후에 강원도 영월로 옮겨 사자산문(獅子山門)을 열었다. 한편 성주산문(聖住山門)의 개산조(開山祖) 무염(無染)은 821년에 중국에 건너갔는데, 그의 비(重修無染寺院記)가 장보고의 근거지였던 산동성 문등현 곤륜산 아래에서 발견되어, 장보고의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장보고시대에 도당유학을 하고서 서남해지역을 통해서 귀국한 이들 선
종 승려들은 장보고의 경제적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
들 역시 신라사회에서 돌아와 장보고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해 주
었을 것이다.

3) 당(唐)의 저명한 시인 두목(杜牧)과 장보고

기록으로 전해지는 구체적인 사례는 없지만, 장보고와 그의 추종자들
은 당의 승려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특기하고 싶은 것은 장보고와 당의 저명한 시인 두목(杜牧, 803~852)과의
관계에 대해서이다.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
지만, 두목이 그의 《번천문집(樊川文集)》에 입록(入錄)한 <장보고·정년
전>을 통해서 장보고와 두목의 긴밀한 관계를 살필 수 있다. 두목은 이 전
기문에서 장보고와 정년의 관계를 안녹산 난 직후의 곽분양(郭汾陽)과 이
임회(李臨淮)의 관계에 비유하면서, 장보고를 ‘인의지심(仁義之心)이 충
만하고 명견(明見)을 가진 인물’로 평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나라에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는 어(語)의 잠언을 인용하면서 장보고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극찬하고
있다. 또한 그는 장보고가 중앙의 왕위쟁탈전에 간여한 사건에 대해 언급
하면서, 이를 우호적으로 평가하여 배반자를 평정한 사건으로 간주하고
있다. 장보고가 귀국한 후에도 두목은 장보고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
정을 보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두목의 장보고에 대한 평가와
관심은 곧 장보고가 당시 당의 지식인들 사이에 얼마나 우호적인 인물로
비쳐지고 있었던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바이다.

4) 역사서에서 장보고에 대한 평가

두목의 장보고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이후 역사서에 그대로 계승되었다. 예를 들어 송대(宋代) 11세기 중엽 경에 편찬된 《신당서》에서 편찬자의 한 사람인 송기(宋祁)는 장보고에 대한 두목의 평가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장보고에 대한 자신의 논찬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아아 원한이 있어도 서로 봉공함을 저해하지 않고, 국가의 근심을 앞세운 이로는 진나라 때는 기해가 있었고, 당나라 때에는 꼭분양과 장보고가 있으니, 누가 이국(夷國)에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 있으랴.”

김부식 역시 그의 《삼국사기》 장보고 열전에서 두목과 송기의 논찬을 그대로 소개하였고, 김유신 열전에서 “비록 을지문덕의 지략(智略)과 장보고의 의용(義勇)이 있어도 중국의 서적이 아니었다면 없어져서 전해들을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여 을지문덕을 지략의 인물로 평가하고 장보고를 의용의 인물로 평가하면서, 우리 사서에서 그들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전하지 않음을 아쉬워하였다.

6. 장보고는 반역자인가

1) 암살당한 해양 영웅

장보고는 한국 해양사에서 전무후무한 대역사를 개척한 해양 영웅이었다. 그런데 그는 어이없게도 염장이란 자의 손에 암살당하는 불행한 최후

를 맞이하였다. 841년의 일이었다. 사서에서는 장보고의 암살을 그의 반란 행위에 대한 신라 왕실의 징벌이라는 시각으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며 실상은 신라 조정의 음모에 의해서 도살(盜殺)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이제 여기에서 장보고 암살의 경위와 그 성격을 살펴봄으로써, 장보고 암살과 관련된 역사적 진실을 밝혀보자.

장보고의 비극을 불러온 첫 사건은 836년에 일어났다. 그 사건의 내막은 대충 이러하다. 흥덕왕이 후사 없이 죽자, 흥덕왕의 당제(堂弟)로서 상대등(上大等)의 지위에 있던 김균정(金均貞)이 왕위 계승에서 제1 순위자로 떠올랐다. 균정의 아들 우징(祐徵)은 매서(妹婿)인 예징(禮徵)과 김주원계의 김양(金陽) 등과 더불어 균정을 지지했다. 이에 대해 흥덕왕의 아우인 충공(忠恭)의 아들로써 당시 시중(侍中)의 지위에 있던 김명(金明)은 이홍(利弘) 등을 포섭하여 헌정(憲貞)(균정의 형의 아들인 제룡(悌隆)을 지지하면서 왕위쟁탈전에 뛰어들었다. 양 파벌은 치열한 시가전을 벌였으며, 결국 김명이 지지한 제룡이 왕좌에 올라 희강왕(僖康王)이 되었다. 균정은 그 쟁투의 와중에 피살되었고 그의 아들 우징과 그를 지지하던 김양 등은 잔병(殘兵)을 거두어 청해진을 찾아가 장보고의 보호를 받는 신세가 되었다.

그런데 838년에 중앙에서 상대등 김명과 시중 이홍 등이 정변을 일으켜 자신들이 옹립한 희강왕을 꺾어버려 죽게 하고, 자신이 직접 왕위 오르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민애왕(愍哀王)이 그였다. 이에 대해 우징은 아버지와 임금의 원수 민애왕을 토벌할 것을 장보고에게 요청하였고, 장보고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 청해진의 군사를 일으켜 민애왕을 죽이고 우징을 왕위에 추대하였다. 이가 신무왕(神武王)이다. 장보고의 비극은 여기에서 짝이 뒀다. 신무왕(혹은 그의 아들 문성왕)은 장보고의 딸을 왕비로 삼을 것

을 약속하였는데, 군신(群臣)들이 이에 반발하여 좌절시켰다. 이에 신라 조정이 장보고의 동향을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보던 중, 무주 출신 염장이 자청하여 장보고를 암살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2) 장보고가 왕위쟁탈전에 개입하게 된 동기

여기에서 우리는 장보고의 암살 사건에 대한 몇 가지 문제를 장보고의 입장에서 재음미할 필요를 느낀다. ① 장보고가 왕위 쟁탈전에 관여하게 된 동기의 문제, ② 납비(納妃)를 둘러싼 권력관계의 동향 문제, ③ 장보고가 과연 난을 일으키려 했는가 등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역시 '당시 장보고가 과연 정치적 야망이 어느 정도였는가' 라는 물음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먼저 장보고가 왕위 쟁탈전에 관여하게 된 동기를 살펴보자. 장보고가 왕위 쟁탈전에 개입하게 된 것은 김양이 희강왕을 핍살(逼殺)한 직후인 838년의 일이었다. 김우징은 김양의 희강왕 핍살 사건에 대해 신하가 임금을 죽인 무도한 행위로 지목하고 장보고의 개입을 설득하였던 것이고, 장보고는 이 사건을 불의(不義)한 난으로 간주하고 이를 징벌하는 '의로운 일' 에의 동참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미 우징은 김명 일파에 패하여 청해진에 피신해 들어간 이후로 집요하게 장보고의 개입을 설득했을 것이다. 그러나 장보고는 이에 일체의 미동도 보이지 않다가, 신하인 김명 등이 희강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는 사건이 터지자 비로소 우징의 설득을 받아들여 난을 평정하는 의로운 일임을 내세워 동참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러한 장보고의 왕위 쟁탈전에서의 개입 시점은 그의 정치적 성향을 파

악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먼저 장보고는 정치적 사건에 가능하면 개입하려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만약 그가 정치에 관심이 컸다면, 우징이 청해진에 들어왔을 때 곧바로 그와 결탁해서 행동에 옮겼을 것이기 때문이다. 장보고의 재당 시절의 행적을 더듬어 보면 이러한 그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이유를 대개 짐작할 수 있다.

일찍이 장보고는 당에 건너가 서주 무령군의 소장직에 올라서 당 황실에 대항하던 평로치청의 번수 이사도 세력의 소탕전에 참여하면서, 황실에 대항하는 정치적 도전이 얼마나 무모하고 무상한 것인가를 절감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사도 세력을 진압한 직후에 그가 무령군 소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서 새로이 추구했던 것은, 재당 신라인사회를 결집해서 이를 정치적 야망 실현에 이용하기 보다는 국제 해상무역의 분야에 연결시키고자 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그의 성향은 귀국 후에 청해진체제를 건설하면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러다가 837년에 우징이 청해진으로 피신해 들어오면서, 장보고는 자신도 모르게 정치판에 빠져들게 되었던 것 같다. 즉 중앙에서 신하가 왕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자, 우징은 장보고의 의분(義憤)에 불을 붙여 참여를 유도했던 것이고, 장보고는 그에 설복당하여 결국 빠져나올 수 없는 정치판에 깊숙이 빠져들고 말았던 것이다. 두목(杜牧)이 평했던 인의지심(仁義之心)이 충만한 그의 성품이 그로 하여금 의(義)를 쫓아 정치판으로 끌리게 했던 반면에, 또 한편의 성품인 '명견(明見)'으로도 정치판 개입 이후 자신에게 닥칠 운명을 예견하지 못했던 셈이다. 바로 여기에 장보고의 비극이 있었다.

3) 장보고 딸의 납비를 둘러싼 파워게임

다음에 두 번째의 문제, 장보고의 딸 납비(納妃)를 둘러싼 권력관계의 동향에 관한 문제를 짚어보기로 하자. 장보고 딸의 납비에 관해서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기사가 전한다. 그 기사에서 특히 주목해야할 점이 있다. 국왕은 장보고 딸을 비(妃)로 맞는 것에 대해 적극성을 띠고 있었던 것에 반해, 군신들은 이를 극력 반대하여 저지했다는 점이다. 실제 신무왕은 즉위하자마자 장보고를 감의군사 식실봉이천호(感義軍使 食實封二千戶)로 삼았고, 문성왕도 역시 즉위하자마자 그를 진해장군(鎭海將軍)으로 삼고 장복(章服)을 하사하였으니, 두 부자왕(父子王)은 장보고의 공적에 대해 높이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추론해볼 수 있겠다.

신무왕과 문성왕이 장보고에게 특별한 작호를 내리고 그의 딸을 납비하려 했던 것은, 장보고의 공훈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왕위를 위협하는 권신들의 말호 가능성에 대비해 장보고의 힘을 빌어 왕위를 지키려는 의도일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그 직전에 신하 김명이 자신이 추대한 회강왕을 꺾어 왕위를 찬탈한 사건이 일어난 바 있었으며, 또한 장보고가 거느린 군사력의 위력은 민에왕 김명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왕의 납비 시도에 대해 반기를 들었던 중심 인물은 누구였을까? 아마도 우정을 신무왕으로 추대하는데 앞장섰던 김양(金陽)이 바로 그였을 가능성이 크다.

김양은 일찍이 흥덕왕 사후에 균정을 추대하려다가 김명 일파에게 패하여 균정의 아들 우정과 함께 청해진에 피신하여 와신상담 기회를 엿보던 중, 838년 장보고의 거병(擧兵)에 힘입어 평동장군(平東將軍)의 군호

(軍號)를 띠고서 참전하여 민애왕 김명을 타도하고 우징을 신무왕으로 즉위시키는데 앞장선 자이다. 신무왕과 문성왕에게 김양은 장보고와 더불어 일등 공신에 책봉되기에 마땅한 인물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신무왕과 문성왕은 장보고에 대해서는 특별 작호를 내리고 그의 딸을 납비하고자 하는 등 특별 배려를 하였음에 반해, 김양에게는 어찌된 영문인지 일체의 관직 제수 기사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신무왕과 문성왕이 중앙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을 김양의 정치적 야망에 대해 장보고의 힘을 빌어 견제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김양은 이에 대해 군신(群臣)들을 동원하여 신분의 측미(側微)함을 내세워 장보고 딸의 납비 시도를 두 차례에 걸쳐 좌절시키는 한편, 최대의 정치적 위협 대상 인물인 장보고를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밈을 가능성이 있다. 그 때 마침 염장(閔長)이 장보고 제거의 행동 대장을 자처하고 나서자, 김양이 그를 사주하여 장보고를 암살케 하고, 중앙의 막후 실권자로 부상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김양이 일찍이 청해진을 관내에 둔 무주(武州)의 도독(都督)을 지낸 바 있다는 사실과 염장이 무주인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김양이 염장을 사주하여 장보고 암살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크다.

4) 과연 장보고는 난을 일으켰는가

이제 마지막으로 장보고가 과연 난을 일으키려 했는가의 문제를 살펴볼 차례이다. 일반적으로 염장에 의한 장보고 제거를, 장보고가 난을 일으켰던가 아니면 난을 일으키려 했던 것에 대한 응징인 것으로 보려는 것이 사서들의 기본적인 기조인 것 같다. 그렇지만 사서들 사이에 미묘한 차이

가 찾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점을 좀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먼저 《삼국사기》에서는 납비가 좌절되자 장보고가 이를 원망하여 ‘청해진을 근거로 반란을 결행’ 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삼국유사》에 의하면, 장보고가 군신(群臣)들의 반대로 딸의 납비가 좌절되자 심하게 불만을 표출하면서 ‘난을 도모하고자’ 했다거나, 혹은 ‘장차 불충하려’ 했다 하여 그가 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었음만을 지적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듯이 장보고 딸의 납비를 둘러싼 문제가 국왕과 김양 사이의 파워게임적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납비의 관철 여부가 당사자인 장보고와 전혀 무관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납비가 좌절되면서 자신을 신임하던 왕권이 크게 위축되고, 김양을 중심으로 신권(臣權)이 부상하는 것에 대해서 장보고가 모종의 대응책을 강구하였을 가능성은 있겠다. 그렇지만 그가 정치적 반란을 모의하거나 결행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조선시대 사서에서는 장보고의 암살을 억울한 누명에 의한 억울한 죽음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부가 쓴 《동국통감》의 사론에 의하면, ‘도적과 같은 모략’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쓴 것으로 판단하여 두둔하고 있다. 또한 안정복도 《동사강목》의 사론에서 장보고가 중상모략에 의해 ‘도살(屠殺)’된 것으로 단정하고, 장보고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김양의 책임론을 펴고 있다.

결국 장보고는 왕위 쟁탈전에 어쩔 수 없이 개입하게 되었고, 또한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자신의 딸 납비의 문제가 중앙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결국 염장의 손에 암살당하는 비운의 주인공으로 전락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는 음모와 술수가 판치던 당시 중앙 정치권의 희생양이었던 셈이다.

7. 장보고 사후의 청해진과 청해진 사람들

1) 장보고 사후 청해진의 운명

중양에서 신하가 왕을 제거하고 왕위에 오르는 불의(不義)의 왕위쟁탈전이 비일비재 일어나는 혼돈의 시대에 장보고는 정쟁의 희생양이 되었다. 당의 저명한 시인 두목(杜牧)이 '나라에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어(語)의 잠언을 인용하면서 장보고가 바로 그런 사람임을 극찬해 마지않던 그런 장보고였다. 뿐만이 아니었다. 《신당서(新唐書)》의 편찬자의 한 사람인 송기(宋祁)는 “장보고란 인물이 있는데 누가 이국(夷國, 신라)에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하고 반문했던 그런 장보고였다. 이렇듯 국제사회가 추앙하던 장보고를 신라가 죽였으니,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장보고의 암살은 김양(金陽)과 염장(閔長)의 합작품이었다. 장보고를 제거함으로써, 김양은 신라 국왕과 장보고와의 연결고리를 끊고 국왕을 능가하는 권신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려 했던 것이고, 염장은 장보고가 건설해온 청해진의 거대한 이권을 강탈하려 했던 것이다. 과연 841년에 염장은 장보고를 암살하고 예정대로 청해진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

이에 대해 청해진의 부하들은 다양한 행태를 보여주었다. 염장에 대하여 하여 마지막까지 저항한 부류가 있었는가 하면, 염장의 휘하에 들어가 달콤한 현실에 안주하려는 부류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당이나 일본으로도 피하여 새로운 삶을 개척하려는 부류도 있었다.

2) 청해진 사람들의 동향

청해진의 부장(副將) 이창진(李昌珍)은 장보고의 부하들을 모아 염장에 끝까지 저항하였다. 그러나 염장이 이미 절단한 장보고의 목을 들이대면서 청해진의 군중들을 압도한 상황에서 그들의 저항은 큰 힘을 발휘하기 어려웠고, 오래지 않아 진압되고 말았다. 대부분의 청해진 사람들은 염장을 그들의 새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소정(李少貞)과 같은 인물은 그런 부류의 대표격이었다.

다만 당에 혹은 일본에 매물사(賣物使)나 회역사(廻易使)로 파견되어 있던 자들은 장보고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청해진으로의 귀환을 포기하고 이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청해진 병마사를 역임하고 장보고에 의해 당에 매물사로 파견된 적이 있던 최훈(崔暉)은 당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었다. 일본의 유학승 엔닌은 그의 일기에서 845년 7월 9일에 중국 연수현의 신라방에서 ‘국난(國難)을 만나 도망하여 이곳에 머물고 있던 최훈을 만났다’고 적고 있다.

일본에 회역사로 파견되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장보고에 의해 회역사로 일본에 파견되었던 이충(李忠)과 양원(揚圓) 등은 회역의 일을 마치고 본국에 돌아왔다가, 장보고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을 피해 일본으로 되돌아갔다. 그런데 그들의 수중에는 장보고의 진귀한 무역품이 있었으니, 원 주인인 장보고가 죽은 상황에서 그 물화(物貨)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없을 수 없었다.

가장 먼저 이를 탐낸 이는 암살자 염장이었다. 염장은 그의 새로운 충복이 된 이소정으로 하여금 일본에 건너가 일본 당국에 첩장(牒狀)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 첩장에는 공식문서를 가지지 않은 신라인들을 잡아들여 줄 것과 장보고의 물건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러

나 일본의 관리들은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장보고가 암살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후에 어려계(於呂系)를 위시로 다수의 청해진 사람들이 탄압을 피해서 일본에 귀화해 왔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서, 이러한 염장의 요청을 거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장보고의 물건을 탐낸 이는 또 있었다. 장보고의 단골 고객이었던 전축전국수(前筑前國守) 궁전마려(宮田麻呂)가 그였다. 그는 장보고가 살아 있을 때, 물건 값으로 비단을 이미 선납(先納)했다고 주장하면서 장보고의 물건을 빼앗아 갔다. 이에 대해 일본 당국은 면밀히 조사하여 일부의 물건은 다시 되돌려 주는 조치를 취했다.

3) 청해진의 폐지와 벽골군(碧骨郡)으로의 사민(徙民)

장보고가 암살 당한 841년부터 암살자 염장에 의해 관리되어 오던 청해진은 그나마도 10년 후인 851년에 이르러 철폐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청해진(淸海鎭)을 혁파하고 그곳 인민을 벽골군(碧骨郡)으로 옮기었다’라는 《삼국사기》 짤막한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신라는 왜 청해진을 혁파하고 청해진 사람들을 벽골군으로 옮겼을까?

이에 대해서 청해진의 장보고 세력을 마지막으로 발본색원하기 위해서였다고 보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는 장보고가 죽은 지 이미 10년이나 지난 후에 새삼스럽게 그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최근에는 염장이 청해진의 군사력을 기반으로 서남해지역의 새로운 위협세력으로 성장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청해진을 혁파한 것으로 이해하려는 새로운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염장이 단순한 관리자의 차원을 넘어서서 청해진의 군사조직을 자기 세력화하려는 조짐이

감지되어 염장을 장보고처럼 제거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이와 달리 제3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도 있다. 염장이 10여 년간 청해진을 관리·통제함으로써 더 이상 청해진세력을 경계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청해진을 혁파하고 그 관리자인 염장을 중앙으로 불러들였다는 관점이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청해진을 혁파했으면 되었지 굳이 청해진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옮길 필요까지 있었겠느냐는 의문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청해진 사람들의 집단 사민 조치를, 정치·군사적 의도와는 다른 별도의 필요성에 의해 취해진 조치로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벽골군(오늘의 전북 김제)으로 옮기었다는 점이다. 왜 하필 벽골군을 사민의 대상지역으로 정했을까?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벽골제 수축(修築)이라는 경제적 필요성에 의해서 청해진 사람을 동원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벽골군은 이미 4세기 경부터 대규모의 벽골제를 축조하여 우리나라 최고(最古)·최대(最大)의 담수호를 조성한 곳이고, 이와 함께 서해 바다를 간척하여 광활한 호남평야의 가경(可耕) 농지를 확대해왔던 곳이다. 따라서 청해진 사람들을 벽골군으로 옮긴 조치는 벽골제를 수축하고 간척 사업에 사역하기 위한 일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역대로 진행된 벽골제 수축의 과정은 험난한 바다의 조수와 싸우는 힘겨운 과정의 연속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잘 알려져 있듯이 청해진 사람들은 동북아 바다를 좌지우지하던 사람들로서, 바다의 속성에 관한 한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신라 국가가 이를 감안하여 그들을 벽골군으로 집단 이주시켜 벽골제의 수축에 활용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벽골제와 관련된 설화 중에는 제주 사람들을 동원한 흔적도 나타나고 있어, 벽골제 수축에는 청해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다에 익숙한 다른 섬 출신 사람들도 널리 동원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청해진 사람들이 벽골제 수축에 동원되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벽골제 주변의 저습지대를 간척하는 일에도 투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서해 바다와 인접한 지점에 남북으로 길게 축조된 벽골제는 만조 때 바닷물이 여러 하천의 물줄기를 통해서 역류하는 것을 차단하여 이미 갯벌화 혹은 저습지화 되어 있는 저지대의 간척을 용이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상왕 장보고의 분신들이라 할 청해진의 사람들은 수평선을 지평선으로 바꾼 ‘벽해수전(碧海水田)’의 호남 평야 개척사에 또 하나의 장보고 신화를 재현한 셈이다.

8. 장보고가 남긴 해양사적 유산: 청자와 국제항로

1) 해남 화원면 일대의 ‘초기청자’ 생산단지

‘해상왕’ 장보고는 많은 해양사적 유산을 남겼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청자 제작기술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청자 제작의 도입 시점을 둘러싸고 9세기 설과 10세기 혹은 11세기 설 등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지만, 9세기 전반에 장보고가 청해진 활동을 개시한 것만큼 청자 도입의 계기가 될만한 사건은 찾기 어렵다.

장보고는 8세기 후반에 중국으로 건너가 재당 신라인사회를 결집하여 국제 해상무역에 집중시킴으로써 막대한 부를 축적한 바 있다. 그런 그가

828년에 신라에 돌아와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이곳을 국제 해상무역의 중심지로 삼게 된 것이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청자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게 된 시점을 해명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장보고가 단순한 중계 무역업만을 염두에 두었다면 잘 나가던 당나라 생활을 정리하고 굳이 청해진으로 옮겨오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청해진 인근에 당시 중요 무역품으로 각광받던 청자를 직접 생산하고 그것을 신라와 일본에 공급하려는 특별한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최근에 해남 화원면 신덕리 일대에서 대규모의 ‘초기청자’ 생산단지가 확인되었다. 그간 해무리굽 양식과 무문(無文)을 특징으로 하는 우리나라 ‘초기청자’의 생산 요지(窯址)는 중부와 서남부의 해안을 따라서 다수 발견됐는데, 여타의 요지는 겨우 2~3기에 불과한 반면, 해남 화원면의 요지는 일시에 조성된 60여 기에 달하는 요지가 집단군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일시에 이만한 규모의 청자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운영할만한 세력으로는 장보고세력을 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장보고는 이곳에 대규모 청자 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귀국 이전부터 면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을 것이다. 양질 태토(胎土)의 출토 여부, 화목(火木)의 부존 여부, 그리고 청자 제작 기술자들의 현지 조달 여부 등이 현지 조사의 핵심 항목이었을 것이다. 장보고는 화원면 일대에 태토와 화목이 풍부하다는 것을, 그리고 인근의 영암 구림리 일대에 7세기 이래 도기(陶器)를 생산해오던 기술자들이 있음을 확인하였을 것이다. 더구나 이 지역이 고래(古來)로 국제 해상 문화교류의 중심지였음을 확인하게 되면, 청자 생산단지 건설의 최적지로 결정했을 것이다.

2) '초기 청자'의 계통과 고려청자

화원면 '초기 청자' 요지는, 대규모의 집단군을 이루고 있다는 점 이외에 그 계통에서도 중부권의 그것과는 판이한 점이 있다. 중부권의 그것은 벽돌을 쌓아서 만든[전축요(塼築窯)] 중국 자기요(磁器窯)를 그대로 이식한 것임에 반해, 화원면의 그것은 흙을 쌓아서 만든[토축요(土築窯)] 우리의 전통적인 도기요(陶器窯)를 계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화원면 인근의 구립리에서 토축요를 이용해 도기를 생산해오던 도기 기술자들을 화원면 '초기 청자' 생산단지 조성에 적극 참여시킨 결과일 것이다. 이는 곧 장보고가 중국의 청자 제작기술을 받아들여, 여기에 우리의 전통적인 도기 제작기술을 가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보고는 청해진에 인접한 강진군 대구면·칠량면 일대에도 대규모의 '초기 청자' 생산단지를 조성했을 가능성이 크다. 해무리굽과 무문을 특징으로 하는 초기 청자가 대구면과 칠량면 일대에서도 간혹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남아 있는 바에 의하면, 화원면의 청자 생산단지는 장보고 사후에 곧 폐지되고 말았던데 반해, 대구면·칠량면 일대의 것은 이후 고려 말까지 개량되면서 생산을 계속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화원면의 요지는 '초기 청자요'의 원형이 잘 남아 있는 것에 반해, 대구면·칠량면의 요지는 이후 고려시대의 새로운 청자요가 만들어지면서 '초기 청자요'가 파괴되는 과정을 겪었을 것이므로 '초기 청자요'의 원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결국 장보고의 청자문화 파종(播種)은 대구면과 칠량면, 그 중에서도 특히 대구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저 유명한 고려청자 생산의 주요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파종지는 장보고였고 수확지는 고려 왕조였던 셈이다.

3) 국제항로의 요충지

전통 도기의 생산지인 영암 구림리는 새로운 '초기 청자' 생산지인 화원면에 인접해 있으며, 고래로 국제 해상문화교류의 요충지였다. 조선후기 이중환의 《택리지》에 의하면, 신라시대에 당나라를 왕래했던 사신선(使臣船)과 상선들이 모두 구림리에서 출발하고 돌아왔다고 전하면서 마치 통진(通津) 건널목에 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왕래하는 형상과 같다고 하였다(팔도총론 전라도편). 그는 또한 최치원·김가기·최승우 등의 유명한 도당 유학생들도 상선에 편승해 구림리에서 도당한 사실도 부기(附記)하였다. 그가 말한 통진이란 김포에서 강화도를 잇는 나루터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중환 시대에 김포에서 강화도 사이를 나룻배가 매우 빈번하게 왕래했던 것을 염두에 둘 때, 신라시대 구림리의 성황을 누린 국제 항구적 면모를 엿볼 수 있겠다. 이는 5세기 초에 왕인이 구림리의 상대포를 통해서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설화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렇다면 구림리에는 고대 이래 중국과 일본을 왕래하던 국제 항구가 있었다고 보아야겠다.

화원반도의 끝에는 오늘날까지 당포(唐浦)라는 지명이 전하고 있어, 이곳이 당나라에 왕래하던 포구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뿐만 아니라 당포와 인접한 곳에 최치원이 세웠다는 서동사(瑞東寺)라는 절이 있어, 이중환이 전한 최치원의 도당로(渡唐路)로서의 가능성을 더욱 높여준다. 서동사의 뒷산이 '구름이 머무는 산'이라는 의미의 운거산(雲居山)이고, 최치원의 호는 '외로운 구름'이라는 의미의 고운(孤雲)이고 보면 최치원과 그의 인연이 진하게 느껴지는 바가 있다. 더욱이 이곳에서 당으로 건너가는 바닷길의 길목에 해당하는 비금도와 우이도 등지에 최치원과 관련된 설화가 전해지는 것으로 보아, 이 길이 중국과 한반도를 연결하는 가

장 중요한 항로였음을 알 수 있다.

이 항로는 장보고시대에 크게 활성화된 이래 고려시대까지 그 지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보아 좋을 것이다. 이는 《송사》에서 송과 고려 사이의 주요 항로로서 명주(明州)[오늘의 영파(寧波)]에서 흑산도와 서남해지역을 거쳐 개경에 이르는 길을 소개하고, 이 길을 통하면 평균 일주일이면 당도할 수 있다고 특기했던 것에서 알 수 있다. 실제로 송의 사신 서궁(徐兢)은 1123년에 이 항로를 따라 고려 개경에 왔다가 돌아간 행적을 《고려도경》이라는 책에서 자세히 소개한 바 있다.

이처럼 고려시대에 강진 대구면 일대가 고려청자 생산의 메카가 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서남해지역이 국제 해상교류의 요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장보고가 남긴 중요한 해양사적 유산이다. 따라서 서남해지역은 장보고 사후 나팔여초시대에 영웅들의 각축의 대상지가 되었으니, 견훤과 왕건 등이 이 지역에 몰려들고, 토착의 능창이 일어났던 것은 모두 이런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제5장

능창 · 견훤 · 왕건의 해양 정복과 해상세력

1. '포스트 장보고' 를 꿈꾼 풍운아 능창

1) 장보고 사후 서남해지역의 동향

841년에 장보고가 암살당하고 암살자 염장에 의해 관찰되던 청해진의 조직은, 851년 청해진 사람들을 벽골군[오늘의 김제]으로 강제 이주시킴으로써, 완전 해체되었다. 그렇다면 장보고에 의해 결집되어 막강한 해양력(Sea Power)을 발휘하던 서남해 해상세력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문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장보고에 주눅 들어 제대로 해양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던 서남해의 개별적 해상세력이 대내외 교역활동을 마음껏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 의하면 장보고 이후 서남해지역 해상세력의 활동이 오히려 더욱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장보고에 의해 질서정연하게 결집력을 발휘하던 서남해 해상세력이 각각 분산되어 소규모 해양활동의 명맥만을 겨우 유지해 갔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 의하면 장보고 사후 서남해지역의 해양능력은 현저히 위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중 필자는 후자의 관점에 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그래야만 압해도 출신의 해상세력 능창이란 인물의 진면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 능창(能昌)은 어떤 인물인가

능창에 대한 기록은 아래에 소개하듯이 《고려사》 태조세가(太祖世家)

에 전하는 아주 단편적인 기사가 전부이다. 서남해의 여타 세력들이 왕건의 신출귀몰한 수완에 설복당하고 말았던 것에 반해, 오직 능창만은 마지막까지 이에 저항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우선 《고려사》에 기술된 능창 이야기를 소개해 보자.

(왕건은) 드디어 광주 서남계(西南界) 반남현(潘南縣) 포구에 이르러 첩자를 적의 경계에 놓았더니 압해현(壓海縣)의 적수(賊首) 능창이 해도(海島) 출신으로 수전(水戰)을 잘하여 수달(水獺)이라고 하였는데 도망친 자들을 불러 모으고 드디어 갈초도(葛草島)의 소적(小賊)들과 결탁하여 태조(왕건)가 이르기를 기다려 그를 맞아 해치고자 하였다. 태조가 여러 장수들에게 말하기를 “능창이 이미 내가 올 것을 알고서 반드시 도적과 함께 변란을 꾀할 것이니 적도(賊徒)가 비록 소수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힘을 아우르고 세력을 합하여 앞을 막고 뒤를 끊으면 승부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니 혜엄을 잘 치는 자 십 여인으로 하여금 갑옷을 입고 창을 가지고 작은 배로 밤중에 갈초도 나룻가에 나아가 왕래하며 일을 꾸미는 자를 사로잡아서 그 꾀하는 일을 막아야 될 것이다”라 하니 제장(諸將)이 다 이 말을 따랐다. 과연 조그마한 배 한 척을 잡아보니 바로 능창이었다. 궁예에게 잡아 보내었더니 궁예가 크게 기뻐하여 능창의 얼굴에 침을 뱉고 말하기를 “해적(海賊)들은 모두가 너를 추대하여 괴수라고 하였으나 이제 포로가 되었으니 어찌 나의 신묘한 계책이 아니겠느냐” 하며 여러 사람 앞에서 목을 베었다.

이것은 909년에 왕건이 나주에 머물다가 수도인 철원으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압해도 능창의 저항에 직면하게 되면서 벌어진 사태의 전말이다. 여기에서 왕건과 궁예는 능창을 비하(卑下)하여 ‘적수(賊首)’ 혹은 ‘해적의 괴수’ 등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를 능창의 입장에서 보면 달리 해석

할 여지도 있다. 즉 ‘수전에 능하여 수달이라 불리었다’ 라든가 왕건이 스스로 ‘승부를 알 수 없는 노릇’ 이라고 평했던 것, 그리고 궁예가 능창에 대해서 해적들이 추대하여 괴수로 삼았지만 자신의 신묘한 계책에는 당하지 못했다는 식의 과장된 언사를 구사했던 구절 등을 볼 때, 능창은 위세가 만만치 않은 해양세력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말하자면 ‘소적(小賊)’ 을 아우른 ‘적수(賊首)’ 혹은 ‘해적의 괴수’ 라 함은 서남해 해양세력을 결집하여 중심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던 능창의 위세를 빗대어 비칭(卑稱)한 것이라 할 것이다.

능창이 이처럼 역사의 전면에 부상한 것은 장보고가 죽은 지 반세기가 지난 9세기 말~10세기 초였다. 장보고가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여 서남해 해양세력을 아울렀다고 한다면 능창은 영산강의 입구에 위치한 압해도를 근거로 서남해 해양세력을 결집해 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보면 ‘바다를 깨끗이 한다’ 는 의미의 ‘청해(淸海)’ 나 ‘바다를 눌러 제압한다’ 는 ‘압해(壓海 혹은 押海)’ 나 결국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이런 견지에서 더 나가보면 일찍이 문성왕이 장보고에게 내린 ‘진해장군’ 이나 후에 이순신이 주둔하여 머물렀던 여수의 ‘진해루’ 등의 ‘진해(鎭海)’ 도 ‘청해’ 나 ‘압해’ 와 같은 해양적 이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어 흥미를 끈다.

3) 서남해지역에 당대 영웅들이 집결하다

얼마 전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종영한 드라마 <태조 왕건> 에서, 능창은 견훤에게 투항하여 그의 의제(義弟)가 된 것으로 그려진 바 있었다. 그가 견훤을 위해 나주의 금성산성에서 왕건의 군대와 전투를 벌

이다 장렬하게 전사한 장면은 너무나 극적이어서 그 인상을 쉽게 잊기 어렵다. 그러나 이 장면이 가장 극적인 픽션이라는 점 역시 잊어서는 안 되겠다. 능창이 견훤에 투항했다는 구절은 사서의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그는 그의 근거지 압해도를 벗어나 금성산성에 주둔하거나 전투를 벌인 적도 없었다.

그렇다면 능창은 왜 견훤에 투항하여 그의 의제가 된 것으로 그려졌던 것일까? 그것은 능창이 압해도를 근거로 하여 왕건에게 마지막까지 저항했다는 사실에 ‘왕건의 적은 곧 견훤의 우군’이라는 공식을 적용시킨 것에 불과한 것이다. 왜 능창이 왕건의 적이자 견훤의 적이라는 생각은 못하는가? 그렇다. 능창은 ‘포스트 장보고’를 꿈꾸며 ‘압해’의 이념을 추구하려 했던 서남해지역의 미완의 해양영웅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9세기 말경에 서남해지역에서 능창을 중심으로 다시금 강력한 해양세력으로 결집해 갔던 추세를 그려볼 수 있겠다. 이전 단계에 장보고에 의해 결집된 서남해 해양세력의 막강한 힘에 압도당하여 장보고를 암살할 수밖에 없었던 신라 수구 귀족세력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서남해 해양세력의 재집결 추세는 엄청난 위협으로 비춰졌음직하다. 더욱이 서남해지역은 국부의 기간산업인 청자생산의 중심지로 떠올라 있었고, 대중국 교역의 교두보였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더욱 그러했을 터이다. 이미 당시는 전국 각지에서 호족들이 발호하여 독립군주인 양 군림해가는 추세였기 때문에, 서남해 해양세력의 재집결 현상은 곧 독립세력의 성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신라가 서남해지역 해양세력의 진압·통제의 임무를 부여한 ‘서남해방수군(西南海防戍軍)’을 파견한 그 시점이 능창에 의한 해양세력 재집결의 시점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셈이다. 그 서남해방수군에 당대의 영웅 견훤이 포함되어 있었고, 뒤

이어서 궁예의 부하 왕건이 서남해의 전선에 뛰어들었던 것이니, 9세기 말~10세기 초에 서남해지역은 능창·견훤·왕건이라는 세기의 세 영웅이 활극을 벌이는 치열한 역사의 현장으로 떠올랐던 것이다.

2. 견훤과 순천의 해상세력 박영규·김충의 만남

1) 진주(晋州)에서 독립한 견훤

견훤이 '서남해방수군'의 일원으로 편성되어 경주를 출발한 것은 889년이었다. 이 때는 국고(國庫)가 텅 비어 있었을 뿐 아니라 전국에서 도적이 별떼처럼 일어났다고 전하는 진성왕(眞聖王) 3년의 시점과 일치한다. 도적이 전국에서 봉기하는 최악의 상황에서 서남해 방수군을 조직하여 파견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수로 여겨질 수도 있겠으나, 당시 서남해지역에서 결집되어 가고 있던 해상세력의 기세를 꺾어야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였던 모양이다. 서남해지역이 국내외 해로의 요충지이자 최대의 도자기 생산지로서,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다는 점을 염두에 준다면 이해될 만도 하다.

경주에서 출발한 서남해방수군은 진군의 과정에서 호족들의 저항에 직면하여 고전하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견훤은 용맹을 떨쳐 호족들을 압도하면서 비장(裨將)으로 승진하여 독립 부대의 지휘관이 되었고, 진군을 거듭하면서 호족군들을 아울러서 경주에서 출발한지 1개월여 만에 5,000여 무리를 거느리게 되었다. 이처럼 견훤은 진군의 과정에서 호족이 난립

하는 난세를 직접 경험하였고 여기에 막강한 세력까지 거느리게 되자, 점차 야심을 갖게 되었고 급기야 신라에 대해 독립세력임을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신라 9주의 하나인 강주(康州)의 치소였으며, 경상 서부지역의 최대도시였던 진주 지역에서 그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진주에서의 독립세력 표명은 견훤의 후백제 건국 과정의 첫 단추를 꿰는 것과도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실제 견훤은 900년에 정식 건국을 선언한 이후에 889년을 후백제 건국의 원년으로 삼았다. 그만큼 진주에서의 견훤의 기세는 등등하였던 것이고, 이로부터 서진(西進)의 추세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당시 박영규와 김충과 같은 유력한 세력이 지배하고 있던 순천 지역을 큰 저항 없이 무난히 접수할 수 있었던 것도 이들이 견훤의 기세에 압도되어 복속을 자청해온 결과일 것이다.

2) 순천의 해상세력, 박영규와 김충

박영규와 김충을 단순한 호족으로서가 아니라 해상세력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는 최근에야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간단히 소개하기로 하자.

먼저 《고려사》와 《신증동국여지승람》, 그리고 《강남악부(江南樂府)》 등에 나오는 박영규에 대한 기사를 보면, 견훤을 따라 태조 왕건에 귀부하여 그의 딸 하나를 태조에 바치고 두 딸을 정종에게 바쳤다는 것, 해룡산 아래의 홍안동(鴻雁洞)에 옛 성터와 해룡산사(海龍山祠)가 있었다는 점 등이 개략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최근에 순천대 박물관에서 해룡산성에 대한 정밀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영규가 근거한 산성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산성의 둘레는 2킬로미터를 상회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시기

의 유물이 확인되고 있는데, 특히 통일신라에서 고려시대의 유물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그 입지를 보면 흥내동의 흥두·내동·통천의 세 마을을 에워싼 여러 개의 봉우리와 구릉 및 계곡을 연결하고 동남쪽으로 순천만을 향해 열려 있는 개활 평지를 가로질러 연결하여 관축(版築) 혹은 성토(盛土)의 기법을 활용하여 축조한 평산토성(平山土城)임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박영규가 근거한 산성의 위치가 순천만에 연접해 있고, 해룡산신이 되었다는 해룡(海龍)의 칭호가 해상세력을 지칭하는 것임을 염두에 둘 때, 박영규는 순천의 유력한 해상세력이었음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해룡산성의 인근에는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세곡(稅穀)을 운송하던 조창이 있었다고 전하며, 지금까지도 그 동편의 광양만 쪽에 해룡면(海龍面)이라 칭하는 행정구역이 있음을 볼 때, 박영규는 순천에서 여수로 통하는 길목 동서 양편의 순천만·광양만으로 통할 수 있는 해양의 최고 요충지를 장악한 해상세력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다음에 김충에 대한 같은 옛 기록에 의하면, 그는 견훤을 섬겨 인가별감(引駕別監)에 올랐다는 것, 죽어서 성황신(城隍神)이 되었으며 그를 모시는 성황사(城隍祠)가 진례산(進禮山)에 있다는 것 등이 기술되어 있다. 그런데 《대동여지도》에 의하면 진례산은 흥국사 뒷산인 영취산 인근에 표시되어 있고, 이곳은 북으로 광양만과 접하고 있어, 김충 역시 해상세력이었음을 시사해 준다. 그런데 이곳과 인접해 있는 적량동의 고인돌에서 이례적으로 고조선의 유물인 비파형동검을 위시로 하여 다수의 청동유물이 출토된 바 있어, 일찍이 이 지역이 연안항로를 통해 고조선과의 활발한 문화교류를 전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인근에는 충무공 거북선 수리소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 일대는 고대 이래 조선시대까지 해양의 주요 거점으로 활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을 근

거로 활동한 김충 역시 유력한 해상세력이었다고 할 것이다.

3) 견훤이 순천 해상세력을 만난 의미

진주와 순천 지역은 그 사이에 지형적으로 큰 장애물이 없어, 자고로 경상도와 전라도의 남부지역을 연결하는 육로의 요충지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염두에 둘 때, 견훤의 순천 접수는 전라도 지역 진출을 위한 육로 교두보를 확보한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각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견훤으로 하여금 해양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견훤은 경상도 내륙의 상주 가은현(오늘의 문경 가은읍)의 일개 농민의 아들이었다. 그런 그가 난세를 맞아 국가적 모군(募軍)의 열풍에 편승하여 그의 빼어난 무용(武勇)에 힘입어 중앙군에 입대하였고, 또한 운 좋게도 서남해 방수군의 일원으로 선발되어 과병된 처지였으므로, 그간 해양에 대한 경험을 가질 기회가 없었다. 그런 그가 박영규와 김충 등과 같은 순천의 해상세력을 포섭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를 지닌다.

그리하여 견훤은 이곳을 거점으로 삼아 바다를 통해 서남해지역으로 진군할 해전(海戰)을 구상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중국 및 일본과의 독자적 교류도 염두에 둘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서남해지역이 왕건의 실질적인 지배 하에 들어가면서 순천 지역에서 서남해지역과 중국으로 향하는 해로가 차단당하게 되자, 순천 지역의 해양거점은 다만 일본과의 교류거점으로서만 활용되는 것에 만족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견훤은 서남해지역에 대한 해양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그곳의 해상세력 및 왕건과의 혈투를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3. 견훤의 서남해지역 해상세력 장악 시도와 실패

1) 견훤의 광주(光州) 입성(入城)

889년에 견훤이 경주의 신라 중앙 정부로부터 방수(防戍)의 임무를 띠고 파견된 최종 목적지는 서남해지역이었다. 서남해란 나주를 중심으로 목포·무안·신안·영암·해남·진도·강진·완도 등지를 지칭한다. 그런데 견훤은 진군(進軍)의 과정에서, 서남해지역에 도착하기 전에 '서울 서남주현' [경남 서부지역을 복속시켜 자신을 따르는 5,000여 무리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반신라 독립세력임을 표방하였다. 경남 서부지역의 중심도시인 진주(晋州)에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서 그는 진군을 계속하여 순천만과 광양만의 바닷가에 기반을 두고 있던 순천의 대표 해양호족 박영규와 김충 등을 복속시켜, 해양적 기반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견훤은 순천에서 원래의 목적지인 서남해지역으로 곧바로 서진(西進)하지 않고 돌연 방향을 바꾸어 북으로 진군하였다. 그리고 광주의 대표 호족 지훤(池萱) 등의 복속을 받아들여 892년에 광주 입성에 성공하였다. 이때부터 견훤의 야망은 구체화되었다.

먼저 그는 전주(全州), 오늘날 전북 지역, 무주(武州), 오늘날 전남 지역, 공주(公州), 오늘날 충청도 지역의 3주(州) 도독(都督)과, 전주자사(全州 刺史)를 자서(自署)하였다. 아직 공식적으로는 왕(王)을 표명하지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나마 스스로 왕을 자부하였음을 볼 때, 그가 충청·전라 지역을 기반으로 새로운 독립국가 건설을 구상하였던 것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3주(州) 중에서 전주를 앞세웠을 뿐 아니라 '전주자사'를 칭

한 것으로 보아, 전주를 새 국가의 도읍지로 점찍어 놓았음도 알 수 있다.

견훤은 그의 야망 실현을 위해 경상도 상주 가은현 출신임을 숨기고, 이 지역의 유력한 호족 출신임을 내세울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또한 국내의 해양교류의 중심거점이며, 대규모 청자 생산단지로 각광받고 있던 서남해지역을 확실히 장악해둘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2) 견훤은 광주 지령이의 아들인가

견훤이 광주지역의 호족 출신임을 표방했다는 것은 《삼국유사》에 설화적 이야기로 전해져 온다. 그 이야기는 대개 이렇하다.

광주 북촌의 어느 한 부호가에 용모단정한 딸이 있었는데, 밤마다 보라색 옷을 입은 남자가 찾아와 관계를 맺고는 새벽녘에 돌아가곤 했다. 그녀는 부모의 계책에 따라 그 남자가 돌아갈 때, 그의 옷에 긴 실을 썬 바늘을 몰래 꽂아두었다. 그리고 날이 밝아 실을 따라가보니 북쪽 담장 아래에서 커다란 지령이의 허리에 바늘이 꽂혀 있었다. 이로 이해 그녀는 임신을 하여 사내아이를 낳았는데 나이 15세가 되자 스스로 견훤(甄萱)이라 칭하였다.

이는 견훤이 광주 북촌 부호가의 딸과 커다란 지령이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설화이다. 그러나 원래의 이야기에는 지령이가 아니라 용으로 되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용이란 최고의 권위를 상징하는 표상으로, 지령이와는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광주에 견훤의 고향으로 전하는 생룡동(生龍洞)이 있으니, 이는 ‘용이 태어난 동네’라는 의미인 것으로써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왜 《삼국유사》에 전하

는 설화에는 지령이로 나와 있는 것일까? 후에 견훤이 후삼국 쟁패에서 패배자로 전락하고 승리자 왕건이 용의 자손(龍種)임을 표방함에 따라, 견훤이 표방한 용은 지령이로 전락하여 설화화된 것이 아닐까 한다. 천하에 용은 둘이 있을 수 없다는 이치가 작용했음이라.

이처럼 견훤이 광주 지역의 용의 아들임을 표방했던 것은, 그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호족 출신임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로 인해 그는 당시 상주에서 유력한 호족으로 성장한 그의 아버지 아자개(阿慈介)를 부정한 셈이 되었던 것이고, 이들 부자 사이에 적대적 기류가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정치적 권력 앞에는 부자·형제 관계조차도 무상하게 깨질 수 있다는 사례를 우리는 역사에서 수없이 보아왔던 바인데, 견훤의 부자에게서도 또 하나의 사례를 찾아 볼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악연이 된 것일까? 후에 아자개는 자식 견훤을 등지고 왕건에게 귀부(歸附)해 버렸으며, 견훤 역시도 말년에 자식들 사이에 골육상쟁의 권력 다툼이 벌어지자 스스로 자식을 등지고 왕건에게 귀부해 버렸던 것이니.

3) 견훤의 서남해지역 장악 실패

견훤은 광주에 입성한 지 무려 8년이 지난 900년에 이르러서야 전주로 옮겨가 도읍을 정하고 ‘백제’의 건국을 공식 선언하였다. 광주에 입성한 이후에 부자의 인연을 부정하면서까지 전주를 중심으로 독립국가 건설 준비를 서둘렀던 그의 당초의 구상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의외의 일이 아닐 수 없다. 곧바로 전주로 옮겨가 건국하지 않고 광주에서 8년간이나 지체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아, 그 사이에 무언가 중대한 차질이 일어났

음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그 차질의 근원은 서남해지역 공략의 성과가 여의치 않았던 것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서남해지역 해상세력의 저항이 8년 동안이나 갈 길 바쁜 견훤의 야망 실현을 저지시켰던 것이다.

900년에 일단 서남해지역 공략을 유보하고 전주로 옮겨가 백제 건국을 선언한 견훤은 그 이듬해에 첫 원정지로 신라의 대야성을 택하였다. 그러나 신라의 최고 요새지인 대야성을 한번의 공격으로 함락시킨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견훤은 건국 후 첫 탐색전을 펼친 것쯤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돌아오는 도중에 금성오늘의 나주 남부 부락을 쳐서 약탈했다는 점이다. 이는 견훤이 광주에 머물러 있던 8년 동안 집요하게 공략했지만 치열한 저항으로 맞섰던 서남해지역 해상세력에 대한 첫 보복전의 포문을 연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들 서남해지역의 해상세력은, 광주에 머물며 집요하게 공략해 오던 견훤이 전주로 옮겨 정식 '백제'의 건국을 선언하면서 더욱 막강한 전력으로 침략을 감행해 오자, 위기감을 넘어 공포심을 갖게 되었고 침략자에 대한 증오심도 폭발 직전에 이르렀을 것이다. 이제 이들이 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 견훤의 무력에 굴복하여 투항하는 길, 그리고 끝까지 맞서 싸우는 길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어쩌면 무모할 것 같은 후자의 길을 택하였으니, 이들이 이 험난한 길을 택하였던 데에는 그 배후에 왕건이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당시 서남해지역 해상세력의 실체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왕건과 접촉한 적이 있는 몇몇 인물만이 알려져 있을 뿐이다. 먼저 압해도를 중심으로 도서지역의 해상세력을 결집하여 큰 세력으로 성장해 가고 있던 능창(能昌)이란 인물이 있었다. 그는 친견훤세력으로 간주되기도 하였으나 근거가 없다. 오히려 견훤과 왕건 누구에게도 복속하지 않다가 결국 왕건에게 생포당한 독자적 '도서 해상세력'의 구심체로 볼 것이다.

또한 나중에 왕건의 장인이 되어 다려군(多憐君)의 작호를 받았던 나주의 오씨나, 역시 후에 왕건에게 귀부하여 그의 책사가 된 영암의 호족 최지몽 등은 서남해지역 '연안 해상세력'을 대표하던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영암·강진 지역에는 이들의 존숭을 한 몸에 받고 있던 고승도선과 형미가 있었다. 이들 역시 직·간접적으로 서남해 해상세력과 왕건을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서남해지역에서 견훤과 왕건의 일대 격돌의 기운이 서서히 감돌기 시작했다.

4. 서남해지역에서 벌인 왕건과 견훤의 해양 정패

1) 견훤과 서남해지역의 관계

견훤과 서남해지역의 관계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별로 없다. 다만 견훤이 889년에 '서남해 방수군(防戍軍)'으로 파견되었다는 기사를 근거로 하여, 서남해지역이 9세기 말부터 견훤의 지배 하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실상은 이와 다를 거라 생각된다.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해 보자.

첫째, 견훤의 주요 진군로는 '경주→진주→순천→광주'로 이어졌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서남해지역은 그의 진군로에서 비껴나 있다는 점이다. 둘째, 견훤이 892년에 광주에 입성한 직후 곧바로 전주로 중심지를 옮겨가 백제의 건국을 선언하려 했던 애초의 야심찬 계획을 세웠으나, 이 계

획이 무려 8년간이나 지체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아마도 서남해지역에 대한 공략이 예상과는 달리 지지부진했음을 반영한다. 그리고 셋째, 견훤은 뒤늦게 900년에 이르러서야 전주로 옮겨가 백제의 건국을 선언한 그 이듬해에 대야성을 공격하고 돌아오는 길에 나주 인근의 부락을 약탈하였다는 점이다. 자신에게 끝까지 저항한 서남해지역에 대한 일종의 화풀이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일련의 맥락에서 볼 때, 견훤의 서남해지역에 대한 공략 의지는 매우 집요했었고, 이에 대한 서남해지역 사람들의 저항 역시 만만치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장기간에 걸친 쌍방 간의 공방은 더욱 처절한 국면으로 치달았을 것이며, 그만큼 서남해지역 사람들의 위기감은 더욱 증폭되어 갔을 것에 틀림없다. 바로 이 틈새를 당시 궁예의 장수로 복무하고 있던 왕건이 파고들었던 것이다.

2) 서남해지역 해상세력과 왕건과의 관계

서남해지역은 9세기에 장보고가 동북아 해상무역을 주도하던 ‘청해진체제’의 중심지였을 뿐 아니라, 그 이전부터 문물교류의 중심지였다. 따라서 이 지역은 일찍부터 해상세력이 크게 성장했던 곳이다. 장보고가 암살당하고 청해진체제가 해체된 이후에도 서남해지역 일대에는 해양을 무대로 활동하는 해상세력이 위세를 떨치고 있었다.

서남해지역의 해상세력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섬 지역을 무대로 한 ‘도서 해상세력’과 해안 육지부를 무대로 한 ‘연안 해상세력’이 그것이다. 이들은 견훤의 침략 위협에 처하자 혼연일체가 되어 이에 저항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견훤의 침략이 장기화하고 그 강도도 거

세어지자, 이에 대한 대응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도서 해상세력’은 끝까지 비타협적 저항의 노선을 견지해 가려 했는데 반해, ‘연안 해상세력’은 점차 실리적 타협의 대상을 모색해 갔던 것이다. 전자의 중심에 압해도의 능창(能昌)이 있었다고 한다면, 후자의 중심에는 나주의 호족 오씨(吳多憐)가 있었다.

오다련은 오랫동안 처절한 전투를 벌여왔던 견훤과는 도저히 타협할 수 없었던지, 새로운 타협의 파트너로서 왕건을 선택했다. 왕건 역시 오다련세력을 서남해지역으로 침투해 들어가기 위한 유용한 발판으로 생각하였으며, 쌍방은 왕건 자신과 오씨의 딸과의 혼인을 결행함으로써 타협의 증표로 삼았다. 반면 ‘도서 해양세력’의 우두머리격인 능창은 견훤에게 그랬듯이 왕건에게도 마지막까지 적대적 무력 대결을 포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왕건의 서남해지역으로의 침투는 ‘연안 해상세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견훤과 ‘도서 해상세력’을 무력으로 굴복시키는 방향에서 추진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왕건의 첫 침투 시도는 903년에 이루어졌으니, 이해 3월 그는 주사(舟師, 해군)를 이끌고 광주 경계의 해안으로 상륙하여 금성군(錦城郡, 오늘날의 나주)을 접수하고 10여 개의 군현을 점령하고서 군대를 주둔시키고 돌아갔다. 견훤의 집요한 공략에도 요지부동하던 나주의 세력이 멀리서 서해 연안을 따라 내려온 왕건의 단 1회 공격에 무력하게 무너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앞에서 살폈듯이 ‘연안 해상세력’과의 우호적 교감 속에서 이루어진 ‘평화적 점령’으로 보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한다.

3) 왕건과 견훤의 쟁패전

왕건의 전격적인 나주 지역 점령은 견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 못지 않게 큰 타격을 받은 세력은 능창을 중심으로 한 ‘도서 해상세력’이었다. 왕건에게는 이들의 도전을 꺾는 일이야말로 피해갈 수 없는 어려운 과업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왕건과 견훤의 첫 격돌은 909년에 이루어졌다. 왕건이 해군을 이끌고 남하하던 중 염해현(鹽海縣, 오늘날의 무안군 해제면 임수리에 상륙하여 견훤이 중국 오월(吳越)에 파견한 후백제의 사신선을 나포한 것이 그것이다. 불의의 일격을 가함으로써 후백제의 기선을 성공적으로 제압했던 것이다. 왕건이 다음 공략의 타깃으로 삼은 것은 ‘도서 해상세력’이었다. 먼저 서남해지역의 중심 도서 중의 하나인 진도군을 함락시키고, 영산강하구의 압해도 인근에 있는 작은 섬인 고이도를 위복시켰다. 이로써 왕건의 서남해지역에 대한 장악력은 더욱 강화되었으며, 그럴수록 견훤과 능창의 저항은 더욱 거세어 갔다.

912년경에 왕건이 다시 서남해지역 공략에 나섰다. 견훤은 후백제의 해군력을 총동원하여 이를 저지하려 하였다. 견훤은 직접 진두지휘하여 전함을 목포에서 덕진포에 이르는 영산강 하구에 배치함으로써 왕건이 영산강을 통해 나주 세력과 연결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했다. 난관에 봉착한 왕건은 바람을 이용한 화공책을 써서 견훤의 전함을 거의 전소시키고 후백제군 500여 급을 베는 완승을 거두었다. 견훤은 작은 배에 갈아타고 겨우 목숨을 건져 달아났다고 한다. 이는 제갈공명의 저 유명한 적벽대전을 연상케 하는 전투로서, ‘영산강대전’이라 부르기로 하자.

왕건의 ‘영산강대전’의 승리에 대하여 《고려사》에서는 “이로써 삼한 땅의 태반을 궁예가 차지하게 되었다”고 평하고 있다. 이는 서남해지역이

대세를 판가름할 전략적 중요성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영산강대전의 승리로 나주 세력과 합류하게 된 왕건의 해군은 다시 돌아가는 도중에 압해도 능창의 도전에 직면하여 치열한 해전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능창이 왕건의 군사에 생포됨으로써 예상과 달리 결과는 싱겁게 끝나고 말았다.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4) 파군천(破軍川)의 전설

《고려사》의 기사에 나온 왕건과 견훤의 서남해지역 쟁패전은 왕건이 일방적이고도 싱거운 승리를 거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영산강 하구의 무안군 몽탄면에 전해오는 파군교의 설화는 이와는 사뭇 다른 뉘앙스를 포함한다. 그 전설의 내용은 대개 이러하다.

왕건이 군사를 거느리고 영산강변에 진을 쳤는데, 견훤군이 사방을 에워싸고 공격을 가해왔다. 왕건은 포위망을 뚫으려 했지만 마침 바다의 밀물이 밀려들어 강물이 범람하는지라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마침 밤이 되어 전투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어 왕건이 잠시 조는 사이에 백발노인이 꿈에 나타나 다음과 같이 알려주었다.

“지금 강물이 빠졌으니 군사를 이끌고 강을 건너 몽탄의 청룡리에 진을 치고 매복해 있으라. 그러면 견훤군이 뒤쫓아 올 것이니 그를 치면 장군이 크게 승리하고 삼국을 통일하는데 성공할 것이다”

잠에서 깬 왕건은 그 노인의 말대로 하여 과연 대승리를 거두었다. ‘꿈의 여울’이란 의미의 몽탄(夢灘)이란 지명과 ‘군대를 격파한 천’이라는 의미의 파군천(破軍川)이라는 이름은 이로부터 연원한다.

이 설화는 아마도 ‘영산포대전’의 사실(史實)을 전거로 하여 지어진 것이 아닐까 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때 왕건이 견훤군에 포위되어 몰살의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는 숨은 이야기와 함께 그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 이 설화를 지은 이는 아마도 서남해지역의 민중들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이전에 자신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왕건의 통일 대업도 불가능하였으리라는 점을 자부하는 한편, 왕건을 향해 그것을 잊지 말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 설화를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꿈속의 백발노인이란 그들의 염원을 담보하는 ‘서남해 그리고 영산강의 신령’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5. 왕건의 승리 배경(1): 왕건의 뿌리는 해상세력

1) 《편년통록》에 나타난 왕건의 선대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 태조 왕건의 선대(先代)에 대한 기록은 그의 빛나는 명성과는 달리 믿을만한 것이 별로 없다. 다만 예종 대(1146~1170)에 김관의(金寬毅)가 저술한 《편년통록(編年通錄)》에 포함된 왕건의 선대에 대한 설화적인 기록만이 《고려사》에 실려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이 기록은 흔히 그 계보의 황당함이나 내용의 설화성 때문에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은 왕건 세력의 생래적(生來的) 기반과 성격을 살필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는 점에서 일단 주목할 필요는 있다.

이 기록에 나타난 왕건 선대의 계보는 호경(虎景)－강충(康忠)－보육

(寶育)－진(辰義)－작제건(作帝建)－용건(龍建)－왕건(王建)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계보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보육과 그의 친형 이제건(伊帝建)의 딸 덕주(德周) 사이에서 둘째딸로 태어났다는 진(辰義)에 대한 이야기이다. 즉 이 이야기에서 보육이 그의 친조카인 덕주와 근친 결혼했다는 점과 6대에 걸친 왕건 선대의 계보 중간에 부계(父系)뿐 아니라 진(辰義)이라는 모계(母系)의 인물이 끼어있다는 점이 생소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이러한 근친결혼과 모계 계보는 고려시대에는 일반적인 일로서 결코 황당한 일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자료의 신빙성을 해치는 요소라 할 수는 없다.

기록의 황당무계한 설화성 역시 마찬가지이다. 호경이 평나산의 호랑이로 화한 여성 산신과 결혼했다거나 작제건이 서해 용왕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 등이 설화적 픽션의 예라 하겠는데, 이는 전근대사회에서 왕실을 신비화시키려는 의도로 흔히 쓰여지던 서술방식에 불과한 것으로, 역시 이상한 일로 보기는 어렵다. 일찍이 고려 왕실은 용종설(龍種說)을 표방하여 스스로 용의 자손임을 자부해오던 터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설화적 표현양식으로 정리된 왕건 선대 계보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이전에,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왕건세력의 생략적 성향을 찾아보려는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해상세력의 성향이다.

2) 해상세력의 기반을 닦다

먼저 호경은 백두산에서 편력하다가 개성 지역 부소산(扶蘇山) 좌곡(左谷)의 부잣집에 장가들면서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한다. 개성 지역은

예성강·임진강·한강의 세 큰 강이 합류하는 지점과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어 해상세력과 인연을 맺기에 적합한 지점이다. 여기에서 강충은 서강(西江) 영안촌(永安村)의 부잣집 딸인 구치의(具置義)에게 장가들었다고 하는데, 서강이란 예성강을 말하고, 영안촌이란 예성강 하구의 동안(東岸)에 위치한 개풍군 남포리 일대로 비정되는 곳이다.

말하자면 호경과 강충은 부유한 처가의 덕에 힘입어 개성에서 예성강 하구에 이르는 지역에 세력을 확대시켰다고 할 수 있다. 당시엔 남자가 여자의 집에 장가가는 이른바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이 선호되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한편 보육의 딸 진의는 당나라의 숙종 황제라는 인물과 동침하여 임신하였고, 숙종 황제라 칭한 인물은 활과 화살을 신표로 남기고 떠나버렸다 한다. 진의가 낳은 이가 왕건의 조부(祖父)인 작제건이었으니 고려 왕족은 곧 당나라 숙종 황제의 자손인 셈이 된다.

그러나 이 대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아마도 숙종 황제라는 인물은 당나라에서 건너온 대상인이 아니었을까 한다. 그가 스스로 숙종 황제임을 거짓 칭했거나, 계보 작성자가 조작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보육의 집은 이미 당나라 상인들과 활발한 해상무역을 행하는 유력한 해상세력으로 떠오르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보육의 딸 진의가 이국인과 성 관계를 맺은 것은, 개방적이고 자유분방한 해상세력의 성향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그리 문제가 될 바는 아니었던 것이다.

3) 큰 해상세력으로 성장하다

진의와 이국인 대상인 사이에서 태어난 작제건은 16세 성인의 나이가

되자 어머니 진의로부터 아버지가 남긴 신표인 활과 화살을 전해 받고 아버지를 찾아 상선에 몸을 실었다 한다. 이 대목에 이어 작제건이 상인으로 대성했다는 이야기가 설화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러하다.

서해 상에서 상선으로부터 버림받은 작제건은, 서해의 용을 만나 자신을 괴롭히는 교활한 늑은 여우를 쏘아 달리는 부탁을 받고 아버지가 남긴 활로 늑은 여우를 쏘아 쓰러뜨린다. 이 공로로 그는 서해 용의 초청을 받아 용궁에 들어가 용의 장녀인 저민의(渚旻義)와 결혼하고 칠보(七寶)와 돼지를 얻어 칠선(漆船)에 싣고 돌아온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개(開)·정(貞)·염(鹽)·백(白)의 4주(州)와 강화(江華)·교동(喬洞)·하음(河陰)의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영안성(永安城)을 쌓고 궁실을 지어준다. 그리고 돼지가 인도하는 바에 따라서 송악의 남쪽에 저택을 짓고, 영안성과 저택을 왕래하면서 살아간다.

이는 작제건이 당의 상인인 아버지를 찾아나서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서해의 용으로 상징되는 유력한 상인과 인연을 맺어 큰 성공을 거두고, 이를 기반으로 예성강·임진강·한강 하구, 그리고 강화도의 해상세력의 우두머리로 부상하였음을 설화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즉 그는 거래하던 유력 상인의 딸과 결혼을 하고, 당시 칠보라 불리던 금·은·유리·차거(보석의 일종)·마노·호박·산호 등을 매입하여 돌아와서, 개주개성은 물론이고 정주(풍덕)·염주(연안)·백주(백천)와 교동 및 강화도 등지에 포진해 있던 연안·도서 해상세력의 절대적 지지를 받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어머니가 국제 결혼을 했듯이 그 역시 국제 결혼을 했던 셈이다.

이는 당시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던 상인들에게는 드문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호경 대부터 터를 잡고 살아온 개성 지역을 기반으

로 하되 예성강 하구에 위치한 영안촌에 성과 궁실을 짓고서, 국제 무역을 수행하고 인근 해상세력을 결집하는 센터로 활용했을 것이다. 이미 그는 해양을 근거로 하는 유력한 호족세력으로 성장해 있었던 것이다.

작제건의 아들은 용건이었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용녀였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용건은 꿈속에서 본 여인을 현실에서 만나 결혼을 하여, 그녀를 몽부인(夢夫人)이라 칭했다 한다. 그녀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었다 하니, 그 역시 이국 상인의 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용건 역시 그의 아버지 작제건을 이어 국제 무역에 활발히 종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그는 큰 야망을 품게 된다. 즉 당시 풍수지리계의 전설적인 대가로 알려져 있던 도선(道詵)의 예언임을 내세워, 삼한을 통일할 인물이 탄생하리라는 터에 저택을 세우고 군웅할거의 대쟁패전에 도전장을 내밀게 된다. 그리하여 그는 아들의 이름을 제왕이 될 인물임을 의미하는 ‘왕건’이라 짓고 야망의 실현을 향한 큰 걸음걸이를 내딛었던 것이다.

왕건은 해상세력에 기반한 선대의 활동 범위와 역량을 확대·강화시켜 갔다. 평양의 해상세력 김행파(金行波)의 딸, 정주의 해상세력 유천궁(柳天弓)의 딸, 그리고 나주의 해상세력 오다련의 딸 등과 잇따라 결혼을 결합했던 것은 이의 실현을 위한 정략결혼이었던 것이다.

6. 왕건의 승리 배경(2): 결혼을 통한 서남해 접근

왕건이 서남해의 쟁패전에서 무난히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데에는 그 가 해상세력 출신이었다는 점이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임에 틀림

없다. 그렇지만 서남해지역의 사람들을 널리 포섭할 수 있게 한 그의 포용력과 정치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의 승리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왕건은 주로 결혼과 고승을 통해서 서남해지역 사람들에게 접근했다. 이것이 왕건의 포용력과 정치력이 발휘될 수 있게 한 주요 열쇠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성공을 거두었다. 그리고 이는 이후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왕건이 지방민들을 포섭하기 위한 방식으로 즐겨 활용되었다. 이 점에서 서남해지역 쟁패전은 여러모로 왕건이 추후에 급성장하게 되는 하나의 시험대가 되었던 셈이다.

여기에서는 먼저 왕건이 결혼을 통해 서남해지역에 접근하여 그들을 포섭한 과정을 살펴보자.

1) 정주(貞州) 유천궁(柳天弓)의 딸과의 결혼

왕건의 첫 결혼 상대자는 정주 유천궁의 딸이었다. 이가 왕건의 첫째 후비(后妃)인 신혜왕후(神惠王后)이다.

정주는 오늘날의 개풍군 풍덕에 비정되는 곳으로, 예성강과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고 강화도가 마주 보이는 바닷가에 임해 있어, 해양의 요충지로 꼽히는 곳이다. 《고려사》에 의하면 유천궁은 큰 부자였으며, 정주 사람들이 그를 장자(長者)라 칭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정주 지역의 유력한 해상세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 더욱 정주는 왕건의 출신지인 개성과 인접해 있어, 왕건이 해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곳의 유력한 해상세력을 확실한 지원자로 포섭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이다. 왕건이 이곳 해상세력 유천궁의 딸을 첫 부인으로 맞은 것은 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고려사》에서는 왕건과 유천궁의 딸의 만남이 ‘우연’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어느 날 왕건이 군대를 이끌고 정주를 지나면서 버드나무 아래에서 쉬게 되었는데, 그 때 길 옆 천상(川上)에 서있는 유천궁의 딸을 우연히 만나 동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연’이란 항상 그 안에 ‘운명적’임을 내포한다. 《고려사》의 찬자는 두 사람의 만남이 운명임을 묘사하고자 하여, ‘우연’의 이런 속성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기실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주도면밀한 준비의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왕건은 서남해지역으로 진군할 때, 912년과 914년의 두 차례에 걸쳐 정주에서 전함을 수리하여 대규모의 함대를 발진시켰다. 이는 왕건이 장인 유천궁의 협조를 받아 정주를 가장 중요한 해군의 전진기지로 활용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왕건이 견훤과 서남해지역의 ‘도서 해상세력’의 저돌적 도전을 꺾고 서남해 쟁패의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유천궁의 적극적 협조가 큰 힘이 되었을 것임은 물론이다.

2) 나주(羅州) 오다련(吳多憐)의 딸과의 결혼

왕건의 두 번째 결혼 상대자는 나주 목포 오다련의 딸이었다. 이가 왕건의 둘째 후비인 장화왕후(莊和王后)이다.

흔히 나주로 통칭되는 서남해지역은 장보고의 활동 중심지로서 국내외 해상교류의 요지였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도자기 생산단지가 조성되어 있었다. 왕건은 서남해지역의 명성과 중요성을 모를 리 없었을 것이므로, 일찍이 이 지역을 그의 해양진출의 궁극적 목적지로 삼았다. 그러나 이 지역의 해상세력은 이미 상당한 세력으로 결집되어 있었고, 견훤이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 집요한 공략을 펴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서남해지역에 진

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왕건은 서남해지역에 성공적으로 진출해 가기 위한 비장의 방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었을 것이다. 오다련의 딸과 결혼을 결행한 것이야말로 왕건의 비장의 방책 중 하나였다 할 것이다.

그런데 《고려사》에 의하면 왕건이 오씨녀를 만난 것 역시 ‘우연’의 소산으로 묘사되어 있다. 어느 날 오씨녀는 포구의 용이 자신의 배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고, 그 얼마 후에 왕건은 영산강 하구의 목포에 정박하여 오색 기운이 감도는 천상(川上)에서 빨래하는 오씨녀를 발견하여 동침하였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오색 기운의 신비감으로 치장하여 ‘우연’의 운명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의 만남 역시 앞의 예와 마찬가지로 주도면밀한 준비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왕건은 903년에 단 한번의 공략으로 나주 인근의 10여 군현을 점령하였다. 견훤의 집요한 공격에도 요지부동이던 서남해지역이 왕건의 단 한번의 공격에 무력하게 무너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오다련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 해상세력과의 우호적 교감 속에서 이루어진 ‘평화적 점령’으로 보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이는 오다련의 딸과의 결혼이 얼마나 대단한 위력을 가져왔는가를 보여주는 실례이다.

3) 혜성의 박술희(朴述熙)와 복지겸(卜智謙)

이상에서 살펴듯이 왕건의 성공적인 해양진출은 결혼을 통해서 정주와 나주의 거점을 확보하고 두 거점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정주와 나주 사이의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해상세

력은 없었을까? 그런 인물로는 혜성군 출신의 박술희(朴述熙)와 복지겸(卜智謙)을 들 수 있다.

혜성군은 오늘날엔 당진군 소속의 일개 면인 면천면에 불과하지만, 신라시대 이래 대당교통과 해상무역의 중심지로 번창한 곳으로서, 당시에는 당당히 군(郡)으로 편제되어 있었다. 신라 때 혜성군이었고, 조선 태종 13년에는 면천군(沔川郡)으로 개편되었던 것이다. 박술희와 복지겸은 이곳 출신의 대표적 해상세력이라 할 수 있다.

먼저 복지겸은 면천 복씨의 시조로 추앙되고 있는 인물이다. 전승에 의하면 그의 선조 복학사(卜學士)는 당에서 면천으로 이주해 와서 해적을 소탕하고 백성을 보호했다고 전하는 것으로 보아, 상당한 해양적 기반을 갖추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후에 복지겸은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을 추대하는데 앞장섰으며, 환선길과 임춘길의 모반을 적발하여 진압하는 등 왕건의 심복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박술희 역시 왕건의 심복이었음에 틀림없다. 일찍이 궁예의 위사(衛士)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왕건의 추천에 의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후에 왕건이 자신의 후계자로 나주 출신 장화왕후 소생의 무(武)를 지목하고 박술희로 하여금 그 후견인이 되도록 부탁했던 것도 그에 대한 왕건의 신임이 매우 두터웠음을 보여주는 실례이다. 이는 또한 왕건의 개경 세력과 박술희·복지겸으로 대표되는 혜성 세력, 그리고 오다련의 나주 세력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따라서 박술희와 복지겸은 정주에서 출발하여 나주에 이르는 왕건의 해양 진군로에서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을 것으로 보아 무리가 없을 것이다.

7. 왕건의 승리 배경(3):

고승의 포섭을 통한 서남해 접근

1) '사무외대사(四無畏大師)' 와 도선(道詵)

불교신앙의 시대에 고승의 위치는 대단하였다. 위로 국왕으로부터 지방의 호족, 그리고 일반 백성 및 노비에 이르기까지 신분과 계층을 초월한 모든 사람들이 고승을 떠받들었다. 따라서 난세에 정치적 야망을 이루려는 자들은 으레 고승들의 지지를 받으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고승들은 정치에 초연하여 좀처럼 정치적 소견을 표명하지 않았으며, 이런 점이 정치인들을 노심초사하게 만들었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게 했다.

신라 말기의 난세에도 모든 이들의 존송을 한 몸에 받던 고승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이른바 '사무외대사'라 불리던 4인의 고승과 도선(道詵)이 그 대표격이라 할만하다. 사무외대사로 통칭된 4인의 고승은 진철(眞澈) 이엄(利嚴), 대경(大鏡) 여엄(麗嚴), 법경(法經) 경유(慶猷), 선각(先覺) 형미(迺微)를 말한다. 이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860~870년대에 출생하여 신라 말·고려 초에 활동했다는 시기적 공통점, 그들의 고향이 각각 태안, 보령, 흥덕(興德), 영암(靈巖)으로서 바닷가 출신이라는 공간적 공통점, 왕건과 결연(結緣)하여 고려 왕조의 개창과 통일과정에 기여했다는 정치적 성향의 공통점이 그것이다. 826년에 태어나 고려 왕조가 출현하기 전인 892년에 입적(入寂)한 도선(道詵)은 이들보다는 4~50년 정도 먼저 활동한 선배 고승으로서, 활동한 시기는 다르지만 공간과 정치적 성향의 측면에서는 공통점을 보여준다.

왕건은 이들과 결연하여 정치적 지지를 끌어냄으로써 고승을 탄압하던

궁예를 몰아내고 민심을 수습하여 고려를 건국할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후삼국 통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사무외대사'와 도선은 왕건의 해양진출로 상에 위치한 해안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그들의 지지는 왕건의 서남해 진출에 큰 힘이 되었을 것임에 분명하다. 더욱이 서남해 출신인 도선과 형미가 왕건에게 미친 영향이야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이다. 이들은 왕건과 직간접적인 관련을 맺으면서 서남해지역의 호족과 백성들로 하여금 친왕건의 정치 성향을 갖게 하였다. 따라서 왕건과 도선·형미의 관계는 왕건이 서남해 쟁패전에서 승리하는 중요한 배경의 하나로서 중시해야 할 부분이다.

2) 도선(道詵)과 왕건

도선은 826년에 영암에서 태어나 15세에 화엄사에 들어가 화엄학을 수학하다가 신라 말 선종 9산문의 하나인 곡성 태안사(泰安寺) 동리산문(桐裏山門)의 혜철화상의 문하에 귀의하고, 전국의 산천을 유람하다가 37세부터 광양 옥룡사(玉龍寺)에 주석하여 898년에 72세를 일기로 입적하였다. 그는 일찍이 동리산문과 인연을 맺은 선종 승려였으며, 특히 풍수지리의 대가로 명성을 날렸다.

그런 도선에 대해 고려의 역대 왕들은 특별히 존숭(尊崇)해 마지않았다. 태조 왕건은 훈요십조 중 제2조에서 도선이 정해놓은 곳에만 사원을 지을 것을 당부한 바 있고, 이후에 현종(顯宗)은 대선사(大禪師)의 호를 증시(贈諡)하였으며, 숙종(肅宗)은 왕사(王師)의 시호를 더하였다. 그리고 인종(仁宗)은 선각국사(先覺國師)로 추봉(追封)하였으며, 의종(毅宗)은 최유청(崔惟淸)에게 하명(下命)하여 그의 비문(白鷄山玉龍寺贈諡先覺國

師碑銘)을 찬술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로 보아 그는 고려의 건국 이전에 왕건가와 특별한 인연을 맺었고, 고려의 건국 이후에는 왕조의 정신적 주주로 추앙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의종(毅宗) 4년(1150)에 왕명을 받들어 최유청(崔惟淸)이 찬술한 《백계 산옥룡사증시선각국사비명》에 의하면 875년에 도선이 세조(世祖)(왕건의 부인 용건(龍建) 혹은 왕룡(王隆)에게 찾아가 2년 후에 왕자(王者)가 태어날 것임을 예언했다고 하고, 《고려사》에서는 민지(閔漬)의 《편년강목》을 세주(細注)로 인용하여 태조의 나이 17세에 도선이 다시 찾아와서 ‘삼계 창생(三季蒼生)의 임금’이 되리라고 예언했음을 소개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록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바가 있다. 왕건이 그의 야망 실현을 위해서 도선이 찾아와 예언을 남겼다는 소문을 의도적으로 퍼뜨렸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고려를 건국하고 후삼국을 통일한 이후에도 고려 왕조의 정통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를 지속적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태조 때부터 고려 왕조가 지속적으로 도선을 존숭해 마지않았다는 것은, 고려의 건국과 운영의 과정에서 도선의 후광이 절실히 필요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왕건가가 도선과 직접 관계를 맺었던 아니면 조작적 관계 설정을 시도했던 간에, 그것은 용건 대부터 시작되었고 왕건 대에 더욱 보강해 갔을 것임은 틀림없는 일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도선이 서남해지역 출신이라는 점을 보태어서 생각한다면, 도선이 왕건에 대해 예언했다는 것은 소문만으로도 왕건이 서남해지역으로 진출해 가는데 있어서 상당한 위력을 발휘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도선의 예언이 사실이었고 도선이 직접 그것을 서남해지역 해상세력에게 유포하였다고 한다면 그 위력은 대단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왕건이 오다련에게 접근하여 그의 딸과 결혼할 수 있었던 것도,

‘도선의 예언’이 일정하게 작용하였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3) 형미(迥微)와 왕건

다음에 왕건과 형미의 관계를 보자. 도선이 동리산문(桐裏山門) 혜철(慧哲)의 문인이었던데 반해, 형미는 장흥 보림사에서 가지산문(迦智山門)을 개창한 체징(體澄)의 문인이었다. 그리고 도선이 왕건과의 직접적 관련성 여부가 불확실한 것에 반해 형미는 왕건을 직접 만나 도와준 것이 확실하다. 형미는 도선 못지않은 서남해지역 출신 명망 고승으로서, 직접 왕건을 도왔던 확실한 지지자였다고 할 수 있다.

강진 무위사에 있는 ‘선각대사편광령탑비(先覺大師遍光靈塔碑)’에 의하면 형미는 무주(武州)의 바닷가, 즉 서남해지역에서 864년에 태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15세에 보림사의 체징에게 찾아가 출가하고, 882년에 화엄사에서 구족계를 받았으며, 891년에는 사신선 편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 후 10년 후인 905년에 영산강변의 국제항구인 회진(會津)을 통해 귀국한 형미는 지주소판(知州蘇判) 왕지본(王池本)의 귀의를 받고 월출산 남록(南麓)에 위치한 무위갑사(無爲甲寺)에 주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무렵에 왕건이 형미를 찾아가 그의 법제자가 되었던 것 같다. 그리하여 왕건은 912년에 다시 서남해지역 공략에 나서 이를 마무리 지은 후에 형미를 만나 함께 철원으로 돌아갔으며, 형미는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기 1년 전인 917년에 입적(入寂)한 것으로 되어 있다.

형미의 죽음에 대해 ‘선각대사비’에서는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미륵불을 자처하던 궁예의 사설(邪說)과 갈등을 겪다가 혹은 왕건을 비호하다가 궁예에게 타살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이다. 또한 왕건은 919년 3월에 형미의 제지를 불러 개성의 오관산(五冠山)에 산사(山寺)를 수리하게 하고 석탑(石塔), 부도를 만들어 그의 사리를 모시도록 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왕건의 형미에 대한 특별한 애정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형미는 왕건이 서남해지역에 진출하는데 중요한 협조자였을 것으로 보아 무리가 없다. 불교신앙시대인 당시에 호족 및 대중들의 존숭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고승의 지지를 얻어낸다는 것은 곧 호족들의 지지를 평화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첩경이었다. 이 점에서 형미는 서남해지역 호족들의 왕건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고승을 통해서 서남해지역의 해상세력을 포섭한 왕건의 전략은 이후에도 벤치마킹되는 선례가 되었다. 고려 후기 최씨 무인정권이 강진 만덕산 백련사의 원묘국사 요세와 월출산 월남사의 진각대사 혜심을 통해서 서남해지역 해상세력의 지원을 이끌어내려 했던 것이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제6장

해양강국 고려의 해상무역과 해양력

1. '해양강국' 고려의 연원을 찾아서

1) 우리의 국호 'Korea'

해양강국 고려의 가능성은 오늘날 'Korea' 라는 국호의 연원을 통해서도 살필 수 있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공식 국호는 'Korea' 이다. 즉 남한은 'South Korea' 이고, 북한은 'North Korea' 이다. 우리는 남과 북이 애써 '한국' 과 '조선' 이라는 각기 다른 국호를 고집하고 있는데, 국제사회에서는 Korea라는 동일 국호로 불러주고 있으니, 한편으론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론 부끄럽고 우습기도 하다. Korea란 국호는 왕건이 세운 '고려(高麗) 왕조에서 연원하는 것이니, 이 점에서 고려 왕조는 남북의 분단 상황을 청산하고 화해할 수 있는 조그만 빌미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는 의도했든 안했든 간에 고려가 우리에게 남겨준 훌륭한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역사에서 사용된 국호를 열거해 보자면, 고려 이외에도 (고)조선, 한국(삼한), 고구려, 백제, 신라 등이 있고, 오늘날 남과 북이 각기 다른 한국과 조선이라는 국호를 쓰고 있다. 그럼에도 무슨 연유로 서구인들은 우리의 국호를 유독 '고려' 에서 연원하는 'Korea' 로 부르게 된 것일까? 그 연원을 찾아 올라가다 보면, 먼저 서양 선교사가 남긴 16세기의 기록과 만나게 된다.

2) 서양 선교사의 기록과 고지도에 나타난 Korea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에 일본에는 선교활동을 하고 있던 예수회 선교사들이 머물러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선교 활동상을 연례보고서의 형식으로 작성하여 로마의 예수회 본부에 보냈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에는 임진왜란의 전황을 상세히 기술한 《1592년 예수회 연례보고서 부록편》을 작성하여 보냈다. 여기에 당시 조선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들이 조선이란 국호 대신에 ‘코라이(Coray)’란 국호를 쓰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코라이인들의 성향과 기질에 대한 이야기, 코라이 포로에 대한 이야기 등을 전하고 있다.

다음에 스페인 신부 루이스 데 구스만이 일본에서 활동하던 신부들이 작성한 자료에 근거해서 1601년에 저술한 《선교사들의 이야기》라는 저서가 있다. 여기에서도 역시 국호를 코라이(Coray)라 쓰고 있는데, 코라이 병사들의 이야기, 코라이 신하들의 이야기, 코라이 정복과정에서 일본이 겪은 난관에 관한 이야기 등을 전하고 있다.

더욱 생생한 것은 천주교신자인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의 요청으로 종군하여 1593년 12월 27일에 직접 조선 땅을 밟은 스페인 출신의 그레고리오 데 세스페데스 신부가 조선에서 그가 겪었던 경험을 써서 보낸 편지의 내용이다. 여기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으로 코라이 왕국에 가게 되었음을 밝히고, 당시의 전황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당시엔 고려라는 왕조는 이미 사라졌고 조선이란 왕조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하나 같이 나라 이름을 ‘고려’에서 연원하는 ‘코라이’라 칭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유럽의 고지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1996년 11월에 주한 포르투갈 문화원에서 개최한 ‘지도 제작기술에서

의 동서양의 만남전'에 포르투갈인 마우엘 고디노 드 에리디아가 16세기 초에 제작한 아시아지도가 전시되었는데, 그 지도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를 'Mar Coria'로 표기한 것이 확인된 바 있었다. 그리고 경희대 무역학과 김신 교수가 소장한 유럽의 고지도 중, 1720년에 영국에서 제작된 지도에는 동해를 'Sea of Corea'라 표기하였고, 1748년 프랑스에서 제작된 지도에는 'Mer De Coree'라 표기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또한 중국 푸단대학(復旦大)의 우송디(吳松弟) 교수는 '동해 지명과 바다 명칭에 관한 국제학술세미나' (1998년 10월 2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700~1826년 사이에 제작된 유럽의 고지도 30여 장을 분석하여 동해를 'Mer De Corea', 'Sea of Corea', 'Gulf of Corea' 등으로 표기한 지도 15장의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유럽 고지도에서 동해를 어떻게 표기하였는가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일본해'가 아닌 '한국해' 혹은 '동해'라 표기함이 정당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것에 집중되었고, 이점에서 매스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그리하여 이는 정부 차원의 관심으로 옮겨져서, 2001년에 미국 남기주대 한국전통문화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180여 점의 고지도와 영국 국립도서관 소장의 16~19세기의 동해 관련 지도 90점을 조사하는 국가 프로젝트가 수행되었고, 그 결과 대다수 지도가 'Sea of Corea', 'Sea of Korea', 'Mer De Coree', 'Zee Van Korea' 등으로 표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도에서의 이러한 표기들을 확인한 것은 두 가지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동해가 결코 '일본해'로 표기될 수 없다는 국민적 관심사를 재확인해 주었다는 점이다. 정부와 매스컴이 보여준 지대한 관심은 대개 이 점에 집중되었다. 그리고 필자가 더 주목하는 것은 왜 바다 이름을 '조선해'가 아닌 '고려해'로 표기했을까 하는 점이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공식 국호를 'Korea'라 칭하게 된 연원을 해명할 하나의

단서로 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이다.

3) 해양강국 ‘고려’의 잔영(殘影)

조선은 임진왜란 이전에는 서양인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은둔의 나라였다. 그래서 서양의 선교사에게 조선은 풍문으로만 전해져 ‘야만인 탈탈 죽이 시는 섬나라’라는 식으로 잘못 알려져 있었다. 그러다가 조선은 1592년 임진왜란을 계기로 일본에 와있던 서양선교사들에게 재발견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문헌에, 그리고 지도에 ‘조선’이란 국호 대신에 ‘고려’를 지칭하는 ‘Coray’, ‘Coria’, ‘Coree’, ‘Corea’, ‘Korea’ 등으로 표기하였다. 왜 그랬던 것일까?

현재로서 이 문제는 아직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다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먼 역사적 기억 속에 남아 있던 ‘고려’라는 왕조가, 임진왜란을 전후해서 재발견된 ‘조선’을 통해서 되살아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들에게 은둔의 나라 조선보다는, 비록 먼 기억 속의 왕조이긴 하지만 고려가 더욱 강렬한 인상으로 남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무엇이 고려를 그들에게 그토록 강렬한 인상으로 남게 했을까? 그것은 해양강국 ‘고려’의 잔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는 흔히 고려에 대해서 이렇다할 개성도 없는 평범한 일개 왕조로 치부해 버리곤 한다. 그러나 해양을 염두에 두면, 고려는 우리에게 베일 속에 가려진 새로운 모습을 드러낸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고려하면 우선 떠오르는 고려청자와 팔만대장경도 해양과 관련을 지워야 그 의미가 생생하게 되살아날 수 있다. 왜 수도 개경에서 멀리 떨어진 서남해 바닷가의 강진 대구면 일대에서 최고급의 고려청자가 80퍼센트 이상이나

생산되었을까? 그리고 팔만대장경의 조판사업이 왜 강화도와 남해도의 두 섬을 근거지로 하여 추진되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해양에서 찾아야 할 터이다. 삼별초가 진도로 옮겨갈 때 1,000여 척의 배를 동원했던 사실 역시 고려와 해양의 관련성을 웅변해준다.

그리고 또 있다. 고려의 수도 개경은 세계인이 왕래했던 국제도시였다는 점이다. 그 국제도시 개경에서 외국인들은 고려인들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공생하였다. 고려가요 〈쌍화점〉에서, 고려여인과 회회인(回回人, 아라비아 상인) 사이의 수작 장면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묘사되어 있는 것에서도, 우리는 은둔의 나라 조선과는 다른 고려의 개방적 성향을 여실히 엿볼 수 있다.

‘개방국가’, ‘해양강국’ 으로서 고려의 면모는 아직 알려진 것이 적다. 이에 대한 관심은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왜 Korea를 공식 국호로 통용하게 되었는가”라는 현재적 의문에서 우선 환기될 수 있다.

2. 10세기 전반 동아시아의 해양활동

1) 분열의 시대

10세기 전반은 한·중·일의 동북아 3국 모두에게 분열의 시대였다. 이 중 가장 극심한 분열상을 드러냈던 것은 중국이었다. 당시 중국은 5대 10국의 여러 나라들로 갈라져 생존을 위해 다방면에서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여가고 있었다. 당시 그들이 대외 해양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갔던 것도

알고 보면 최후의 승자로 살아남기 위한 경쟁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중원을 다시 통일하여 최후의 승자가 된 송(宋)은 10세기 후반 이후 동아시아의 해상교역을 주도하는 선두주자로 부상할 수 있었다.

한국은 신라의 지방 지배력이 현격히 떨어지면서, 지방 호족세력이 잇따라 신라에서 분리·독립하여 후삼국의 분열시대를 맞았다. 900년에 견훤이 후백제를, 901년에 궁예가 후고구려(태봉)를 각각 건국하였고, 다시 태봉은 918년에 왕건에 의해 고려로 교체되는 등 10세기에 들어 분열의 회오리에 휩싸였다. 이들 나라들은 서로 치열한 쟁투를 벌여나갔으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대외 해양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리하여 936년에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는 그 이후에도 해양활동을 적극 전개해 감으로써, 송과 더불어 동아시아 해양활동의 양축을 이루게 되었다.

일본의 경우도 분열되긴 했지만, 그 양상은 달랐다. 10세기에 접어들면서 일본 왕실의 권위가 실추되고 왕실의 외척인 후지와라씨(藤原氏) 일문(一門)의 전제정치가 횡행하면서, 지방세력의 도전이 잇따랐다. 즉 히부리 섬(日振島)을 중심으로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의 해상세력을 결집하여 난을 일으킨 후지와라 스미토모(藤原純友)와 관동지방의 8국에 대한 지배권을 석권하며 반란을 일으켜 스스로 신황(新皇)을 칭한 동국(東國)의 마사카토(平將門) 등은 지방 반란세력의 대표격에 해당한다. 그런데 일본 조정은 이들을 모두 평정한 이후에 해상활동을 금지하는 정책을 펴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 일본, 해상활동에서 스스로 고립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0세기 전반의 동아시아 해상활동을 이끌었

던 것은 중국과 한국이었고, 일본은 여기에서 고립되는 양상으로 나타났
다. 먼저 해양활동에서 일본이 고립되는 과정을 살펴보자.

일본은 894년에 견당사(遣唐使)의 파견을 중지함으로써 동아시아 해양
활동을 스스로 제약하였다. 당시 일본 조정은 견당사 파견을 중지한 이유
로 ① 내란에 휘말린 당으로부터 배울 것이 없다는 점, ② 해상 조난(遭難)
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 ③ 신라의 적도(賊徒)로부터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 등을 내세웠다. 그렇지만 기실은 국내의 해상세력이 당 및 신라와의 사
적 교역을 통해서 반정부적 세력으로 성장·결집되는 것을 미리 차단하
려는 의도에서 해양활동을 공식적으로 금지시킨 조치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일본의 해상세력은 일본 조정의 의사에 반하여 비공식적 해상
교역을 계속하였으며, 10세기에 들어 국가의 통제에 대항할 수 있을 정도
의 강력한 세력으로 결집되었다. 후지와라 스미토모의 반란이 그것이다.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일본 조정은 이들을 견제하는
한편으로, 이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외부 세력의 동향을 파악하면
서 대처 방안을 마련했다. 929년에 검비위사(檢非違使) 진자경(秦滋景)
등을 후백제에 파견했던 것은 아마도 이런 목적에서였을 것이다. 대외통
상업무를 관장하는 관리가 아니라 검찰의 업무를 띤 검비위사를 파견했
다는 것 자체가 통상업무의 목적에서가 아니라 후백제의 동향을 살펴 국
내 반정부적 해상세력과의 관계를 차단하려는 의도였음을 반영한다.

앞에서 거명한 후지와라 스미토모(藤原純友) 세력은 당시 일본의 반정
부적 해상세력의 대표격이었다. 그는 당시 해적(海賊)으로 불리던 반정부
세력이었으며, 히부리 섬을 중심으로 1,000여 척의 배를 구사하여 세토나
이카이 해역을 석권한 막강한 해상세력이었다. 그들이 국가의 양곡을 약
탈하기도 하는 등 일본 조정에 대항하는 행위를 본격 개시하자, 위기감을
느낀 일본 조정은 이들을 진압하기 위한 일련의 준비를 진행하였다. 일본

조정이 신사에서 이들의 진압을 기원하는 거국적인 의식을 거행한 것이나, 929년에 후백제에 검비위사를 파견한 것, 그리고 935년과 936년에 오월국의 상인 장승훈(莊承勳)이 일본에 방문했을 때, 조정의 실권자인 좌대신(左大臣) 후지와라 다다히라(藤原忠平)가 그에게 오월국왕에게 보내는 '서장(書狀)'을 주어 귀국하게 했던 것 등은 후지와라 스미토모 세력을 공격하기 위한 국내외적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쳐 일본 조정은 936년에 기숙인(紀淑人)을 파병하여 후지와라 스미토모 세력을 성공적으로 진압하였다. 그런데 그 진압이 후백제가 멸망한 그 해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후지와라 스미토모 세력이 일본 조정의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후백제와 긴밀한 해상교역 관계를 유지하면서 세력을 키워왔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때, 일본 조정이 929년에 검찰의 임무를 띤 검비위사를 후백제에 파견한 의도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아무튼 후지와라 스미토모 세력은 936년에 공격을 받아 일단 진압되었지만, 이것으로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니었고, 동국(東國)의 마사카토(平將門) 세력과 합류하여 저항을 계속하다가 940년대 초에 완전 진압당하고 만다. 이후 일본 조정은 오월국과 몇 차례 사신을 교환하기도 하였으나, 형식적인 교섭에 그쳤다. 그리고 일본은 송(宋)에 대해서도 이런 추세를 이어감으로써 해양활동이 크게 위축됨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이는 국내 반정부적 해상세력의 재기 가능성을 우려하여 소극적으로 대외 정책을 편 결과라 할 것이다.

3) 고려·송 중심의 동북아 해상무역

10세기 전반 분열의 시대에 동아시아 해양활동은 주로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절강 지역에서 일어난 전씨(錢氏)의 오월국(吳越國)은 해상활동에서 가장 적극적이었다. 이는 절강 지역이 이전 당대(唐代) 이래 신라와 일본에 대한 해상교역의 중심 거점으로 기능했던 전통을 오월국이 계승한 결과가 아닐까 한다. 한반도의 후백제와 태봉은 이런 오월국과의 해상교역을 둘러싸고 경쟁하고 견제하면서 각축을 벌였다.

먼저 후백제는 건국 직후에 오월국에 사신을 보내 관작을 제수받는 등의 적극 외교를 펼침으로써, 오월국과의 해상교역에서 우위를 선점하려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태봉의 견제와 도전도 만만치 않았다. 태봉의 해군장군 왕건은 대중국 해상교류의 교두보라 할 서남해지역을 선점하였으며, 해전에서 후백제군을 번번이 압도하였다.

909년에는 염해현(오늘날 전남 무안군 해제면 입수리)에서 오월국으로 떠나는 후백제의 사신선을 나포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태봉에게 후백제의 대오월국 해상교류를 저지하여 대외 해상활동에서 우위를 점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왕건 개인에게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확실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리하여 918년에 왕건이 쿠데타에 성공하여 궁예를 축출하고 태봉을 대신하여 고려를 건국할 수 있었던 것도, 해전에서 세운 혁혁한 공적이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임에 틀림없다.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자 후백제의 견훤은 고려와의 정면 대결을 일단 미루고 918년에 오월국에 사신을 보내 명마를 바치고 관작을 제수 받는 것으로 해양활동의 열세를 만회하려 하였다. 그러나 여의치 못했던 것 같다. 왜냐하면 오월국의 추언규(僑彦規)와 박암(朴巖)이 919년과 923년에 고려에 각각 내투(來投)해 온 것으로 미루어 보아, 오월국과의 해상교역

에서 고려가 후백제를 당분간 앞서갔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후 서남해지역에서 후백제에 대한 고려의 우위는 당분간 계속되었다.

그러나 927년 12월에 고려와 후백제의 화친을 권장하는 오월국의 국서가 사신을 통해 후백제에 전달되면서 두 나라 사이의 해상 주도권은 다시 역전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그간 고려의 독무대였던 서남해지역에서조차도 후백제의 영향력은 발휘되고 있었다. 이는 아마도 후백제가 오월국과의 외교에서 주도권을 잡게 되고, 일본의 해상세력인 후지와라 스미토모와도 연결하여, 동북아 해양활동의 네트워크를 구축했던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한다.

이에 대한 고려의 반격은 필사적이었다. 929년 12월 후백제와의 고창(안동)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것을 전기로 하여 고려는 해양 주도권 쟁탈에 뛰어들었다. 수세에 몰린 후백제가 왕위 계승을 둘러싼 내분에 휩싸이면서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사이에, 서남해지역에 대한 주도권, 더 나아가 동북아 해양활동의 주도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었다. 이후 고려는 오월국뿐만 아니라 그 남쪽의 민국(閔國), 산동반도의 후당(後唐), 그리고 그 북쪽의 후주(後周) 등과도 교류를 다각화함으로써, 이후 송과 고려가 동북아 해양활동의 양축을 이루는 발판을 마련해 갔다.

3. 해상무역의 중심축으로 떠오른 고려

1) 동아시아 삼국의 해양정책

고려 왕조는 해양과 인연이 깊다. 고려의 건국자 태조 왕건은 해상세력 출신으로서 해군장군의 직에 취임하여 제해권을 석권하고 급기야 936년에는 후삼국을 통일한 인물이다. 그는 해상세력을 탄압하거나 해체시키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세력기반으로 흡수하여 그들을 국가의 주요 성원으로 편제하였다. 그리하여 왕건과 그의 후계자들은 5대 10국으로 분열되어 있는 중국의 여러 왕조들과 적극적인 해양외교를 펼쳤으며, 이어서 10세기 후말기에 송 왕조가 중원을 통일한 이후에는 송 왕조를 해양외교의 유력한 파트너로 응대하면서,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후주(後周)를 계승한 송(宋) 왕조 역시 적극적인 해양정책을 펼쳤다. 송의 태조 조광윤은 후주로부터 친위부대인 금군(禁軍)의 조직과 회수(淮水)에서 양자강에 이르는 해안의 소금 생산지를 이어받아 군사력과 경제력에 바탕을 둔 막강한 왕조를 건설하고, 그 여세를 몰아 오월(吳越) 등 남방제국을 평정하여 중국 재통일의 위업을 달성하였다. 송 태조는 해상무역을 중시하는 정책을 적극 표방하였으니, 왕조를 건국한 직후 곧바로 상세(商稅)의 규례를 정하였던 것이 그 한 예가 될 것이다. 또한 그는 971년에 무역업을 전담하는 시박사(市舶司)를 광주(廣州)에 설치한 이후에 강남 복건(福建)의 천주(泉州), 절강(浙江)의 항주(杭州)와 명주(明州)[오늘의 영과], 그리고 산둥(山東)의 밀주(密州) 등의 주요 항구도시에 연이어 시박사를 설치하여, 왕조의 해상무역정책을 제도로서 뒷받침하였다. 그리하여 송은 대를 이어 멀리 서남아시아의 대식국(大食國)을 비롯하여 동

남아시아의 여러 나라, 그리고 고려 등지의 물산들이 운집하여 일대 해양 강국을 이루었다.

그런데 일본의 사정은 이와 달랐다. 9세기 후반부터 황족의 외척인 후지와라씨는 섭(攝)과 관(關)이라는 지위를 독점하여 천황가 대신 중앙의 절대적 통치권을 행사하는 '섭관정치'의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이에 저항하여 일어난 막강한 해상세력들을 차례로 진압하면서 12세기 전반까지 무려 200여 년 동안이나 그 권력을 그대로 유지해 갔다. 당연히 '섭관정치'의 집권자들은 해상세력의 잔당을 계속적으로 탄압해 가는 한편으로 그 일환으로 해외무역을 금지하는 정책(해금정책)을 병행해 갔다. 결국 10~11세기의 동북아 해상무역은 송과 고려가 주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제 그 면모를 들여다보기로 하자.

2) 요(遼)의 위협에 흔들린 송의 해양정책

북방에서 요(遼)의 흥기는 송과 고려가 해상무역정책을 펴나가는데 걸림돌이 되었다. 내몽고의 시라무렌 강 남부지역에 흩어져 살던 거란족은 9세기 초에 급속한 세력결집을 이루더니, 국호를 요(遼)라 칭하고 926년에 발해를 멸하였으며 여기에서 다시 남하하여 연운(燕雲) 16주를 차지하고 송과 고려를 압박하였다. 요의 남침에 기세가 눌린 송은 1004년 요에 화약을 청하여 은 10만 냥, 비단 20만 필을 매년 기증하는 조건으로 요와 굴욕적인 맹약을 맺었다. 고려 역시 요의 세 차례에 걸친 침입을 받아 이를 물리치는 데는 성공했으나, 결국 1019년에 요에 화약을 청하고 요의 연호를 쓰는 사대관계를 수용함으로써 평화의 길을 선택했다.

이처럼 송과 고려는 공히 요의 군사적 위협에 평화를 위한 굴욕적인 화

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바로 이 때문에 양국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편한 관계로 빠져들어 갔다. 즉 송의 보수 정책들은 고려의 사신과 상인들이 요의 첩자노릇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거나, 그들이 송으로부터 재부(財富)를 취하여 적성국인 요에 제공하는 이적행위를 하는 것으로 매도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그들 중에는 고려와의 상거래를 금지하고 국교를 단절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펴는 자들도 있었다. 이러한 보수 정책이 정국을 주도하는 폐쇄적 분위기는 신종(神宗)이 즉위하는 1068년까지 계속되었다.

신종은 즉위 후에 보수 정책을 멀리하고 진보적이고 참신한 일군의 인사들을 등용하였으니, 왕안석(王安石) 일파가 그들이었다. 흔히 이들을 '신법당(新法黨)'이라 불러 '구법당(舊法黨)'이라 불리는 보수 정책과 구별하는데, 신법당 세력은 국가의 제도를 일신하고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대외정책에서도 국초의 개방적인 모습을 다시 회복하였다. 이에 송은 1069년에 천주(泉州) 출신 해상(海商)인 황신(黃慎) 등을 고려에 보내 관계 정상화를 타진하였고, 고려는 민관시랑(民官侍郎) 김제(金悌) 등 백십여 명을 송에 파견하여 이에 화답함으로써 양국의 공식 외교관계는 다시 정상화 되찾았다.

3) 외국 해상(海商)들로 성시(盛市)를 이룬 고려

요의 위협으로 송의 해양정책이 흔들리는 바람에 송과 고려 사이에 한때 공식적인 외교관계는 단절되기도 했지만, 민간을 중심으로 전개된 양국 간 해상무역은 거의 손상되지 않고 성황을 이루었다. 공식 외교사절이 교환되지 않았던 50여 년의 기간 동안에도 송상(宋商)들은 위축되지 않았

다. 아니 오히려 더욱 빈번하게 고려에 왕래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송상의 일원이었던 황신 등이 양국 국교 재개(再開)의 메신저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이야말로 당시의 이러한 정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바랄 할 것이다. 뿐만 아니었다. 이 기간 동안에 대식국(大食國, 아라비아) 상인 들도 대규모 상단을 조직하여 고려에 내왕하며 국제무역에 참여하였다.

《고려사》에 나온 몇몇 예를 들어보자. 현종 15년(1024) 9월 열라자(悅羅慈) 등 100인이 건너와 토물(土物)을 바쳤고, 이듬해 9월에도 하선라자(夏詵羅慈) 등 100인이 건너와 토물을 바쳤다. 그리고 정종 6년(1040) 11월엔 보나합(保那盒) 등이 건너와 수은(水銀)·용치(龍齒)·점성향(占城香)·몰약(沒藥)·대소목(大蘇木) 등의 물품을 바쳤고, 이에 고려 국왕은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후히 대접하고 많은 금백(錦帛)을 주도록 했다. 이들은 ‘해양 실크로드’라 불리는 남해로(南海路)를 따라 중국 해역에 도착하여 1차 교역을 행하고 여기에서 다시 황해를 횡단하여 고려에 도착하여 교역 활동을 전개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라비아인들과의 교류 사실은 이미 신라시대로 소급할 수 있으며, 그들은 경주 패룡(원성왕릉) 앞의 이국적 인상의 무인석상과 《악학궤범》에 역시 이국적인 인상으로 그려진 신라 처용의 그림 등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그렇다면 아라비아 상인들은 해양을 통해 건너와서 통일신라 및 고려인들과 직접 교역도 하고, 머물러 현지인들과 더불어 살기도 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고려의 교역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당시 해양의 문호를 굳게 걸어 잠그고 해외무역을 통제하던 일본에서도 사신을 보내왔다. 몇몇 예를 들어 보자. 문종 10년(1056) 10월에 등원조신뢰충(藤原朝臣賴忠) 등 30인이 국사(國使)로서 김해에 건너왔고, 문종 27년(1073) 7월엔 상인(商人) 왕칙정(王則貞)과 송영년(松永年) 등 42인이 건너와 나전안교(螺鈿鞍橋)·

칼·경갑(鏡匣)·현상(峴箱)·빗·책상·화병(畫屏)·향로(香爐)·활·화살·수은 등의 물품을 바치고자 청하였으며, 이키섬(壱岐島) 구당관(勾當官)도 등정안국(藤井安國) 등 33인을 보내 방물을 바칠 것을 청했다.

일본 상인의 내왕은 그후 선종·예종·의종·원종 대에도 계속되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고려와 일본 간의 해상무역은 상당히 오랫동안 상황을 누렸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1118년에 송 휘종이 일본에 통교를 요청했을 때, 일본이 이를 거절했던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루는 바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송과의 직교역 보다는 고려·송·아라비아의 상인들이 가져온 다양한 물품을 고려라는 무대를 통해 구매하는 방식을 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야겠다. 그만큼 고려는 해외의 상인들이 성시(盛市)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고려사》 세가 문종 12년 8월조에 전하는 다음의 구절은 고려의 이러한 상황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왕이 탐라와 영암에서 재목을 베어 큰 배를 지어 장차 송과 통하고자 하매 내시문하성(內史門下省)에서 아뢰었다. “국가가 북조(北朝, 遼를 가리킴)와 화호(和好)하여 변방에는 위급한 일이 없고 백성은 그 생을 즐기니, 이것이 나라를 안전하게 보전하는 상책(上策)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문물예악(文物禮樂)이 흥행한지 이미 오래되었고 상선이 끊임없이 출입하여 진귀한 보물이 날로 들어오니 실로 중국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이를 통해 문종 당시에 고려가 문화와 재부의 양면에서 중국 못지않은 세련됨과 풍요로움을 갖추고 있음을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고려가 송과 요의 어디에 치우치지 않는 등거리 외교를 통해서 나라의 안보(安保)를 추구했던 것도, 바로 이런 자신감과 자부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일본이 고려를 통해서 문물을 수입하고자 했던

것도 결국 고려가 국제관계에서 추구한 이러한 균형성과 안정성 때문이었지 않았을까?

4. 상황을 이룬 고려와 송 사이의 민간 교류활동

1) 고려와 송 관계의 우여곡절

고려와 송이 광종 13년(962)에 처음 통교한 이래 양국 간 교류는 대체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때로는 북방세력의 동향과 송의 정치 주도세력의 성향에 따라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였다. 먼저 10세기 후반에 거란족이 흥기하여 요(遼)를 세우고 송과 고려를 압박·위협하기에 이르자, 송은 11세기 전반기 50여 년(1012~1068) 간이나 고려와의 관계를 규제하기도 하였다. 흔히 ‘구법당(舊法黨)’이라 불리는 당시 송의 정치 주도세력은 송과 고려의 상인들이 요와 결탁할지도 모른다는 혐의를 품고서 고려에 대한 항해를 금지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11세기 후반에 신종(神宗)의 즉위와 때를 같이 하여 송의 정치세력이 ‘구법당’에서 왕안석(王安石)을 중심으로 한 ‘신법당(新法黨)’으로 교체되면서, 송은 고려와의 교류를 다시금 예전의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그러던 것이 12세기에 접어들어 여진족이 흥기하여 금(金)을 건국하고 요를 멸하는 한편 송마저도 강남지방으로 밀어내고 북중국을 점령하는 괴력을 발휘하게 되자, 송(남송)과 고려의 관계는 다시금 불편한 관계에 빠지게 되었다. ‘구법당’과 ‘신법당’ 사이의 갈등이 더욱 극렬해지고 두

정치세력 사이에 정권교체가 무상하게 이루어지는 와중에서, 송은 금에 대한 고려의 태도를 의심하여 한 때 통교를 꺼리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곧 양국의 관계는 다시금 정상을 되찾곤 하였다.

이처럼 고려와 송의 관계는 일시적으로 위축되기도 했지만, 대체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고, 양국 간 교류의 폭과 교역의 양은 상당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특히 양국의 민간 차원의 교역은 국제정세와 정치적 동향에 관계없이 성황을 누렸고, 불편한 정치적 관계를 중재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기도 했다.

2) 송상(宋商)의 활동

우리측 자료인 《고려사》에 의하면 송상이 고려에 내향한 기사는 현종 3년(1012)의 최초 기사로부터 충렬왕 4년(1278)의 마지막 기사에 이르기까지 총 129회에 이르고, 고려에 내향한 송상의 총인원은 5,000여 명에 달했던 것으로 되어 있다. 고려가 이처럼 송의 민간 상인의 내향 사실을 기록으로 상세히 남겼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서, 그만큼 고려의 송상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음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고려사》에 나오는 송상 내향 기사가 전부는 아니었을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고려에서의 송상의 활동은 대단했었다고 해야겠다.

《송사(宋史)》 고려전(高麗傳)에 의하면 “(고려) 왕성(王城)에 화인(華人, 중국인)이 수백 명 있는데, 민 땅 사람들이 많다”고 했는데, ‘민’이란 강남의 복건(福建) 지역을 지칭한다. 이는 송상의 활동상과 함께 그들의 출신지를 보여준 것이다. 실제 《고려사》에 나오는 송상들의 출신지를 보면 주로 중국 강남 연안 항구도시, 즉 광주(廣州)·명주(明州)·항주(杭

州)·소주(蘇州)·초주(楚州)·복주(福州)·천주(泉州) 등지의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 이들 항구들은 당대(唐代) 이후 아라비아 및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국제 해상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오던 요항(要港)이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고려에서의 송상의 활동은 곧 중국과 고려 사이 뿐 아니라 아라비아 및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와의 교류를 매개하는 기능도 수행했다고 할 것이다. 실제 고려에는 송상뿐 아니라 아라비아 및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의 상인들도 다수 찾아와서 교역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송상의 활동은 고려와 송 사이에 공식적인 관계가 위축되었던 기간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 정치적 관계에 하등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송상들은 악화된 양국의 정치적 관계를 중재하는 일까지 수행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1069년에 송 황제는 복건(福建)의 전운사(轉運使) 나중(羅拯)에게 조서를 내려, 고려에 도항(渡航)하는 천주(泉州) 출신의 상인인 황신(黃愼)과 홍만(洪萬) 등의 편에 국교의 재개 의사를 전한 적이 있었다. 이에 고려는 민관시랑(民官侍郎) 김제(金悌)를 단장으로 하는 110여 명의 대규모 사절단을 송에 파견함으로써, 양국의 통교 관계가 다시금 재개되었던 것이다.

송 상인이 양국 관계의 개선에 중재자 역할을 수행한 사례는 이외에도 몇몇의 예가 더 있다. 즉 《고려사》에 의하면 1128년에 송의 강수(綱首, 상단의 우두머리) 채세장(蔡世章)이 송 고종의 밀지(密旨)를 가지고 고려에 건너왔으며, 1131년에는 송의 도강(都綱=綱首) 탁영(卓榮) 등이, 1138년에는 송상 오적(吳迪) 등이, 1162년에는 송의 도강 후림(侯林) 등이, 그리고 1163년에는 송의 도강 서덕영(徐德榮) 등이 그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다.

3) 고려 상인의 활동

《고려사》는 송상의 내항(來航)과 활동상에 대한 기록은 상세히 기록하고 있음에 반해, 고려 상인의 활동상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기지 않았다. 고려 상인의 활동상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은 중국 사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해 두 가지의 상반된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① 동북아 해상 무역을 송상이 주도했다고 보는 견해와 ② 송상 못지않게 고려 상인도 크게 활동했다고 보려는 견해가 그것이다. 우리 사서는 물론 중국 사서에도 고려 상인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는 마당에, 의당 ①의 견해가 타당할 듯 싶으나, ②의 견해 역시 귀담아 들을 여지는 있다.

②의 견해가 주장하는 바는 대개 이리하다. 우리 기록에서 송상의 내항 사실을 상세히 기술한 것은, 고려가 송과의 무역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중국 기록에서 고려 상인에 대한 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은 것은 중국 사관이 고려 상인의 내항사실을 중국 정사에 일일이 기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일 거라는 것이다.

필자는 ②의 견해에 동의를 표하고 싶다. 왜냐하면 정사에는 보이지 않는 고려 상인의 활동상에 대해서 중국 민간인이 남긴 기록에는 단편적으로나마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송인(宋人) 장방기(張邦基)가 쓴 《묵장만록(墨莊漫錄)》이나 이심전(李心傳)이 쓴 《건염이래계년요록(建炎以來繫年要錄)》 등에 고려 상인이 동기(銅器)를 헌상(獻上)하거나 판매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실제 송 당국자 중에는 고려 상인의 활동에 대해 혹평한 이들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호의적으로 받아들였다. 고려 상인의 활동을 혹평했던 대표적인 인물은 '구법당' 정객의 일인이었던 소식(蘇軾, 1036~1101)이었

다. 그는 고려 상인의 활동에 대해 엄격히 통제할 것을 주장하면서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고려의 교활한 상인들이 시도 때도 없이 조공을 핑계로 들어와 중국을 소란케 할 것이고, 중국의 간사한 무리들이 고려로 간다는 것을 내세우고서 거란과 통하게 되어 큰 우환이 될 것이다”라 주장하기도 했던 것이다.

소식의 고려 상인 통제론은 기본적으로 거란의 위협에 대한 과잉 반응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고려 상인이 가져온) 고려의 조공품은 모두 노리개와 같이 불필요한 것이지만, 송이 지출하는 비용은 모두 백성의 고혈이다”는 식의 그의 주장에는 고려와의 통상이 곧 송의 경제적 손실이라는 인식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식 등의 극단적 주장은 수용되지 않았고, 송에서의 고려 상인들의 활동은 보장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송은 고려 사신이나 상인들의 편의를 위해 호화로운 고려정(高麗亭)이나 고려관(高麗館)을 곳곳에 건립하였고, 이에 대해 소식은 상소를 통해 혹은 시작(詩作)을 통해 연이어 불만을 토로할 뿐이었다. 12세기 초에는 누이(樓異)의 건의를 받아들여 명주(明州)에 고려와의 통교 관계를 특별 관리하는 고려사(高麗司)라는 전문 기구를 설치하기에 이르렀고, 이곳에 고려관(高麗館)을 건립하기도 했다. 고려관 터는 오늘날까지도 영파에 전해오고 있다. 또한 13세기 전반의 상황이긴 하지만 명주 지방에서는 고려 상선에 대해서 입구세(入口稅)(오늘날의 관세를 1/19만을 징수하여, 1/15의 세율을 부과한 타국 상선에 비해 특혜를 부여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고려 상인의 활동에 대해 송인(宋人)이 혹평을 가했던, 혹은 보장을 했던 간에 송에서 고려 상인들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겠다. 이런 사정들을 감안할 때, 정사에 고려 상인의 기록이 없다 하여 고려 상인의 활동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

임을 알 것이다. 여기에서 당시 고려가 송과의 교역뿐 아니라, 해금(海禁)의 정책을 펴고 있던 일본과의 교역에도 관여하면서, 동북아 해상교역을 매개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했을 가능성을 새로운 관점으로 상정할 필요가 있음을 느낀다. 그럴 때, 고려 해양활동의 진면목이 새롭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5. 고려와 송의 항구와 바닷길

1) 항구

고려와 송 사이에 국제정세에 따른 정치·외교적 단절은 간혹 있었지만, 민간 상인의 교역활동에서는 시종 성황을 이루었다. 고려로 왕래하는 배가 발착(發着)하는 송의 주요 항구는 주로 산둥과 절강 지역에 있었다. 산둥지역의 항구로는 북쪽의 등주(登州)(오늘의 봉래(蓬萊))와 남쪽의 밀주(密州) 판교진(板橋鎮)(오늘의 교주(膠州))이 저명하였고, 절강 지역의 항구로는 명주(明州)(오늘의 영파(寧波))가 저명하였다. 이러한 항구는 송-고려조에 이르러 새로이 개설된 것이라기보다는 장보고시대부터 이미 개설된 것을 그대로 활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들 항구들은 당시 국제 정세에 따라 문제점이 논의되기도 했다. 예컨대 1074년에 고려는 송에 대해 요(遼)의 방해를 피하여 항로를 산둥지역에서 절강 지역의 명주로 옮길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송이 받아들인 일이 있었다. 이 때문에 1074년 이후엔 산둥반도의 등주와 판교진은 쇠

퇴하고 명주가 급부상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그러나 1074년 이후에도 명주는 물론 등주와 판교진도 여전히 공식 사절단의 발착 항구로 활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1074년의 조치는 단순히 논의의 차원에 그친 것일 뿐, 민간 상인들은 물론 공식 사절단의 발착 역시 이전과 대차 없이 등주와 판교진, 그리고 명주에서 시종 골고루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1083년 고려왕 휘(徽)문종(文宗)의 붕어(崩御)에 대해 송이 제전사(祭奠使)와 조위사(弔慰使)를 파견할 때에는 판교진에서 출발하였고, 1123년에 서궁(徐兢)을 포함한 공식 사절단을 파견할 때에는 명주에서 출발하였던 것이다.

고려의 항구로는 예성강 하구에 있는 벽란도(碧瀾島)를 우선 꼽을 수 있다. 벽란도는 수도 개성의 관문으로서, 공식 사신선은 물론 민간 상선들도 대부분 이곳에서 일정 기간을 머무르며 일정한 통관 절차를 밟아야 했다. 자연 벽란도는 고려 최고의 국제 무역항으로서 번영을 누렸던 것이다.

다음에 흑산도를 꼽을 수 있다. 흑산도는 신라시대부터 관사(館舍)가 있던 곳으로서, 신라 및 고려시대에 중국으로 통하는 중간 기착지로 활용되었다. 실제 최근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에서 흑산도 북안(北岸)의 읍동마을을 지표조사한 결과 관사지로 추정되는 곳, 뱃사람들이 안전항해를 기원했을 절터 및 제사터 등이 확인되었고, 통일신라~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수많은 도자기 및 기와편 등이 수습되었다. 앞으로 이에 대해 발굴을 포함한 정밀 조사가 이루어져야 그 실체가 정확히 드러나겠지만, 현재의 자료만으로도 흑산도 읍동마을은 신라~고려시대에 국제 해양도시로서 기능했을 가능성은 다분하다. 이는 장보고시대에서 고려시대까지 흑산도가 주요 국제 해양거점으로 활용되어 온 결과일 것이다.

2) 서공(徐兢)의 바닷길

고려와 송 사이에는 다양한 바닷길이 있었다. 산둥 지역에서 황해를 횡단하여 벽란도로 직행하는 횡단 항로, 절강의 명주 지역에서 역시 황해를 비스듬히 횡단하여 흑산도에 이른 후에 여기에서 다시 서남해의 연안을 따라 벽란도로 거슬러 올라가는 사단 항로, 그리고 중국과 한반도의 연안을 따라 왕래하던 전통적인 연안항로 등이 활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자세한 항해의 일정을 보여주는 사례는 거의 없어, 위의 항로들은 대개 추정해 머무를 수밖에 없다. 다만 서공의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은 고려·송 사이에 세세한 항로 및 항해의 일정을 전해주고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화봉사고려도경》은 서공이 1123년에 정사(正使) 노윤적(路允迪)과 부사(副使) 전묵경(傅墨卿) 등을 수행하여 고려에 건너와 개경에 약 1개월 간 머무르며 항해의 일정과 고려에 대한 견문을 기록, 성책(成冊)하여 송 휘종 황제에게 봉헌(奉獻)한 고려 견문록이다. 여기에 나타난 서공 일행의 주요 항해 일정을 적기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서공 일행을 태운 사신선은 1123년 3월 14일(음력)에 송의 황도 변경을 출항하여 5월 16일에 명주에 도착했다. 명주를 떠난 배는 정해현(定海縣)을 지나 그 앞 바다에 펼쳐져 있는 주산군도(舟山群島)의 여러 섬들에 들러 어항(御香)을 피우거나 바람을 기다리며 본격 항해를 위한 준비를 하였다. 그리고 5월 28일에 이르러서야 항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백수양(白水洋)과 흑수양(黑水洋)을 지나고 협계산(夾界山)을 지나 6월 3일 오후에 흑산도를 지났다. 여기에서 다시 하루만인 6월 4일에 부안 앞 바다의 위도(蝟島)에 도착하게 되고 6월 6일엔 군산도(群山島)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항해를 계속하여 6월 11일에 예성강 하구의 용골(龍骨)에

도착하였고, 다시 조수를 따라 예성강으로 거슬러 올라가 12일엔 벽란정에 이르렀으며, 그 이튿날에는 마침내 최종 목적지인 개경에 도착했다.

이에 의하면 서궁의 사신선이 변경을 출발해 본격 항해에 나서기까지 무려 2개월 보름 가까이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중국 연안지역을 항해하는 기간이 그만큼 많이 소요되었고, 또한 황해의 큰 바다를 무난히 통과하기 위해 어항을 태우는 등의 제사 의식을 거행하면서 순풍을 기다리는데 상당 기간동안 소일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듯 준비가 철저했음인지, 서궁의 사신선은 본격 출항을 시작한 이후에 큰 어려움 없이 불과 5일 만에 흑산도 앞을 지나게 되었고, 여기에서 서해의 연안을 따라 항해를 계속하여 10일 만에 개경에 당도할 수 있었다.

서궁의 사신선은 역순으로 귀환길에 올랐다. 7월 13일에 영빈관인 순천관을 떠나 15일에 항해를 시작하여 서해의 여러 섬을 헤쳐 내려가 24일에 군산도에 정박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바람이 순조롭지 못해 군산도(群山島)와 죽도(竹島)를 오르내리며 순풍을 기다리다가 8월 19일에 이르러 서야 본격 항해를 시작해 이튿날에 흑산도를 지나고 마침내 황해를 횡단하여 21일에 중국의 수주산(秀州山)을 보게 되고, 27일에는 정해현(定海縣)에 당도하게 되었다.

귀환길에서도 서궁 일행은 군산과 부안 앞 바다의 여러 섬에 머무르며 순풍을 기다리거나 안전 항해를 위한 제사 의식을 거행하는데 많은 시일을 소요했음을 알 수 있다. 정작 본격 항해를 시작하여 황해를 횡단하는데는 일주일 남짓밖에 걸리지 않았던 것이다.

고려·송 사이의 바닷길과 소요 일정은 《송사(宋史)》에도 나온다. 이에 의하면 명주에서 흑산도까지 5일 정도면 당도하고, 여기에서 예성강까지 7일 정도가 소요되며, 다시 벽란정까지는 3일 정도 소요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제를 올리거나 바람을 기다리는 등의 준비 기간을 뺀, 본격 항

해의 기간만을 평균적으로 산출한 것이라 하겠는데, 서공의 《고려도경》에 나타난 일정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서공의 바닷길’은 고려-송 간의 가장 일반적인 항로였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장보고선단 이래로 계속되어온 것으로 보인다.

3) 서남해 연안의 제사지(祭祀址)와 해양세력

‘명주-흑산도-군산도-벽란도’로 이어지는 ‘서공의 바닷길’이 고려-송의 가장 일반적인 항로였다고 한다면, 흑산도에서 벽란도에 이르는 서남해 도서·연안지역에는, 사신선과 상선들이 잠시 머무르면서 안전 항해를 위한 제사의식을 거행하던 거점 항구가 발전했을 가능성이 크다. 앞에서 소개한 흑산도의 읍동마을은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으며, 월출산 천왕봉의 제사지와 영암 시종면 영산강변의 남해신사(南海神祠), 그리고 부안 죽막동의 제사지 등도 당시 국제 항해인들이 제사의식을 거행하던 거점 항구가 산재해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중에서 부안 죽막동의 제사지의 경우, ‘서공의 바닷길’에 나오는 위도(蝟島), 군산도(群山島), 죽도(竹島) 등이 바다를 보이는 서해 연안항로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어, 항해인들이 제사의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즐겨 기항하던 중요한 거점 항구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죽막동 제사지에서는 삼국시대 이래 고려·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제사 기명(器皿)들이 출토되어, 모든 시대를 관통하여 주요 해양 제사지로 애용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군산도 역시 중요한 국제 교역의 거점 항구로서 번영을 누렸을 것으로 보인다. 《신증동국여지승람》(전라도 만경현 산천조)에 의하면 조선 초기

의 어떤 수령이 군산도의 한 가운데 있는, 마치 군주의 능과 같은 큰 무덤을 도굴하여 금은명기(金銀皿器)를 많이 취했다고 전하고 있는데, 그 큰 무덤의 주인공이란 아마도 국제 무역에 종사하던 군산도의 해상세력이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6. 고려 말 최씨무인정권의 대몽항쟁과 바닷길

1) 고려의 해양력: 40여 년의 장기 대몽항쟁을 펼칠 수 있었던 힘

13세기에 들어 칭기즈칸이 몽고의 부족집단들을 결집하여 대대적인 정복에 나섬으로써 동아시아에는 일대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몽고의 기병부대는 1240년대까지 북중국을 물론,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러시아, 그리고 동유럽에 이르는 광대한 대륙을 유린하였다. 이어 1270년에는 고려를 굴복시키더니, 1276년에는 남송(南宋)마저 멸망시키는 괴력을 발휘하였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당시에 유라시아 대륙을 석권했던 몽고가 동방의 작은 나라 고려를 굴복시키는데 무려 40여 년의 장기간을 소요했다는 점이다. 몽고는 1231년에 처음 고려 침략을 개시한 이후 무려 9차례의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지만, 끝내 고려를 무력으로 굴복시키지 못했으며, 1270년에 가서야 고려 왕조를 유지해준다는 조건을 내세워 겨우 고려와 강화를 유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그 자체로 세계사적 의의를 함축한다. 고려가 이처럼 장기간을 버텼던 것은 흔히 이야기하듯이 몽

고가 해전에 약했기 때문이었다기보다는, 해양국가 고려의 막강한 해양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려 최씨정권은 몽고 침입을 받은 그 이듬해인 1232년에 개경에서 강화도로 천도를 전격 단행하여 1270년까지 웅거하면서 몽고에 대항하였다. 육지의 관민(官民)에게는 몽고의 침입이 있을 시에 산성(山城)과 해도(海島)에 들어가 피신(入保)하라는 지침이 하달되었다. 어찌 보면 무책임한 조치였다고도 하겠으나, 산성의 나라, 그리고 해양의 나라 고려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카드였다고도 할 수 있겠다.

바다와 강은 강화도 고려정부의 주요 유통로였다. 모든 인적·물적 자원은 바닷길과 강길을 통해서 강화도에 유입되었다. 바닷길은 강화도 고려정부의 생명줄이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최씨정권이 바닷길을 지켜내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던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2) 팔만대장경의 조판과 바닷길

팔만대장경의 조판 사업은 최씨무인정권의 2대 집정자 최우의 주도 하에 1236년에 착수하여 16년만인 1251년에 완료한 일대 국책사업이었다. 이는 불력(佛力)으로 몽고를 퇴치하려는 강렬한 신앙심의 발현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를 통해서 고려의 생명줄인 바닷길을 지켜내려는 최씨정권의 주도면밀한 정치행위이기도 했다.

1232년에 부인사(符仁寺)에 소장되어 오던 초조대장경이 몽고군에 의해 소실되자, 최우는 이규보로 하여금 몽고군의 격퇴와 국가의 평안을 기리는 기고문(祈告文)을 작성하게 하고, 1236년부터 새로운 대장경의 조판에 착수하였다. 즉각 강화도에 대장경 조판을 관장하는 대장도감(大藏都

監)이 설치되고, 남해도에 그 분소(分所)라 할 분사대장도감(分司大藏都監)이 설치되었다. 이는 대장경 조판 사업이 강화도와 남해도를 잇는 바닷길을 넘나들며 수행되었음을 시사해주는 대목이다.

남해도를 포함하는 진주(晋州) 일대는 최충헌이 진강후(晋康侯)로서 식읍을 받으면서부터 최씨정권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으며, 이후로 최우 집정기 때는 진주를 중심으로 경상도와 전라도의 남부 일대에 광대한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었다. 남해도에 분사대장도감을 설치한 것은 최씨정권과의 긴밀한 관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강화도에 대장도감을 설치하고 남해도에 분사대장도감을 설치하여 대장경의 조판이라는 대역사(大役事)를 일으킨 것은, 불력(佛力)으로써 강화도와 남해도를 잇는 바닷길의 네트워크를 유지·강화하려는 주도면밀한 의도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강화도와 남해도를 잇는 바닷길을 정상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서남해지역 해상세력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서남해지역은 서해와 남해를 연결하는 해양 요충지로서, 전통적으로 해상세력이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왕인·장보고·능창·왕건·삼별초·이순신으로 이어지는 한국 해양사의 주목할만한 인물들이 모두 서남해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흥기하고 활동했던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최씨정권은 강화도와 남해도를 연결하는 대장경 조판 사업과 함께, 서남해지역의 해상세력을 포섭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였다. 최씨정권이 서남해지역에 머물고 있던 당대 최고의 고승 원묘국사(圓妙國師) 요세(了世)와 진각국사(眞覺國師) 혜심(慧諶)을 정성을 다해 섬기고 후원했던 것은, 신앙심의 발로이기도 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을 신앙적으로 추종했을 이 지역 해상 토호세력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을 것이다. 이는 일찍이 왕건이 서남해지역 해상세력을 포섭하기 위해 도선

이나 형미 같은 고승을 직간접적으로 이용했던 것을 연상시킨다.

3) 서남해지역의 해상 토호세력의 포섭과 바닷길

고려 말에 일어난 양대 불교신앙결사체인 백련결사(白蓮結社)와 수선결사(修禪結社)가 모두 서남해지역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심장한 의미를 내포한다. 백련결사는 강진만에 연접한 만덕산 백련사당시엔 만덕사에서 원묘국사 요세(1163~1245)가 일으킨 결사체이고, 수선결사는 순천 조계산(당시는 송광산)의 송광사(당시는 길상사)에서 보조국사 지눌(1158~1210)이 일으킨 결사체였다. 그런데 지눌의 뒤를 이어 수선결사의 제2조가 된 진각국사 혜심(1178~1234)의 탐비가 월출산 남쪽 기슭의 월남사에 세워진 것으로 보아, 수선결사 역시 백련결사와 마찬가지로 영암·강진지역과 관계가 깊었다고 보아야겠다.

요세와 혜심의 결사운동은 모두 서남해지역 토호세력과 최씨 집정자들의 적극적인 후원 속에서 이루어졌다.

합천 태생의 요세가 각처를 편력하다가 강진지역의 토호 최표(崔彪)·최인(崔引)·이인천(李仁闡) 등의 청으로 백련사에 주석한 것은 13세기 초반이었다. 이후 그는 서남해지역의 토호와 관리들의 적극적인 후원에 1232년에 보현도량(普賢道場)을 개설하고, 1236년에는 진정천책(眞淨天頌)으로 하여금 ‘백화결사문’을 짓게 함으로써 백련결사운동을 본격 개시하였다.

최씨 집정자들도 요세를 적극 지원하였다. 강종(康宗)의 서녀(庶女)이며 최충헌의 부인인 정화택주(靜和宅主)는 백련사에 무량수불을 조성하여 주전에 봉안케 했고, 최우는 ‘묘연연화경’을 보현도량에서 조판하는

것을 후원하였다. 그리고 최씨정권에 참여한 유력인사들이 다수 백련사에 입사하였으며, 최씨집권 하의 대표적 문사(文士)인 최자(崔滋)가 요세의 비명을 찬술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은 최씨정권이 요세의 백련결사운동에 얼마나 지대한 관심과 정성을 기울였는가를 보여준다. 이는 곧 요세를 추종하던 서남해지역 토호세력의 환심을 사기 위한 최상의 방책이기도 했을 것이다.

진각국사 혜심에게 기울인 최씨 집정자들의 정성은 요세에게 행한 것을 능가했다. 최충헌은 혜심에게 선시(選試)도 거치지 않고 승계(僧階)를 수여하는 과격적인 특혜를 베풀었는가 하면, 최우는 자신이 직접 수선사(修禪社)에 입사(入社)하였고, 두 아들 만종과 만전을 혜심에게 보내어 법제자가 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우는 수선사에 막대한 토지를 희사하였고, 1245년에는 수선사의 분사격인 선원사(禪源寺)를 강화도에 세우고 자신의 원찰로 삼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혜심은 최우에게 ‘그의 훌륭한 정치는 촌야(村野)에 있는 무지한 부인이나 어린애들도 칭찬하지 않음이 없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등, 그를 정신적으로 후원해마지 않았다.

그런데 혜심의 탐비는 수선사의 본사(本社)가 있는 송광사에 세워지지 않고, 월출산 남록의 월남사에 세워졌다. 1234년 혜심이 순천 지역의 월등사(月燈寺)라는 절에서 입적(入寂)하자 여기에서 다비식을 거행하였다. 그리고 그의 영골(靈骨)은 곧 광원사(廣原寺, 오늘날 송광사에 딸린 광원암로 옮겨져 부도탑에 안치하였으며, 그 부도탑은 조정으로부터 원조지탑(圓照之塔)이라는 탑호가 사액되었다. 따라서 그의 탐비는 원조지탑이 있는 광원사에 세워지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굳이 멀리 떨어진 강진의 월남사에 세워졌던 것이다. 그것도 그의 입적 후 16년이나 지난 1250년에 양양공(襄陽公) 서(恕)와 최우를 위시로 강화도 최씨정권의 실세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대대적인 입비의식을 거행하면서 그의 탐비가 세워졌던

것이다.

그의 탐비가 부도탑에서 멀리 떨어진 월남사에 세워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아마도 최씨정권이 혜심을 추종하던 강진·영암의 토호세력을, 그들의 불심(佛心)을 이용해 포섭하려는 정치적 포석이 깔린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이와 함께 흥미를 끄는 점은 혜심의 탐비를 건립한 시점(1250)이 팔만대장경이 완성되기 불과 1년 전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팔만대장경의 완성을 선포하기 직전에 강진 지역에 혜심의 탐비 건립의식을 대대적으로 거행함으로써, 일거에 서남해지역 해상 토호세력의 환심을 사면서 강화도와 남해도를 잇는 바닷길을 확보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을까?

7. 삼별초가 진도에 건설한 해양왕국

1) 몽고군이 압해도를 공격한 까닭

막강 군단을 자랑하는 몽고군이 1231년 이후 고려를 집요하게 공격하였으나, 강화도의 고려정부는 엄청난 인적 물적 자원이 소요되는 팔만대장경 조판사업을 벌이면서 수십 년을 버텨오고 있었다. 그 힘은 불력과 불심을 이용하여 서해와 남해의 바닷길을 정상 가동시킬 수 있었던 고려의 해양력에서 나온 것이었다.

결국 몽고도 이를 눈치 채고 1256년부터 바닷길의 길목에 해당하는 섬들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 바닷길을 차단하지 않고서는 강화도 고려 정부

를 무너뜨리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였을 것이다. 당시 몽고의 총사령관 차라대(車羅大)는 남해의 여러 섬들을 공격하도록 했고, 고려는 300여 척의 배를 보내어 이를 막아냈다. 급기야 차라대는 자신이 직접 나서 전함 70여 척의 대규모 함단을 동원하여 서남해 바닷길의 길목에 자리 잡은 압해도(押海島)에 대한 대대적인 공략을 감행하였다. 이에 대해 압해도민들은 큰 배에 대포 2대를 설치하고, 섬 곳곳에도 대포를 비치하여 결사 항전을 전개하였으며 결국 몽고군을 물리쳤다.

압해도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도 몽고는 도서연안지역에 소규모 공격을 계속하였다. 예컨대 서해 연안항로의 요충지인 아산만 지역을 공격한 것이라든가, 같은 해에 북계(北界)의 애도(艾島)를 공격한 것, 그리고 그 이듬해에 신위도(神威島) 및 서해도의 창린도(昌麟島)를 공격한 것 등이 그것이다.

도서지역을 둘러싼 이와 같은 공방전은 곧 바닷길의 거점을 확보함으로써 전쟁물자의 유통로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서남해 바닷길의 최고 요충지이자 행정 편제의 중심지였던 압해도가 몽고의 집중적 공격의 대상이 되었고, 고려 역시 압해도에 대포를 설치하여 이를 사수하려 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남해의 섬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고려가 300여 척의 배를 동원했다거나 압해도민들이 몽고의 주력부대를 퇴치시켰다는 점에서, 고려 정부와 섬 주민들의 바닷길을 방어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지대했음을 엿볼 수 있다.

2) 삼별초가 진도로 간 까닭

압해도 공격의 실패로 바닷길 차단 작전에 실패한 몽고는 고려를 무력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던지, 도서·연안지역에 대한 소규모 공격을 계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려와의 강화에도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즉 1258년에는 이제까지 강화(講和) 조건으로 집요하게 내세워 오던 ‘고려 국왕의 친조(親朝)’에서 한걸음 물러나 ‘태자의 입조(入朝)’로 조건을 하향 조정하여 제시해 왔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60여 년간의 장기집권을 유지하며 항몽 전선을 주도해오던 최씨정권이 무너지자, 강화도 고려정부의 항몽 의지는 급속히 꺾이고, 강화론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결국 1259년에 고려 태자의 몽고 입조가 결행되면서, 고려와 몽고 사이에 강화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후 최씨정권에 이어 대두한 무인정권인 김준 정권과 임연·임유무 정권마저 무너지자, 고려정부는 국왕(원종)과 문신들의 주도 하에 1270년 5월 23일에 개경으로의 환도를 전격 단행하였다. 이는 곧 몽고에 대한 굴복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고려 왕조는 이후 80여 년 동안 몽고의 정치 간섭을 받는 처지로 전락하였다.

최씨정권의 충실한 수족이 되어 항몽의 최일선에서 명성을 떨치던 삼별초 전사들에게 고려의 개경 환도는 충격이었고 사형선고나 진배없었다. 이는 항몽의 과정에서 최씨정권과 동지적 관계를 유지해오던 서남해 지역의 해상세력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삼별초는 고려정부의 출륙 환도의 방침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원종은 장군 김지저(金之氏)를 강화도에 파견하여 삼별초를 혁파해 버리고 명부를 거두어 갔다. 이것이 삼별초 전사들을 더욱 분개하게 만들었고 급기야 봉기를 일으키게 한 직접 계기가 되었다.

6월 1일에 삼별초는 배중손(裴仲孫) 장군의 지휘 하에 난을 일으켜 강화도를 점령하고 왕족 승화후(承化侯) 왕온(王溫)을 추대하여 고려왕으로 삼았다. 3일 후인 6월 3일에 1,000여 척의 배를 동원하여 공사의 재물과 자녀들을 모두 싣고 강화도 구포(鳩浦)를 출발하여 남쪽으로 향했다. 최종 목적지 진도에 도착한 것은 강화도에서 떠난 지 70여 일 만인 8월 19일이었다. 강화도에서 진도까지 항해하는데 70여 일이라는 긴 시일이 소요된 내막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아마도 항해의 과정에서 서해안의 도서·연안지역을 경략하면서 이에 대한 지배권을 점검하려는 일종의 해상 시위를 전개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겠다. 그렇다면 이는 곧 삼별초가 서남해의 제해권을 강화하려는 사전 포석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삼별초가 최종 목적지로 진도를 선택했던 것은, 몽고와의 항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서남해지역 해상세력이 최씨정권과 동지적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점이 고려되었을 것이다. 이는, 최씨정권이 백련사의 요세와 월남사의 혜심을 통해서 강진·영암세력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으려 했다는 점, 몽고가 대규모 함대를 동원해서 압해도를 공격했던 점 등을 통해서 살필 수 있는 바이다. 서남해지역의 해상세력은 항몽의 동반자로서 삼별초의 진도 입거(入居)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

삼별초는 진도의 용장사를 중심으로 주위의 산세를 활용하면서 대규모 산성을 축조하였다. 이것이 용장산성이다. 그리고 용장산성의 내부에 산을 의지하여 계단식 축대를 쌓아 올려 터를 잡고 여기에 궁궐을 축조하였다. 용장산성의 궁궐터는 개경의 궁궐터인 만월대를 모방하여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용장산성은 진도의 주요 출입항인 벽파진(碧波津)에 면한 천연의 요새지였다. 더욱이 용장사는 일찍이 최항이 머문 적이 있을 정도로 최씨정권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따라서 삼별초의 진도 입거는 우발적으

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삼별초 세력과 서남해지역의 해상세력이 연대하여 연출해낸 주도면밀한 기획의 결과물이라 할 것이다.

3) 진도에 해양왕국을 건설하다

진도를 중심으로 삼별초는 서남해의 제해권을 확고히 장악해 갔다. 먼저 진도에 입거한 지 3개월 만에 제주도를 점령하였다. 당시 개경 정부가 피해 상황을 몽고에 알린 기록에 의하면 그 즈음에 삼별초는 30여 개의 섬들을 점거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한다. 그리하여 장흥·나주·합포(마산)·금주(김해)·동래·거제 등의 진라·경상 연안을 장악하여 내륙지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갔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남해도에 유존혁(劉存奕) 장군을 파견하여, 그 주위의 섬들을 통솔하고 제해권을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삼별초가 강화도에서 진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서해의 도서·연안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점점했으리라는 점까지 염두에 둔다면, 삼별초는 진도를 중심으로 서남해의 해상세력을 결집하여 일종의 해상왕국을 건설했다고 할 수 있겠다.

삼별초는 온을 고려 ‘황제’로 칭함으로써 몽고와 대등한 고려의 정통 왕조임을 자처하기도 하였으니, 이는 몽고제국의 속국으로 전락한 개경의 고려 정부를 명분에서 압도하려는 의도가 작용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여 해양을 매개로 일본과 정치·군사적 연대를 시도하기도 했다. 최근에 일본에서 발견된 외교문서에서 진도의 ‘삼별초 정부’(이하에서는 ‘진도 정부’라 칭함)는 “강화도에 천도하여 약 40년을 지냈고 또 진도로 천도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삼별초가 진도 입거(入居)를 ‘천도’의 차원에서 단행한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진도 정부’의 영향력은 날로 확대되어 갔다. 경상도 밀성(밀양)의 군민들이 봉기하여 수령을 죽이고 ‘진도 정부’에 호응하였고, 개경에서는 관노가 일어나 다루가치와 고려 고위관리를 죽이고 ‘진도 정부’에 투항하고자 하였으며, 경기도 대부도(大部島) 주민들은 몽고인 6인을 죽이고 ‘진도 정부’와 연결하고자 하였다. 이렇듯 ‘진도 정부’가 위세를 크게 떨치게 되자 멀고 가까운 여러 지방의 관원들이 진도에 들어가 ‘고려황제’ 온을 알현하려는 자들까지 생겨날 정도였다. ‘진도 정부’의 해양국가 건설 시도는 성공을 거두는 듯했다.

제7장
해상세력의 퇴락과 왜구의 침탈

1. 삼별초 세력의 진도 · 제주도 해상항진과 몰락

1) 삼별초 '진도정부' 의 붕괴

1270년 8월에 용장산성에 도움을 정한 삼별초 '고려정부' 가 제주도를 비롯한 전라 · 경상지역 대부분의 섬들을 장악하고 해상왕국을 건설하여 본토의 삼남지방에까지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자, '개경정부' 와 몽고(이하 '여몽연합군' 이라 칭함)는 아연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이 '진도정부' 가 일본에 국서를 보내 정치 · 군사적 연대를 추구해 나가자 그 긴장감은 극도의 위기감으로 변모하였다. 그리하여 여몽연합군은 '진도정부' 의 토벌을 위한 군사 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1270년 9월에 전라도추토사(全羅道追討使) 김방경(金方慶)과 몽골의 원수 아해(阿亥)가 1천의 여몽연합군을 거느리고 진도로 진격한 것이 군사 공격의 첫 개시였다. 그러나 당시 여몽연합군은 대패당하고 퇴각하였다.

이로써 삼별초 '고려정부' 의 위세가 만만치 않음을 실감한 여몽연합군은, 3개월 동안 전국에서 장정을 징발하고 전함을 대량 건조하는 등 진도 공격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그리하여 12월에 김방경과 혼도(忻都)를 두 우두머리로 삼고 중군 · 좌군 · 우군의 3군으로 나누어 진도에 대한 총공격을 개시하였다. 여몽연합군이 전세 탐색의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진도 공격을 감행한 것은 1271년 5월 15일의 일이었다. 김방경과 혼도는 핵심군대로 위장한 중군(中軍)을 직접 이끌고 해남의 삼지원(三枝院)을 출발하여 용장산성의 출입구인 벽파정(碧波亭)을 향해 직격(直擊)해 들어갔으며, 그 동태를 살피던 '진도정부' 의 군대는 지체 없이 전 병력을 기울여 벽파정 사수에 나섰다.

그러나 이것이 ‘진도정부’의 결정적인 실책이었다. 여몽연합군은 중군을 허병(虛兵)으로 채우고, 정예군단은 좌군과 우군에 배치하여 용장산성의 후방으로 잠입시켰던 것이다. ‘진도정부’의 군대가 중군의 허병에 매달려 벽과정 사수에 여념이 없는 사이에, 주력부대인 좌군과 우군은 용장산성을 넘어 궁성을 일시에 점거해 버렸다. 이로써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진도정부’는 여몽연합군의 양동작전에 말려들어 어이없게 붕괴되고 말았다.

2) ‘진도정부’ 황제의 머리를 논하다(‘論首洞’)

예기치 않은 궁성의 함락으로 혼란에 빠진 ‘진도정부’의 군대는 겨우 사태를 파악하고서 곧바로 3군으로 나누어 용장산성을 탈출, 남쪽으로 퇴각하였다. 이미 삼별초 군대가 점거한 제주도로 탈출하여 항전을 계속하기 위함이었다.

일군은 ‘진도정부’의 황제 왕온을 호송하는 군대였다. 그러나 왕온은 그의 아들 환(桓)과 함께 의신면 침계리의 고갯길에서 여몽연합군에게 생포되어 죽임을 당하였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여몽연합군은 왕온과 환의 머리를 벨 것인지 말 것인지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 베었다고 하며, 그래서 그 일대를 ‘머리를 논한 동네’라는 의미로 ‘논수동(論首洞)’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오늘날 논수동 고갯길에 ‘왕무덤’이라 불리는 무덤 하나가 외롭게 있는데, 왕온의 무덤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 연유로 그 고개를 ‘왕무덤재’라 부르기도 한다.

왕무덤재를 넘으면 의신천이 흐르는 큰 평야가 전개되는데, 그곳을 ‘대분통’ 혹은 ‘떼무덤’이라 부르고 있다. 아마도 이 평야지대에서 왕온의

수비대와 여몽연합군 사이에 일대 격전이 벌어져서, 그 결과 수비대가 전멸했던 모양이다. ‘대분통’이란 수비대의 패전에 대해 진도인들이 ‘크게 분통(憤痛)했다’는 의미인지, ‘큰 무덤(대분(大墳))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인지 아리송하며, ‘떼무덤’이라는 지명은 당시 전사 당한 수비대원들의 무덤을 지칭하는 듯하다. 또한 황제를 시종하던 비빈(妃嬪)들이 황제가 죽자 의신천에 투신하여 따라 죽었다는 슬픈 전설도 전한다. 진도 사람들은 투신한 그 지점을 ‘급찬 돛병’이라 불러 기리고 있는데, 이는 곧 진도의 낙화암이요 백마강인 셈이다.

또 다른 일군은 삼별초 군단의 최고 우두머리 배중손(裴仲孫)이 이끈 군대이다. 진도 현지에 전하는 전설에 의하면, 배중손의 군대는 제주도로 탈출을 시도하기 위해 남도포(南桃浦)로 향하던 중 임회면 굴포리 마을에서 여몽연합군과 마주쳐 최후의 결전을 치르다가 결국 전사당했다고 한다. 최근 배씨문중에서는 이러한 전설을 사실로 받아들여 대대로 굴포마을에 내려오던 할아버지 당집을 배중손의 사당으로 변경시켜 앞마당에 배중손동상을 세우는 등 대대적인 현창사업을 벌이는 중이다.

마지막 일군은 삼별초 군단의 부장(副將)인 김통정(金通精)이 이끈 군대이다. 김통정의 군대는 금갑포(金甲浦)를 통해서 진도를 탈출하는데 성공, 제주도에 입거하여 최후의 항전을 전개한 삼별초의 마지막 세력이 되었다.

3) 제주도 해상항전과 몰락

1271년 5월 ‘진도정부’가 무너지자 김통정은 이미 삼별초의 점령 하에 있던 제주도로 탈출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진도정부’가 남해도에

파견했던 유존혁 장군도 80여 척의 선단을 거느리고 제주도에 합류하였다. 이들은 제주도인들을 사역하여 항파두성(缸波頭城)을 축조하고, 항몽의 중심 거점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어서 주변의 섬들을 점거하여, 세곡을 운반하는 조운선을 나포하는가 하면 전라·경상·충청·경기의 연안지역을 공격하여 수령을 체포하거나 사살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삼별초세력은 자체 경비를 충당하고 '개경정부'에 대한 경제적 타격을 가할 수 있었다. 이들은 여전히 서남해지역에 대한 제해권을 장악하여 해상왕국으로서의 면모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고려사》에서는 제주도 삼별초세력의 이러한 면모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적(賊)이 이미 제주에 들어가서 내성과 외성을 쌓고 그 성이 험준하고 견고한 것을 믿고 날로 창궐하여 수시로 나와 노략질하니 해안지방이 소원해졌다.

이에 의하면 항파두성은 내성과 외성을 갖춘 견고한 요새지로 축조되었고, 서남해지역 해상세력이 진도의 함락 이후에도 의연히 제주도 삼별초 세력과 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 이상 이들을 방치해둘 경우 삼별초의 해상왕국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고, 반면 개경정부는 해로를 통한 세곡 운반이 차단됨으로써 경제적 난관은 더욱 가중될 것이 뻔한 일이었다. 더욱이 이들이 일본과의 군사적 연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라도 한다면, 개경정부의 정권 자체에도 심대한 위협요소가 될 판이었다.

그리하여 고려와 몽고는 1273년부터 전국에서 군대를 징발하고 전함을 건조하여, 그 군대와 전함들을 나주의 반남(潘南)으로 집결시켰다. 그리하여 1273년 4월 9일 160척의 전함에 분승한 1만여 여몽연합군은 김방

경·혼도의 지휘 하에 반남을 출발하여 4월 28일에 3군으로 나누어 제주를 공략하였다. 중군은 합덕포에 상륙하고 우군은 애월읍 일대에 상륙하여 삼별초 군대를 유인하였으며, 그 사이에 좌군은 전함 30척으로 서쪽의 비양도를 통해 항과두성을 직공해 들어가서 이를 함락시켰다. 최후의 항전을 이끌었던 김통정은 70여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한라산으로 들어가 저항을 계속하였으나, 재기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3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로써 1270년 6월 1일 강화도에서 처음 봉기하여 진도와 제주도를 거치면서 해상왕국을 건설함으로써 한때 '개정정부'와 몽고를 심각한 위기상황에 빠뜨리기도 했던 삼별초의 항몽전은 3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삼별초 군단의 몰락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이로써 몽고의 고려 지배의 걸림돌이 완전 제거되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그들의 집요한 저항은 몽고로 하여금 유화적인 고려 지배 정책을 선택하도록 유도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도 있다. 둘째, 삼별초 군단의 몰락은 곧 고려 해상세력의 몰락을 가져왔다는 점이다. 유라시아 대륙을 석권한 몽고제국의 막강 군단을 상대로 하여 고려가 40여 년 간이나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바로 고려의 해양력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삼별초의 저항과 몰락은 고려 해양력의 마지막 불꽃이 소진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고려와 몽고는 삼별초에 협조했던 서남해지역 해상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2. 고려 말의 공도 조치와 해상세력의 몰락

1) 공도, 섬을 비우다

고려 말에 공도(空島)라는 초유의 조치가 취해졌다. 공도 조치란 섬 주민들을 육지로 모두 이주시켜 섬을 비워버리는 극단적인 조치를 의미하는 것인데, 문헌은 그 원인에 대해서 한결같이 ‘왜구의 침탈로부터 섬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였던 것으로 적어 놓고 있다. 과연 공도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만큼 고려 말 왜구의 침탈은 극렬하게 일어났던 것일까? 아니면 별도의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여기에서 필자는 삼별초세력과 연관하여 고려 말 공도 조치의 배경에 대한 또 하나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강화도→진도→제주도로 옮겨가면서 3년 동안 고려 해양국가의 재건을 꾀하던 삼별초세력이 1273년 5월에 완전 진압되기에 이르자, 여몽연합군이 삼별초에 동조하던 서남해 해상세력을 불온세력으로 낙인찍어 대대적인 탄압을 전개해 갔을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바이다. 그런데 그 즈음에 때마침 왜구의 침탈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으니, 삼별초의 몰락과 왜구의 침탈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일찍이 삼별초가 진도를 근거지로 삼아 또 하나의 고려정부의 수립을 공언하며 일본과의 정치군사적 연대를 시도한 전력이 있었던 점을 염두에 둔다면, 여몽연합군이 삼별초 동조세력과 왜구와의 연계 가능성을 염려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여몽연합군이 삼별초와 그에 동조했던 서남해 해상세력을 적도(賊徒)로 규정하고 탄압했던 것은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해주는 하나의 예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왜구와 삼별초세력이 라는 두 변수를 염두에 두면서 고려 말기에 취해진 공도(空島) 조치의 원인과 그 해양사적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자.

2) 공도(空島)와 왜구 발흥의 상관관계

공도 조치에 대한 기록은 정사(正史)에는 전혀 전하지 않고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극소수의 지리지류에서만 전한다. 이를 보면 조선조에 들어서 고려 말의 공도 조치에 대한 냉철한 역사비평이 가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 이는 공도 조치의 엄중성에 비추어 볼 때 의외의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서 고려 말 공도 조치의 원인으로 왜구의 침탈을 들고 있으니, 우선 왜구와의 상관관계를 따져보는 것이 순서이겠다.

《고려사》에서 왜구의 침탈행위가 처음 확인되는 것은 1223년(고종 10)이다. 그리고 그 이후 4년 동안 소규모, 산발적인 왜구의 출몰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고려왕조는 1227년 일본에 사신을 보내 엄중 항의하였고, 일본에서는 편지를 보내어 왜구의 침탈행위를 사과하고 우호통상관계를 맺을 것을 청하였다. 이후 왜구의 출몰은 기록상 30여 년간 자취를 감추게 된다. 이는 당시 고려왕조가 왜구의 침탈을 압도할 수 있는 해양력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구가 자취를 감춘 30여년의 기간은 강화도 고려정부의 대몽항쟁기와 겹치는 시기였음을 감안할 때, 왜구를 압도한 고려의 해양력이란 곧 강화도정부의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후 왜구의 침탈은 1260년대에 들어 소규모, 산발적인 형태로 다시 나타났으며, 1350년대를 넘어서면서부터 침탈의 빈도

와 규모가 크게 증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추세 속에서 고려왕조는 공도(空島)의 조치를 단행하였던 것이다.

고려 말의 공도 조치에 대해 처음 언급한 것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건치연혁(建治沿革) 혹은 고적조(古跡條)에서였다. 여기에서 고려 말 공도 조치의 대상이 된 섬으로 남해도·거제도·진도·압해도·장산도·흑산도 등이 거론되었다. 그리고 공도화한 시점에 대해서, 거제도는 1271년(원종 12)에, 진도는 1350년(충정왕 2)에, 그리고 남해도는 공민왕대(1351~1374)에 각각 공도화된 것으로 명기하였고, 나머지 섬들의 공도화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그런데 이들 섬들을 보면 하나같이 군현(郡縣)이 설치될 정도로 비중 있고, 전통적으로 해상세력의 중요 근거가 된 큰 섬들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왜구의 침탈을 이유로 이들을 공도화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러한 섬들의 방어 능력을 충실화하여 왜구의 침탈을 저지하는 것이 왜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대비책이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앞서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구심은 거제도의 공도화 시점에서 더 크게 일어난다. 거제도를 공도화한 1271년을 전후한 시기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왜구의 침탈은 단지 소규모, 산발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거제도란 거대한 섬을 통째로 비워버리는 공도의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해할 수 없는 바이다. 더욱이 1271년의 시점은 삼별초세력이 진도를 중심으로 서남해안을 석권하던 그 시기와 정확히 겹치고 있어서, 거제도 공도화 조치는 왜구의 침탈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진도 삼별초세력과 거제도 해상세력의 연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파악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한다. 실제로 당시 진도 삼별초세력은 남해도에 유준혁 장군을 파견하여 서남해 제해권을 확대·강화해 가고 있었으니, 이런 추세를 우려

의 눈초리로 주시하였을 고려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삼별초세력이 거도(巨島) 거제도마저 장악하는 일이 시간문제로 받아들여졌음직하다. 따라서 적어도 1271년에 취해진 거제도 공도화 조치의 원인은 왜구보다는 삼별초세력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찾아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3) 공도(空島) 조치는 서남해지역 해상세력에 대한 탄압책

그렇다면 여타 섬들의 공도 조치는 어떤가? 진도와 남해도의 경우 왜구의 침탈이 본격화되는 1350년 직후에 공도화되었다는 점에서, 공도화의 원인을 '왜구의 침탈로부터 섬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라고 파악한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기록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왜구 침탈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이들이 공도화된 것인지, 이들이 공도화되었기 때문에 왜구의 침탈이 본격화된 것인지 인과관계의 순서를 한 번쯤 따져볼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왜구 침탈이 본격화한 시점과 공도화의 시점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인과관계의 순서를 전자에 따라 파악할 경우, 공도 조치는 섬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자에 따라 파악할 경우엔, 진도와 남해도 등을 공도화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간 미온적인 수준에 머무르던 왜구의 침탈 욕구가 더욱 증폭되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당시의 추세를 엄밀히 따져보면 전자보다는 오히려 후자의 관점이 더 타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기운다.

먼저 고려 말에 공도화의 대상이 된 섬들을 보자. 그들은 대체로 대몽항쟁의 중심지였던 섬들이 망라되어 있다. 즉 압해도는 일찍이 1256년에 몽고의 장수 차라대(車羅大)로부터 대규모 해상공격을 받은 적이 있었고,

남해도는 강화도정부가 팔만대장경 조판 사업을 일으키면서 분사대장도 감(分司大藏都監)을 설치할 정도로 대몽항쟁에서 중시되던 곳이었다. 진도는 삼별초가 입거하여 대몽항쟁의 새로운 기지를 건설한 곳이었으니 말할 것도 없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이들을 공도화(空島化)한 조치 역시 거제도 와 마찬가지로 일차적으로는 저항세력을 제거한다는 정치군사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할 것 같다. 먼저 진도 삼별초세력의 저항이 한창이던 1271년의 시점에 거제도를 첫 공도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진도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거도(巨島) 거제도의 해상세력이 삼별초세력과 연대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진도와 남해도에 대한 공도화 조치를 비교적 늦은 시점인 충정왕 및 공민왕 연간에 단행했던 이유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다. 삼별초 주력세력이 제주도에서 최종 진압됨에 따라 삼별초의 중심 기지 역할을 담당해오던 진도와 남해도에 대한 1차 탄압조치가 당연히 취해졌을 것이다. 그런데 이후 왜구의 침탈이 본격화될 조짐이 감지됨에 따라, 고려정부에 저항적 성향을 견지해오던 남해도와 진도 등지의 해상세력이 왜구와 연대할 것이 우려되어 이들에 대한 2차 공도화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삼별초세력과 그 동조세력을 적도(賊徒)로 간주하던 고려왕조의 입장에서 볼 때, 삼별초 동조세력과 왜구의 연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고려 말의 공도 조치는 1차적으로는 서남해의 저항 해상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으며, 2차적으로는 그들과 왜구의 연대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도 조치는 이후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을까? 그것은

서남해 해상세력의 붕괴를 가져왔을 것이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더욱 극렬한 왜구 침탈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 분명하다. 2차 공도화 조치가 취해졌던 1350년대 이후부터 왜구의 침탈이 그 빈도와 규모에서 급격히 증대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반영하는 바이다. 요컨대 고려 말 공도 조치는 해양국가 고려의 해양력을 약화시키고 해방체제(海邦體制)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급기야 고려왕조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던 것이니, 곧 한국 해양사의 일대 전환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3. 조선의 공도 및 해금정책

1) 공도정책

고려 말에 섬을 비워버린 공도(空島)의 조치는 서남해 해상세력이 삼별초세력에 동조할 것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하여, 서남해 해상세력과 왜구의 연대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에서 본격화되었다. 따라서 당시 공도화의 대상은 진도, 압해도, 흑산도, 장산도, 거제도, 남해도 등과 같이 주로 해상세력이 항몽의 근거지로 삼았던 큰 섬들이었다. 결국 고려 말 공도 조치는 이들 해상세력에 대한 국가의 탄압이라는 의미가 강했다고 할 수 있다.

고려 말의 이러한 공도 조치는 조선왕조에 들어 더욱 강화되고 전면화되어, 단순히 일시적인 ‘조치’의 차원을 넘어서서 법으로까지 규정되는 하나의 국가 ‘정책’(이른바 ‘공도정책’)으로 자리 잡아 갔다. 官의 허락

없이 몰래 섬에 들어간 자는 杖 1백 대의 형을 받는 것으로 규정되었으며, 심지어 섬에 도피 은닉한 죄는 본국을 배반한 죄에 준하는 것으로 다스려져야 한다는 주장까지 거론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 되었다.

조선이 공도정책을 실시했던 목적은, 고려 말에 반정부 활동을 전개하던 해상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취했던 공도 조치와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조선시대의 해양은 이미 피폐화되어 있었고, 해양을 근거로 하여 삶을 영위하던 해양인들도 크게 쇠락해 있었으므로, 그들을 경계하고 탄압한다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왕조가 공도를 국가의 정책으로 삼아 강력하게 추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모든 백성들은 국왕의 지배와 보호를 받는 위치에서 편제되어야 한다는 조선적 통치의 이념에서 나온 것이었다.

조선시대에게 섬은 원칙적으로 국왕의 지배와 보호가 미치지 못하는 통치의 대상이 아니었고, 행정 편제의 대상에서도 배제되었다. 다만 왕권 내에 있는 조선의 영토라는 관념만이 막연하게 미치고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만약 백성들이 섬에 흘러 들어간다면, 그것은 곧 국왕의 통치권에서 벗어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국가 탈출죄 혹은 반역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가해졌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이러한 조선의 공도정책은 고려 말에 취한 공도의 조치를 계승한 측면도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명의 해금정책(海禁政策)을 추수(追隨)한 결과였다고 볼 것이다. 이점에서 명의 해금정책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명의 해금정책(海禁政策)을 조선이 추수(追隨)하다

명을 건국한 주원장(朱元璋)은 원을 축출하고 중국 대륙을 통일하는 한편, 명 왕조의 정권을 안정화시켜 가는 과정에서, 명의 지배에 저항하는 해상세력에 일대 타격을 가하기 위해 일체의 해양활동을 금하는 해금정책을 폈다. 당시 절강(浙江) 지방의 염민(鹽民)을 규합하여 큰 세력을 형성한 장사성(張士誠)세력이나 영파(寧波), 온주(溫州) 등의 무역항구를 점거하여 해상무역을 주도하면서 세력을 키워간 방국진(方國珍)세력 등이 주된 견제와 제거의 대상이었다. 그리하여 명 태조 주원장은 민간 상인들의 해외 도항을 모두 금지하고, 민간에서 원양선을 건조하지 못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건조한 원양선도 국내 수송용 배로 개조하도록 명함으로써, 이들 해상세력의 활동 수단과 무대 자체를 제거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명의 해금정책은 궁극적으로 바다를 폐쇄하고 육로라는 제한적인 통로를 통해 주변 국가와 조공관계를 맺음으로써 대내적 안정을 추구하고 대외적 패권주의를 관철하려는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 그리하여 주원장의 뒤를 이은 영락제는 정화(鄭和)로 하여금 1405년부터 28년 동안 7차례에 걸쳐 인도에서 멀리 페르시아만에 이르는 남해 대원정을 단행하게 하였으니, 이로써 전대까지 남해를 통해 성행해온 국제 해상무역은 더욱 무력화되었다.

명의 해금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럴수록 국제 해상무역은 위축되어 갔다. 조선은 육로를 통해 명이 설정한 조공체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었으므로, 명의 해금정책에 적극 동조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명의 해금정책으로 인해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일본이 명·조선과 교역하기 위해서는 바다를 통하지 않고서는 불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일본은 바다를 통한 불법적 교역활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명의 해금정책에 도전하는 셈이 되었다. 그리고 명은 이에 대해 강력 대응하였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인들의 불법 행위는 점차 무력적 침탈 행위로 돌변해 갔으니, 이른바 왜구(倭寇)라 불리는 해적집단의 침탈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명의 해금정책은 태조 주원장이 강남의 해상세력을 정권의 위협세력으로 간주하고 이를 탄압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하였고, 이것이 이후 조법(祖法)이 되어 쇄국정책 추진의 근거가 되었으며, 해양을 통한 교역을 원하는 왜구의 극렬한 침탈을 가져오게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점에서 고려 말 공도정책이 서남해 해상세력을 위협세력으로 간주하여 탄압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어, 급기야 왜구의 침탈을 가져오게 한 원인이 되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바이다.

조선왕조가 고려 말의 공도 조치를 계승하고 명의 해금정책을 추수한 것은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고, 양자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조선왕조를 극단적인 쇄국정책의 길로 몰고 갔다고 할 수 있다. 그럴수록 바다로 격절되어 있던 일본은 바다를 통해 교역하고자 하는 욕구를 차단당하고,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었다. 이후에 왜구의 침탈 행위가 더욱 격렬하게 나타났던 것은 이런 맥락에서 살필 수 있겠다. 조선왕조는 해금정책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혹은 무력 정벌을 통해, 혹은 새로운 해방체제(海防體制)의 구축을 통해, 혹은 제한적 교역의 허용을 통해 왜구의 침탈 행위를 저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갔다.

3) '신해방체제(新海防體制)'의 구축과 대마도 정벌

중국과 조선의 강력한 해금정책으로 일본인들의 무역 욕구가 차단되면서, 일부 일본인들이 그들의 욕구를 불법적이고 약탈적인 형태로 표출한 것이 왜구의 침탈로 나타났다. 그 이전까지 국제 해상무역을 주도하고 갈등을 완충하는 역할을 수행해오던 도서·연안지역의 해상세력이 명과 조선의 해금정책으로 탄압을 받아 크게 쇠락하면서 왜구에 대한 대응 능력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 중에서 불법적 해적의 무리로 전략한 부류마저 생기게 되었다. 그러니 이러한 역사적 조건 속에서 왜구의 분출이라는 현상은 역사적 필연성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겠다.

왜구의 침탈은 더욱 격화되어 갔고, 왜구에 대한 대책은 동아시아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였다. 먼저 조선은 태조 연간에 수군을 보강하는 한편, 연안 지역에 성을 쌓고 봉수제를 정비하였으며, 이것이 태종 연간으로 이어져 연안 수군진(沿岸水軍鎭)과 봉수제(烽燧制)를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해방체제(海邦體制)로 정비되었다. 이는 곧 바다와 섬을 포기하고 육지 방어를 위주로 하는, 공도와 해금정책을 기조로 하는 '신해방체제(新海防體制)'의 구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왜구의 침탈은 크게 줄어들었지만, 섬을 징검다리 삼아 들어오는 왜구의 간헐적 침탈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조선은 왜구의 침탈을 본원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서 왜구의 근거지로 지목해온 대마도 정벌을 추진하였다. 마침내 1418년(세종 원년) 6월 19일 조선 측은 삼군도체찰사(三軍都體察使) 이종무(李從茂)의 지휘 하에 17,000여 명의 병력을 227척의 병선에 나눠 싣고 거제도(巨濟島)를 출발, 대마도 정벌에 나섰다. 정벌군은 왜구의 근거지에 큰 타격을 가하는 한편 많은 조선인 포로들을 쇄환(刷還)해 오는 전과를 올렸다. 이로써 세종대에

일본에 대한 각종 회유정책이 조선의 주도 하에 실시될 수 있게 되었고, 대마도는 조·일 양국외교의 안전판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은, 마치 명이 해금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행했던 정화의 대원정을 연상케 한다.

이후 조선왕조는 '해금(海禁)의 시대' 를 본격 개막하였다. 오로지 육지를 통해서 명에 사신을 보내 대국으로 섬기면서 중화문화의 어류임을 자처하였고, 해양 저편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야만시하게 되었으니, 이로써 조선은 문화적으로는 자폐주의(自閉主義)에 깊숙이 빠져들어 갔고, 정책적으로는 쇠국주의(鎖國主義)를 표방하였다. 조선은 통제하기 어려운 해양의 불안정성을 싫어하여 해양을 통해서 문화의 다양성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저버렸고, 대신 중화의 권위를 빌어서 내지(內地)의 인민들을 철저히 통제하는 획일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에 길들여져 갔던 것이다.

4. 조선의 대일 교역통제와 크고 작은 왜변들

1) 왜구에 대한 회유책과 계해약조

1419년에 대마도를 정벌한 이후에 조선의 대일본 통교정책은 회유책으로 선회하였다. 왜구의 침탈이 극성을 부리고 그 피해가 막심해지면서, 조선은 그들을 무력으로 물리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깨달았던 것이다. 조선정부가 추진한 회유책의 골자는 대마도주에게 특수한 권한을 부여하여 제한적 교역체제를 마련하는데 있었다. 이것은 해금정책의 포기가 아

나라, 일본에 통교의 창구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이를 통제함으로써 오히려 해금정책의 기초를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조선의 대일 정책은, 조선과의 교역을 최대한 확대하고자 했던 일본 측의 욕구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은 대일본 통교에 이중삼중의 복잡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였다. 통교상의 공로자나 조선에 복속하기를 희망하는 일본인에게 교역할 수 있는 증명서인 도서(圖書)를 발급해 준다거나[授圖書制], 일본인 통교책임자가 조선정부 앞으로 서계(書契)를 발송하게 한다거나, 대마도주가 발급하는 신분증명서인 행장(行狀)이나 도항(渡航) 증명서인 노인(路引), 문인(文引) 등을 소지하게 했던 것은 이러한 통제장치의 일환이었다. 또한 일본인이 출입할 수 있는 개항장과 포소(浦所)를 부산포釜山浦, 지금의 부산진, 제포濟浦=乃而浦, 지금의 진해시 웅천동, 염포鹽浦, 지금의 울산의 3포에 제한을 두었다.

이렇듯 조선과 일본의 상이한 관심사와 이해관계가 타협되어 성립한 것이 1443년(세종 25)의 계해약조(契亥約條)였다. 계해약조의 골자는 두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대마도주에게 매년 200석의 쌀과 쉰歲賜米량을 하사한다는 것, 둘째, 대마도주는 매년 50척의 배歲遣船를 보낼 수 있고, 부득이하게 보고할 일이 있을 경우 정해진 숫자 외에 특송선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약조는 조선전기 대일 통교체제의 기본 조약으로서, 이후 일본국왕 및 지방 호족들과 정약(定約)할 때도 전범기준이 되었다.

2) 삼포왜란과 임신약조

성종 이래 일본에 대한 교역 통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특히 연산군 대

에는 변방관리들이 왜인에 대해 횡포와 부당 접대의 사례가 빈발해지면 서 왜인들의 불만이 증척되어 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이미 연산군 대부터 왜선의 해적행위와 3포에 거주하던 왜인의 방화사건이 일어난 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조선정부는 왜인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였고, 그럴수록 왜인의 약탈행위가 점점 도를 더해가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3포에 거주하는 항거왜인(恒居倭人)의 수는 급속히 증가하였다. 세종 대에 60호에 한정하여 허용되었던 항거왜인의 수가 세조·성종 대에는 400호를 넘어서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삼포총치자(三浦總治者)를 우두머리로 삼고 각 포소(浦所)마다 추장을 두어 스스로 행정 조직망을 갖추면서 기동성과 무력을 겸비해가고 있었다. 이들이 대마도주와 연계하여 교역 통제를 강화해간 조선정부의 정책에 저항하여 일으킨 것이 삼포왜란이었다.

삼포왜란은 1510년(중종 5)에 제포(薺浦)에 거주하던 왜인의 우두머리와 대마도의 대관(代官) 종성친(宗盛親)이 중심이 되어 대마도주의 전면적인 지원 하에 군사 4·5천 명이 거제도의 수군 근거지를 공격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일어난 왜란이다. 처음 제포의 왜인이 난을 일으켜 웅천성을 포위하여 분탕질을 쳤고, 여기에 부산포와 염포에 거주하던 일본인들도 합세하여 난을 일으켰다. 이 왜란은 15일 만에 완전 진압되었지만, 그 피해는 상당히 컸다. 이에 조선정부는 즉시 대마도와 통교를 중단하였다.

삼포왜란이 일어난 지 1년 후에 일본의 막부 측에서 사신을 보내 강화안을 제시하며 대마도와의 통교재개를 요청하였다. 강화 교섭 과정에서 대마도주가 주모자를 참수하고 포로를 송환하라는 조선 측의 요구조건을 이행하자, 조선정부는 왜란 2년 후인 1512년(중종 7)에 임신약조(壬申約條)를 체결하여 통교의 재개를 허락하였다. 9개조로 되어 있는 임신약조는, 3포에서 왜인의 거주를 불허하고, 대마도주의 세견선(歲遣船)을 25척

으로 반감(半減)하였으며, 세사미두(歲賜米豆)를 100석으로 반감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것이었다. 이는 곧 삼포왜란 전에 체결한 계해약조에 비해 통교에 대폭 제한을 가한 것으로서, 조선의 대일 강경 입장이 반영된 것이었다.

3) 사랑진왜변과 을묘왜변

삼포왜란 이후 조선이 대일 통교에 엄격한 통제를 가하고 교역규모도 대폭 축소하자, 대마도주는 사신을 보내 세전선을 늘려줄 것을 계속 요청해 왔다. 이에 조선정부는 5척을 증가시켜 30척으로 늘려주는데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1544년(중종 39)에 왜선 20여 척에 분승한 200여 명의 대마도인이 사랑진(蛇梁津, 지금 통영군 사랑면)을 침탈하는 사건을 일으켰다. 이것을 사랑진왜변이라 부른다. 사랑진왜변은 삼포왜란에 비해 조직적인 성격이 약한 왜구의 노략질 수준에 머무른 것이긴 하였지만, 조선정부는 이를 계기로 대마도에 대해서 일체의 통교를 단절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막부의 거듭된 통교재개 요청과 대마도주의 간청에 의해 3년 후인 1547년(명종 2)에 정미약조를 체결하고 통교의 재개를 다시 허락하였다. 정미약조는 6조로 되어 있는데, 임신약조의 내용보다 더 가혹하게 대마도주의 교역량을 제한하고, 위반할 경우의 벌칙까지 명시하였다. 정미약조의 체결로 가까스로 통교는 재개되었지만, 왜인의 발호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양국 관계는 살얼음판을 걷듯 아슬아슬하게 전개되었다.

여기에 100여 년에 걸쳐 지속한 일본의 전국시대(戰國時代, 1467~1568)가 16세기 중반에 이르러 혼란이 크게 가중되면서 국내의 세력을 통제해

오던 무로마치 막부(室町幕府)의 통제력이 현저히 약화되자, 그 통제에서 벗어난 왜구의 발호가 다시 성행하였다. 흔히 '후기왜구'라 불리는 이들은 명과 조선의 연안을 침략하여 약탈을 감행하였다. 사랑진왜변 이후 명종 말년까지 왜구의 침략은 30여 회에 이르렀는데, 그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조선정부에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이 1555년(명종 10)에 일어난 을묘왜변(乙卯倭變)이었다.

을묘왜변은 1555년 5월에 왜구가 선박 70여 척을 동원하여 달량진(達梁津, 지금 해남군 북평면 남창리)에 쳐들어와 성을 포위하고, 장흥·영암·강진 일대를 횡행하면서 약탈을 일삼았던 일대 사건이었다. 왜구를 토벌하기 위해 파견된 절도사 원적(元積)과 장흥부사 한운(韓蘊)이 전사하고, 영암군수 이덕견(李德見)은 포로가 될 정도로 왜구의 위력은 대단하였으며, 전라병영성이 함락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조선정부는 호조판서 이준경(李浚慶)을 도순찰사로 임명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왜구 토벌에 나서면서 가까스로 왜구를 토벌할 수 있었다.

을묘왜변 이후 조선정부는 비변사를 설치하여 대일경계를 강화하였고, 대마도주에 대한 교역통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이에 궁색해진 대마도주 종의조(宗義調)는 만행을 저지른 왜구의 목을 잘라 보내며 사죄하고 세건선을 늘려줄 것을 간청하였다. 그리고 조선정부는 그에 응하여 세건선 5척의 입항을 허용해 줌으로써 을묘왜변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일본 국내의 정국은 혼미를 거듭하여 왜구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으며, 왜구의 침탈은 계속되었다. 자연 왜구에 대한 조선정부의 대응은 더욱 강경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그럴수록 조선과 일본의 양국 관계는 냉각되어 갔다. 그리고 교역통제와 왜구의 침탈이 반복적으로 악순환하는 갈등 상황은 지속되었다.

이러한 갈등 상황은 도요토미 히데요시(風神秀吉)가 일본 열도를 통일

할 때까지 계속되었으며, 급기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출현과 함께 ‘임진왜란’이라는 동아시아대전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면 임진왜란이란 명과 조선이 동시에 추진한 해금(海禁)과 쇄국(鎖國)이라는 비정상적 대외정책이, 일본 열도의 비정상적인 정치상황과 만나면서 빚어낸 일대 역사 태풍이었던 셈이다. 그리고 그 역사 태풍은 7년여에 걸쳐 동아시아를 강타하였으니, 고려말~조선초에 해상세력의 퇴락이 그 태풍의 피해를 더욱 키웠다고 할 수 있다.

제8장
임진왜란과 조후 사경

1. 임진왜란 전야와 이순신

1) 임진왜란 전야(1) – 일본의 상황

100여년에 걸친 지루한 전국시대를 종식시키고 일본 열도 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대아시아국 건설이라는 망상을 실현하기 위해 대륙 침략 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는 한편으로 오랜 전란의 와중에서 신흥과 몰락이 엇갈린 일본 안의 불평분재(戰國大名)에게 해외의 지고오(知行=收租地)를 획득하여 분할해 주겠다는 식으로 설득하여 그들의 관심을 외부로 분출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까지 일본과의 관계를 제약과 통제 일변도로 진행해온 명과 조선에 대한 일본 호족 세력의 불만에 편승한 측면도 있었다.

1591년 1월 도요토미는 연해안의 제후들에게 침략군의 수송과 호송을 위한 함선과 수군을 준비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어서 3월에는 병력의 수를 정하는 명령을 내리고, 대륙침략을 의미하는 ‘대당입(大唐入)’을 선언하고 큐슈의 나고야(名護屋)에 침략의大本영을 설치하였다. 그리하여 1592년 1월 5일에는 일본의 여러 장수와 군대를 나고야에 총집결할 것으로 명하고, 도해 침공부대는 대마도로 향하게 했다. 3월에는 최종 군대편성을 하달하여, 1번대에서 9번대에 이르는 총 15만 8,700명의 침략군과 11만 8,300명의 일본 국내 주둔군이 정해졌다.

모든 준비를 완료한 도요토미는 3월 26일에 교토(京都)에서 일본 천황 고요 오제이(後陽成)에게 출병을 상주(上奏)하고 침략의大本영이 설치된 나고야(名護屋)로 향했다. 그리하여 침략군은 4월 13일 오전 9시경에 대마도의 대포(大浦)를 출항하여 그날 오후 5시에 부산포에 이르렀다. 다음

날 14일에 선봉을 맡은 제1번대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의 군대가 부산성을 공격하고, 19일에는 2번대의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와 3번대 구로다 나가마사(黑田長政)가 후속부대를 이끌고 잇따라 상륙함으로써 임진왜란의 7년 전쟁은 시작되었다. 일본 측의 전쟁준비와 진행과정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 임진왜란 전야(2) – 조선의 상황

반면 이에 대한 조선 측의 대책은 한심한 것이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2년 전인 1590년 4월에 조선정부는 정사 황윤길(黃允吉), 부사 김성일(金誠一), 서장관 허성(許箴)으로 구성된 통신사를 일본에 파견하여 일본의 정세를 탐색케 하였다. 이듬해 정월에 귀국한 이들이 가져온 답서에 ‘입대명(入大明)’이라는 불손한 글귀가 있었고, 일본이 반드시 침입할 것이라는 황윤길의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입이 없을 것이라는 김성일의 의견에 매달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더구나 임란 바로 직전 해인 1591년 3월에 일본 사신 승려 현소(玄蘇) 등이 일본이 1년 후에 ‘가도입명(假道入明)’ 하리라는 충격적인 통고를 해왔고, 6월에는 대마도의 종의지(宗義智)가 부산포에 이르러 조선이 일본의 명나라 원정에 협력하지 않으면 먼저 조선을 공격하겠다는 통고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00여 년 간에 걸친 긴 평화의 시대에 안주해오던 조선의 위정자들은 이를 반신반의하면서 대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이러한 안이한 생각은 조선의 조야(朝野)에 만연되어 있었다. 어떤 이는 “우리 마을 앞에는 내가 흐르고 있어 아무리 장사라 하여도 뛰어 넘을 수 없는데 하물며 동래·부산 앞은 망망대해인데 왜인이 어떻게 넓은 바

다를 넘어올 수 있겠는가”라 하면서 일어나지도 않을 전쟁을 위해서 성곽을 수축하면 민폐만 크게 된다는 생각을 피력하기도 했다. 해양에 대한 무관심이 거의 무지에 가까울 정도였음을 알겠는데, 이것이 당시 조선 사대부들의 일반적 인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와중에서 조선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에 그쳤다. 첫째 각도의 성곽을 수축하고, 둘째 무기를 점검하며, 셋째 무신 중에서 뛰어난 재질이 있는 자는 서열에 구애받지 않고 발탁하도록 한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대책은 극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다만 서열에 관계없이 무장을 발탁하는 과정에서 이순신과 권을 같은 이를 발탁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국가의 멸망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한 셈이 되었으니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라 하겠다.

3) 이순신의 전라좌수사 취임과 대응

이순신이 전라좌수사로 임명된 것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2개월 전인 1591년 2월 13일이었다. 1576년 32세의 비교적 늦은 나이에 무과에 급제하여 함경도 동구비보 권관(權官)에 부임한 이후 하급 무관직을 전전하면서 파직과 백의종군, 그리고 복직의 험난한 과정을 거쳐 온 이순신은 1591년에 진도군수와 가리포진 첨사로 잇따라 보직이 변경되어 임지로 향하던 중 돌연 전라좌도 수군절도사라는 파격적인 승진 발령의 소식을 접하고 발길을 전라좌수영이 있는 여수로 돌려 부임하였다. 그의 나이 47세의 일이었으니, 이는 당시 좌의정으로 있던 유성룡(柳成龍)의 천거에 의한 것이었다.

전라좌수영에 부임한 이순신은 먼저 휘하의 방담·사도·여도·발포·녹도 등 5진(鎭)을 순시하여 기강을 바로 잡고 사소한 민폐라도 끼치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는 것을 공표하였다. 임란 직전에 이순신은 왜란이 임박했음을 직감했음인지 1592년 3월 하순에 좌수영 앞에 철소(鐵銷) 가설을 완료하고, 왜군이 부산포를 공격하기 불과 며칠전인 4월 11일에는 거북선 건조를 완료하였다. 그리고 4월 15일에 왜군이 부산포에 침입했다는 급보를 받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순신은 4월 15일 왜군 침입의 급보를 받고서도 초동 원조를 거절하고 20일 가까운 시일이 지난 5월 4일에야 1차 출전을 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점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바가 있다. 왜냐하면 왜군이 4월 14일 부산포를 상륙한 이후에 파격지세로 진군을 거듭하여 5월 3일에는 서울마저 점령했을 정도로 전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순신이 모를 리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상좌수사 박홍(朴泓)이 좌수영을 버리고 도주해버렸고 경상우수영마저도 몰락의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경상우수사 원균(元均)이 울포만호(栗浦萬戶) 이영남(李英男)을 시켜 5, 6차례 이순신에게 급박한 상황을 보고하면서 구원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은 “각기 분담한 경계가 있으니 조정의 명이 없이 어찌 마음대로 경계를 넘으랴” 하면서 짐짓 판전을 부린 듯한 태도로 일관하였고, 이에 대해 원균은 뺏머리에 앉아 통곡까지 하였다 하니, 이순신의 속마음을 읽기가 더욱 어렵다.

이에 대해 이원익(李元翼)은 “순신과 원균은 각각 나누어 지키는 땅이 있으니 처음에 곧바로 가지 않은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다” 고 하여 이순신을 두둔하는 입장에서 견해를 밝힌 바 있고, 후대의 역사가들도 ‘영남의 해로사정에 어두운 전라도 수군으로써 진군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이라는 우호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것이 지배적이다.

이후 이순신이 보여준 해전에서의 영웅적인 행적에 비추어 볼 때, 그의 초기 출전 거절이 충분히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입장에서 살필 필요는 있다. 당시 그의 부장 중에는 “우리 구역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타도를 구원할 겨를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자가 적지 않았고, 경상도 해역에 대한 파악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부장들의 의기투합을 이끌어내고 경상도 해역을 탐색할 최소한의 여유와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책임 있는 장수로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절차였을 것이다. 만약 다급한 마음에 경거망동하여 곧바로 출전하여 만의 하나 참패를 당한다면 제해군은 몽땅 일본군에 넘어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모든 비난을 감수하면서 결정한 이순신의 초기 출전 거절은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냉철한 그의 판단력을 엿보게 한다.

《난중일기》를 보면, 급보에 접한 이순신은 통분의 마음을 숨기지 않으면서 먼저 전라순찰사 이광, 병마사 최원, 우수사 이억기 등에게 공문을 보내어 보고하고, 좌수영의 방비 태세를 점검하는데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쉽게도 4월 23일~30일까지의 일기가 빠져 있지만, 대신 4월 29일에 올린 이순신의 장계(狀啓)를 보면 당시 이순신의 심정을 엿볼 수 있다. “나는 남의 도의 군사이니 그도의 물길에 험하고 평탄한 것을 알 수 없고, 물길을 인도할 배도 없으며, 또 작전을 상의할 장수도 없는데 경솔하게 행동한다는 것은 천만 뜻밖의 실패도 없지 않을 것이다. 소속 전함을 모두 합해 봐야 30척 미만으로 세력이 매우 고약하다.…그러니 일이 매우 급하더라도 반드시 구원선[전라우수영의 병력이 다 도착되는 것을 기다려서 약속한 연후에 출항하여 바로 경상도로 출전해야겠습니다]고 한 구절이 그것이다. 이로 볼 때, 이순신은 출전하기 전에 경상도 물길에 대한 파악과 전력 보강이라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경상도의 비관적인 전황이 속속 전해오면서 이순신 진영의 부장

들의 출전 의지도 비장해졌다. 녹도만호(鹿島萬戶) 정운(鄭運), 방답첨사(防踏僉使) 이순신(李純信), 홍양현감(興陽縣監) 배흥립(裴興立), 홍양 출신 군관 송희립(宋希立) 등이 결사항전을 다지며 출전할 것을 주장하였다. 특히 5월 3일 녹도만호 정운이 적세(賊勢)가 서울에까지 박두했음을 상기시키면서 즉각 출전을 촉구하자, 이순신은 중위장(中尉將)을 불러 다음날 새벽 출발할 것을 약속하고 이미 써놓은 장계를 고쳤다. 그리고 출전한다는 소문을 듣고 달아난 여도권관(呂島權官) 황옥천을 잡아와 목을 베어 군율을 엄정히 하였다. 이로 볼 때, 부장들의 결전 의지를 극대화하고 엄정한 군기를 확립하려는 것도 출전 전에 이순신이 고심한 부분이었다.

2. 해전에서 이순신이 거둔 빛나는 승리, 승리!

1) 옥포에서의 첫 승전 이후 거듭된 승리

1592년 5월 4일 새벽에 마침내 전라좌수사 이순신은 함대를 거느리고 좌수영을 출발하였다.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한 지도 벌써 보름이 훌쩍 넘어간 뒤였다. 더욱이 이미 선조가 몽진을 떠났고 5월 3일에 한성마저 일본군에게 함락 당한 후의 절박한 시점이었다.

우리 함대는 남해도 남쪽으로 항로를 잡고 마조항 끝을 돌아 소비포(고성군 하일면 춘암리) 앞 바다에서 첫 밤을 보내고서, 다음날 원군과의 약속 장소인 당포(통영시 산양면 당포리)에 이르렀으나 원군은 보이지 않았다. 이순신은 함대를 당포에 정박시켜 놓고 경쾌선을 사방으로 보내어 원

균을 찾으니, 그는 하루가 지난 5월 6일 아침에야 나타났다. 원균에게 그동안의 전황을 물은 다음 당포를 출발하여 거제 송미포에서 밤을 새웠다. 그리고 5월 7일 새벽에 다시 출발하여 적선들이 머물고 있다는 가덕을 향하여 거제도 동해안을 북상하던 중에 옥포 포구 안에 적선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순신은 여러 장수들에게 신중히 움직일 것을 명령한 뒤 장사진을 펴고 포구 안으로 쳐들어갔다.

옥포 포구에는 왜선 50여 척이 정박해 있었는데, 왜적들은 육지에 상륙하여 민가를 약탈하고 양민을 살해하다가 전라좌수영 함대가 접근해 오는 것을 보고도 개의치 않았다. 지금까지 그들의 경험에 의하면 조선 수군들은 그들이 접근하는 것만 보아도 모두 배를 버리고 도망가기 일쑤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이순신의 공격 신호에 따라 우리 함대는 사력을 다해 총공격을 가하여 적선을 크게 격파했던 것이다. 격침된 적선은 26척에 달했으나, 이순신의 첫 해전이자 첫 승전이었다.

이어 5월 7일 오후에 함포(창원시 구산면 남포리) 앞 바다에서 5척의 적선을 깨뜨리고, 이튿날 적진포(통영시 광도면 적덕동)에서 적선 7척을 격파하고서, 좌수영 함대는 여수로 개선하였다.

5월 29일 새벽에 전라좌수영 함대는 두 번째 출정의 길에 올랐다. 적선 수십 척이 사천·곤양 등지에 쳐들어 왔다는 원균의 급보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이순신은 사천 앞 바다에 12척의 적선이 정박해 있는 것을 확인하고서, 바다로 유인할 양으로 후퇴를 명하였다. 일본군이 모두 배를 타고서 추격하여 바다로 나오자, 우리 함대가 갑자기 공격하기 시작하여 적선 12척을 모두 격파하였다.

사천의 모자랑포에서 하룻밤을 새운 우리 함대는 다시 진군을 계속하여 6월 2일에 당포(경남 통영시 산양면 당포리)에 정박해 있던 적선 21척을 모두 격침시켰다. 그리고 다음날에 전라우수사 이억기(李億祺)가 전선

25대를 거느리고 당포에 합류하여 전라 좌·우수영군의 연합함대가 결성되었다. 우리의 연합함대는 사기충천하여 진군을 계속하여 당항포(통영시 회화면 당항리)에 정박해 있는 적선을 공격하여 모두 격침시켰다. 승리, 또 승리였다.

2) 한산도 해전

좌수영에 돌아온 이순신은 경상도의 적세(賊勢)를 탐문한 결과 적선이 가덕·거제 등지에 출몰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3차 출정길에 올랐다. 먼저 전라우수사 이억기에게 연락하여 7월 4일에 전라좌수영에 집결한 다음에 7월 6일에 같이 출동하기로 하였다. 전라 좌·우수영 연합함대의 주력선은 49척(좌수영군 24척, 우수영군 25척)이었는데, 노량 앞 바다에 이르러 원군 휘하의 경상 우수영군 7척이 합세하여 56척에 이르렀다.

우리의 연합함대는 창신도를 지나 진군하던 중, 7일에 역풍인 동풍이 심하게 불어 일단 당포에 닻을 내렸다. 해질 무렵 피난민 김천손이란 자로부터 왜선 70여 척이 건내량에 정박 중이라는 정보를 얻게 되었다. 건내량은 거제도와 통영반도 사이에 있는 긴 수로로서 길이는 약 4킬로미터에 달하며 넓은 곳이라야 500미터를 넘지 않는 좁은 해협이다. 이순신은 이 수로의 지형이 너무 좁고 또 암초가 많아서 싸움터로는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해전 경험으로 볼 때, 육지와 너무 가까운 곳에서 싸우면 적들이 배를 버리고 육지로 도망가는 일이 빈번하므로 바다에서 싸우기로 하였다.

8일 우리의 연합함대는 건내량의 적을 보고서 일부러 후퇴하여 바다로 유인하였다. 적선은 의기양양하여 한산도 앞 바다까지 뒤쫓아 왔다. 이바

다는 상당히 넓은 곳이기도 하지만 만일 적이 배를 버리고 한산도로 도망간다 하더라도 한산도는 조그마한 섬이므로 쉽게 토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이에 이순신은 후퇴하는 속도를 조절하면서 적선이 일렬로 서도록 유도한 다음 갑자기 명령을 내려 급선회해서 마치 학의 날개와 같이 전개면서 전선을 좌우에서 포위 공격하는 학익진(鶴翼陣)을 구사하였다. 이로써 왜선 73척 중 59척을 나포, 또는 격파하는 대승을 거두었다.

한산도 해전에서 대승리를 거둔 우리 함대는 휴식을 취한 다음에 7월 10일 안골포(창원시 태동면 안골리)에 남아 있는 적을 소탕하러 나갔다. 안골포 해전에 임한 이순신의 계획은 이러하였다. 전라우수영군은 가덕쪽, 즉 안골포 바깥 바다에 포진하여 혹시 부산방면에서 올지도 모를 적의 구원함대를 경계하고 있다가 전투가 시작되면 북병선만 남겨두고 전투에 가담하도록 하고, 안골포 공격은 전라좌수영군이 담당하되 전투능력이 없는 경상 우수영군은 전라좌수영군의 뒤를 따라오도록 하였다.

안골포에 이르러보니 적선 42척이 정박하고 있었다. 안골포의 지세가 좁고 수심이 얕아서 많은 배가 전투하기가 매우 불편하였는데, 왜군들은 모두 육지로 올라가서 대항하고 있었다. 넓은 바다로 유인하려 애를 썼으나 그들은 이미 한산도 패전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정면으로 싸우려 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 함대는 하루 종일 교대로 공격하여 적선 30척을 불사르고 해질 무렵에야 철수하였다.

한산도 해전은 양군의 우열을 결판지은 대회전이었다. 그래서 행주전투, 1차 진주성전투와 더불어 임란 3대첩이라 일컫는다. 특히 한산도 해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순신이 신출귀몰한 학익진을 구사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영국의 해전사 연구가인 밸러드는 “해군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이 함선의 기동이 종이 위에서는 간단한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나, 해군 장교는 그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 것이고, 또한 이 기동이야말

로 숙련된 함대의 표본으로 판단할 것이다”라고 극찬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인 헬버트는 “이 해전은 한국에 있어서의 살라미스 해전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일본 침략군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었다”라 단정한 바 있다.

또한 유성룡은 《징비록》에서 이 해전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대개 왜적들은 본래 수륙이 합세하여 서쪽으로 쳐내려 오려고 하였는데, 이 한번의 해전으로 마침내 그 한 팔이 끊어져 버린 것과 다름없이 되었다. 따라서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가 비록 평양을 빼앗았다고 할지라도 그 형세가 외로워서 감히 더 전진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국가에서는 전라도와 충청도를 보전할 수 있었고 나아가서 황해도와 평안도의 연안지역까지 보전할 수 있었으며, 군량을 조달하고 호령을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라의 중흥이 이룩될 수 있었다.” 한산도 해전이야말로 나라의 운명을 다시 바꾸어 놓은 대승리였던 것이다.

3) 부산포 해전

우리 함대는 거둬진 해전의 승리로 경상도에 이르는 남해안의 제해권을 완전 장악할 수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적의 교두보인 부산을 공격하는 일만 남았다. 전라 좌·우수영 연합함대는 적의 심장부인 부산포를 공격하기 위해 4차 출정의 길에 올랐다.

8월 24일 오후 4시경 좌수영에서 합류하여 출발한 우리의 연합함대 166척은 25일에 삼천포 앞 바다를 거쳐서 당포에 이르러 경상 우수영군과 합류하고, 진군을 계속하여 8월 29일 낙동강 하류에 도착하였다. 낙동강 어구를 수색하던 중 장림포(부산시 강서구 신호동) 바다 가운데에서 낙오된

적선 6척을 만났는데, 우리 함대를 보고서 배를 버리고 물으로 도망하려는 것을 경상 우수영군이 공격하여 불태웠다.

우리의 연합함대는 9월 1일 새벽 가덕도를 출발하여 아침 8시경에 화준구미에서 적선 5척, 다대포에서 8척, 서평포에서 9척, 그리고 절영도에서 2척 등 모두 24척을 격파하고 부산포(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앞 바다에 이르렀다. 이 때 부산포 선창 동편에는 왜선 470여 척이 줄지어 있었고, 왜군들은 주로 언덕을 이용하여 대응할 태세를 보이고 있었다. 우리 수군들도 적의 대선단을 보고 일시 주저하였으나, 이순신의 명령과 함께 160여 척의 우리 함대가 장사진으로 공격을 개시하여 적선 100여 척을 불태우고 격침시켰다.

부산포 해전은 가장 격렬한 전투였다. 이 전투에서 이순신이 가장 아끼던 녹도만호 정운의 전사를 비롯하여 전사자 6인, 부상자 25인이 발생하였다. 그렇지만 이 전투를 통해서 적군의 해상 근거지가 완전 소탕되어, 적들은 육지에 쌓은 왜성(倭城)에 들어가 농성하며 간헐적으로 약탈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따라서 이후의 해전은 소규모적인 전투에 그쳤고, 육지로 상륙하여 왜적을 토벌하는 상륙전의 양상을 띠기도 했다. 웅포 해전(진해시 제덕동, 1593. 3. 3.~4. 3.), 당항포 2차 해전(1594. 3. 4.), 장문포 해전(1594. 9. 29.)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1593년 7월에 이순신은 수영을 여수에서 한산도로 옮겨서 경상도에서 적선의 통행을 차단하였고, 8월에는 3도수군 통제사가 되어 3도(전라 좌도, 전라 우도, 경상 우도)의 수군을 총괄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3. 이순신의 옥사와 칠천량 해전의 참패

1) 강화회담과 결렬

육지에서 일본군의 북상은 그야말로 파죽지세였다. 1592년 4월 14일에 부산포에 상륙한 일본군은 겨우 20일 만인 5월 3일에 서울에 입성하였고, 60일 만인 6월 13일에 대동강을 건너 평양에 입성하였다. 원래 일본군의 북상은 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하여 수륙 양면으로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이순신의 수군에게 연전연패하여 제해권을 빼앗김으로써 그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다. 곡창지대인 호남을 점령하여 군량미를 현지 조달하려는 계획도, 제해권 상실과 의병들의 항거 때문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에 초조해진 일본군은 진군을 계속하면서도 한편으로 강화교섭을 제안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군이 처음 강화교섭을 제안한 것은 평양 점령 직전인 1592년 6월 9일이었다. 해전에서 이순신이 연전연승하는 기세에 놀라서 처음으로 일본군에서 타협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다. 그때 일본의 승려 현소(玄蘇)와 조선의 이덕형(李德馨) 사이에 첫 대면이 이루어졌으나, 강화의 조건으로 퇴군을 주장하는 우리 주장을 거절함으로써 협상은 결렬되었다.

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연승을 거듭 거듭과 함께 6월 15일에는 조승훈(祖承訓)을 최고 지휘관으로 삼은 명(明)의 1차 원병이 파병되어 왔다. 그리고 7월에는 비록 실패하긴 했지만 명군이 평양탈환작전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에 더욱 다급해진 일본군은 명에 강화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8월 29일에 평양에서 명의 심유경(沈惟敬)과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사이에 화의 교섭이 이루어졌으며, 50일간 현 상태에서 서로 공격하지 않

고 각자 본국의 지침을 받아 화의 교섭을 진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화의 교섭이 지지부진하던 중 12월 25일에 이여송(李如松) 제독을 총지휘관으로 삼은 명의 2차 원군이 파병되어 왔고, 1593년 1월 6일부터 평양 탈환작전이 개시되어 4일 만에 평양을 탈환하였다. 그리고 2월 12일에는 서울 인근의 행주성에서 권율의 군대가 일본군을 대파하는 개가를 올렸다. 이렇게 되자 일본군은 2월 말에 철수하여 서울로 집결하기 시작했고, 4월에는 심유경과 고니시 유키나가 사이에 화의 교섭이 서울에서 재개되었다. 그리하여 왜군은 4월 18일부터 서울에서 철수하여 남해안으로 집결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심유경 등은 5월 23일에 고니시 유키나가와 함께 일본으로 가서 나고야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 협상을 재개하였는데, 여기에서 도요토미는 7개항을 요구하였다. 그 중에서 특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명나라 공주를 일본의 후비로 보내라는 것과 조선의 8도 중 4도를 할양하라는 것이었다. 더 이상 협상이 진전되기 어려운 가운데, 심유경이 제멋대로 명과 일본의 양국을 속여가면서 중재하여 협상을 억지로 진전시켜 갔다. 그리하여 결국 1596년 5월에 명 황제는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였고, 8월에 도요토미는 그들을 접견하였는바, 양자의 생각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이로써 결국 4년 간 지루하게 끌여오던 강화 교섭은 완전 결렬되었고, 분노한 도요토미는 모든 강화 교섭을 파기하고 그해 12월에 조선 재침의 명령을 하달하기에 이르렀다.

2) 이순신의 옥사(獄事)와 정유재란의 발발

명과 일본 사이에 강화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이순신은 양면적으로 고

초를 겪었다. 명에서는 강화가 진행되는 중에 조선 수군이 왜군을 계속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강화를 방해하는 일로 간주하여 공격을 중지하라고 했던 반면에, 조선 정부에서는 일본군을 공격하지 않는다고 나무라면서 독전하였다. 일본에서는 이를 교묘하게 이용해 조선을 재침하기 전에 이순신의 제거를 위한 공작을 진행시켰다. 해전의 걸림돌을 미연에 제거하려는 속셈이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자신의 부하인 요시라(要時羅)를 경상우병사 김응서(金應瑞)에게 밀파하여 허위정보를 제공하였다.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가 7천의 군사를 이끌고 대마도에 도착해서 동풍이 불면 거제로 갈 것이니 미리 방비를 해두면 가토를 붙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정보였다. 김응서는 가토를 잡을 기회가 왔다고 여기고 곧바로 조정에 보고했고, 조정에서는 3도수군통제사 이순신에게 수군 파견을 하교하였다. 그러나 이순신은 일본이 제공한 정보를 그대로 믿을 수 없었고, 그것이 사실일 경우에는 반드시 복병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병력을 출동시키지 않았다. 자신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것을 알게 된 요시라는 가토 군이 1월 14일에 이미 조선에 상륙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가토 기요마사 군이 7일 간이나 해상에 머물다가 21일에 예정대로 상륙하였다' 고 거짓으로 알려오면서 조선 수군이 출동하지 않았음을 힐책하였다. 이에 선조는 대노하고 가토를 사로잡을 좋은 기회를 놓친 죄를 내세워 1597년 2월 6일에 이순신을 압송하여 3월 4일에 감옥에 가두고 원균을 후임 3도수군통제사로 임명하였다.

조선 조정이 이순신을 질시했던 것은 군사 작전상의 견해 차이에서 연유하는 바도 있었다. 조정은 이순신으로 하여금 일본군의 군수보급로인 부산 앞 바다에 대해 선제공격할 것을 하달하였던데 반해, 이순신은 연안 지역에 일본군의 거점인 왜성(倭城)들이 즐비해 있는 상황에서 수군만으로 이를 공격한다는 것은 무리한 일임을 설파하면서, 수군과 육군이 합동

으로 왜 수군의 근거지를 공격할 것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여기에 충청병사 원균은 조선 수군이 왜 수군과 결전하는 일에 하등 겁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순신을 더욱 난처한 상황으로 몰아갔다. 이러한 군사 작전상의 견해 차이로 불거진 조정과 이순신 사이의 틈새로 일본군의 공작이 작용했던 것이고, 결국 이순신이 하옥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1596년 12월과 1597년 정월 사이에 일본군의 선봉인 고니시 유키나가와 가토 기요마사 등은 다대포(동래), 부산포(부산), 서생포(울산) 등지에 왜성을 재구축하였고, 3월 중순부터 일본군의 주력 141,500여 명이 계속 바다를 건너왔다. 4월경에 일본 수군은 거제도 등을 거점으로 남해안 일대의 해상에서 작전을 폈으며, 7월에는 일본 육군과 합동으로 통제사영이 있는 한산도의 조선 수군을 공격하였다. 정유년에 들어 전쟁은 다시 불붙기 시작했던 것이니, 이를 흔히 정유재란이라 칭한다.

3) 칠천량(漆川梁) 해전의 참패

다시금 일본군이 몰아쳐 건너오자 조선 조정은 다시 조금해졌다. 그리하여 조선은 먼저 명에 원군을 요청하였으며, 6월 초까지 5만 5,000여 명의 명군이 조선에 들어와 남원·성주·전주·충주 등지의 육상 요충지에 배치되었다. 그리고 수군으로 하여금 부산 앞 바다를 선제공격을 재촉하였다.

조정의 재촉을 받은 3도수군통제사 원균은 6월 18일부터 조선 수군 200여 척을 이끌고 한산도 통제사영을 출항하여 부산 앞 바다를 건너는 일본군을 찾아 나섰다. 다음날에 안골포의 왜 수군을 찾아내 이를 급습하고 가덕도로 진격하자, 일본군은 배를 버리고 해안과 섬에 상륙하여 대항하다

가 인접 근거지에 주둔해 있던 시마즈 요시히로(島津義弘) 군대의 지원을 받아 반격을 가해왔다. 이 전투에서 원군이 이끈 조선 수군은 큰 피해를 보고서 한산도로 귀환하고 말았다. 그리고 7월 8일 원군은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서 경상우수사 배설(裴榘)로 하여금 웅천(熊川)에 웅거해 있던 왜군을 다시 공격케 하였으나 또 패하였다.

이에 도원수 권율은 원군을 불러 태형(笞刑)을 가하며 질책하였고, 이에 분격한 원군은 7월 14일에 부산의 일본군 본진을 급습하기 위해 휘하 전함 160여 척을 이끌고 출항하여 부산 근해에 이르렀다. 당시 부산 해역에는 600여 척의 일본군 함대가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한산도에서 부산에 이르는 남해 연안의 곳곳에서 조선 수군의 동태를 감시하고 있었다. 원군은 사전에 정보를 탐지하고 기다리던 일본군의 교란작전에 말려들어 고전하다가 되돌아오던 중 가덕도에서 적군의 기습을 받아 400여 명을 잃고 칠천량으로 이동하여 무방비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일본군은 조선 수군에 대한 기습계획을 세워 여러 수군 장수들이 7월 14일 거제도 북방으로 이동한 뒤 15일의 달밤을 이용하여 일제히 기습작전을 전개하였다. 당황한 원군과 여러 장병들은 갑작스런 적의 공격에 대항하였으나 당해내지 못하고 대부분의 전선들은 분파(焚破)되었고, 전라 우수사 이억기와 충청수사 최호 등 수군 장수들도 대부분 전사하였다. 원군도 선전관 김식 등과 함께 육지로 탈출하였으나 일본군의 추격을 받아 전사하였다. 이로써 조선의 삼도수군은 일시에 무너졌고, 일본군은 남해 일원의 제해권을 장악하여 수륙병진(水陸竝進)의 호기를 맞게 되었다. 해상에서 서해로의 진출을 시도하였고, 육상에서는 남원 및 전주 등지로 진군하기에 이르렀다. 조선은 다시금 최악의 위기상황에 빠져들어 갔던 것이다.

4. 절망에서 이끌어낸 두 해전의 승리: 명량해전과 노량해전

1) ‘천행(天幸)’의 승전: 명량해전

이순신은 4월 1일 투옥된 지 28일 만에 특사로 풀려 나와 권을 막하에서 백의종군하고 있었다. 이후 전란은 더욱 치열해져 갔고, 7월 중순 칠천량 해전의 참담한 패배로 조선은 다시금 최악의 위기상황을 맞게 되었다. 칠천량 해전의 참패를 보고 받은 선조는 병조판서 이항복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8월 3일에 이순신을 3도수군통제사로 전격 재임명하여, 전란을 수습하도록 하였다.

어명을 받은 이순신은 곧바로 군관 9명과 군사 6명만을 대동하고서 출발하여 8월 8일에 순천에 당도하였다. 통제사 본영이 있던 한산도로 향하지 않고 전라좌수군의 근거지인 순천으로 향한 것은, 본영이 이미 적의 수중에 있었을 뿐 아니라, 원래 이순신 수군력의 기반이 전라좌수영에 있었음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이순신은 순천에서 정예병 60여명을 모아 무장시키고, 14일에 이웃 고을인 보성에 이르러 120명으로 전력을 보강하였다. 그리고 18일에 장흥 회령포(會寧浦, 지금의 장흥군 대덕읍 회진)에 이르러 9척의 전함을 수습하고, 여기에서 선편으로 해남반도를 돌아 29일에 진도의 벽파진에 이르러 전라우수사 김억추(金億秋)에게 명하여 전선을 수습 정비케 하여 3척의 전함을 보태어 도합 12척의 전함을 거느리게 되었다. 여기에 가까운 고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100여 척의 피난선을 이끌고 이순신에게 운집하여 전력 보강에 도움을 주었다.

칠천량 해전에서 대승을 거둔 일본군은 울산의 왜성(竹島城)에 모여 회의를 열고, 육상으로 남원·전주를 거쳐 호남·호서지방을 석권하고, 해상으로는 전라도 해역을 거쳐 충청·경기로 북상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칠천량 해전으로 조선의 수군을 거의 붕괴시킨 것으로 판단한 일본군은 우선 육로로 이전 임진왜란 때엔 전혀 발을 들여놓지 못했던 전라도 점령에 전력투구하여, 전라도의 최고 요충지인 남원 공략에 공을 기울였다. 사방으로 남원에 집결하여 8월 14일부터 남원 대공세에 나섰다, 결국 16일에 남원을 함락시킨 후에 곧바로 전주로 진군해 올라갔다.

당시 이순신은 또 하나의 적과 싸워야 했다. 그것은 이른바 '해군 폐지론'이었다. 조정에서 조선 수군의 기반이 거의 붕괴된 것으로 판단하여 이순신에게 아예 수군을 폐지하고 육지에 올라가 의병과 합류하여 싸울 것을 종용했던 것이다. 경상우수사 배설 등도 이에 동조하여 배를 버리고 물으로 올라가 지상군과 힘을 합하여 싸우는 도리밖에 없음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이순신은 장계를 올려 만약 수군을 전폐한다면 적군이 호남 연안을 따라 북상하여 한강까지 단숨에 진출할 것임을 경고하면서 단호히 반대하였다.

해상 진출을 위한 일본 수군의 움직임은 비교적 늦은 8월 하순부터 시작되었다. 일본군이 호남 점령을 위해 육전에 전념하느라 해상 공략을 비교적 소홀히 했던 것이다. 이는 이순신이 진도에서 전라도의 수군을 모아 재정비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한 요인이 되었다.

8월 28일에 일본 전선 8척이 처음 출현하였고, 이순신은 이를 맞아 격퇴시켰다. 일본군이 남해안 일대를 침범하고 서해로 진출하기 위한 본격적인 공세를 취하기 시작한 것은 9월 중순이었다. 이 때 일본선 200여 척이 해남 어란포에 당도했다는 보고가 들어오자, 이순신은 9월 15일에 벽파진에 설치한 진(鎭)을 우수영으로 옮기고, 명령을 돌뚝의 급조류를 활용한

작전 구상에 들어갔다. 과연 9월 16일 아침에 133척의 왜선은 어란포를 떠나 순조(順潮)의 흐름을 타고 명랑을 향해 맹렬하게 돌진해 왔다. 기회를 엿보던 조선 수군은 순조가 역조(逆潮)로 바뀌면서 물살이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총공격을 감행하여 순식간에 30여 척을 침몰시키는 승리를 이끌어냈다. 이것이 유명한 명랑해전이다.

북상을 거듭하던 일본 육군이 9월 6일에 직산 소사전투에서 대패 당함으로써 더 이상의 진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9월 16일 명랑해전에서 해군마저 충격적인 일격을 당했던 것이었다. 이때부터 일본군은 전의를 상실하고 10월부터 퇴각하여 울산·양산·사천·남해·순천 등지의 남해안 일대에 축조해 놓은 '왜성'에 집결하여 농성을 시작하였다.

2) 고금도에서 수군을 재정비하다

명랑해전은 비록 승전이었으나 이순신이 스스로 '천행(天幸)'이라 평했을 정도로 아슬아슬한 승리였다. 그리하여 이순신은 명랑해전 승리 직후에 후퇴를 거듭하여 지도와 위도를 거쳐 9월 21에는 고군산도에까지 퇴군하였다. 비록 30여 척을 침몰시켜 일본 수군을 일단 물리치긴 했지만, 수백 척에 달하는 일본 함대가 언제 다시 반격해 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일본군의 공격 조짐이 없음을 확인한 이순신은 조심스럽게 범성포, 지도를 거쳐 10월 9일에는 우수영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 수군의 진영은 여전히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했고, 일본 수군의 대규모 공격이 염려되는 상황은 계속되었다. 이에 이순신은 우선 일본군의 직공(直攻)을 피하고 숨을 돌려 수군력의 보강을 위해서, 10월 29일에 우수영에서 서북방면으로 약간 후퇴하여 영산강 하구의 목포 앞바다에 위치한 작은

섬 보화도[寶花島, 지금의 목포 고하도]로 본영을 옮겼다. 전진을 위한 일 보 후퇴였던 셈이다.

보화도에서 겨울을 나면서 수군 전력을 보강한 이순신은 1598년 2월 17일에 다시 진도의 울돌목을 지나고 해남반도를 돌아서 완도의 고금도에 까지 진출하여 이곳에 본영을 두었다. 유성룡이 쓴 《징비록》에 의하면 고금도에 처음 진주할 때 군사 8천 명이 있었다 하니, 보화도에서의 군사력 보강이 상당 수준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고금도에 옮겨온 후에 이순신이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것은 군량의 확보였다. 그리하여 그는 백성을 모아 고금도와 이웃한 섬들, 그리고 흥양(지금의 고흥)과 광양의 둔전에서 농사를 짓게 하였다. 그리고 해로통행첩(海路通行帖)을 발행해 주고 통행 선박으로부터 쌀을 바치게 했는데, 호응이 좋아 10여 일만에 1만여 석을 모을 수 있었으며, 많은 백성들이 고금도에 몰려들었다고 전한다. 당시 접반사(接伴使)로 파견된 이덕형은 장계를 올려, 고금도에 들어간 지 4개월도 안되어서 백성과 군량의 수요가 한산도의 그것보다 더 충실하게 된 사정을 적어 보고하고 있다.

이순신의 조카 이분(李芬)이 편찬한 이순신의 행록(行錄)에서도 “고금도는 강진의 남쪽 3십여 리에 있는데 산봉우리가 첩첩이 싸여 있고 형세가 뛰어났으며 옆에는 농장이 있어서 매우 좋다. 충무공이 백성을 모집하고 경작하여 군량을 보급하였다. 이 때 군세를 떨치니 남쪽 백성들로 충무공에 의지하여 온 사람이 수만 가(家)에 이르렀다. 군대의 위세가 장대함은 한산도 때보다 열 배나 되었다” 고 기술하고 있어, 당시 고금도 조선 수군의 위세를 짐작케 해준다.

이처럼 강력한 수군력과 충분한 군량을 갖춘 고금도에 명의 수군도독 진린(陳璘)이 5천여 명의 수군을 거느리고 찾아온 것은 그 해 7월 달이었다. 그는 거만하고 성정이 매우 사나운 인물이었지만, 이순신이 대소의 공

을 모두 그에게 돌려주고 매사 그를 성심으로 대해주니, 그도 이순신을 진심으로 신임하여 별다른 마찰 없이 조·명 연합함대가 무난히 구성될 수 있었다.

3) 최후의 승전: 노량해전

육전과 수전에서 잇따라 패하면서 전의를 상실한 일본군이 총퇴각을 결정하게 한 사건이 일어났으니, 1598년 9월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죽음이었다. 일본군이 총퇴각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이순신은 명의 진린 도독과 함께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가 진을 치고 있던 순천의 왜성(예교성) 앞 바다에서 퇴로를 차단하고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였다. 처음 진린은 고니시 유키나가에 제공한 뇌물을 받고 화의를 받아들일려고 했으나 이순신의 완고한 태도에 감복하여 결국 대토벌전에 동참하게 된 것이었다.

조·명 연합 함대 5백여 척은 마침내 11월 10일을 기해 노량해협을 향해 출동하였다. 그 즈음에 사천(泗川)에서 명군을 물리치고 창선도(昌善島)로 철수해 있던 왜장 시마즈 요시히로(島津義弘)는 고니시 유키나가의 원군 요청을 받고 서진(西進)하여 노량으로 향하고 있었다. 11월 18일 밤에 조·명 연합 함대는 노량 앞 바다에 이르러 동쪽으로 향해하면서 군령에 따라 좌우의 양쪽으로 갈라섰다. 진린의 함대는 좌측으로 곤양 죽도 부근에, 이순신의 함대는 우측으로 남해도 관음포 부근에 각각 나뉘어 경계태세를 갖추면서 적군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한밤중이 되어서야 적의 함대가 사천 남쪽을 거쳐 서쪽 노량 방면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보고받고서, 좌우로 갈라져 있던 조·명 연합함

대는 노랑해협을 향해 일제히 진군하였다. 다음날 19일 새벽부터 피아(彼我)의 1천여 척이 어울린 치절한 해전이 펼쳐졌으며, 기선을 제압한 조·명 연합함대가 일본 수군을 협공하여 적선 태반을 분파(焚破)하였다.

당황한 적선이 남해 관음포로 달아났다가 퇴로가 없음을 알고 다시 나오는 것을 보고, 이순신은 이들을 깨부수기 위해 친히 복채를 잡고 독전하였다. 이 혼전의 와중에서 적의 유탄이 이순신의 왼쪽 겨드랑이를 관통하여 최후의 승전을 눈앞에 두고서 애석하게도 이순신은 숨을 거두고 말았다. 7년간 지속된 왜란은 노랑해전을 끝으로 이순신의 전사와 함께 막을 내렸으니, 이순신을 일컬어 구국(救國)의 해양영웅이라 칭해도 좋을 것이다.

5. 해양방어에 무심한 국왕, 버림받은 해양영웅

1) 이순신의 해전 승리와 해상의병(海上義兵)

1592년 4월 13일 부산 상륙. 4월 30일 선조, 서울을 버리고 몽진을 떠남. 5월 3일 서울 함락. 6월 15일 평양 함락. 6월 22일 선조의 의주 도착. ...

이 정도만으로 임란 발발 초기에 급박하게 돌아가던 전황을 실감할 수 있다. 만약 당시에 선조가 압록강을 넘어 중국 땅으로 건너갔다고 한다면 조선은 상징적으로 멸망한 것이 되고, 망명정부의 신세로 전락했을 것이다. 이 점에서 유성룡 등의 만류로 압록강을 건너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었다고 할 수 있다. 유성룡은 조선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이순신을 천거했으니, 나라를 두 번 구한 셈이 된다.

이순신이 옥포해전에서 첫 승리를 거둔 5월 7일에 선조 일행은 평양을 향해 바삐 발길을 옮기던 중이었다. 이후 해전에서 이순신이 연전연승을 거두고 육상에서도 의병부대의 승전보가 이어졌으며, 여기에 명나라 군대까지 참전하게 되면서, 국멸(國滅)이라는 최악의 위기상황은 모면할 수 있었다. 당시 이순신의 해전 승리가 없었다고 한다면, 조선이 1910년을 기다리지 않고 1592년에 국치(國恥)를 경험하지 않았을 것이라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그런 만큼 이순신의 해전 승리가 가지는 의미는 큰 것이다.

이순신이 해전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일차적으로 이순신의 탁월한 역량이 발휘되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간 이순신의 신출귀몰한 전략, 사즉필생(死則必生)의 군인정신 등이 강조되었고, 이순신은 영웅을 넘어 성웅으로 추앙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 나라를 구한 해전의 승리가 한 개인의 탁월한 역량만으로 가능했다고 보는 것은 난센스이다. 이 점에서 최근에 이순신을 도와 자발적으로 해전에 참전한 연해민들의 동향에 주목하고, 이를 ‘해상의병’의 개념으로 접근한 조원래 교수의 문체제기는, 임란영웅 이순신 자신도 바라는 바일 것이다.

‘해상의병’은 유생·전직무관·승려층이 주도하여 바다에 익숙한 농어민과 천민층을 이끌어나 이순신 휘하의 관군과 혼연일체가 되어 해전에 직접 참전하거나, 해안의 주요 요해처를 방어하는 등 눈부신 활약을 하였다. 이들에 대한 이순신의 진심어린 평기는 임진왜란 발발 2년 후에 이순신이 올린 다음의 장계에 잘 나타나 있다.

이번 난리통에 자신들의 편안함을 돌보지 않고 의기(義氣) 분발하여 군사를 모아 수백여 명을 인솔해와 나라의 수치를 씻으려 함이 참으로 가상합니다. 해상(海上)에 진을 친 후 2년 동안 군량을 스스로 준비하여 두루 공급하면서 어렵게 이어던 그들의 노고는 관군보다 배나 더함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 수고로움을 꺼리지 않고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

특히 겨우 12척의 전함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백 척의 적군을 상대로 ‘기적’ 같은 명량해전의 승리를 이끌어낸 것은, 이순신을 돕기 위해 100여 척의 피란선을 이끌고 모여든 어민들과 연합작전을 펼 성과물이었던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순신이 그의 친지에게 보낸 서간문에서 ‘만약 호남이 없었다면 나라도 없었을 것이다’ [若無湖南 是無國家라 했던 것은, 이순신 자신이 호남 연해민들이 일으킨 ‘해상의병’의 공적을 구국(救國)이라는 명목으로 평가한 것이었다. 호남의 ‘해상의병’은 이순신을 절대 신뢰하며 따랐고, 이순신은 이들의 공적을 있는 그대로 아낌없이 인정해주는, 그야말로 혼연일체의 관계가 되어 해전에서 연전연승의 전과를 일구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2) 해양영웅을 ‘왕따’ 시킨 선조(宣祖)의 몰이해

임진왜란을 맞아 조선의 국왕 선조가 보여준 행태는 지극히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백성들의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 일신의 안위를 위해 서둘러 몽진을 떠나버렸고, 압록강을 넘어서 안전한 중국 땅으로 도주하려는 마음이 앞섰던 국왕이었다. 그런 선조가 백성들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던 이순신을 미워하고 그를 배척한 것은 무척이나 역설적인 측면이 있다. 당시 기득권에 연연하던 조정의 중신들 중에는 한발 앞서 선조의 이순신 배척에 동조하는 무리도 많았다.

백성들의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던 선조와 중신들이 이순신을 배척한 것은 이순신이 연해민들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고 있던 것을 질시했기 때

문일까? 그런 측면도 물론 있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선조와 중신들의 해전에 대한 몰이해와 무시하는 심정이, 자신의 의지대로 묵묵히 해전을 진두지휘하던 이순신의 강직한 성품과 충돌한 측면도 있었다. 특히 해상전략에 관한 한 이순신은 고분고분하지 않았고, 그의 의지는 지엄한 어명(御命)으로도 꺾지 못했다. 이것이 그들의 미움을 산 이유였을 수도 있다. 세가지의 예를 살펴보자.

첫 번째 예는 이러하다. 임란이 발발한 직후에 경상우수영 원균이 전라좌수영 이순신에게 간절하게 구원을 요청하였고, 조정에서도 긴급히 지원할 것을 하명하였다. 그럼에도 이순신은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서울이 함락당한 그 이튿날인 5월 4일에야 출전을 결행했다. 육해군이 무력하게 무너지고 있던 당시 상황에서 준비 없이 가볍게 움직여 자신 휘하의 해군마저 무너진다면 국가는 끝장이라는 판단이 이순신에게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일은 이후 이순신이 해전에서 연전연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조가 이순신을 우유부단하고 용기 없는 장수라는 편견을 갖게 하였고, 원균이 이순신을 철저하게 증오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두 번째 예는 이러하다.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가 자신의 부하인 요시라(要時羅)를 경상우병사 김응서(金應瑞)에게 밀파하여, 자신과 불화(不和) 관계에 있는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가 대마도에 도착하여 7천의 군사를 이끌고 곧 거제로 갈 것이니 미리 방비를 해두면 가토를 붙잡을 수 있을 거라는 정보를 알려주었다. 김응서는 곧 조정에 보고하였고, 조정은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에게 수군 파견을 하교하였다. 그러나 이순신은 병력을 출동시키지 않았다. 그런데 가토 기요마사가 군대를 이끌고 상륙하자, 선조는 대노하여 이순신을 압송하여 하옥하고 원균을 후임 삼도수군통제사로 임명하였다. 이순신이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은 일본이 제공한 정보를 그대로 믿을 수 없었고, 사실일 경우에도 반드시 복병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으나, 선조에게 우유부단하고 불성실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결과만을 낳고 말았다.

세 번째 예는 이렇하다. 원균의 칠천량해전 참패로 조선의 해군력이 거의 붕괴된 상황에서 이순신이 다시 삼도수군통제사로 복귀하여 명량에서 힘겨운 일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때 조정에서 해군을 포기하고 육상의 의병과 합류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다. 이순신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순신은 명량해전에서 기적같은 승리를 이끌어 냈다. 선조와 중신들의 머리에 박힌 국명 거부라는 패색죄는 해전의 승리로조차도 완전히 씻어내지 못했던 것 같다.

선조는 조정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따랐던 원균에 대해서는 용맹한 장수로 높이 치켜세웠던 반면에 사사건건 명령을 어긴 이순신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는 장수라는 생각을 굳혔던 것 같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국명을 어긴 것이 승리의 요인으로 작용하곤 했으니, 전쟁 중에 승장을 징죄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수록 선조의 이순신에 대한 미움은 더해갔을 것이다. 그러던 중 가토 기요마사의 상륙을 저지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가토가 상륙함에 이르자 선조는 즉각적으로 이순신을 압송케 하였던 것이고, 후임 통제사 원균이 조선의 해군력을 전멸의 길로 빠뜨리자 어쩔 수 없이 이순신을 재등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선조와 이순신의 연속된 악연이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선조의 바다에 대한 몰이해도 크게 작용하였을 거라 생각한다.

3) 이순신 자살설과 그 의미

이순신은 마지막 해전인 노량해전 도중에 적탄을 맞아 전사하였다. 이

순신의 죽음이 군중에 알려지지 않았으니, 결국 마지막 해전도 죽은 이순신의 독전으로 승리한 셈이 되었다. 그런데 당대에 해괴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이순신이 자살했다는 소문이다. 이 소문은 근자에 ‘이순신 자살설’로 다시 살아나고 있다.

그러나 그간의 연구 결과에서도 밝혀졌듯이 자살설은 허무맹랑한 것이고 이순신은 나라를 위해 독전하다가 순국(殉國)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숙종 대에 좌의정에까지 오른 이이명(李爾命, 1658~1722)도 이순신이 전사한지 한 세기가 지난 후에도 자살설이 논란이 되고 있음을 전하면서 이는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고 다음과 같이 역설한 바 있다.

공이 죽음으로써 국가에 보답한 것은 진실로 평생토록 쌓아온 충성에서요, 또 진작부터 생사회복을 천명에 맡긴 분이라 나라가 망하면 같이 망하고 나라가 살면 같이 살려 했거늘, 공이 어찌 차마 스스로 죽음을 취하여 길이 국가를 중흥하려는 뜻을 저버렸을까

이순신이 자살했다는 소문은 이처럼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소문이 떠돌았던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이순신을 신뢰하고 따르던 백성들이 이순신과 선조와의 악연을 익히 알고서 그의 전사를 추모하고 선조를 원망하는 한 방편으로 만들어진 민중적 설화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더 추론하자면 소문의 진원지는 이순신을 따랐던 연해민의 입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이순신이 전사한 후에도 최고의 공을 세운 이순신과 자신들에게 냉대만이 가해지고 있었던 현실을 비판하는 의식의 발현으로서도 이해해 볼 수 있겠다.

이후 조선은 여전히 해방(海防)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연해민에 대한 천시의 눈초리도 거두지 않았다. 이를 떠올려 본다면 이순신의 자살

설에 내포된 의미에 대한 추론은 막연한 상상만은 아닐 듯싶다. 그렇다면 이순신 자살설 자체를 사실이 아니라고 정색하여 반박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터이고, 이를 통해서 민중들의 거짓 없는 마음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6. 일본과의 국교 재개와 조선통신사

1) 국교 재개

일본의 조선 침략으로 촉발된 ‘임진왜란’의 7년 전쟁은 ‘조선-명-일본’을 휩쓸리게 한 ‘동아시아대전’이라 할 만한 것이었다. 그만큼 이 전쟁이 세 나라에 끼친 영향도 막대하였다. 중국에서는 명·청이 교체되는 대변동을 가져왔고, 일본에서는 새로운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의 시대가 열렸다. 그럼에도 막상 비참한 전쟁의 무대가 되었던 조선에서는 선조 정권이 그대로 유지되어 이렇다할 정치적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역사적 아이러니라 할 만하다.

도쿠가와 막부의 새로운 집권자가 된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는 불안한 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대명(大名)들에게 과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이 때문에 조선과의 국교 재개를 절실히 원했다. 1600년부터 대마도의 도주인 종의지(宗義智)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지시로 조선과의 평화교섭에 나섰지만, 일본에 대한 적개심에 불타있던 조선은 이를 단호히 거부하였다. 종의지가 세 차

례에 걸쳐 조선에 보낸 사신들은 억류되거나 죽임을 당하여 아무도 돌아가지 못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일본의 국교 재개 요청에 조선은 서서히 마음이 움직여, 1604년 9월에 일본에 '탐적사(探賊使)'를 파견하여 일단 '적'의 동정을 살피기로 하였다. 탐적사로서 일본에 건너간 승려 유정과 손문익 등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측으로부터 자신은 조선 침략전쟁에 전혀 관계하지 않았다는 성의 있는 설명을 듣고, 일본에 잡혀와 있던 포로 1,390명을 인계받아 돌아왔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조선은 결국 1606년에 국교 재개를 요청하는 국서를 일본이 먼저 보낼 것과 조선 선왕의 능묘를 파헤친 범인을 조선에 인계할 것 등을 국교 재개의 조건으로 제시하였고, 일본 측이 이에 신속히 응해오자 조선은 종전(終戰) 10년 만인 1607년 정월에 정사 여우길, 부사 경섭, 서장관 정호각 등 467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사절단을 일본에 파견함으로써, 정식으로 국교를 재개하기에 이르렀다.

2) 조선통신사의 파견

1404년(태종 4) 조선과 일본 사이에 교린관계가 성립하면서, 조선은 일본에 '통신사(通信士)'를, 일본은 조선에 '일본국왕사(日本國王使)'를 파견하여, 조선 국왕과 일본 막부장군 사이에 외교적인 현안 해결을 시도하였다. 임진왜란 이전에 조선은 총 65회의 사절을 일본에 보냈고, 일본은 총 5,000여 회의 사절을 조선에 보내왔다. 당시 조선의 사절 파견 목적은 주로 왜구의 금지를 요청하기 위함에 있었으며, 일본의 사절 파견 목적은 통상을 통한 경제적 욕구의 실현에 있었다. 따라서 사절 파견에서 조선은 소극적이었고 일본은 적극적이었다. 일본은 가능한 많은 사절을 조선에

파견하고자 하였고, 조선에 대해서 통신사 파견을 적극 요청하였으며, 통신사에 대하여 국력을 기울인 성대한 의식을 갖추어 접대하였던 것이다.

1607년의 대규모 사절 파견은 임진왜란으로 중단된 조선통신사 파견을 재개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파견한 사절단의 정식 명칭은 ‘회답겸쇄환사(回答兼刷還使)’였다. 일본의 국교 재개 요청에 대한 ‘회답’과 일본에 잡혀있던 조선인 포로의 ‘쇄환’을 주임무로 하는 사절단임을 분명히 한 것이었다. 임진왜란은 ‘납치 전쟁’으로 불릴 정도로 수많은 조선인들이 일본에 포로로 끌려갔으며, 포로의 쇠환이야말로 전후 양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포로의 쇠환 문제가 양국 국교 재개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일본 막부장군의 사절 파견 요청에 대한 ‘회답’과 포로 ‘쇄환’을 목적으로 하는 ‘회답겸쇄환사’ 파견은 1607년 이후 1617년과 1624년에도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이에 대응한 일본의 조선 사절 파견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미 일본이 사절의 상경로(上京路)를 통해 침투하여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을 도발한 것에 대한 응징으로 조선이 일본의 사절 파견을 금지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조선 사절단에 대한 영접은 성대하였다. 당시 일본에 파견되어 있던 서양 무역상들의 견문에 의하면, 일본은 조선의 사절단을 왕자에 준하여 성대하게 영접하였다 한다. 또한 2차 ‘회답겸쇄환사’의 정사(正使)로 파견되었던 오윤겸 등의 견문록에 의하면 일본측은 이들을 위해 관사를 신축하였을 뿐 아니라 식사와 조리도구 등도 청결히 하는 등 접대에 최고의 정성을 기울였다고 전한다.

이러한 일본측의 지극 정성이 거듭되면서 일본에 대한 조선의 적개심과 경계심이 점차 누그러졌던지, 1636년 네 번째로 파견된 사절단부터는 ‘회답’과 ‘쇄환’에 제한하지 않고 막부장군의 습직(襲職)을 축하하는 등의 일반적 선린우호 관계를 실천하는 통신사(通信使)의 성격을 띠게 되었

다. 이후 조선이 일본에 보낸 사절은 총 63회에 이르렀고, 일본이 조선에 보낸 사절은 총 696회에 달하였다. 여전히 일본이 적극적이었고, 조선은 소극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조선통신사의 사절들은 일본에서 방문하는 곳마다 수많은 서화와 시문 등의 작품을 남겼으며, 일본인들은 이들의 문화활동에 열광하여, 조선통신사의 화려한 행렬도를 병풍이나 관화 등에 담아서 오래 간직하고자 하였다. 마치 조선판 ‘한류’를 연상케 한다. 조선통신사의 활동상에 대해서는 조엄(1719~1777)이 1763년 8월에 통신사의 정사로 파견되어 이듬해 7월까지 1년 동안 일본에 머무르면서 경험한 건문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해행총재(海行摠載)》라는 책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3) 조선통신사 파견의 의미

조선은 통신사 파견에 소극적이었다. 전기에는 주로 왜구 금지를 목적으로, 후기에는 주로 포로 쇄환을 목적으로 하여 파견하였다. 따라서 조선의 통신사 파견은 일본과의 적극적인 통상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기 보다는, 일본의 간절한 요청에 마지못해 응하는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조선통신사를 통해서 선진문화의 정수를 경험할 수 있었으며, 통신사에 대응하는 사절단을 조선에 파견하여 경제적 통상의 실익도 챙길 수 있었다. 일본이 사절단 파견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국제적 통상에 대한 일본의 적극성은 조선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일본은 이미 16세기 중엽부터 포르투갈과의 교역을 개시한 이후, 스페인·네덜란드·영국 등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교역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이와 함께 유럽 선교사들이 일본에 들어와 기독교를 활발하게 전교하

여, 17세기 초에는 신도수가 50만 명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임진왜란 중에 위력을 발휘했던 조총(鳥銃)도 포르투갈인이 전래한 화승총을 모방하여 실용화한 것이었다 하니, 일본에 미친 유럽문물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16세기 말부터는 기독교 전래가 유럽인들의 영토확장 수단이라는 인식이 일본사회에 확산되면서, 막부 차원에서 기독교에 대한 탄압을 가하고 쇄국정책을 강행하기도 하였지만, 유럽과의 교역을 완전 금지하지는 않았다. 즉 기독교와 무관하게 통상 업무에 전념한 네덜란드에 한정하여, 입항지를 장기(長崎, 나가사키)와 평호(平戶, 히라토)에 제한·허용함으로써 유럽과의 관계를 제한적으로나마 지속시켜 갔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일본이 조선과의 통상에 적극적이었던 것도, 알고 보면 국제적 통상에 대한 일본인의 강렬한 욕구 때문이었다 할 것이다.

조선의 쇄국정책은 일본에 비해 훨씬 철저한 것이었다. 유럽세계와의 교역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유럽세계의 존재 자체에도 관심이 없었다. 오직 존화양이(尊華攘夷)의 주지학적 관념에 따라 명과의 관계만을 절대시할 뿐이었다. 조선이 일본과의 교역에 소극적이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조선은 임진왜란이라는 비참한 전화(戰禍)를 경험하면서 그동안 강행해온 폐쇄적 쇄국정책을 개방 통상정책으로 전환시킬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조선은 체제의 대변동을 가져온 중국과 일본과 달리 선조 정권을 더욱 강고하게 유지함으로써 새로운 전환의 기회를 영영 놓쳐 버리고 말았다. 조선통신사 파견은 쇄국정책의 기초를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여전히 수세적이고 소극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뿐이었다.

이상으로 주로 '해양세력'의 관점에서 한국 해양사를 개괄하여 보았다. 시대구분을 통하여 한국 해양사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썩 만족스럽지는 않다. 그간 한국사 연구에 해양사의 관점이 서 있지 않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 그나마 한국 해양사의 체계적 정리를 처음 시도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다.

한국사에서 해상세력은 고려의 멸망과 더불어서 '소멸'한다. 조선시대에 들어 공도 및 해양정책으로 말미암아 해양세력의 활동무대인 섬과 바다에서의 삶이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랜 세월 한국사를 이끌어 온 해상세력이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은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겉으로 '소멸'된 것처럼 보일 뿐, 실제 사회 내부에 잠재화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 해상세력의 잠재력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진 국가를 한번은 구출해낸다. 그것은 16세기 말에 일본의 해양침략전쟁인 임진왜란에서 구현되었다. 이 책에서 '한국 해양세력의 형성과 전개'를 임진왜란까지 연장해서 다룬 것은 이 때문이다.

임진왜란을 극복하면서 해상세력의 잠재력은 화려하게 부활되지 못하고, 완전 소진되어 버렸다. 해양에 대한 인식은 천시의 굴레를 뒤집어쓰고 철저하게 소멸의 과정을 거친 연후, 결국 국멸(國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경험한 이후에야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보다.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왕조는 지독한 해금 및 쇄국 정책으로 일관하였다. 일부 해양통상(海洋通商)과 해방(海防)의 필요성을 주창한 선구자가

전혀 없지는 않았으나, 국가의 대세로 이끌어내지는 못하였다. 황당선과 이양선의 출몰 등으로 인해 위기의식에 빠져 우왕좌왕하느라 해양 제패를 앞세운 제국주의 국가들의 양육강식 논리가 우리의 목을 조여 오는 것을 눈치 채지 못했다. 그리하여 결국 20세기에 접어들어 일본의 해양침략으로 국치(國恥)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나라를 다시 찾은 지 60년이 가까워 오지만 우리는 아직도 해양에 대한 인식을 되찾지 못했다. 해양의 관점에서 우리의 역사를 정리하는 일은 해양에 대한 인식을 되찾기 위한 첫 걸음이다. 이 책이 그 조그만 징검다리가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 이 징검다리를 더 정치하게 다듬어 나가는 것은 물론, 임란 이후 오늘에 이르는 시기의 해양사의 전개 과정에까지 연장하여 한국 해양사의 전 체계를 온전히 정리해가려 한다.

2001년

-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저자 : 엔닌 | 역주 : 김문경(해상왕장보고연구회 회장)
- 7~10세기 한·중·일 교역연구문헌 목록·자료집(비매품)
해상왕장보고연구회 편
- 해상왕 장보고의 국제무역활동과 물류(비매품)
편저 : 김형근(목포해양대학교 교수) 외 8명

2002년

- 대외문물교류연구(비매품)
대표저자 : 권택영(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외 6명
- 해상왕 장보고 그는 누구인가?(비매품)
대표저자 : 최광식(고려대학교 교수) 외 3명
- 장보고 관련 서술의 종합적 검토(비매품)
- 국사교과서와 한국사 개설서를 중심으로 -
대표저자 : 장득진(국사편찬위원회) 외 1명
- 장보고 선박복원자료연구 1차년도 문헌 및 자료 검색 결과보고서(비매품)
대표저자 : 허일(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외 6명
- 張保阜關係研究論文選集 -韓國 篇-(비매품)
해상왕장보고연구회 편
- 張保阜關係研究論文選集 -中國·日本 篇-(비매품)
해상왕장보고연구회 편

2003년

- 세계인 장보고와 지구촌 경영
저자 : 최민자(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천년을 여는 미래인 해상왕 장보고
대표저자 : 최광식(고려대학교 교수) 외 3명
- 한국 최고의 전문가 17인이 진단한 21C 장보고 정신구현
대표저자 : 김성훈(중앙대학교 교수)
- 장보고 사이버무역 아카데미 설립 방안 연구(비매품)
저자 : 황상석(세계닷컴 대표이사)
- 청해진에 대한 종합적 고찰(비매품)
대표저자 : 윤근일(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 실장) 외 2명
- 대외문물교류연구 2(비매품)
대표저자 : 권택영(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외 6명
- 장보고 관련 유물·유적 지표조사보고서(비매품)
대표저자 : 최성락(목포대학교 교수) 외 6명
- 청해진 옛터 완도지역 지명 유래조사(비매품)
대표저자 : 김정호(전라남도 문화재위원) 외 3명
- 7~10世紀 韓·中·日 交易關係 資料 譯註 -韓國·中國 篇-(비매품)
번역 : 김문경(해상왕장보고연구회 회장)
- 7~10世紀 韓·中·日 交易關係 資料 譯註 -日本 篇-(비매품)
번역 : 김문경(해상왕장보고연구회 회장)

해양사의 관점에서 본 우리 역사

- 제1장 총론 해양사의 관점에서 본 우리 역사
- 제2장 동북아시아 연안항로의 개통과 해양문화
- 제3장 연안항로의 경색과 황해 횡단항로의 개척
- 제4장 장보고 선단의 대두와 동아시아 해상무역
- 제5장 능창·견훤·왕건의 해양 쟁패와 해상세력
- 제6장 해양강국 고려의 해상무역과 해양력
- 제7장 해상세력의 퇴락과 왜구의 침탈
- 제8장 임진왜란과 전후 사정

